

연구보고 2011-13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문희 양미선 조혜주 정은미

머 리 말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에는 이들의 초기 사회 적응, 자녀양육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므로 결혼이민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정책이 강화되었다. 그 동안 여성을 위한 정책 중 한 부분으로서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부모 대상 자녀 양육지원과 자녀 대상 발달지원으로 사업 자체를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변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업 수혜와 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효율화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업 수혜와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확대 추이, 다문화가족 및 자녀 전국 분포 등을 분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관련 정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이민자 출신국 등 부모 특성별 차이를 분석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외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녀양육 관련 부모와 자녀 지원 사업의 수혜와 효과 및 특성별 요구도를 파악함.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보육기관 이용과 지원, 학부모로서의 부모 역할 수행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함.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각 부처 통계, 인터넷 검색 등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환경, 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사업별 인지, 수혜 및 결과,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센터 방문교육 담당자, 방문교육 지도사,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 실시
 - 과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2. 다문화가족의 특성

-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가구 특성, 부모 특성, 아동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평균 가구원 수는 4.3명, 평균 자녀수는 1.64명으로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임.
 - 부인은 평균 31.3세, 남편은 12살 많은 43.1세로 부부 간의 세대가 다름. 남편의 경우 재혼이 12.7%이며, 14.4%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9.0%가 매일 술을 마시고 20.4%는 주 2-4회 술을 마심.
 - 결혼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임. 특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초등 이하 학력자가 각각 28.8%, 17.1%, 12.4%임.
 -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이주 여성의 주된 결정권이 남편보다 큼.
 - 부인의 한국어 능력 인식은 말하기, 내용 파악, 쓰기 각각 5점 평균으로는 3.39, 3.29, 3.14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음.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사용능력도 향상되나 8년 이상도 5점 만점에 모두 4점을 넘지 못함.
 - 결혼이민자 어머니는 자녀발달 상태에 대해 5점 평균으로 신체발달 3.05, 언어발달 3.03, 인지발달 3.08, 사회성발달 3.13으로 보통 정도라도 평가함.
 - 일본과 캄보디아 부모들은 자녀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다고 보는 비율이 높음.

3.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를 기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시댁식구 57.8%, 다문화 관련 기관이 13.7%임.
 -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댁식구가 37.4%로 가장 많고, 친정식구는 12.7%임.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7.7%임.
 - 결혼이민자 여성의 34.8%가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유

는 자조모임이 없기 때문 26.6%, 모임에 대한 정보 부족 18.4%, 모임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11.9%로 나타남.

- 부모역할에 대해 5점 평균으로 놀이하기 3.85, 음식 해주기 3.93, 문화공간 가기 2.70, 이야기하기 3.86, 책 읽어주거나 공부 봐 주기 3.49점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가장 부족함.
- 자녀양육 역량 대처 중 잘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14.5%임.
- 자녀 양육 정서는 5점 평균으로 양육 혼란 3.27, 짜증 2.52, 장래 걱정 3.53으로 혼란스러움과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자녀에 대한 교육 수준 기대는 대학교 52.5%, 대학원 42.9%로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희망함.
- 자녀 중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54.6%이며, 이 중 5% 정도는 어학교사에게 배우고 있음. 한편 현재 안 가르치는 경우도 82.2%가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함.

4.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로 아이가 아직 어려서가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가 12%, 추가 비용 부담이 4.4%를 차지함.
 - 기관 이용 자녀 중 기관에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65.5%이고,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육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방과 후 특별지도가 41.7%로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독서지도, 멘토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등이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없다는 응답이 24.5%임.
 - 자녀가 기관 이용 시 어려움에 대해 준비물 준비가 5점 평균으로 1.98점으로 가장 낮고, 알림장 해독 2.20점, 가정통신문 해독이 2.24점이고, 교사·원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2.82점으로 가장 어려움이 많음.

-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로 준비물 준비가 5점 평균 2.05, 가정통신문 해독이 2.25로, 학교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있다가 24.5%를 차지함.
 - 주관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6.6%로 가장 많고, 복지관, 종교기관, 행정기관은 각각 5~9% 수준임.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 66.3%,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 교육 8.8% 순으로 나타남.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부모지원사업의 이용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2가지 부모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는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의 두 가지 방문교육사업이 62%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대부분의 사업 인지도는 30%대이며, 육아정보 나눔터와 멘토 프로그램은 각각 24.3%, 19.8%임.
 - 부모지원사업을 인지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54.5%가 잘 몰라서임. 다음으로 10.0%는 너무 멀어서, 7.2%는 교통편이 없어서임.
 - 부모지원사업 이용 경험은 부모방문교육 42.3%, 한국어방문교육 36.6%로 가장 많음.
 - 부모지원사업 미이용자의 사유는 도움이 안 됨 1.3%, 프로그램이 별로가 1.7%로 약 3% 정도가 프로그램 때문임.
 - 부모지원사업 이용 중단한 경험 비율은 16.9% 정도이며, 그 이유는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24.7%로 가장 많지만 멀어서도 14.4%임.
 - 부모지원사업 중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는 한국어 방문교육이 5점 평균으로 4.59, 부모방문교육 4.53으로 가장 높음.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방문 한국어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자녀 가족 나들이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음.

- 앞으로 받고 싶은 서비스는 부모방문교육 35.3%, 한국어 방문교육 31.8%로 30% 대로 가장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의 자녀지원사업의 이용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녀 대상 사업도 인지율은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55.3%, 48.0%로 가장 높고, 언어발달지원사업이 39.9%이며, 이외 이중언어 교실, 무료 건강검진, 학습지도, 한국 문화이해교육, 상담 및 치료, 무료 방문학습지가 20%대이며, 멘토프로그램이 15%, 예체능 교육 8.7% 수준임.
- 자녀지원사업 이용은 견학 및 체험활동과 자녀생활방문교육이 47.6%, 45.6%로 가장 높고, 멘토, 한국어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무료건강검진, 한국문화이해 30%대, 이주언어교육 18%로 가장 낮음.
 - 지원사업 미이용 이유는 교육·보육기관 이용 20.8%, 멀어서 11.4%임.
 - 자녀 서비스 이용 중단 비율은 6.4% 정도이고, 이유는 멀어서가 17.9%이며, 9.4%는 아이가 싫어해서, 3.4%는 잦은 시간변경임.
- 자녀 대상 사업 중 도움 정도는 자녀생활지도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가 각각 15% 수준으로 높음.
-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자녀 서비스로 학습지도와 무료 방문학습지 비율이 높음.

6. 정책제언

□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자녀발달 지원 사업, 부모 지원체계 강화로 나누어 정책방안을 제시함. 상당 부분 여건 성숙을 요하므로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임

가.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 센터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효율적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사업 전문인력 충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여건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홍보, 교육, 상담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평균 3명까지 증원하고, 상담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 접근성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직접 지역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경우 교통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지역에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함.
 - 농어촌이나 도농형 지역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설치하여 교육 시에만 임시로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여권과, 자치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국어 안내지를 배포하고, 시·군·구청 발행 신문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비치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적극 제공함.
- 방문서비스 강화
 -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부모나 배우자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방문교육으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방문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함.
 - 교육의 연속성, 연계성 측면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5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
 - 방문교육용 교재와 매뉴얼 개선 필요
 - － 한국어교육 교재수준 5단계나 7단계 정도로 세분화 하고, 문법·쓰기·말하기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어 이해력 강화하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함.
 - － 자녀생활서비스는 학년별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함.
 - － 부모교육서비스 매뉴얼도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과 부교재를 제공함.
 - 출신국별로 보조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함.

-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는 교육 종료 후 월 1회씩 3개월간 이루어지는 가정방문 형태가 가장 적합함.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도시, 농촌, 도농형 등 지역적 특성이나 수요자 특성 반영한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함.
- 수요조사를 통한 사전 기획 및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함.
-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담당하는 센터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함.

나.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체계화

-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능력 부족,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한글·한국어 교육을 운영함.
-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지 못할 가능성 많으므로 기본생활습관 교육도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을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자녀 방문 학습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체제를 구축함.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의 자원봉사자보다 방문교사를 통한 사업 강화가 더 적절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는 방문교육사업과 연계함.

□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문화, 정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이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극반, 합창반 운영 등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 일반 가정 참여 확대하여 일반 부모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

이중 언어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수요에 맞춰 이중언어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를 확대하고,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기준이나 양성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이중언어교육을 방문교육서비스로 전환하여 엄마와 자녀가 엄마 나라 말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기존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개발·보급함.

아동 이용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학습 능력을 도울 수 있는 언어프로그램과 기관 적응이나 또래 갈등 등의 정서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초등학교도 언어교육이나 학습지도 외에도 심리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역할 모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개별 교육에 활용함.

다. 부모 지원체계 강화

부모 역량 강화

- 생애주기를 3단계에서 임신·신생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 후기 6단계로 세분화하여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가족통합교육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자녀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발달 검사를 다문화가족에게 보급하는 등 아동발달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부모 대상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 활성화
 -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준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함.
 - 초등학교에서 1~2월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입학프로그램을 운영함. 필요시 센터가 전문강사를 파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입학준비 프로그램을 체험방식으로 개선함.

- 기관 및 초등학교에서 부모 지지체계 구축
 -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멘토사업과 연계하여 결연관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지원함.
 - 부모교육 방문사업 교육내용에 한국어 교육을 포함함.
 - 배우자 교육은 정기 프로그램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시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여 방문교육 사업으로 운영함.
- 결혼이민자 지지체계 강화
 - 육아정보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온라인, 오프라인 자조 모임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지원함.
 -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출신국 언어를 통한 자원봉사나 일일교사 등으로 참여를 고려함.
 - 결혼이민자와 일반인의 네트워크를 강화함.
-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 강화
 - 전문 상담인을 확충하며 다문화가족 상담사 교육시스템을 마련함.
 - 다문화가족과 접촉이 많은 방문지도사, 통번역사 등이 교육서비스와 함께 상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을 강화함.
 -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 긴급 상담전화, 한국 여성 상담센터 등 기존 상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지원을 확대함.
 -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다국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함.
- 결혼이민자 교육, 취업훈련 기회 확대
 - 이주 여성 평생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함.
 - 결혼이민자 대상의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함.
 -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거나 전문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훈련 기회를 확대함.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3
4. 선행연구	8
II.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 사업	16
1.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	16
2.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사업	20
3. 민간단체 지원 사업 사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3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요구	36
III. 다문화가족의 특성	50
1. 다문화가족의 가구 특성	50
2. 다문화가족 부모의 특성	57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 특성	82
4. 정책 시사점	85
IV. 자녀 양육 실태와 기대	88
1. 주 양육자와 양육 지원	88
2. 부모의 역할	95
3. 부모의 양육태도	106
4. 자녀에 대한 기대	115
5. 자녀양육 제 특성 간의 관련성	121
6. 정책 시사점	128

V.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132
1.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132
2. 초등학교 이용	144
3. 사교육 기관 이용	150
4. 정책 시사점	154
VI.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157
1. 부모지원 서비스	157
2. 자녀발달 지원서비스	174
3. 정책 시사점	190
VII. 정책 제언	193
1.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강화	195
2.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200
3. 부모 지원체계 강화	204
4. 맺는말	210
참고문헌	211
부 록	217

표목차

〈표 I-3- 1〉 설문조사 내용	5
〈표 I-3- 2〉 지역규모별 응답자 출신국 특성	6
〈표 I-3- 3〉 조사된 결혼이민자 출신국과 외국인 아동 분포	6
〈표 I-3- 4〉 지역별 조사 대상가구의 자녀 연령 분포	7
〈표 I-3- 5〉 심층면접 일정	8
〈표 II-1- 1〉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2010~2011	16
〈표 II-1- 2〉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2011년 1월 기준	17
〈표 II-1- 3〉 결혼이민자 자녀수 추계	18
〈표 II-1- 4〉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2009, 2011	19
〈표 II-1- 5〉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자 성 및 출신국 분포: 2009	20
〈표 II-2- 1〉 다문화가족 종합적 생활환경 사업	22
〈표 II-2- 2〉 결혼이민자 모의 한국어·한국 이해 지원 사업	23
〈표 II-2- 3〉 결혼이민자 모의 부모역할 지원 사업	24
〈표 II-2- 4〉 시·도별 지자체 사업 중 부모지원사업 내용	25
〈표 II-2- 5〉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지원 사업	25
〈표 II-2- 6〉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사업	26
〈표 II-2- 7〉 다문화가족 영유아 이용 보육시설 유형 분포	27
〈표 II-2-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발달 지원 사업	28
〈표 II-2- 9〉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사업 내용	28
〈표 II-2-10〉 지방정부 보육특별사업 중 다문화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29
〈표 II-2-11〉 다문화가족 자녀 학력 지원 사업	29
〈표 II-2-12〉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30
〈표 II-2-13〉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내용	32
〈표 II-2-14〉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수련활동 지원 사업	32
〈표 II-3-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모역량 강화 사업 지원 사례	34
〈표 II-3-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사례	35
〈표 II-4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36
〈표 II-4 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37

〈표 II-4-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38
〈표 II-4-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별 이용현황	38
〈표 II-4-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별 이용현황	38
〈표 II-4-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별 사업 내용: 2010년	42
〈표 III-1- 1〉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51
〈표 III-1- 2〉 가족관계별 동거 비율	51
〈표 III-1- 3〉 연령구분별 평균 자녀수	52
〈표 III-1- 4〉 자녀 출생 배경	53
〈표 III-1- 5〉 부모나 조부모 한국인 여부	53
〈표 III-1- 6〉 월 평균 가구소득	54
〈표 III-1- 7〉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55
〈표 III-1- 8〉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 여부	56
〈표 III-2- 1〉 부인과 남편 연령	57
〈표 III-2- 2〉 현재 결혼 상태	58
〈표 III-2- 3〉 현재 남편과의 결혼 기간	59
〈표 III-2- 4〉 한국 거주기간	60
〈표 III-2- 5〉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처음 한국에 온 목적	60
〈표 III-2- 6〉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및 기간	61
〈표 III-2- 7〉 국적 미취득자 현재 체류 자격	62
〈표 III-2- 8〉 부인 학력수준	63
〈표 III-2- 9〉 남편의 학력수준	63
〈표 III-2-10〉 남편의 직업	64
〈표 III-2-11〉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 본 경험	65
〈표 III-2-12〉 현재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일(복수응답)	66
〈표 III-2-13〉 취업한 부인의 월 평균 수입	67
〈표 III-2-14〉 취업 희망 이유(복수응답)	68
〈표 III-2-15〉 현재까지 받아본 취업교육(복수응답)	69
〈표 III-2-16〉 취업교육 지원 기관(복수응답)	70
〈표 III-2-17〉 취업교육 참여 의향	71
〈표 III-2-18〉 질병·장애가 있다는 비율	72
〈표 III-2-19〉 부인과 남편의 장애등급	72

〈표 III-2-20〉 남편의 음주 빈도	73
〈표 III-2-21〉 결혼이민자 부인의 음주 빈도	74
〈표 III-2-22〉 부부관계 개요	75
〈표 III-2-23〉 출신국별 부부관계: 5점 척도	75
〈표 III-2-24〉 의사결정 방법 개요	76
〈표 III-2-25〉 의사결정 방법: 생활비 지출과 자녀 양육·교육	76
〈표 III-2-26〉 의사결정 방법: 주택 매매·이사와 부모님 용돈	77
〈표 III-2-27〉 한국어 실력 개요	78
〈표 III-2-28〉 한국어 실력: 5점 척도	79
〈표 III-2-29〉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실력 차이	80
〈표 III-2-30〉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개요	81
〈표 III-2-31〉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5점 척도	81
〈표 III-3- 1〉 어머니의 자녀 발달상태 인식 개요: 또래와 비교	83
〈표 III-3- 2〉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발달상태: 5점 척도	84
〈표 IV-1- 1〉 집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복수응답)	89
〈표 IV-1- 2〉 아이 기르는 데 도움 주는 사람(복수응답)	90
〈표 IV-1- 3〉 아이를 기르는데 직접적인 도움 주는 사람	91
〈표 IV-1- 4〉 양육 관련 정보·상담 지원해 주는 사람	92
〈표 IV-1- 5〉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93
〈표 IV-1- 6〉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참여 빈도	94
〈표 IV-1- 7〉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94
〈표 IV-2- 1〉 평소의 부모역할 개요	95
〈표 IV-2- 2〉 평소의 부모역할: 5점 척도	96
〈표 IV-2- 3〉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방문횟수 개요	97
〈표 IV-2- 4〉 6개월 동안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경험이 있다는 비율 ..	98
〈표 IV-2- 5〉 6개월 동안 온가족 문화활동·여행 함께한 횟수	99
〈표 IV-2- 6〉 자녀양육 역량 개요	100
〈표 IV-2- 7〉 평소의 부모역할: 5점 척도	100
〈표 IV-2- 8〉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개요	101
〈표 IV-2- 9〉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돌보기	102
〈표 IV-2-10〉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자녀교육	103

〈표 IV-2-11〉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와 놀아줌	103
〈표 IV-2-12〉 남편과 갈등 경험 비율과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104
〈표 IV-2-13〉 시택식구와 갈등 경험 비율 및 갈등시 주로 따르는 의견 ..	105
〈표 IV-3- 1〉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개요	107
〈표 IV-3- 2〉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5점 척도	107
〈표 IV-3- 3〉 부인이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태도 개요	108
〈표 IV-3- 4〉 부인이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태도: 5점 척도	109
〈표 IV-3- 5〉 모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차이	110
〈표 IV-3- 6〉 자녀 양육 가치	112
〈표 IV-3- 7〉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개요	113
〈표 IV-3- 8〉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5점 척도	113
〈표 IV-3- 9〉 가정 내·외 자녀 양육환경	114
〈표 IV-3-10〉 가정 내·외 자녀 양육환경 만족도: 5점 척도	115
〈표 IV-4 1〉 자녀에게 희망하는 교육 수준	116
〈표 IV-4 2〉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여부 및 교육자(복수응답)	117
〈표 IV-4 3〉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의향 및 본국 거주 희망	118
〈표 IV-4 4〉 자녀 성장한 후 도구적 역할 기대	120
〈표 IV-5- 1〉 중다회귀분석 사용 변수의 평균	122
〈표 IV-5- 2〉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3
〈표 IV-5- 3〉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4
〈표 IV-5- 4〉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6
〈표 IV-5- 5〉 어머니의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6
〈표 IV-5- 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7
〈표 IV-5- 7〉 어머니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128
〈표 V-1- 1〉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복수응답)	133
〈표 V-1- 2〉 기관 이용 월 평균 비용	134
〈표 V-1- 3〉 이용 기관에서 하는 특별활동 수	135
〈표 V-1- 4〉 이용 기관에서 하는 특별활동(복수응답)	136
〈표 V-1- 5〉 이용 기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특별 프로그램(복수응답) ..	137
〈표 V-1- 6〉 모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자녀의 특별활동 수의 차이 ..	137
〈표 V-1- 7〉 기관 이용 시 어머니의 어려움 개요	138

〈표 V-1- 8〉	기관 이용 시 애로 정도: 4점 척도	139
〈표 V-1- 9〉	알림장 해독 등 애로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복수응답) ...	141
〈표 V-1-10〉	이용 기관에서 모국어 알림장·가정통신문 받아 본 경험 ...	142
〈표 V-1-11〉	이용 기관 전반적 만족도	143
〈표 V-1-12〉	기관 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43
〈표 V-2- 1〉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특별 프로그램(복수응답)	144
〈표 V-2- 2〉	초등학교에 매월 내는 비용	145
〈표 V-2- 3〉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해독 애로	146
〈표 V-2- 4〉	초등학교의 준비물 준비 애로	147
〈표 V-2- 5〉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주관 기관(복수응답)	148
〈표 V-2- 6〉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149
〈표 V-2- 7〉	초등학교 전반적인 만족도	150
〈표 V-3- 1〉	사교육 기관에서 받는 과목 수	151
〈표 V-3- 2〉	사교육 기관에서 받는 과목(복수응답)	152
〈표 V-3- 3〉	사교육 기관 월평균 비용	153
〈표 V-3- 4〉	사교육 기관 전반적인 만족도	154
〈표 VI-1- 1〉	부모지원사업 인지율	158
〈표 VI-1- 2〉	부모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159
〈표 VI-1- 3〉	부모지원사업 인지자 중 이용 경험률	160
〈표 VI-1- 4〉	부모지원사업 인지자 중 서비스 미이용 사유(복수응답)	161
〈표 VI-1- 5〉	부모지원사업 이용 중단 경험	162
〈표 VI-1- 6〉	부모지원사업 이용 중단 이유(복수응답)	163
〈표 VI-1- 7〉	부모지원사업이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개요	164
〈표 VI-1- 8〉	부모지원사업이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5점 척도	165
〈표 VI-1- 9〉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지원사업: 1, 2, 3순위 ...	165
〈표 VI-1-10〉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 부모지원사업: 1순위	166
〈표 VI-1-11〉	부모지원사업 이용 희망 비율	168
〈표 VI-1-12〉	부모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168
〈표 VI-1-13〉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3순위	169
〈표 VI-1-14〉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순위	170
〈표 VI-1-15〉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수혜 비율	171

〈표 VI-1-16〉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제공 기관	172
〈표 VI-1-17〉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제공 방법	172
〈표 VI-1-18〉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개요	172
〈표 VI-1-19〉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5점 척도	173
〈표 VI-2- 1〉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도	175
〈표 VI-2- 2〉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176
〈표 VI-2- 3〉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도 중 이용 경험률	177
〈표 VI-2- 4〉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도의 미이용 이유(복수응답)	178
〈표 VI-2- 5〉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중단 경험	179
〈표 VI-2- 6〉 지역별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중단 사유(복수응답)	180
〈표 VI-2- 7〉 자녀발달지원사업이 자녀양육 도움 정도 개요	181
〈표 VI-2- 8〉 자녀발달지원사업 자녀양육 도움 정도: 5점 척도	182
〈표 VI-2- 9〉 자녀발달지원사업이 자녀 성장·발달에 도움된다는 비율	182
〈표 VI-2-10〉 가장 도움이 된 자녀발달지원사업: 1순위	183
〈표 VI-2-11〉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비율	184
〈표 VI-2-12〉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185
〈표 VI-2-13〉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1, 2, 3순위	185
〈표 VI-2-14〉 자녀발달지원사업 중 희망하는 서비스: 1순위	186
〈표 VI-2-15〉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188
〈표 VI-2-16〉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 제공 기관	188
〈표 VI-2-17〉 기타 기관 자녀발달 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189
〈표 VI-2-18〉 기타 기관 자녀발달 지원서비스의 도움되는 정도	189
〈표 VI-2-19〉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이 도움되는 정도: 5점 척도	190
〈표 VII-1- 1〉 정책 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193

그림 목차

[그림 IV-3-1]	5점 척도 비교	109
[그림 IV-5-1]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제 변수 간의 관계 모형	123
[그림 IV-5-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제 변수 간의 관계 분석 결과	125
[그림 V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지원 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160
[그림 VI-1-2]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부모지원사업	166
[그림 VI-1-3]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69
[그림 VI-2-1]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177
[그림 VI-2-2]	자녀발달지원사업 중 자녀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	183
[그림 VI-2-3]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18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2009년 167,090명에 비해 8.7% 증가하였으며(행정안전부, 2010),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1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총 105,502명이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68,069명으로 64.5%를 차지하며, 특히, 0~2세 영아가 44,217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의 43.7%이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고,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령기 아동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자 자녀 중에는 이전 결혼에서 출산하여 입양 형식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가 약 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지원 정책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 입국 초기에는 초기 사회 적응, 자녀양육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2006년에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정책이 강화되었다. 그 동안 여성을 위한 정책 중 한 부분으로서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어서 사업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부모 대상 자녀 양육지원과

자녀 대상 발달지원으로 사업 자체를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증가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결혼준비 및 가족형성기의 국내 적응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 결혼이민자 자녀의 60%가 영아기에 있고, 조만간 학동기에 접어드는 아동수가 증가하게 되어 학교 준비 기간인 영유아기 동안 부모와 아동 대상의 양육 관련 지원 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는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언어 발달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이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언어, 양육 관련 포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양육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 확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달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1개소로 출발하여 2011년에 200개소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대, 양육태도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양육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과 이용 실태를 자녀 양육기·교육기의 아동과 부모의 요구와 정책을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부 주도로 몇 차례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소규모 조사들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내용은 가족 전체를 포괄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조사 문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은 공급자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피드백이나 요구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1년에 새로이 실시되는 자녀생활 서비스와 방문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요자의 평가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업 수혜와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효율화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역사회 중심 자녀 양육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확대 추이, 다문화가족 및 자녀 전국 분포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한 2011년도 중앙 및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관련 정책을 분석하며, 아울러 정부 사업 이외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대, 양육 역량, 양육 태도 및 정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부부 권한 특성, 가족내·외적 자녀양육 환경 및 인적 물적 지지 등 자녀 양육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결혼이민자 출신국 등 부모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제공되는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와 효과를 파악하고, 수요자 특성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요구도를 파악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지방정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주요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 및 효과를 파악하고, 수요자 특성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요구도를 파악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지원,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부모역할 수행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영유아 양육실태, 지원 및 요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 자녀양육 역량 강화, 취학 전 영유아 자녀의 발달 지원 방안 등 세부적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각 부처 통계 검토, 인터넷 검색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초 자료 수집·분석하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안 중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생활환경 개

선, 부모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환경, 각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사업별 인지, 수혜 및 결과,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조사 대상은 200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2,000가구를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배치가 다문화가족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 3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1년 신규 센터로 일정상 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또한 일부 센터가 조사 협조를 거부하여 시도별로 센터당 조사 부수를 조정하였다.

조사대상 2,000가구는 결혼이민자 국적 분포를 준거로 비례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영유아와 초등학생 비율을 8: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 미이용자가 일부 포함되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조사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중앙다문화가족지원단¹⁾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사업 팀장이 조사자 교육, 배분 및 조사 관리와 지도 역할을 담당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등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전달교육으로 실시하였다.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당 지역 방문지도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및 간담회 시 연구자가 참여하여 전반적 사업 내용과 설문지 및 조사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방문지도사 등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본 조사를 실시,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사 시기는 방문지도사가 하반기 방문지도 활동을 시작하는 2011년 8월 1일부터 한 달 동

1) 2011년 8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변경됨.

안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조사표 작성 이후 전문가 서면 자문과 도시와 농어촌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 내용은 자녀 양육환경, 자녀양육 특성, 부모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수혜 및 욕구, 아동 발달 지원 사업 수혜 및 욕구로 구성하였다(표 I-3-1 참조).

설문 조사표는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라 한국어 이외 8개 국어²⁾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표 I-3-1〉 설문조사 내용

구분	영역	조사 내용
자녀 양육 환경	가구 특성	가구원, 소득, 기초생보자 여부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취업, 소득, 음주 정도, 부부권력 특성,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량
	가족 내외적 지지	양육지원 인적, 물질 지원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여부 및 추가 요구
자녀 양육 특성	자녀 가치 및 기대	자녀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 실태	양육관련 태도와 정서, 정서, 아버지 양육 참여
	기관 이용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실태와 요구
부모 역량 강화 사업	사업 인지, 수혜 및 수혜 필요성	각 주제에 대한 인지, 수혜, 필요성, 도움여부
	우선순위	수혜 사업 도움우선순위 사업 수혜 욕구 우선순위
자녀 발달지원 사업	사업 인지, 수혜 및 수혜 필요성	각 주제에 대한 인지, 수혜, 필요성, 도움여부
	우선순위	수혜 사업 도움 우선순위 사업 수혜 욕구 우선순위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조사완료 대상자는 총 1,826명으로, 출신국은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출신으로 한족 등과 조선족이 각각 224명, 202명이며, 다음은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이다. 지역분포는 대도시 445명, 중소도시 476명 읍·면 905명으로, 읍·면에서 베트남 출신 비율이 높다(표 I-3-2 참조).

본 조사 대상 국적 분포를 우리나라 외국인 아동 분포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비중은 낮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의 비중은 큼을 알 수

2) 영어, 필리핀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임.

있다. 이는 본 조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1-3-2〉 지역규모별 응답자 출신국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1,826	(100.0)	445	(100.0)	476	(100.0)	905	(100.0)
중국(조선족)	202	(11.1)	33	(7.4)	65	(13.7)	104	(11.5)
중국(한족 등)	224	(12.3)	75	(16.9)	65	(13.7)	84	(9.3)
베트남	497	(27.2)	123	(27.6)	115	(24.2)	259	(28.6)
필리핀	279	(15.3)	63	(14.2)	60	(12.6)	156	(17.2)
일본	180	(9.9)	43	(9.7)	56	(11.8)	81	(9.0)
대만	3	(0.2)	2	(0.4)	-	-	1	(0.1)
몽골	90	(4.9)	16	(3.6)	27	(5.7)	47	(5.2)
태국	97	(5.3)	19	(4.3)	22	(4.6)	56	(6.2)
캄보디아	166	(9.1)	39	(8.8)	41	(8.6)	86	(9.5)
우즈베키스탄	41	(2.2)	13	(2.9)	15	(3.2)	13	(1.4)
러시아	8	(0.4)	4	(0.9)	3	(0.6)	1	(0.1)
기타	39	(2.1)	15	(3.4)	7	(1.3)	17	(1.9)

〈표 1-3-3〉 조사된 결혼이민자 출신국과 외국인 아동 분포

단위: 명, %

구분	조사된 결혼이민자		외국인 아동 ¹⁾	
전체	1,826	100.0	151,154	100.0
중국 조선족	202	11.1	33,186	22.0
중국 한족	224	12.3	34,852	23.1
베트남	497	27.2	34,256	22.7
필리핀	279	15.3	13,937	9.2
일본	180	9.9	14,510	9.6
캄보디아	166	9.1	3,565	2.4
몽골	90	4.9	2,250	1.5
태국	97	5.3	2,082	1.4
미국	-	-	1,207	0.8
러시아	8	0.4	1,090	0.7
대만	3	0.2	576	0.4
인도네시아	-	-	576	0.4
중앙아시아	41	2.2	2,414	1.6
남부아시아	-	-	1,783	1.2
기타 동남아시아	-	-	329	0.2
기타 나라	39	2.1	3,697	2.4

자료: 1)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한편, 조사 대상 가구의 자녀수 연령 분포는 <표 I-3-4>와 같이 5세 미만아가 2,004명이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이 892명이며,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179명이었다.

<표 I-3-4> 지역별 조사 대상가구의 자녀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1,806	(100.0)	443	(24.5)	472	(26.1)	891	(49.3)
0세	228	(12.6)	53	(12.0)	63	(13.3)	112	(12.6)
1세	338	(18.7)	82	(18.5)	83	(17.6)	173	(19.4)
2세	380	(21.0)	124	(28.0)	90	(19.1)	166	(18.6)
3세	433	(24.0)	103	(23.3)	112	(23.7)	218	(24.5)
4세	352	(19.5)	93	(21.0)	93	(19.7)	166	(18.6)
5세	273	(15.1)	49	(11.1)	71	(15.0)	153	(17.2)
6~8세	601	(33.3)	131	(21.8)	149	(24.8)	321	(36.4)
9~11세	291	(16.1)	55	(12.9)	79	(16.7)	157	(17.6)
12~17세	179	(9.9)	30	(6.8)	54	(11.4)	95	(10.6)
18세 이상	39	(2.2)	6	(1.4)	9	(1.9)	24	(2.7)

3) 분석 방법

조사 결과는 출신국, 거주지, 한국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교차분석과 F 및 t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등 일부 항목은 이들 3가지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역할, 부모역량 등 주요한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정 요인을 규명하였다.

다. 집단 심층면담

센터 방문교육 담당자, 방문교육 지도사,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둔 조사 대상자를 둔 결혼이민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5회의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미세한 부분을 파악하고 욕구를 도출하여 설문조사 자료와 함께 보고에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표 1-3-5〉 심층면접 일정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내용
서울(8.18)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 5명 서울지역 방문지도사 5명	
음성(8.2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5명, 다문화센터 담당자 2명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실태, 어려움, 요구사항 파악
구미(8.25)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5명, 다문화센터 담당자 2명	방문사업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천안(10.4)	다문화센터장 및 담당자 6인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과제 추진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로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관련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연구,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생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연구는 양육 실태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육아 스트레스, 양육 실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1) 양육 실태 및 차이 결정 요인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양육 특성 관련 연구로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정기선 외(2007) 등은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어머니 개인 변인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

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진숙(2008)도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개인 변인에 따라 양육태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하고, 자녀와 의사소통 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태도가 좀 더 자율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는 적다고 보고하였다.

마미정 등(2010)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자녀 부모 총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아버지의 경우 결혼 연수, 자녀수, 언어 사용 수단, 한국어 실력에서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외국인 어머니는 연령, 결혼 연수, 자녀수, 한국어 실력에서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기존의 결혼 이민자 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결혼 연수, 자녀수, 한국어 실력 등 개별요인에 맞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동석 등(2008)은 배우자 지지, 자녀수, 배우자 외 지지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모든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2007)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영아들의 주 양육자이며, 대체적으로 3세 이후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정보는 주로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얻으며,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제 결혼가정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적었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위해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현경(2009)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 인식이 연령, 국적, 체류 기간, 월평균 수입, 부부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한 문화적응에 있어서 문화적응 하위 요인인 '통합'은 학력 변인에 따라, '동화'는 국적과 월평균 수입, '분리'는 국적과 체류 기간, 부부 동거 여부, '주변화'는 국적과 월평균 수입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2)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최나야 등(2009)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김춘화(2009)는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전, 한국 생활이 짧은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짧은 경우, 자녀

연령이 3세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양육지원으로는 응답자의 70%이상이 어린이집·유치원의 안내문을 읽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한국생활 적응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에 맞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선미 등(2010)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자녀 기질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가, 학력, 한국어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관계에서는 출신국가, 취업 여부, 그리고 학습 기대 스트레스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효능감에서는 어머니의 출신국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 불안감에서는 한국어 실력, 그리고 부모역할과 흥미에서는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지도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 취업 여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제한성에서는 취업 여부, 한국어 실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애정성에서는 출신국가, 취업 여부, 한국어 실력, 연령, 그리고 반응성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 취업 여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어머니 양육태도 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자녀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는 김민경 등(2009)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이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숙(2008)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언어 능력,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유아와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선희(2010)는 유아, 유아의 어머니,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 공격, 충동적 행동문제 수준은 낮아지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 위축, 산만, 공격, 충동적 행동문제 수준은 낮아졌다고 하였고,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서현·이승은(2007)의 연구는 농촌 지역 다문화가족 유아가 경험하는 교육적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 국제 결혼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 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 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 문제, 또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표출을 회피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박경자·김송이(2007)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다문화가족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 표상과 자아 지각,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 남아가 교실 내에서 위축된 경향을 보였으나 나머지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와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실시된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부모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포괄적 정책 연구로 윤동화(2009)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사회 정책과 교육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차원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먼저 사회정책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제공,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 도우미 지원 등을 들었고, 교육정책 지원 제도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교육 역할을 상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유아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 연구는 2008년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되었는데, 먼저 문무경 등(2008)은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다문화가정 아동 육아지원 실태 및 기관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배경 영유아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양성교육 및 현직 교육을 강화하고,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지침들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한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은영 등(2010)은 다문화지원센터와 종사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체계는 지원 창구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 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영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과 유치원·보육시설 교원에 대한 지원, 학교·지역 간 영유아지원 모범 사례 공유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요청으로 추진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연구(서문희 외, 2010)에서는 영유아 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도입국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문제를 검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아동 대상 방문 지도 사업 강화 등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박인옥(2009)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담보로 하는 운영방식, 명확한 지침 및 교재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순형 등(2006)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출신국 언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 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김유경 등(2008)은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다국어로 된 보육·양육관련 자료 제공과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서해정 외(2009)는 경기도 특성에 부합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교육 및 자녀양육 정보 제공, 현 보육시설 내의 다문화 보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와 다문화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

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력 증진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이재분 등(2008)은 학생의 제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가 자녀교육 지원과 함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이선 등(2009)도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스스로 과제를 예측,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역량을 증진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교 관련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교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 학부모 활동에도 적극 참여 등을 부모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자녀교육 과정에 아버지의 참여를 확보하여 아버지 자녀교육 참여 모델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장기간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외, 김영주(2010)는 젠더 관점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관련 정책 강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정신·심리적 건강의 지원으로 확대를 강조하였고, 다문화 관점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선, 문화적 차이를 정책에 고려,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다. 육아지원기관 생활에 대한 연구

1) 기관 적응 실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육아지원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관에서 교사나 또래와의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이 육아지원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안정을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미경 등(2007)은 교사들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이는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또래와 교사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적 미숙으로 침묵과 장문 단답이 보이고 있었

고, 또래관계는 혼자 놀이 하거나 소극적으로 친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같은 또래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과 함께 함으로써 '다름'의 갈등과 '이해', '수용'을 경험하고 있고, 교사는 이들의 부적응 문제를 치유하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감과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키고 부적응하게 한다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났다.

구수연(2007)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동 관찰 및 교사 면담 방법을 통하여 아동발달 측면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일반가정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놀이나 또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교사들 인식은 다문화가족 아동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심과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김희태·권영덕(2007)도 일반가정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처음에는 한국어로 의사 표현이 서투르며 일반아동과의 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고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경숙 등(2007)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각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들의 유치원 활동 참여 정도, 의사소통 수월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도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2)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관 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족 변인과 교사와 일반 유아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등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윤갑정·고은경(2006)은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 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의한 차이점 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변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오재연 등(2009)은 유아의 한국어 실력이 더 높을수록 개인적 기술 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가 적게 나타났고,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외모가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아일수록, 친구에게 따돌림 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환경적응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민영 등(2010)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에 따라 살펴보고, 유아, 어머니,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정서적응은 외체계 변인인 어머니에 대한 외적 지원 중 심리적 지원에 가장 영향력이 컸고, 친구 적응과 일과 적응의 경우 미시체계 변인인 또래 관계의 친사회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신선희 등(2010)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유아의 비사교성과 공격성이 낮고,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고,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유치원 적응 유성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호요인은 유아의 친구 지지가 높고, 자아통제가 낮으며, 애착이 높고,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유치원 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영식 등(2010)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친근감과 관심이 많을수록 교사와 유아 간의 친근감과 갈등 완화로 나타나고,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민정 등(2010)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심층면담과 유아 대상 비참여 관찰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에 대해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이라는 중심현상 안에서 교수-활동 참여의 어려움, 놀이 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부모의 양육 태도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적 조건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여건의 미비, 가정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을 나타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 교사와 또래의 지원, 유아의 언어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현경(2009)은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차이가 있었고, 부모 특성으로는 모취업 유무, 모의 출신국에 따라 육아교육기관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 관련 변인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II.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 사업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아동 규모를 살펴보고,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2011년도 사업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전달 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양육 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1.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

가. 증가 추세

<표 II-1-1>은 2010년~2011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나타난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연령별 자녀수이다.

<표 II-1-1>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2010~2011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0년				
		전체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
			소계	외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0-18세	151,154	121,935	105,502	98,531	6,971	16,433
만0세	16,428	15,248	15,001	14,209	792	247
만1세	17,304	15,377	15,096	14,367	729	281
만2세	16,607	14,448	14,120	13,321	799	328
만3세	15,584	9,871	9,572	9,048	524	299
만4세	10,775	7,912	7,613	7,153	460	299
만5세	8,844	7,026	6,667	6,180	487	359
만6세	7,995	5,894	5,503	5,112	391	391
만7세	6,710	5,516	5,033	4,641	392	483
만8세	6,393	5,393	4,733	4,366	367	660
만9세	6,397	5,303	4,484	4,129	355	819
만10세	6,383	4,911	3,910	3,576	334	1,001
만11세	5,995	4,847	3,762	3,459	303	1,085
0-11세	125,415	218,834	197,234	184,633	12,601	21,600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1), 2010년,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는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가 105,502명으로 이중 6,971명이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다. 2011년은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가 135,938명,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9,621명으로 2010년 대비 28.8%, 38% 증가하였다.

2010년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아동의 연령 분포는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68,069명으로 64.5%를 차지한다. 특히, 0~2세 영아가 44,217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의 43.7%이다. 2011년 연령별 외국계 주민 자녀도 만 6세 이하가 93,537명으로 전체의 61.8%이다. 2010년에는 영아 비중이 높은 데 비해 2011년은 만 3~4세가 대폭 증가하여 만 0~4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II-1-2〉 지자체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2011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 부모	
전체	151,154	135,938	126,317	9,621	15,216
서울특별시	24,084	21,928	18,059	3,869	2,156
부산광역시	6,837	6,161	6,043	118	676
대구광역시	4,475	4,055	3,984	71	420
인천광역시	8,868	7,909	7,242	667	959
광주광역시	3,403	3,186	3,148	38	217
대전광역시	3,439	2,925	2,772	153	514
울산광역시	3,233	2,806	2,727	79	427
경기도	37,519	33,461	29,771	3,690	4,058
강원도	5,161	4,752	4,698	54	409
충청북도	5,675	4,997	4,841	156	678
충청남도	9,119	8,239	8,040	199	880
전라북도	7,755	6,966	6,822	144	789
전라남도	9,764	8,970	8,913	57	794
경상북도	9,246	8,293	8,194	99	953
경상남도	10,996	9,883	9,664	219	1,113
제주도	1,580	1,407	1,399	8	173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표 II-1-2〉은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지자체별로 살펴본 것이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3,461명(24.6%)이며 이중 외국인 부모 자녀가 3,690명이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21,928명(16.1%)이다. 이중 외국인 부모 자녀가 3,869명으로 경기도에 비해

외국인 부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외국인 부모 자녀보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 II-1-3〉 결혼이민자 자녀수 추계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세	13,320	16,850	18,108	19,280	20,385	21,414	22,359	23,189	23,892	24,556	25,201	25,811
1세	15,501	13,018	16,468	17,698	18,844	19,923	20,929	21,853	22,664	23,351	24,000	24,631
2세	12,148	15,154	12,726	16,101	17,303	18,423	19,478	20,462	21,366	22,158	22,830	23,465
3세	8,495	11,876	14,814	12,442	15,741	16,916	18,012	19,043	20,006	20,889	21,664	22,321
4세	6,896	8,304	11,611	14,482	12,163	15,390	16,539	17,610	18,618	19,559	20,423	21,180
5세	5,777	6,742	8,118	11,352	14,158	11,891	15,047	16,170	17,218	18,203	19,124	19,967
소계	62,137	71,944	81,846	91,355	98,594	103,958	112,364	118,328	123,763	128,717	133,242	137,376
6세	4,688	5,683	6,633	7,987	11,169	13,930	11,700	14,805	15,910	16,941	17,910	18,816
7세	4,336	4,612	5,592	6,526	7,859	10,989	13,706	11,512	14,567	15,654	16,669	17,623
8세	4,415	4,266	4,538	5,502	6,422	7,732	10,813	13,485	11,327	14,333	15,403	16,401
9세	3,437	4,344	4,198	4,465	5,413	6,318	7,608	10,640	13,269	11,145	14,104	15,156
10세	3,329	3,382	4,274	4,130	4,393	5,327	6,217	7,486	10,469	13,056	10,966	13,878
11세	2,943	3,288	3,341	4,222	4,080	4,340	5,262	6,141	7,395	10,341	12,897	10,833
소계	23,148	25,577	28,576	32,833	39,336	48,636	55,305	64,069	72,936	81,470	87,949	92,707
0-11세	85,285	97,521	110,422	124,188	137,930	152,594	167,669	182,397	196,699	210,187	221,191	230,083
0-18세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자료: 설동훈·서문희·이상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이러한 아동은 결혼이민자 증가로 2015년에는 200,942명, 2020년에는 302,69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영유아도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자녀들은 0~6세의 취학이전 연령대에 모여 있으나 2020년이 되면 그들은 청소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민자 자녀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다(표 II-1-3 참조).

<표 II-1-4>에는 2011년과 2009년 자료로 출신 국가별 자료이다. 2009년 자료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각각은 96,116명과 3,681명이고, 도합 99,797명이다.³⁾

3) 92,690명보다 7,107명 더 많다. 보건복지부 기초현황자료는 결혼이민자 1세가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파악한 반면, 행정안전부의 집계통계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표 II-1-4> 출신국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2009, 2011

단위: 명

구분	2011	2009		
		전체	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계	151,154	99,797	96,116	3,681
중국(조선족)	33,186	24,349	22,665	1,684
중국(한족 등)	34,852	24,868	23,414	1,453
베트남	34,256	21,209	21,122	87
필리핀	13,937	10,417	10,343	74
일본	14,510	6,818	6,792	26
캄보디아	3,565	1,938	1,933	6
몽골	2,250	1,627	1,486	141
태국	2,082	1,617	1,589	28
미국	1,207	868	858	10
러시아	1,090	655	636	20
대만	576	441	418	23
인도네시아	576	434	432	2
중앙아시아	2,414	1,602	1,552	50
남부아시아	1,783	1,032	1,006	25
기타 동남아시아	329	250	250	0
기타 나라	3,697	1,671	1,620	51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재인용

<표 II-1-5>에서 자녀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94.2%, 남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5.8%이다. 그리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은 중국 한족 등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이다. 결혼이민자 수는 중국 조선족이 한족 등보다 그 수가 많으나 자녀수는 한족 등이 더 많다. 그 까닭은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선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중도입국 자녀에는 19세 이상 성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표 II-1-5〉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자 성 및 출신국 분포: 2009

구분	인원	비율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99,684	100.0
남성 결혼이민자 자녀	5,744	5.8
중국 조선족	1,505	1.5
중국 한족	1,010	1.0
미국	440	0.4
일본	353	0.4
기타	2,436	2.4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93,940	94.2
중국 조선족	22,860	22.9
중국 한족	23,834	23.9
베트남	21,117	21.2
필리핀	10,268	10.3
일본	6,480	6.5
캄보디아	1,923	1.9
몽골	1,597	1.6
태국	1,596	1.6
기타	4,265	4.3

자료: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 2009.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재인용

2. 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사업

가.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결혼이민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변경하고, 법무처적 작업을 통하여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기업을 총 망라하여 수록하는 사업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시행되는 매 5년 단위 계획으로, 제3조와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 질서 확립'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2011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2011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사업계획

정부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⁴⁾

2011년 현재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농수산식품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10개이고 총예산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하여 사업은 173개에서 165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1,751억원으로 2010년 1,110억원에서 57.8%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예산이 511억원에서 721억원으로 41%가 증가하였다.

지방정부는 2011년 858개, 예산 1,534억원으로 2010년 734개 사업, 1,818억원에서 사업수는 124개, 16.9%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15.6%인 284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개방과 외국인 인권 옹호 부분에서 감소 비율이 높고 영유아 양육 지원을 포함한 사회통합 부문 예산은 약 6% 정도 증가하였다.

본 글에서는 2011년 중앙부처 사업계획 중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부모에 대한 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 생활 개선은 의사소통, 민원처리 서비스 지원, 교통·주거 환경 및 복지·의료 환경 개선, 교육환경과 문화·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자녀와 관련된 정책은 2010년도와 유사하게 사회보장 수급권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도서관에 전용 자료실과 콘텐츠 구비,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생활체육 어울림 교실과 생활체육 어울림 캠프

4) 2010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 분석은 서문희 외(2010).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여성가족부를 참고

프 운영,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표 II-2-1〉 다문화가족 종합적 생활환경 사업

사업	개요	2011년 목표	부처	예산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결혼이민자 기초수급권 부여 - 긴급 복지 지원	- 수급권 1798명) - 긴급지원 31가구	보건복지부 시·군·구	별도예산 산출곤란
문화시설 다양성 부족 등 완화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자료실 조성	- 4개소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군·구	4억원
문화 관련 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 도서관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전용자료실 설치 - 언어권별 아동서 구입 -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 도서관 19개 지역 - 3,320책 구입 - 동화구연 150편	문화체육관광부 각 도서관	10억원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개선	- 생활체육 어울림교실 및 캠프 운영	교실 100개소 및 캠프 시·도 별 1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회	11억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다문화이해를 위한 생활 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 기획·운영	4개 과정 25회	문화체육관광부	2.37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복지·건강·보육(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서 다문화도서관을 설치, 운영한다.

2) 부모에 대한 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반적 역량 강화는 모두 자녀 양육에 필요하겠으나 자녀 양육과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 부모역할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부모가 한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프로그램이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부족은 각종 차별·인권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 부족과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정착한 결혼여성 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하여 출신국 새내기 이주자의 정착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번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를 포함한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한국어 강사 양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표 II-2-2 참조).

〈표 II-2-2〉 결혼이민자 모의 한국어·한국 이해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1년 목표	부처	예산
표준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150개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	33.36억원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 새내기 이주자 정착 도우미로 활용	1500명 양성	행정안전부	3.48억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한국어교육 운영 강화	- 주민자치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연계	200개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비예산 사업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200개소 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예산사업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파견 등	서비스 제공인력 210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0억원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 교육 교재 개발·보급 - 한국어 강사 양성, 강사 수준 및 관리 체계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 개발	교육자료 개발 50종	문화관광체육부	11.67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업 외에도 각 시도 사업으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결혼이민자 공부방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는 이주여성 한국어능력 시험을 지원하고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나) 부모 역할

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고 부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 부부관계, 자녀양육, 고부관계, 가정폭력 등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신 출산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좋은 부모 되기, 부모자녀 관계, 생활 및 학습 지도, 건강 영양 등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조모임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상호간·가족 간 문화·생활정보 소통 등을 위한 모임 결성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단위에서 자녀행복교실,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교육, 자녀교육 상담, 자녀 학교생활·교육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표 II-2-3 참조).

〈표 II-2-3〉 결혼이민자 모의 부모역할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1년 목표	부처	예산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 가족생활 전반사항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예산 (센터예산)
찾아가는 '좋은 부모교육'	- 생애주기(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별 양육정보제공 - 산전 분만 및 산후 아동 양육 지원 제공 -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17,000 가정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4억원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단	- 결혼이민자 상호간·가족 간 문화·생활정보 소통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지원	네트워크 참여자 8000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1억원
학교 문화가족 학부모 '자녀행복교실'	-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	학부모 1,000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3.7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지방정부의 자녀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서울과 울산시가 아동양육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외에 부모학교, 요리, 장난감대여 등 사업을 한다(표 II-2-4 참조).

〈표 II-2-4〉 시·도별 지자체 사업 중 부모지원사업 내용

지역	사업 내용	예산(억원)
서울시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실시 : 아동양육지원	28.52
울산시	- 아동양육서비스 확대	2.78
서울시 성동구	- 다문화가족 공동육아 프로젝트	0.70
경기도 오산시	- 다문화가정 부모학교	0.03
경상남도 진주시	- 영아발달 등 유아교육 및 학교입학 준비	0.54
대구시 중구	- 영양플러스사업 - 요리쿡! 조리쿡!	0.04
전라북도 김제시	- 다문화가족 장난감 대여사업	0.05
경상남도 창원시	- 결혼이민자 사랑방모임(한올타리)운영 · 이주 여성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	0.10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다) 임신·출산 지원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은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 분만 및 산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전후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II-2-5〉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지원 사업

분류	세부사업	지역	예산(억원)	
건강관리, 영양 서비스	- 모자 건강 가꾸기(출산, 모유수유)	서울시 성북구	0.02	
	-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서울시 중구	0.47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울산시 중구	0.012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구시 중구	0.04	
출산 교실운영	-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경상북도	0.27	
	-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인천시 동구	0.018	
방문도우미 서비스	- 임신육아교실 운영	충청북도 단양군	0.03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부산시 중구	0.08	
산모 도우미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제주시	비예산	
	출산용품 지원	- 산모(출생, 신생아) 도우미	전라남도	1.20
		- 산모(출생, 신생아) 도우미	서울시 동작구	0.10
		- 산모(출생, 신생아) 도우미	부산시 사상구	0.18
- 산모(출생, 신생아) 도우미		전라남도 화순군	0.14	
출산용품 지원	- 산모(출생, 신생아) 도우미	경상북도 안동시	0.17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경상북도	0.36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0.10	
보험금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0.05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0.40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또한 일부 지방정부도 유사한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신, 출산 관련 건강관리, 출산교실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용품 및 건강보험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표 II-2-5 참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이 증가하였다.

라)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보육료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2011년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국고 235억 원의 예산으로 2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사업 중에서 현금성 지원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월 3만원을 수당 형태로 지원하고, 양평군이 보육시설 부대비용인 입소료를 지원하며 이외 학용품, 학습활동 지원 등을 한다(표 II-2-6 참조).

〈표 II-2-6〉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사업

세부사업	지역	예산(억원)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경기도 양평군	0.06
다문화가정 취약전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강원도 횡성군	0.58
결혼이주여성 자녀 학용품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0.11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0.48
영농도우미,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 해남군	0.3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2010년 12월 보육통계에 의하면 영유아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30,319명으로 2009년 26,412명에서 증가하였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62,137명이므로 이들의 48.8%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 아동 비율이 40%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가족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2.4%인데, 지역규모별로 농어촌은 4.2%이고 도시는 1.7~1.8%로 도농 간 차이가 크다(표 II-2-7 참조).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을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총 12,063개소로 전체 시설수 대비 31.7이다. 지역규모별로는 특히 농어촌 어린이집은 46.3%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보육한다. 12,063개 어린이집에서 30,319명의 아동을 보육하므로 1개 어린이집당 평균 3명 미만을 보육한다고 하겠다.

〈표 II-2-7〉 다문화가족 영유아 이용 보육시설 유형 분포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전체	단위: 명(%)
									보육아동 대비 비율
전체 (비율)	3,412 (11.3)	3,952 (13.0)	1,903 (6.3)	15,069 (49.7)	6 (0.02)	5,885 (19.4)	47 (0.2)	30,319 (100.0)	2.4
지역									
대도시	1,183	438	284	4,942	4	1,803	18	8,687	1.7
중소도시	622	363	270	4,675	1	2,654	18	8,613	1.8
농어촌	1,607	3,151	1,349	5,452	1	1,428	11	13,019	4.2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통계.

3) 자녀에 대한 지원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취학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들 자녀는 일반 아동과 다른 외모·문화·말씨, 엄마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가정 경제의 어려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심리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초 학습 부진과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더불어 이민자 자녀에게 직접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가) 언어 및 학습능력

이민자 자녀에게도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지원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중앙부처 사업은 <표II-2-8>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 이중 언어 교육환경 조성 및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또한 다문화 유아의 발달 및 교육 격차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 유아교육사를 발달지연 유아에게 파견하여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학부모 중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

에 대해 언어발달지도사를 가정 또는 보육시설에 파견하거나 집합교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표 II-2-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발달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1년 목표	부처	예산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학부모, 외국인가 이중언어 교육 지원 교육과정 개발 방과후 학교 보조강사 등으로 활용	이중언어 강사 배치학교 참여자 만족도 60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위탁기관(서울교대, 경인교대)	5억원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지원 (학습 및 학교 생활 지원)	발달지연 유아 대상 집합교육, 개별교육, 방문교육 등 병행 희망유아교육사의 맞춤형 교육	희망교육사 (210명) 발달지연 유아 1634명, 다문화 유아 688명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유치원	37.80억원
이중언어 교육 환경 조성 (아동복지교사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후 서비스 제공	25명 지역아동센터 파견	여성가족부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필요시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교육 실시	언어지도사 200명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9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표 II-2-9〉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사업 내용

분류	세부사업	지역	예산
한국어 학습 지원	-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서울시 은평구	0.14억원
	- 한국어 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0.06억원
	- 한국어교실 운영	경기도 김포시	0.15억원
	-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경상북도	1.08억원
	-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경상남도	3.35억원
	- 우리말 공부방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0.58억원
언어대회	- 이중언어대회 개최	경상북도	0.2억원
통번역	- 언어발달서비스 및 통번역 서비스 · 언어 발달 진단 및 방문	제주시	1.29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 사업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미취학 자녀 한글 학습을 지원한다(표 II-2-9 참조).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으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표 II-2-10 참조).

〈표 II-2-10〉 지방정부 보육특별사업 중 다문화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사업명	구분	예산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4개구 설치	서울특별시	0.50억원
다문화 영유아 수 10명 이상, 정원대비 20% 이상인 시설 중 다문화 시범어린이집 운영비	충청남도	0.10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2011년 특수보육시책

다) 학력 증진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맞춤형 지도를 추진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업 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 시설에 시설비와 기자재를 지원한다(표 II-2-11 참조).

〈표 II-2-11〉 다문화가족 자녀 학력 지원 사업

사업	개요	2011년 목표	부처	예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지원	거점학교 80개 멘토링 2,200명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20억원
학교 부적응 학생 등 교육기회 확대	- 학업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시설 시설비, 기자재 지원	2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시설	0.4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표 II-2-12〉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분류	세부사업	지역	예산
방문학습 지도	- 다문화가족2세 교육·학습협력사업	대구광역시	0.40억원
	-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미취학 자녀 방문교사 학습지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0.10억원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방문교육업체 위탁교육	강원도 정선군	0.33억원
	-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초등학생)	경상북도	1.1억원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학습지 회사 연계, 방문학습 프로그램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0.56억원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사업	충청북도 영동군	0.43억원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전라남도 순천시	1.34억원
학습 멘토링	-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인천광역시	0.70억원
	-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 학습지원(방과후 교실, 학습지 지원) · 양육지원(언어능력 및 지도능력 향상 교육)	전라북도 전주시	0.07억원
	- 다문화가족 초등자녀 학습멘토 파견	전라남도 광양시	0.25억원
	- 영어학습 멘토링 사업 추진	전라남도 곡성군	비예산사업
공부방	-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강원도 화천군	0.11억원
	-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강원도 양구군	비예산
독서지도	- 다문화가족 자녀 독서지도사업	서울시 관악구	0.11억원
	- 다문화가정 책보내기 운동	대구광역시	1.28억원
교육비 지원	-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서울시 광진구	0.40억원
	- 다문화가족 자녀 학원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0.5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지방정부 사업으로는 방문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공부방 운영, 독서지도, 학습 비용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시는 다문화가족 자녀 학원비를 지원한다(표 II-2-12 참조).

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사업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다.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만 2~6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창의적,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 인지기능 향상 서비스’⁵⁾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만 2~6세 영유아 대상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바우처 제공, 독서지도, 도서 지급, 독후활동 등을 지원한다.⁶⁾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① 책 읽어주기, ② 독서지도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 등 독후활동 실시, ③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실시 등을 한다. 방문 1회당 20분 내외이다. 비용은 법정 저소득 가구 등은 27,000원, 이외는 2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그 이외는 본인 부담이다. 기간은 10개월이며 경우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전달하고 있는 지역 개발형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12개 정도의 사업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 관련 사업이며,⁷⁾ 다문화가족 아동지원 서비스는 42개로 아동 관련 사업 중 14.2% 정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은 0~6세 대상 아동 발달 지원, 8~13세 대상 아동 정서발달 지원, 18세 이하 대상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및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유로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다. 0~6세 대상 아동 발달지원 사업은 발달 검사와 서비스로 구성되며, 비용은 발달검사 서비스가 11만2천원으로 정부 10만원, 본인 1만2천원 부담하며, 서비스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으로 32회, 4개월 동안 지속된다.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서비스 사례로 대구 달성군에서 ‘다문화, 저소득 아동 집중 케어 프로그램’이란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이용 아동수는 전체 287명이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13>와 같다.

5) 지역 선택형은 2011년부터 아동 인지기능 향상 서비스에 한정함.

6) 언어발달지도사, 희망교육사,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방문지도는 각각 대상과 목적이 다름. 언어발달지도사는 언어발달 관련 전문학사 이상으로 주로 집합, 개별,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유아희망교육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자로 유아 중심으로 발달을 지원하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방문사업으로 2세 이상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함.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희망교육사,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방문지도는 일반 취약계층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형태임.

7)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서비스, 아동 체험학습서비스,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노인·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 가정 렌탈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아동발달 검사 및 리더쉽 증진 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등임(박세경, 2011).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한국어 전 공자, 한국어 보조교사 수료자, 독서지도사, 아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다양하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유아 기본형 2가지(언어 중심형, 일상생활 중심형), 아동 기본형 2가지(언어 중심형, 일상생활 중심형), 아동 확대형(토탈 서비스형) 총 5가지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또한 이용자는 5가지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월 12만원 내외로 정부가 11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1만원이다.

〈표 II-2-13〉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우리말 배우기	- 기초 한글교육 -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 주 3회, 12개월 - 만5세 이상은 회당 50분이고, 만3-4세는 회당 30분
일상생활 서비스	-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 기본생활습관 교육(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 숙제관리 - 학교 수업관리 - 부모 교육 - 관련 정보제공	
정서지원 서비스	-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 문화체험 -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 악기 또는 미술 학습(타악기, 나타, 스케치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마) 기타

이외에도 인식 증진 및 자아정체성 강화, 문화 체험 등을 목적으로 캠프 등의 활동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II-2-14 참조).

〈표 II-2-14〉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수련활동 지원 사업

사업명	구분	예산
- 다문화가족 자녀 내 모습알기 캠프	경기도 수원시	0.12억원
- 다문화가정 자녀 문화체험 캠프	경기도 양주시	-
-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 문화체험 등	서울시 동대문구	0.13억원
-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유적답사, 건강가정강좌 등	서울시 서대문구	0.09억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 계획

3. 민간단체 지원 사업 사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정부 이외에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0년 현재 25,000여 개인과 복지관을 지원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 사업, 결혼이민여성 교육 강사 양성사업, 다문화 북카페 지원 사업, 이외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통역센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대부분이 일반적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업들로, 간접적으로는 자녀 양육 역량 강화와 연계된다.

다문화가족 및 배우자의 경제 상황은 대체로 취약하며,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 취업 욕구는 높으나 실제 취업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들의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모금회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며, 가족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결혼이민여성 교육 강사 양성사업은 결혼이민 여성들을 다문화 교육 강사로 교육시킴으로써 자존감 회복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자국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단순한 노무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결혼이민여성들이 강사 활동 이후 자국의 문화를 지역에 알리면서 자부심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통역센터 지원 사업은 언어 장벽으로 자신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적 분쟁, 임금체불, 산재문제, 질병치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과 이혼 문제, 가족 갈등 등 한국 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의료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통역 센터는 현재 가장 시급한 의료문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할 각 언어별 자원 활동가를 교육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도 함께 진행하여 이주민의 욕구에 맞고 한국 실정에 맞는 언어통역센터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 지원 사업으로는 한글교육 및 보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은행

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소외된 지역 내 미취학 다문화아동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령 전 다문화가족 아동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육아법을 교육하고, 대상 아동의 발달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이 전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 북카페 지원 사업을 한다.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엄마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문화 북카페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북카페'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몽골 등 아시아 7개국 아동 도서와 전집류, 단행본 등 도서 1만여 점과 비디오, 음악 CD, 각국의 전통 놀이기구를 갖추어 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자녀의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정보 제공, 육아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I-3-1>은 부모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사례이다. <표 II-3-2>는 2010년 공동모금회 기금 지원 사업 중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사례이며, 사업 추진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지방정부가 실시한다.

〈표 II-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모역량 강화 사업 지원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	지회명
[도시형대표 다문화가족지원]건강한 엄마 아빠 되기 위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多문화 多함께 프로젝트" _II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4	서울
초등학령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 학부모 교실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대구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1). 연간보고서

〈표 II-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 사례

사업명	수행기관명	금액 (백만)	지회명
상담/교육			
다문화자녀의 사회성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부산서구종합사회복지관	15	부산
이주민자녀 돌봄 학습지원을 위한 기능보장사업	오산이주노동자센터	12	경기
다문화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두리우리'	송림종합사회복지관	10	인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이중 언어교실과 학습지도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학당(한국)	풍성하계	10	인천
교육소외계층 다문화가정·새터민자녀 전일제·특화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119	중앙
찾아가는 지역별 취학 전 다문화 일반 아동 통합교육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충남
다문화가족 중도 입국 자녀 학습 지원 사업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전북
다문화자녀 교육 한글 깨치기 지원 사업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전북
결혼이주여성 2세대 자녀의 통합적 성장발달을 통한 생애주기별 발달지원프로젝트 "건강한 우리아이는 한국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14	서울
다문화지역아동센터 악기 지원 및 음악인재 양성 사업	기아대책	130	중앙
다문화 가정자녀들을 위한 지역 적응 프로그램	속초YWCA	6	강원
다문화가정 자녀 그림책 지원 사업		97	경북
육아			
시흥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 프로그램 "같이 한걸음"	함현상생종합복지관	6	경기
외국인 노동자 자녀보육 지원 사업		220	중앙
여가/문화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자녀 스키캠프 지원 사업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	강원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비상하는 "엔젤크레용합창단"	섬기는 사람들	7	경기
현대자동차 다문화가정 동화책 발간 지원 사업	한국 여성의 전화 울산지부	2	울산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1). 연간보고서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요구

제4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담당자와 방문지도사를 면담하여 파악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 및 개선 요구를 제시하였다.

가. 설치·운영 개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거점 센터를 통하여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및 업무 매뉴얼 보급, 실적관리 및 홍보, 현장 및 평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어린이집·학교·교육청, 이주여성 센터 등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 현재 총 10개 거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거점 센터를 포함한 200개 센터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다.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용 실인원과 예산 등 사업 실적과 결혼이민자수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운영지원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가'형은 연 1억 5백만원, '나'형은 8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2011년 전국 200개 센터 중 '가'형은 53개소, '나'형은 14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II-4-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센터수	21	38	80	100	171	200

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까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8) 36개소는 2011년에 개원함.

나. 주요 사업

1) 사업 개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센터운영 사업과 특성화 사업 등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운영 사업은 기본사업과 홍보 등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필수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가족 상담이 이루어지며, 홍보 등 운영사업은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

둘째, 특성화사업은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방문교육사업⁹⁾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4-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구분	사업 내역
센터운영 사업	기본사업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
	홍보 등 운영사업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기타	센터 고유사업, 공모 및 외부지원기관 연계사업

셋째, 이 외에도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된 센터 고유 사업과 공모 및 외부 지원기관 연계사업이 있다.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이용 연인원¹⁰⁾은 1,234,670명으로 2009년

9) 방문교육사업은 2010년에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서비스, 임신·출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1년 아동양육서비스가 부모교육서비스로 명칭 변경되고,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 운영되고 있다.

10) 관리사업(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제외한 센터사업과 특성화사업 총 연인원을 의미함.

734,131명 대비 168% 증가하였고, 센터 이용자도 2009년 33,971명에서 2010년 61,905명으로 182% 증가하였다(표 II-4-3 참조).

대상별로는 센터 이용자 중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09년 64.6%에서 2010년 62.3%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배우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배우자는 2009년 12.4%에서 2010년 13.7%, 다문화가족 자녀는 16.2%에서 19.4%로 증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와 배우자의 참여가 활발해졌다(표 II-4-4 참조).

〈표 II-4-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구 분	단위: 실인원(명)	
	2009년	2010년
센터사업 참여 연인원	734,131	1,234,670
센터 이용자	33,971	61,905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원단(각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표 II-4-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별 이용현황

구 분	단위: 명(%)	
	2009년	2010년
결혼이민자	21,960(64.6)	38,577(62.3)
배우자	4,217(12.4)	8,509(13.7)
다문화가족 자녀	5,506(16.2)	12,023(19.4)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원단(각 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표 II-4-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별 이용현황

사업 구분	사업영역	단위: 연인원(명)	
		2009년	2010년
센터 사업	한국어교육	395,091	593,967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178,399	274,499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75,630	137,173
	다문화가족자조모임	10,041	48,525
	개인·가족상담	19,720	27,771
홍보 등 운영	육아정보나눔터	-	70,672
	멘토링·다문화가족 자원 봉사단	55,250	49,242
특성화사업	이중언어교실	648	32,821
관리사업	방문교육사업	21,013	23,472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10,385	61,428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원단(각 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을 운영사업별로 살펴보면, 2009년 센터 운영사업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한국어교육으로 54%이었고,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24%,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10% 순이었다. 2010년에도 한국어교육이 4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교육 사업 21%,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사업 11% 순이었다(표 II-45 참조).

본 글에서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 대상 지원과 자녀 대상 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 대상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서 자녀양육을 돕는 부모 대상 사업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개인·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 방문교육사업 등이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교육으로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부모 대상으로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육아 및 자녀교육 코칭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지도프로그램, 부모자녀 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센터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둘째, 개인·가족 상담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부부관계, 자녀양육, 고부관계, 가정/성폭력, 경제문제 등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담은 자녀출산 및 양육문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자녀언어발달 관련 문제, 자녀학습 문제 등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자 상호간·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통합출신국, 다문화가족대상별, 주제별로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자조모임에서는 육아정보 공유, 아동양육 및 교육,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상담과 정보 제공, 임신·출산·양육 등 생

활정보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학교 상담이나 행정·사법기관, 병원, 보건소 이용 시 통역사를 파견한다. 2009년에는 38개 센터에서 통·번역사 58명, 2010년 129개 센터에서 통·번역사 210명이 활동하였다.

다섯째, 육아정보나눔터는 다문화가족이 센터 이용시간 동안 자녀를 일시 보호하거나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센터 내 공간으로, 수유 공간 및 기저귀 갈이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완구 등의 놀이기구와 유아용 책, 응급약 등이 비치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방문교육지도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에는 육아정보나눔터를 122개 센터 내에 설치·운영하였고, 70,672명이 이용하였다.

여섯째, 방문교육사업 중 부모 대상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과 방문상담이 있다.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5년 이하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만 3세~만 12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어휘·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등의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서비스는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생애주기별 3회¹¹⁾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부모 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 자녀 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2011년 8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운영되는 방문상담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가출, 자살, 이혼과 같은 심각한 가정 해체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이다.

3) 자녀 대상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영재교실 등이 있다.

첫째, 자녀 대상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 학습지원¹²⁾, 예체능교육, 자녀 캠프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1) 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함.

둘째, 방문교육사업 중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한국어교육서비스와 자녀생활서비스가 있다. 한국어교육서비스는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문화가족 자녀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2011년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에 거주하여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세에서 만 12세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의 인지영역과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정서·사회영역,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을 지도하는 문화역량 강화 영역,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의 시민교육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센터에 방문한 다문화가족 자녀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인근 보육시설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지도사를 파견하여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언어평가 서비스는 대상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초기 면담을 실시하고, 연령과 상황에 적절한 표준화된 진단도구들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한다. 언어교육 서비스는 언어평가 결과를 토대로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어휘·구문 발달을 촉진하고, 대화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상담도 이루어진다.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2009년 7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5개소, 언어지도사 83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93개소에서 언어지도사 101명, 2011년에는 163개소에서 200명의 언어지도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9년 7~12월 개별수업 참여 아동은 1,544명이고, 모둠수업에는 871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개별수업 아동수가 32,478명, 모둠수업은 19,818명으로, 2009년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넷째, 언어영재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다문화가족 자녀나

12) 독서, 학습, 방과 후 교실, 과학, 신문교육, 언어, 경제, 성교육 등

배우자·시부모 등 다문화가족도 참여 가능하다.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어영재교실 사업은 2009년 5개 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로 시범 운영되었다가, 2010년 64개 센터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참여인원도 2009년 648명에서 2010년 32,821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1년 언어영재교실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고, 17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II-4-6>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에 시행한 자녀 대상 사업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0개소에서 영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비율은 44.1%, 유아 대상 사업은 65.9%로 영아보다 유아가 좀 더 많았다.

<표 II-4-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별 사업 내용: 2010년

		단위: 센터수(%)		
사업내용		영아	유아	취학아동
부 모	출산지원서비스	33(19.4)	-	-
	베이비마사지	2(1.2)	-	-
	육아정보나눔터	21(12.4)	15(8.8)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1(6.5)	10(5.9)	-
	놀이방 운영, 보육, 양육지원	9(5.3)	1(0.6)	7(4.1)
	자녀양육교육, 가족교육	9(5.3)	2(1.2)	1(0.6)
	부모-자녀 관계향상프로그램	4(2.4)	9(5.3)	-
	가족 체험활동, 캠프	2(1.2)	6(3.6)	3(1.8)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20(11.8)	52(30.6)	20(11.8)
자 녀	자녀 방문교육	8(4.7)	18(10.6)	8(4.7)
	이중언어교실	-	12(7.1)	-
	학습지 지원	-	5(2.9)	-
	다문화 이해 교육	-	4(2.4)	5(2.9)
	상담 및 치료	-	3(1.8)	10(5.9)
	학습 지원(영어, 수학 등)	-	5(3.0)	20(11.8)
	북스타트, 이야기교실, 동화구연 등	2(1.2)	4(2.4)	-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2(1.2)	5(3.0)	7(4.1)
	방학활동(공부방, 캠프 등)	-	-	8(4.7)
	멘토링 프로그램	-	-	6(.5)
	기타	-	-	6(3.5)
(센터수)	(89)	(134)	(101)	

자료: 서문희, 설동훈, 최윤경, 김은영, 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자녀 대상 사업 내용을 영아, 유아, 취학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아 대상 사업은 출산지원서비스가 가장 많고, 다음이 육아정보나눔터,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놀이방 운영, 자녀 방문교육 순이었다. 영아 대상 사업의 특징은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자녀방문교육 이외 사업들 대부분이 영아가 아닌 어머니 대상의 자녀양육 지원 사업이다. 유아 대상 사업은 자녀 언어 발달지원 사업이 가장 많았고, 영아와 달리 이중언어교실, 학습지 지원, 예체능 교육 등 어머니보다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다.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학습지원과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인한 상담 및 치료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았다.

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와 개선 요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담당자와 방문지도사를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육아 관련 당면 과제

방문지도사가 가정 방문 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 등 방문교육 자체보다 자녀 준비물 준비나 부부 간의 갈등 등 다른 문제들이 더 시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문지도사는 교육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정통신문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방문지도사가 가정통신문을 설명해 주거나 학교 준비물을 도와주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읍·면지역에서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은 핵가족이 많아 사정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원 내용의 차별화도 언급되었다. 특히, 문제가 많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가정 내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일수록 주위에 도움을 줄 인적자원이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결혼이민자 여성 자신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남편이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해 참여율이 저조하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내용 다양화

가)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 대상 교육 검토 필요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요구가 높았다. 즉, 교재를 통한 전달식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도와주고, 실질적인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방구에 함께 가서 직접 학용품 구입하기,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처리하기, 자녀가 아플 때 함께 병원가기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존감을 키워 주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출신국 언어를 통한 자원봉사나 일일교사 등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 대상 학습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어 능력 부족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문지도사가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결혼이민자 여성 중 상당수는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습 지원을 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생계로 바쁘거나 문제가 많아 자녀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력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자녀들의 학습부진을 보충해 줄 수 없게 된다.

넷째, 이중 언어교육과 이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가정 내에서 허용하는 분위기이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은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녀들과 대화를 한국어로만 하도록 강요하다 보니 자녀들과 상호작용도 원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녀들 또한 어머니가 외국인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가정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욱 약해지게 된다. 면담

자들은 먼저 결혼이민자 여성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 남편, 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교육 필요성 증대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교육 방향도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남편과 시부모 등 시댁식구를 대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가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남편들 대부분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바쁘고, 자녀교육에도 관심이 없다. 또한 남편이 장애가 있거나 학력 수준이 낮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어머니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 남편 교육에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걸맞게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친정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가정과 달리 다문화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도와줄 사람은 남편을 제외하면 시댁식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 양육 관련 갈등도 남편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갈등보다는 시부모와 결혼이민자 여성의 갈등이 많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시부모가 돈을 주고 며느리를 사 왔다고 생각하여 더욱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교육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서비스 교재 체계적 개발 필요

가) 한국어교육 교재

현재, 한국어 교육 교재는 1~3급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출신 국별로 혹은 대상자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교육하기에는 3단계 구분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출신

의 결혼이민자 여성은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모국어 언어체계가 한국어와 차이가 커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어 습득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교재만으로는 한국어 습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방문지도사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부교재를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며 지도사 간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교재 수준을 다양화하며, 전달방식도 현재의 문법, 쓰기, 말하기 등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생활 언어 위주의 교육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 부모교육 교재

부모교육 서비스 매뉴얼도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방문지도사가 방문 가정에 적합하도록 부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방문지도사에게 교구교재 개발비가 지원되지 않아 방문지도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문제점도 제기된다.

방문지도사의 매뉴얼 개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향후 교재 개발 시 방문지도사의 현장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이 먼저 이루어져 하며, 출신국별 특징이나 대상자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도록 다양화를 요구한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출신국 언어로 된 교재를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출신국 언어별로 부교재가 필요하다.

4) 다문화가정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가) 서비스 편향 문제

다문화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의 편향 문제가 상존한다. 남편의 정보력이 빠르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허용적인 분위기인 가정은 여러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의 가정이 많지 않아 서비스 수혜가 일부 가정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결혼이민자들도 교육을 통해 자립심을 키우기보다는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원 기관나 방문지도사에게 의존하

려는 문제도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나) 서비스 전달 방식 다양화 필요

첫째, 교육 등이 통역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의 교육수준, 요구사항, 이해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전달 교육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차를 반영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였다.

둘째, 방문서비스 기간이 5개월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서비스가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정 당 5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데 상당수가 동의한다.

셋째,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여 방문지도사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 인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부모교육이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생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방문교육시간 2시간이 너무 길게 편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1-1.5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 사후관리 시스템 체계화 필요

현재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를 마친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지도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지도사 중 상당수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서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내 사정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센터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가 없음에도 방문 가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의존적으로 되거나 방문지도사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방문지도사에게 부담이 된다.

5) 방문지도사 처우 문제

첫째, 방문교육 상담사는 상근적이기 때문에 상담 업무 외에도 센터 업무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업무량도 일주일에 10사례 이상 과중하게 주어

지고 있다. 한편, 방문지도사도 방문교육 업무 외로 센터 행사를 돕는 등 추가 업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방문지도사 관리시스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 방문지도사 관리시스템은 지도사 활동 시기를 5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활동기간에만 월급을 지급하며, 1차 방문 사업이 끝난 후 2차 사업이 시작되기 전 한달 간은 교육 활동이 없어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한 달 휴식 후 2차 사업 참여 여부를 미리 결정하게 함으로써 다른 구직활동도 못하게 되어있다.

셋째, 방문지도사 보수교육이 이론적인 내용 전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 분석이나 실제 교육에 필요한 기술 전달 등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요구하였다.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문제

가) 홍보 부족

다문화가족 중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출신국 언어로 된 자료가 없을 시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방문지도 사업을 시작할 때, 서비스 대상자 인원을 채우지 못해 힘이 드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자들은 시·군·구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안내지에 다문화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거나 다양한 언어로 된 생활정보지를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배치 등 면담자들은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서비스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편이 문제가 많거나 이주 여성이 학력이 높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이주 여성이 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가정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일수록 교육이 가장 필요함에도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나) 접근성 문제

농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권 내의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도사가 방문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많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지역권을 도시지역과는 다른 기준 적용, 분원 필요성, 방문지도사 교통비 추가 지원, 이용자용 교통편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Ⅲ. 다문화가족의 특성

제3장은 전국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826명의 다문화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2절에서는 어머니의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제3절은 아동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1. 다문화가족의 가구 특성

제1절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으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원 수 및 가족관계별 동거 비율, 자녀수, 한국인 부모를 다루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 소득과 경제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였다.

가.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 가구원 수

조사 대상 다문화 가족의 가구원 수는 평균 4.30명이다. 가구원수 분포 상으로는 약 1/3이 4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3명 26.3%, 5명 20.9%이며 6명 이상도 15.7%이다. 이는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 산출된 전국 영유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3.99명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한족이 가구원수가 다소 적은 편이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구원 수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도시 4.1명 수준에 비하여 평균 가구원 수가 4.52명으로 많다.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별 동거로는 시부모가 시아버지 16.5%, 시어머니 31.6%이고, 남편의 형제자매가 7.1%이다. 친정 식구로는 아버지 3.2%, 어머니 1.2%, 형제자매 3.0%이다. 결혼이민자 출신국별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가 시부모나 남편의 형제자매들과 동거한다는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에서 시댁식구들과의 동거 비율이 높다(표 III-1-2 참조).

〈표 III-1-1〉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단위: %(명), 명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1.9	26.3	33.9	20.9	15.7	1.4	100.0(1,826)	4.30
출신국								
중국(조선족)	2.0	24.3	45.0	15.8	11.9	1.0	100.0(202)	4.17
중국(한족 등)	1.8	45.5	33.5	12.1	7.1	-	100.0(224)	3.79
베트남	1.8	24.3	32.6	23.7	14.7	2.8	100.0(497)	4.32
필리핀	1.8	25.1	26.9	25.4	19.7	1.1	100.0(279)	4.46
일본	1.1	17.8	29.4	25.0	26.7	-	100.0(180)	4.74
몽골	4.4	22.2	45.6	18.9	6.7	2.2	100.0(90)	4.05
태국	1.0	22.7	37.1	18.6	18.6	2.1	100.0(97)	4.40
캄보디아	2.4	28.3	28.3	19.9	20.5	0.6	100.0(166)	4.39
우즈베키스탄	-	22.0	36.6	29.3	12.2	-	100.0(41)	4.34
기타	2.0	18.0	48.0	16.0	14.0	2.0	100.0(50)	4.27
F								8.6***
지역								
대도시	1.6	32.1	38.0	16.9	11.0	0.4	100.0(445)	4.08
중소도시	2.7	32.4	34.9	18.1	10.7	1.3	100.0(476)	4.07
읍·면지역	1.5	20.3	31.4	24.3	20.6	1.9	100.0(905)	4.52
F								30.4***

*** p<.001

〈표 III-1-2〉 가족관계별 동거 비율

단위: %(명)

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형제 자매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본인 형제 자매	(수)
전체	16.4	31.6	7.1	3.2	1.2	3.0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9	21.3	5.9	5.0	2.0	3.0	(202)
중국(한족 등)	10.7	19.2	5.4	5.4	1.3	2.7	(224)
베트남	21.1	42.9	9.3	4.8	1.4	3.0	(497)
필리핀	21.9	31.2	7.9	1.1	1.1	3.2	(279)
일본	6.7	20.0	2.8	-	-	1.1	(180)
몽골	5.6	22.2	6.7	3.3	2.2	1.1	(90)
태국	19.6	32.0	4.1	3.1	-	4.1	(97)
캄보디아	25.3	47.0	10.2	1.2	0.6	6.6	(166)
우즈베키스탄	14.6	31.7	2.4	2.4	2.4	2.4	(41)
기타	14.0	28.0	10.0	-	2.0	-	(50)
지역							
대도시	11.9	23.4	6.7	3.4	1.1	2.9	(445)
중소도시	10.7	22.3	5.3	3.4	1.3	3.2	(476)
읍·면지역	21.5	40.6	8.3	3.0	1.2	3.0	(905)

2) 자녀수

결혼이민자 가정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수는 평균 1.64명으로 조사되었다. 영아가 0.58명, 유아가 0.66명이고 초등학교가 0.40으로 아직은 영유아의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출신국별 평균 자녀수는 일본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이 1.38명으로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은 캄보디아로 1.5명이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1.70명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1.58, 1.60명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이다.

〈표 III-1-3〉 연령구분별 평균 자녀수

구분					단위: 명(명)
	영아	유아	초등학교	계	(수)
전체	0.58	0.66	0.40	1.64	(1,769)
출신국					
중국(조선족)	0.36	0.82	0.46	1.64	(197)
중국(한족 등)	0.66	0.56	0.17	1.38	(221)
베트남	0.66	0.73	0.13	1.52	(482)
필리핀	0.51	0.60	0.64	1.76	(253)
일본	0.42	0.62	1.16	2.19	(180)
몽골	0.76	0.62	0.30	1.68	(87)
태국	0.44	0.65	0.65	1.74	(97)
캄보디아	0.85	0.55	0.04	1.45	(164)
우즈베키스탄	0.42	0.78	0.48	1.68	(40)
기타	0.37	0.71	0.71	1.79	(49)
F	12.2***	3.5***	57.4***	10.8***	
지역					
대도시	0.63	0.60	0.35	1.58	(436)
중소도시	0.56	0.64	0.39	1.60	(461)
읍·면지역	0.56	0.71	0.43	1.70	(836)
F	2.4	3.8*	2.1	4.3*	

* p<.05, ** *p<.001

〈표 III-1-4〉를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약 1% 정도는 자녀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자녀이며, 3.3% 정도는 남편이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자녀 출생 배경

단위: %(명)

구분	현 남편과 본인 사이 출생	현 남편과 다른 부인 사이 출생	본국에서 다른 배우자 사이 출생	기타/무응답	계(수)
첫째	91.1	3.3	1.1	4.5	100.0(1,826)
둘째	91.4	3.4	0.1	5.1	100.0(1,007)
셋째	92.6	2.3	0.4	4.7	100.0(256)
넷째 이상	98.5	-	-	1.5	100.0(67)

3) 한국인 (조)부모

조사대상 다문화가족 중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인’인 비율은 7.5%이다. 이들은 부모가 한국인인 비율이 21.2%이고, 조부모가 한국인인 비율이 54.0%이며 8.0%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한국인이다.

〈표 III-1-5〉 부모나 조부모 한국인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는 비율	있다는 경우 누구				계(수)
		부모	조부모	부모/ 조부모	무응답	
전체	7.5	21.2	54.0	8.0	16.8	100.0(137)
출신국						
중국(조선족)	51.0	19.4	60.2	7.8	12.6	100.0(103)
중국(한족 등)	3.6	12.5	25.0	12.5	50.0	100.0(8)
베트남	0.4	50.0	-	-	50.0	100.0(2)
필리핀	1.4	25.0	-	-	75.0	100.0(4)
일본	2.2	-	50.0	-	50.0	100.0(4)
몽골	-	-	-	-	-	-
태국	-	-	-	-	-	-
캄보디아	1.2	50.0	50.0	-	-	100.0(2)
우즈베키스탄	19.5	12.5	62.5	25.0	-	100.0(8)
기타/무응답	12.0	66.7	33.3	-	-	100.0(6)
지역						
대도시	4.7	4.8	76.2	9.5	9.5	100.0(21)
중소도시	9.7	30.4	47.8	8.7	13.0	100.0(46)
읍·면지역	7.7	20.0	51.4	7.1	21.4	100.0(70)

그런데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이다. 중국 조선족은 51.0%가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68.0%는 조부모가 한국인이며 27.2%는 부모가 한국인이다. 지역별로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인이라는 비율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더 높다.

나. 다문화가족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가구소득

본 조사 대상자인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 8.8%, 100~150만원 미만 20.6%, 150~200만원 미만 22.2%, 200~300만원 미만 35.6%, 300만원 이상 12.8%이다.

〈표 III-1-6〉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 150만원 미만	150~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8	20.6	22.2	35.6	12.8	100.0(1,655)	182.4
출신국							
중국(조선족)	8.1	16.7	15.7	36.9	22.7	100.0(198)	207.6
중국(한족 등)	6.0	16.1	21.2	38.7	18.0	100.0(217)	198.7
베트남	6.1	20.3	24.2	39.7	9.7	100.0(443)	180.5
필리핀	18.1	27.9	19.9	27.9	6.2	100.0(226)	148.9
일본	3.0	20.5	22.3	37.3	16.9	100.0(166)	197.5
몽골	5.3	14.5	25.0	38.2	17.1	100.0(76)	199.8
태국	11.2	27.0	23.6	30.3	7.9	100.0(89)	168.4
캄보디아	10.3	24.5	27.1	31.0	7.1	100.0(155)	165.3
우즈베키스탄	15.0	12.5	12.5	47.5	12.5	100.0(40)	184.9
기타	13.6	18.2	31.8	20.5	15.9	100.0(44)	180.4
F							8.5 ^{***}
지역							
대도시	6.2	16.6	25.2	38.6	13.4	100.0(404)	190.8
중소도시	7.7	15.2	20.3	41.3	15.6	100.0(426)	195.8
읍·면지역	10.6	25.4	21.7	31.3	11.1	100.0(822)	171.3
F							6.6 ^{***}

*** p<.001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평균 297만 2천원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전체로는 314만 1천원이다. 이와 본 조사결과 평균 182만원을 비교하면 다문화가족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평균 200만원이 넘어서 가장 높으며, 중국 한족, 일본, 몽골이 200만원에 근접하는 반면에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이 17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았다. 지역 차이로는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월평균 약 20만원 내외로 많았다.

2) 국민기초생활 대상 등

조사 대상 영유아 다문화가구 중 7.6%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라고 응답하였고, 8.0%는 모른다고 하였다.

스스로 받는다는 비율로만 보아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영유아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비율 2.3%의 3배가 넘는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높다.

〈표 III-1-7〉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구분	단위: %(명)			
	받음	안받음	모름	계(수)
전체	7.6	84.4	8.0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9	91.1	3.0	100.0(202)
중국(한족 등)	4.9	89.3	5.8	100.0(224)
베트남	4.2	84.7	11.1	100.0(497)
필리핀	15.4	78.1	6.5	100.0(279)
일본	9.4	87.8	2.8	100.0(180)
몽골	5.6	86.7	7.8	100.0(90)
태국	6.2	84.5	9.3	100.0(97)
캄보디아	9.0	77.1	13.9	100.0(166)
우즈베키스탄	7.3	75.6	17.1	100.0(41)
기타/무응답	10.0	84.0	6.0	100.0(50)
지역				
대도시	7.0	87.6	5.4	100.0(445)
중소도시	8.4	82.6	9.0	100.0(476)
읍·면지역	7.4	83.9	8.7	100.0(9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로 생활비 수급권자 범위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결혼이민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대상이 된다.¹³⁾

한편, 타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는 비율은 4.5%이고 안 받는다는 비율은 89.9%, 5.6%는 모른다고 하였다. 타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65%가 시택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8〉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생활비 지원 여부				생활비 지원자				
	받음	안받음	모름/무응답	계(수)	지자체	시택식구	센터 등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4.5	89.9	5.6	100.0(1,826)	13.3	65.1	1.2	18.1	100.0(83)
출신국									
중국(조선족)	6.4	91.1	2.5	100.0(202)	7.7	84.6	-	7.7	100.0(13)
중국(한족 등)	1.8	93.3	4.9	100.0(224)	25.0	50.0	25.0	-	100.0(4)
베트남	4.6	85.5	9.9	100.0(497)	17.4	65.2	-	17.4	100.0(23)
필리핀	5.0	91.4	3.6	100.0(279)	14.3	64.3	-	21.4	100.0(14)
일본	4.4	93.9	1.7	100.0(180)	12.5	75.0	-	12.5	100.0(8)
몽골	4.4	92.2	3.3	100.0(90)	25.0	50.0	-	25.0	100.0(4)
태국	5.2	89.7	5.2	100.0(97)	20.0	-	20.0	60.0	100.0(5)
캄보디아	6.0	86.7	7.2	100.0(166)	-	80.0	10.0	10.0	100.0(10)
우즈베키스탄	2.4	92.7	4.9	100.0(41)	-	100.0	-	-	100.0(1)
기타/무응답	2.0	94.0	4.0	100.0(50)	-	-	-	100.0	100.0(1)
지역									
대도시	6.3	88.3	5.4	100.0(445)	3.6	64.3	13.8	21.4	100.0(28)
중소도시	4.0	91.4	4.6	100.0(476)	10.5	63.2	-	26.3	100.0(19)
읍·면지역	4.0	89.8	6.2	100.0(905)	22.2	66.7	-	11.1	100.0(36)

1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임.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이는 2006년부터 적용되었음. 2009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추가로 포함되었음. 이러한 법적 조항에 의하여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 혼인 중과 혼인외 인 자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2. 다문화가족 부모의 특성

부모의 제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 특성, 부부관계 특성 및 개인 역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가. 인구학적 특성

1) 연령

부모의 연령은 결혼이민자 부인이 평균 31.3세이고, 남편은 이보다 12살 정도가 더 많은 43.1세이다.

부인의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와 중국 한족이 평균 20대로 상대적으로 어리고, 일본이 40살로 가장 많다. 남편은 대체로 40대 초반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부인과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일본이 3년 정도이고, 캄보디아는 17년 차이를 보인다.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다.

〈표 III-2-1〉 부인과 남편 연령

단위: 세(명)

구분	부인			남편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1.3	6.6	(1,799)	43.1	5.5	(1,782)
출신국						
중국(조선족)	31.7	5.5	(202)	43.0	5.0	(201)
중국(한족 등)	26.6	4.6	(223)	41.6	5.5	(222)
베트남	33.1	4.2	(486)	43.6	5.3	(474)
필리핀	34.5	6.6	(274)	44.6	5.2	(274)
일본	40.0	5.4	(178)	42.9	5.9	(177)
몽골	31.6	5.4	(89)	42.7	4.6	(89)
태국	34.5	5.6	(94)	42.6	5.7	(94)
캄보디아	25.7	2.9	(164)	43.4	6.3	(162)
우즈베키스탄	31.6	6.1	(40)	44.1	5.6	(41)
기타	33.8	5.3	(48)	42.5	5.5	(47)
지역						
대도시	30.7	6.3	(437)	42.7	5.4	(434)
중소도시	31.8	6.6	(473)	43.0	5.5	(470)
읍·면지역	31.3	6.8	(889)	43.5	5.5	(878)

2) 결혼 상태

다문화가족 부인과 남편의 현재 결혼 상태는 부인은 94.6%가 초혼이며, 3.1%가 재혼이다. 남편은 84.4%가 초혼 상태이며 12.7%가 재혼이다.

〈표 III-2-2〉 현재 결혼 상태

단위: %(명)

구분	부인			남편			계(수)
	초혼	재혼	기타	초혼	재혼	기타	
전체	94.6	3.1	2.3	84.4	12.7	2.9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90.1	6.4	3.5	93.6	4.0	2.4	100.0(202)
중국(한족 등)	90.2	8.0	1.8	83.9	13.8	2.3	100.0(224)
베트남	96.6	2.0	1.4	80.3	17.9	1.8	100.0(497)
필리핀	96.1	1.1	2.8	81.0	13.6	5.4	100.0(279)
일본	98.3	0.6	1.1	98.3	0.6	1.1	100.0(180)
몽골	90.0	3.3	6.7	82.2	11.1	6.7	100.0(90)
태국	95.9	3.1	1.0	86.6	8.2	5.2	100.0(97)
캄보디아	95.8	1.8	2.4	77.7	20.5	1.8	100.0(166)
우즈베키스탄	97.6	2.4	-	80.5	19.5	-	100.0(41)
기타/무응답	90.0	4.0	6.0	86.0	10.0	4.0	100.0(50)
지역							
대도시	95.3	2.2	2.5	85.4	13.0	1.6	100.0(445)
중소도시	93.1	4.8	2.1	84.7	12.2	3.1	100.0(476)
읍·면지역	95.0	2.7	2.3	83.9	12.8	3.3	100.0(905)

부인의 출신국별 차이를 보면, 중국 조선족과 한족 모두 재혼 비율이 6.4%, 8.0%로 다른 나라 출신보다 재혼 비율이 높고, 남편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1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베트남이 18% 정도로 평균보다 재혼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부인은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혼 비율이 다소 높으며, 남편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남편과 현재 결혼기간은 4년 미만 25.4%, 4~8년 미만 45.7%, 8년 이상 28.9%로 평균 6.1년으로 산출되었다.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8년 이상이 68%로 평균 10.8년으로 가장 길고, 중국 조선족이 8년 이상이 49%로 평균은 7.6년으로 비교적 길며, 반면에 최근에 결혼이 증가한 캄보디아는 43%가 4년 미만으로 평균 기간은 3.5년으로 산출되었고, 중국 한족과 베트남이 평균 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6.3년, 6.2년인데 비하여 대도시는 이보다 다소 짧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현재 남편과의 결혼 기간

단위: %(명), 년

구분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5.4	45.7	28.9	100.0(1806)	6.1
출신국					
중국(조선족)	11.4	39.3	49.3	100.0(201)	7.6
중국(한족 등)	34.5	50.7	14.8	100.0(223)	4.9
베트남	28.7	60.4	11.0	100.0(492)	4.8
필리핀	26.0	34.2	39.8	100.0(269)	6.6
일본	9.5	22.3	68.2	100.0(179)	10.8
몽골	22.2	60.0	17.8	100.0(90)	5.4
태국	24.0	26.0	50.0	100.0(96)	6.8
캄보디아	43.4	56.0	0.6	100.0(166)	3.5
우즈베키스탄	22.5	27.5	50.0	100.0(40)	6.5
기타	14.3	42.9	42.9	100.0(38)	7.3
F					55.6***
지역					
대도시	25.9	49.3	24.8	100.0(444)	5.8
중소도시	24.2	45.1	30.7	100.0(472)	6.3
읍·면지역	25.8	44.2	30.0	100.0(890)	6.2
F					2.3

*** p<.001

3) 한국 거주기간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4년 미만 31.3%, 4년~8년 미만 40.5%, 8년 이상 28.3%로 평균 거주기간은 5.8년이였다(표 III-2-4 참조).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9.6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이 중국 조선족으로 7.8년이며 대만과 캄보디아가 4년 미만, 중국 한족과 베트남이 4.5년 내외로 비교적 한국 거주기간이 짧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변화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거주지역별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서 다문화가족이 농어촌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조사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한국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결혼 87.7%이고 3.7% 정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으며, 2.0%는 유학으로 파악되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비율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가 각각 95.4%, 92.5%, 97.0%로 모두 90% 이상으로 높다.

〈표 III-2-4〉 한국 거주기간

단위: %(명), 년

구분	4년 미만	4년~ 8년미만	8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1.3	40.5	28.3	100.0(1,810)	5.79
출신국					
중국(조선족)	13.4	34.5	52.0	100.0(200)	7.84
중국(한족 등)	41.1	45.5	13.4	100.0(224)	4.52
베트남	35.4	57.4	7.1	100.0(491)	4.40
필리핀	29.6	29.9	40.5	100.0(274)	6.41
일본	11.1	22.2	66.7	100.0(180)	9.62
몽골	29.5	44.3	26.1	100.0(88)	5.53
태국	23.7	21.6	54.6	100.0(97)	6.87
캄보디아	60.2	39.2	0.6	100.0(166)	3.14
우즈베키스탄	22.5	37.5	40.0	100.0(40)	6.40
기타	24.0	36.0	40.0	100.0(50)	6.30
F					67.5***
지역					
대도시	34.8	42.0	23.3	100.0(443)	5.35
중소도시	29.4	41.3	29.4	100.0(470)	5.98
읍·면지역	30.3	39.4	30.3	100.0(897)	5.90
F					4.2 [†]

* p<.05, *** p<.001

〈표 III-2-5〉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처음 한국에 온 목적

단위: %(명)

구분	결혼	취업	방문	업무	유학	관광	기타	계(수)
전체	87.7	3.7	1.0	0.9	2.0	1.3	3.5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2.2	4.5	1.0	3.0	2.5	1.5	5.4	100.0(202)
중국(한족 등)	79.5	8.5	2.2	2.2	4.0	1.8	1.8	100.0(224)
베트남	95.4	0.8	0.2	-	-	0.2	3.4	100.0(497)
필리핀	92.5	1.8	0.4	0.4	0.4	-	4.7	100.0(279)
일본	89.4	0.6	0.6	-	3.9	2.8	2.8	100.0(180)
몽골	75.6	7.8	-	1.1	8.9	3.3	3.3	100.0(90)
태국	70.1	14.4	6.2	1.0	-	4.1	4.1	100.0(97)
캄보디아	97.0	1.8	-	-	-	-	1.2	100.0(166)
우즈베키스탄	87.8	2.4	4.9	2.4	-	2.4	-	100.0(41)
기타	64.0	8.0	-	2.0	12.0	6.0	8.0	100.0(50)
지역								
대도시	86.5	3.8	1.8	1.1	2.7	2.5	1.6	100.0(445)
중소도시	86.1	3.8	0.6	1.5	2.9	1.1	4.0	100.0(476)
읍·면지역	89.2	3.5	0.8	0.4	1.1	0.9	4.1	100.0(905)

반면에 태국과 중국 한족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비율이 14.4%, 8.5%로 상대적으로 높고, 몽골이 유학 목적 비율이 8.9%로 높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지역의 결혼 목적 비율이 다소 높고, 도시지역은 유학, 관광 비율이 조금 높다(표 III-2-5 참조).

4) 국적 및 체류 신분

다문화가족 부인의 국적은 41.6%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조선족이 82%로 가장 높고 일본의 경우는 국적 취득비율이 7% 정도로 매우 낮으며 다음이 캄보디아로 2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국적 취득자 비율이 높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구분	국적 취득비율	국적취득기간						무응 답	계(수)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6년 미만	6년 이상			
전체	41.6	22.4	16.2	15.3	22.4	23.0	0.8	100.0(760)	
출신국									
중국(조선족)	82.2	8.4	6.6	10.8	24.7	47.7	1.8	100.0(166)	
중국(한족 등)	47.8	24.3	23.4	15.9	22.4	13.1	0.9	100.0(107)	
베트남	43.7	34.1	23.0	20.7	16.1	5.5	0.5	100.0(217)	
필리핀	51.6	10.4	4.9	15.3	28.5	40.3	0.7	100.0(144)	
일본	7.2	15.4	23.1	15.4	15.4	30.8	-	100.0(13)	
몽골	27.8	36.0	24.0	8.0	32.0	-	-	100.0(25)	
태국	25.8	36.0	32.0	8.0	20.0	4.0	-	100.0(25)	
캄보디아	20.5	47.1	23.5	8.8	11.8	8.8	-	100.0(34)	
우즈베키스탄	31.7	23.1	23.1	7.7	38.5	7.7	-	100.0(13)	
기타/무응답	32.0	12.5	12.5	25.0	31.3	18.8	-	100.0(16)	
지역									
대도시	36.6	28.2	17.2	17.8	25.2	11.7	-	100.0(163)	
중소도시	41.2	20.4	12.8	16.8	24.0	24.5	0.5	100.0(196)	
읍·면지역	44.3	20.9	17.5	13.5	20.4	26.9	0.8	100.0(401)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기간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22.4%, 1년 이상 2년 미만 16.2%, 2년 이상 3년 미만 15.3%, 3년 이상 6년 미만 22.4%, 6년 이상 23.0%로 조사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조선족과 필리핀이 6년 이상 비율이 40% 이상으로 많은데 비하여 캄보디아는 1년 미만이 47%에 달한다. 지역별로

는 6년 이상 비율이 농어촌 27%, 중소도시 25% 수준이고 대도시는 1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57.4%¹⁴⁾의 다문화가족 어머니 중 77.4%는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있으며, 20.5%는 영주권자 자격이다. 특히, 한국 국적 미취득 비율이 높은 일본 출신 어머니의 경우 63.8%가 영주권 취득자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영주권 취득자 비율이 다소 낮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국적 미취득자 현재 체류 자격

단위: %(명)

구분	국적 미취득비율	국적 미취득자의 체류자격			
		영주권	배우자	기타	계(수)
전체	57.4	20.5	77.4	2.1	100.0(1,018)
출신국					
중국(조선족)	17.8	22.9	74.3	2.9	100.0(35)
중국(한족 등)	52.2	18.3	80.0	1.7	100.0(115)
베트남	54.9	5.8	92.7	1.6	100.0(259)
필리핀	47.3	6.9	92.3	0.8	100.0(130)
일본	92.8	63.8	33.1	3.1	100.0(163)
몽골	72.2	17.5	81.0	1.6	100.0(63)
태국	74.2	33.8	66.2	-	100.0(71)
캄보디아	76.5	3.3	93.5	3.2	100.0(123)
우즈베키스탄	68.3	33.3	63.0	3.7	100.0(27)
기타/무응답	64.0	12.5	81.3	6.3	100.0(32)
지역					
대도시	62.0	22.3	75.5	2.3	100.0(265)
중소도시	58.6	26.6	71.6	1.9	100.0(271)
읍·면지역	54.6	16.2	81.7	2.1	100.0(482)

나. 사회경제적 특성

1) 학력

결혼이민자 자신의 학력 수준¹⁵⁾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가 38%, 대학 이상이 약 30%, 중학 이하가 31%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응답자 중 2%는 국적 취득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음.

15) 결혼이민자 조사를 통한 결혼이민자 학력 결과는 실제보다 부풀려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I-2-8〉 부인 학력수준

단위: %(명)

구분	초등 이하	중 학교	고등 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계(수)
전체	8.7	22.5	37.9	15.0	13.0	2.1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5	20.8	47.5	17.3	10.4	1.5	100.0(202)
중국(한족 등)	0.9	27.2	43.3	16.5	9.8	1.8	100.0(224)
베트남	17.1	37.4	37.8	4.4	1.8	0.6	100.0(497)
필리핀	2.6	7.9	36.6	30.1	18.6	3.2	100.0(279)
일본	-	1.7	42.8	35.0	18.9	1.1	100.0(180)
몽골	-	10.0	24.4	7.8	48.9	7.8	100.0(90)
태국	12.4	13.4	38.1	11.3	22.7	1.0	100.0(97)
캄보디아	28.8	42.2	25.9	1.2	1.2	-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	2.4	36.6	19.5	34.1	4.9	100.0(41)
기타/무응답	-	8.0	30.0	8.0	36.0	14.0	100.0(50)
지역							
대도시	8.1	22.9	36.0	14.6	14.6	2.9	100.0(445)
중소도시	8.4	17.0	40.3	16.8	13.9	2.5	100.0(476)
읍·면지역	9.1	25.2	37.6	14.1	11.8	1.4	100.0(905)

〈표 III-2-9〉 남편의 학력수준

단위: %(명)

구분	초등 이하	중 학교	고등 학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계(수)
전체	5.6	15.1	50.7	10.5	11.8	2.2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2.5	10.9	63.4	9.9	9.9	3.0	100.0(202)
중국(한족 등)	1.3	8.0	50.9	14.7	16.5	3.1	100.0(224)
베트남	3.8	16.9	52.7	9.1	10.5	1.4	100.0(497)
필리핀	12.2	26.9	41.6	7.2	8.2	1.8	100.0(279)
일본	6.1	7.8	51.7	11.1	18.9	3.3	100.0(180)
몽골	1.1	8.9	51.1	17.8	15.6	1.1	100.0(90)
태국	10.3	21.6	42.3	14.4	8.2	-	100.0(97)
캄보디아	10.2	15.7	51.2	6.0	4.2	1.8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	4.9	48.8	22.0	17.1	4.9	100.0(41)
기타/무응답	4.0	10.0	40.0	8.0	26.0	8.0	100.0(50)
지역							
대도시	3.4	14.4	47.4	10.8	15.7	3.4	100.0(445)
중소도시	4.8	12.6	46.4	13.7	14.5	2.9	100.0(476)
읍·면지역	7.2	16.7	54.5	8.6	8.4	1.3	100.0(905)

출신국가로는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4년제 이상이 56.7%, 39.0%로 학력이 높고,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은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낮아서 초등 이하 학력자가 각각 28.8%, 17.1%, 12.4%이다. 부인 학력의 지역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8 참조).

결혼이민자 남편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가 51%, 대학 이상이 약 24.5%, 중학 이하가 20.7%로 파악되었다. 부인 학력과 비교해 보면, 중학 이하 비율이 낮고 또한 대학 이상 비율이 낮다. 출신 국가로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남편의 학력이 낮다. 지역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남편의 학력이 낮다(표 III-2-9 참조).

2) 남편 직업

다문화가족 남편의 직업은 기능직이 2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 18.0%, 기계조작조립 15.6%로 비교적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 판매, 사무관리, 단순 노무가 7~8% 분포한다. 일을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이고 무응답이 5.5%이었다.

〈표 III-2-10〉 남편의 직업

단위: %(명)

구분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직	기계조 작/조 립	단순 노무	사무 관리	기타	일 안함	무응답	계(수)
전체	6.6	7.0	18.0	23.7	15.6	7.9	8.7	2.9	4.2	5.5	100.0(1,826)
출신국											
중국 조선족	6.9	8.4	18.3	20.3	19.3	6.1	10.4	2.5	4.5	3.0	100.0(202)
중국 한족등	10.3	12.1	8.0	23.2	15.6	6.3	13.3	2.7	2.7	4.9	100.0(224)
베트남	5.6	6.8	19.5	25.6	16.9	6.8	7.0	3.2	2.6	5.8	100.0(497)
필리핀	4.3	2.5	24.0	20.4	15.1	14.3	5.7	2.2	5.4	6.1	100.0(279)
일본	6.7	7.2	15.0	21.1	12.2	8.9	13.9	2.8	6.1	6.1	100.0(180)
몽골	10.0	5.6	13.3	22.2	20.0	2.2	11.1	7.8	1.1	6.7	100.0(90)
태국	5.2	6.2	21.6	24.7	9.3	11.3	5.1	1.0	2.1	13.4	100.0(97)
캄보디아	6.6	6.6	21.7	29.5	13.9	6.0	5.4	1.8	6.0	2.4	100.0(166)
우즈베키스탄	7.3	4.9	17.1	24.4	12.2	7.3	12.2	-	12.2	2.4	100.0(41)
기타	6.0	12.0	12.0	28.0	16.0	2.0	4.0	8.0	8.0	4.0	100.0(50)
지역											
대도시	8.8	11.0	1.1	32.4	15.7	9.0	9.9	4.3	4.7	3.1	100.0(445)
중소도시	6.3	8.2	4.6	26.5	20.8	7.6	13.0	3.2	5.3	4.6	100.0(476)
읍·면지역	5.6	4.4	33.3	17.9	12.8	7.5	5.4	2.1	3.3	7.1	100.0(905)

부인의 출신국별 차이는 일관성 있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 지역 차이로는 능동적이 도시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부인의 취업

가) 취업 경험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 과거에 돈을 받고 일한 경우는 22.4%이며, 돈을 받고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1.2%이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필리핀, 일본, 중국(조선족), 우즈베키스탄이 40%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고, 캄보디아가 현재 일한다는 비율이 15.1%이며 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62.0%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돈을 받고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낮고 현재나 과거에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의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 본 경험

구분	단위: %(명)				계(수)
	현재 돈 받고 일함	과거에 돈 받고 일함	없음	모름	
전체	33.3	22.5	41.2	3.0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39.6	27.2	31.2	2.0	100.0(202)
중국(한족 등)	30.8	24.6	43.8	0.9	100.0(224)
베트남	31.2	19.7	44.3	4.8	100.0(497)
필리핀	42.3	19.7	35.1	2.9	100.0(279)
일본	40.6	26.1	31.7	1.7	100.0(180)
몽골	33.3	22.2	37.8	6.7	100.0(90)
태국	28.9	23.7	43.3	4.1	100.0(97)
캄보디아	15.1	20.5	62.0	2.4	100.0(166)
우즈베키스탄	39.0	29.3	31.7	-	100.0(41)
기타/무응답	28.0	24.0	48.0	-	100.0(50)
지역					
대도시	32.1	22.9	43.4	1.6	100.0(445)
중소도시	35.3	25.8	35.7	3.2	100.0(476)
읍·면지역	32.8	20.6	43.0	3.6	100.0(905)

〈표 III-2-12〉 현재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일(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	기계 관련	가사 관련	기타	사무	전문 직종	기타	(수)
전체	15.6	1.2	1.3	5.4	3.8	6.3	11.2	31.9	1.3	16.0	(608)
출신국											
중국(조선족)	17.5	3.8	-	-	3.8	6.3	5.0	40.0	2.5	16.3	(80)
중국(한족 등)	15.9	1.4	1.4	5.8	2.9	10.1	5.8	33.3	2.9	15.9	(69)
베트남	14.2	1.9	2.6	7.7	6.5	4.5	17.4	27.7	1.3	11.6	(155)
필리핀	11.9	-	0.8	5.1	1.7	4.2	11.0	37.3	-	16.9	(118)
일본	20.5	-	-	2.7	-	6.8	5.5	41.1	1.4	19.2	(73)
몽골	10.0	-	-	3.3	3.3	3.3	10.0	36.7	-	23.3	(30)
태국	10.7	-	-	14.3	10.7	10.7	14.3	17.9	-	7.1	(28)
캄보디아	20.0	-	-	12.0	4.0	8.0	20.0	16.0	-	16.0	(25)
우즈베키스탄	25.0	-	6.3	-	6.3	12.5	18.8	12.5	-	18.8	(16)
기타/무응답	28.6	-	7.1	7.1	-	7.1	7.1	-	7.1	35.7	(14)
지역											
대도시	8.4	0.7	-	9.8	7.0	3.5	12.6	33.6	0.7	20.3	(143)
중소도시	15.5	1.2	-	3.0	3.6	10.1	9.5	33.9	4.2	14.9	(168)
읍·면지역	19.2	1.3	2.7	4.7	2.4	5.4	11.4	30.0	-	14.5	(297)

현재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무직 관련 일을 했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관광 가이드나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은 15.6%로 나타났다. 전문 직종은 1.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일본이 40% 이상, 몽골과 중국 한족이 3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서비스직은 우즈베키스탄이 25%로 많았다. 또한 중국 한족, 태국 및 우즈베키스탄은 10% 이상이 가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태국은 기능·기계 분야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무직은 도시에서 읍·면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다(표 III-2-12 참조).

나) 월 평균 소득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해서 버는 한 달 평균 수입은 74만원 수준이고, 표준 편차는 36만원 수준이다.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50~100만원 미만이 44.9%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100만원 이상은 27.1%, 50만원 미만은 20.9%이다.

〈표 III-2-13〉 취업한 부인의 월 평균 수입

단위: %, 천원(명, 천원)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9	44.9	27.1	7.1	100.0(608)	738.8 (361.4)
출신국						
중국(조선족)	16.3	41.3	40.0	2.5	100.0(80)	816.4
중국(한족 등)	30.4	47.8	20.3	1.4	100.0(69)	692.4
베트남	17.4	39.4	34.8	8.4	100.0(155)	755.3
필리핀	20.3	39.8	24.6	15.3	100.0(118)	746.1
일본	30.1	50.7	17.8	1.4	100.0(73)	616.1
몽골	13.3	60.0	23.3	3.3	100.0(30)	856.2
태국	21.4	50.0	21.4	7.1	100.0(28)	719.8
캄보디아	12.0	68.0	16.0	4.0	100.0(25)	719.6
우즈베키스탄	12.5	43.8	18.8	25.0	100.0(16)	744.2
기타	35.7	42.9	21.4	-	100.0(14)	764.3
F						1.8
지역						
대도시	25.9	45.5	21.7	7.0	100.0(143)	687.6
중소도시	19.6	42.3	32.7	5.4	100.0(168)	761.4
읍·면지역	19.2	46.1	26.6	8.1	100.0(297)	750.6
F						1.8

출신국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은 중국(조선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어에 능숙하여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으로는 몽골이 더 높다. 조선족과 몽골이 80만원이 넘고, 일본과 중국 한족이 70만원 미만, 그 이외는 모두 70만원 대이다.

지역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의 수입인 경우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으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각각 76만원, 75만원 수준이고 대도시는 68만7천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다) 취업 희망 및 사유

〈표 III-2-14〉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취업 희망 이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 교육비 52.4%, 본국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3.4%로 나타났다. 일부는 자녀 돌보기 어려워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6.4%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몽골은 생활비 때문에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으며, 태국과 필리핀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국 가족을 위해서라는 보기를 선택한 비율은 캄보디아가 39.2%로 가장 높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도 30% 내외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은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14.6%, 10.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본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14〉 취업 희망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 교육비 때문	생활비 때문	본국 가족 위해	자녀 돌보기 어려워	기타	일할 생각 없음	계(수)
전체	52.4	54.5	23.4	4.3	7.6	6.4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5.0	50.5	5.9	2.5	11.9	5.9	(202)
중국(한족 등)	57.6	55.8	16.1	5.4	9.4	4.5	(224)
베트남	44.5	53.9	31.6	5.6	6.0	6.4	(497)
필리핀	65.9	52.0	31.9	6.1	4.3	3.6	(279)
일본	51.7	56.7	1.7	0.6	12.2	10.6	(180)
대만	66.7	33.3	-	-	33.3	-	(3)
몽골	35.6	64.4	18.9	-	14.4	3.3	(90)
태국	61.9	56.7	29.9	5.2	5.2	7.2	(97)
캄보디아	47.6	56.6	39.2	3.0	1.8	8.4	(166)
우즈베키스탄	34.1	39.0	17.1	7.3	12.2	14.6	(41)
기타	66.0	60.0	26.0	6.0	6.0	6.0	(50)
지역							
대도시	53.7	53.5	26.5	4.9	8.5	5.6	(445)
중소도시	51.3	54.6	18.7	3.4	6.9	6.7	(476)
읍·면지역	52.3	54.9	24.4	4.5	7.4	6.5	(905)

라) 취업 교육

(1) 교육 경험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받

아보았다는 응답은 31.8%이고 다수인 63.5%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조선족)과 몽골이 교육 경험 비율이 44~45%로 다른 나라에 비해 취업교육을 받아본 경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취업교육 경험률이 20%대로 70% 가까이가 취업 교육 경험이 없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취업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III-2-15 참조).

〈표 III-2-15〉 현재까지 받아본 취업교육(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교육내용						(수)
		다문화 강사	제과 제빵	산모 도우미	피부 미용사	컴퓨터 자격자	기타	
전체	31.8	43.8	5.7	5.7	9.0	36.7	34.3	(580)
출신국								
중국(조선족)	43.6	34.1	6.8	3.4	5.7	52.3	38.6	(88)
중국(한족 등)	36.6	50.0	2.4	3.7	9.8	43.9	26.8	(82)
베트남	24.7	43.9	4.1	12.2	13.8	27.6	26.8	(123)
필리핀	28.7	41.3	8.8	2.5	5.0	17.5	42.5	(80)
일본	35.0	44.4	3.2	3.2	6.3	36.5	47.6	(63)
몽골	45.6	51.2	4.9	2.4	7.3	34.1	34.1	(41)
태국	37.1	41.7	13.9	2.8	13.9	44.4	25.0	(36)
캄보디아	22.3	54.1	8.1	13.5	10.8	37.8	29.7	(37)
우즈베키스탄	29.3	50.0	8.3	-	8.3	50.0	41.7	(12)
기타/무응답	38.9	33.3	-	5.5	5.5	55.5	38.9	(18)
지역								
대도시	27.0	39.2	3.3	4.2	9.2	39.2	43.3	(120)
중소도시	38.0	46.4	6.6	3.9	8.3	34.3	34.8	(181)
읍·면지역	30.8	44.1	6.1	7.5	9.3	37.3	30.1	(279)

현재까지 받아본 취업 교육의 종류는 다문화 강사교육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컴퓨터 자격증 교육이 36.7%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사는 9.0%, 제과제빵 교육이나 산모도우미 교육은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한족,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다문화강사 교육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한족은 출신국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아 수요가 높거나 정보 공유가 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은 다문화가족 내 비율은 낮지만 모국어의 희소성 때문에 다문화강사 교육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자격증 교육 경험은 중국 조선족과 우즈베키스탄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중

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다문화강사 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컴퓨터 자격증 교육 경험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업교육을 지원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6.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행정기관 14.0%, 직업전문학교 10.5%, 사회복지기관 8.8%로 낮은 비율이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지원을 받은 비율은 캄보디아와 중국 한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태국은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몽골, 일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 받은 비율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표 III-2-16 참조).

〈표 III-2-16〉 취업교육 지원 기관(복수응답)

구분	단위: %(명)						(수)
	다문화 지원센터	사회복지 기관	종교 기관	행정 기관	직업 전문학교	기타	
전체	66.6	8.8	2.2	14.0	10.5	16.2	(580)
출신국							
중국(조선족)	60.2	8.0	1.1	14.8	15.9	23.9	(88)
중국(한족 등)	74.4	8.5	-	11.0	9.8	9.8	(82)
베트남	69.1	8.1	2.4	13.0	5.7	12.2	(123)
필리핀	67.5	12.5	3.8	13.8	13.8	16.3	(80)
일본	60.3	11.1	6.3	14.3	11.1	19.0	(63)
몽골	68.3	12.2	-	12.2	9.8	17.1	(41)
태국	55.6	5.6	-	25.0	11.1	22.2	(36)
캄보디아	83.8	5.4	5.4	13.5	2.7	13.5	(37)
우즈베키스탄	33.3	8.3	-	8.3	25.0	25.0	(12)
기타	50.0	-	-	16.7	11.1	16.7	(18)
지역							
대도시	57.5	10.0	2.5	22.5	15.8	15.0	(120)
중소도시	66.3	9.9	1.1	8.8	11.0	22.7	(181)
읍·면지역	70.6	7.5	2.9	13.6	7.9	12.5	(279)

(2) 향후 의사

조사에서는 앞으로 취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5.3%로 대부분 취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별로 보면 태국과 중국 한족이 매우 그렇다가 60% 이상으로 참여 의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다' 라는 비율은 일본이 12.2%, 캄보디아 6.0%, 우즈베키스탄 7.3%로 산출되었다. 지역별 취업교육 참여 의사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2-17〉 취업교육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전체	2.1	3.8	38.0	47.3	8.8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0	3.0	34.2	50.0	7.9	100.0(202)
중국(한족 등)	1.3	3.1	28.1	62.9	4.5	100.0(224)
베트남	1.0	3.8	39.4	46.5	9.3	100.0(497)
필리핀	1.1	3.6	53.8	34.4	7.2	100.0(279)
일본	3.9	8.3	34.4	37.2	16.1	100.0(180)
몽골	2.2	2.2	32.2	51.1	12.2	100.0(90)
태국	1.0	1.0	20.6	69.1	8.2	100.0(97)
캄보디아	3.6	2.4	38.0	45.8	10.2	100.0(166)
우즈베키스탄	4.9	2.4	53.7	34.1	4.9	100.0(41)
기타	-	8.0	40.0	48.0	4.0	100.0(50)
지역						
대도시	1.8	3.4	36.4	49.2	9.2	100.0(445)
중소도시	2.3	2.7	35.9	49.8	9.2	100.0(476)
읍·면지역	2.2	4.5	39.9	45.0	8.4	100.0(905)

다. 건강·보건 특성

1) 질병과 장애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비율은 부인은 질병 3.3%, 장애 0.5%, 질병과 장애가 모두 있다는 0.1%로 모두 3.9% 정도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편은 질병 7.5%, 장애 6.3%, 질병과 장애 0.8로 모두 14.4% 정도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인은 별 차이가 없고, 남편은 대도시에서는 질병 비율이 9.1%로 높고, 읍·면지역에서는 장애가 있는 비율이 7.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2-18 참조).

장애가 있다는 경우에 등급은 부인은 4~6 등급이 50%로 과반수이고 1~3등급

이 16.7%, 7~9등급이 16.7%인데 비하여, 남편은 1~2 등급이 44.2%로 가장 많고, 4~6등급이 31.0%, 7~9등급이 10.9%이다(표 III-2-19 참조).

즉, 외국 출신 다문화가족 부인은 장애가 있다는 비율이 0.6%에 불과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그 남편은 장애비율이 7.1%에 달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이 높은 비율이 상당수라고 하겠다.

〈표 III-2-18〉 질병·장애가 있다는 비율

단위: %(명)

구분	부인			남편			(수)
	질병	장애	질병+장애	질병	장애	질병+장애	
전체	3.3	0.5	0.1	7.3	6.3	0.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4.0	1.0	-	7.4	5.4	0.5	(202)
중국(한족 등)	3.1	-	-	5.4	3.6	-	(224)
베트남	3.6	0.4	-	6.6	6.6	0.4	(497)
필리핀	4.3	0.7	-	6.8	11.1	1.1	(279)
일본	2.2	0.6	-	8.9	5.0	1.1	(180)
몽골	1.1	-	-	5.6	2.2	-	(90)
태국	5.2	1.0	2.1	14.4	6.2	-	(97)
캄보디아	1.2	1.2	-	9.0	6.6	1.2	(166)
우즈베키스탄	2.4	-	-	2.4	2.4	-	(41)
기타/무응답	6.0	-	-	6.0	6.0	8.0	(50)
지역							
대도시	3.8	0.4	-	8.3	5.8	0.7	(445)
중소도시	3.4	0.2	0.2	7.1	5.7	1.3	(476)
읍·면지역	3.1	0.8	0.1	6.9	6.9	0.6	(905)

〈표 III-2-19〉 부인과 남편의 장애등급

단위: %(명)

구분	1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	7등급~ 9등급	10등급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부인	16.7	50.0	16.7	-	16.7	100.0(12)
남편	44.2	31.0	10.9	0.8	13.2	100.0(129)

2) 음주

다문화가족 부인과 남편의 음주 빈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은 안 마신다는 비율이 30.9%이고 약 70% 정도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9%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20.5%는 주 2~4회 정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2-20 참조).

〈표 III-2-20〉 남편의 음주 빈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2~4회	월 2~4회	월 1회 이하	안 마심	무응답	계(수)
전체	9.0	20.5	22.1	15.9	30.9	1.8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6.9	21.8	27.2	17.3	26.2	0.5	100.0(202)
중국(한족 등)	8.5	20.1	32.1	15.6	21.0	2.7	100.0(224)
베트남	9.5	20.7	19.1	15.7	33.6	1.4	100.0(497)
필리핀	10.4	20.1	19.4	15.8	31.9	2.5	100.0(279)
일본	10.0	20.6	20.6	14.4	33.9	0.6	100.0(180)
몽골	3.3	20.0	14.4	18.9	42.2	1.1	100.0(90)
태국	16.5	22.7	27.8	12.4	19.6	1.0	100.0(97)
캄보디아	9.0	19.9	18.7	18.1	33.1	1.2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	24.4	26.8	12.2	34.1	-	100.0(41)
기타/무응답	6.0	14.0	16.0	18.0	42.0	4.0	100.0(50)
지역							
대도시	8.8	20.9	21.3	20.9	27.0	1.1	100.0(445)
중소도시	9.9	20.0	20.6	15.3	33.2	1.1	100.0(476)
읍·면지역	8.7	20.7	23.2	13.8	31.6	2.0	100.0(905)

부인의 출신국별로는 중국과 태국 출신 남편이 술을 마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차이로는 안 마신다는 비율이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고, 매일 마신다는 비율은 태국, 필리핀, 일본이 다소 높다.

다문화가족 부인은 안 마신다는 비율이 76.7%이고 무응답이 4.8% 정도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20~25% 정도는 음주를 한다고 추정된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비율은 극소수이며 약 2% 정도가 주 2~4회 정도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인의 출신국별로는 안 마신다는 비율은 일본 87.8%,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83% 수준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안 마신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표 III-2-21 참조).

술을 마신다는 경우에 남편은 소주 1병이 46%로 가장 많고 소주 2병 이상이 14.5%이다. 무응답을 포함하여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다(부표 III-2-1 참조).

부인은 소주 반병이 53.3%로 가장 많고 소주 2병 이상이 1.8%이다. 부인 역시 무응답을 포함하여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다(부표 III-2-2 참조).

〈표 III-2-21〉 결혼이민자 부인의 음주 빈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주 2~4회	월 2~4회	월 1회 이하	안 마심	무응답	계(수)
전체	0.3	1.6	5.0	11.5	76.7	4.8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0.5	2.5	11.4	16.3	62.9	6.4	100.0(202)
중국(한족 등)	0.4	0.9	8.0	12.9	73.7	4.0	100.0(224)
베트남	0.6	0.8	2.4	7.4	82.7	6.0	100.0(497)
필리핀	-	1.4	4.3	14.0	75.3	5.0	100.0(279)
일본	-	2.8	4.4	4.4	87.8	0.6	100.0(180)
몽골	-	3.3	6.7	24.4	62.2	3.3	100.0(90)
태국	-	4.1	7.2	14.4	68.0	6.2	100.0(97)
캄보디아	-	-	1.8	9.0	83.1	6.0	100.0(166)
우즈베키스탄	-	4.9	-	14.6	75.6	4.9	100.0(41)
기타/무응답	-	-	6.0	14.0	76.0	4.0	100.0(50)
지역							
대도시	0.2	0.4	5.2	10.6	80.0	3.6	100.0(445)
중소도시	0.6	2.9	5.0	10.3	76.5	4.6	100.0(476)
읍·면지역	0.1	1.4	5.0	12.6	75.1	5.7	100.0(905)

라. 부부관계 특성

1) 부부 소통과 만족

남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9.0%로 그렇지 않다는 1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평균 3.52점이었다.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경우가 39.8%로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응답보다는 다소 낮지만 5점 평균에 3.28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5점 평균에 3.61점으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애정 표현을 잘 한다는 것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II-2-22 참조).

부부관계에 대해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부인이 남편과 이야기 자주 나누기, 남편의 애정 표현 정도,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모두 평균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몽골과 캄보디아가 각각 2개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혼만족도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표 III-2-23 참조).

〈표 III-2-22〉 부부관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닌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모 름	계(수)	5점 평균
이야기	3.0	11.0	34.9	29.9	19.1	2.1	100.0(1,826)	3.52
애정표현	6.8	14.8	36.2	24.3	15.5	2.5	100.0(1,826)	3.28
결혼생활 만족	3.8	7.4	33.1	32.7	20.7	2.4	100.0(1,826)	3.61

〈표 III-2-23〉 출신국별 부부관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이야기 나누기	애정표현	결혼생활 만족	(수)
전체	3.52	3.28	3.61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3.46	3.21	3.47	(202)
중국(한족 등)	3.39	3.08	3.43	(224)
베트남	3.63	3.43	3.76	(497)
필리핀	3.46	3.33	3.55	(279)
일본	3.46	3.18	3.51	(180)
몽골	3.76	3.12	3.79	(90)
태국	3.52	3.22	3.57	(97)
캄보디아	3.50	3.36	3.77	(166)
우즈베키스탄	3.32	3.00	3.41	(41)
기타/무응답	3.73	3.20	3.47	(49)
F	2.2*	2.8**	3.7***	

* p<.05, ** p<.005, *** p<.001

2) 부부 권한

가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누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는 주로 남편이 한다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30.7%이고 25.8%가 부인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해서는 부부간 협의로 정한다는 응답이 41.7%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주로 본인이 하는 경우는 33.0%, 남편이 하는 경우는 21.2%로 다른 가정 내 결정 사항에 비해 부인의 권한이 강한 편이었다. 주택 매매나 이사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43.5%, 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은 4.8%이다. 또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간 협의로 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고,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33.7%,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3.8%이다. 부부 권한 중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권한이 크다. 생활비 지출조차 부인보다는 남편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부인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인다(표 III-2-24 참조).

〈표 III-2-24〉 의사결정 방법 개요

구분	단위: %(명)				계(수)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 협의	모름	
생활비 지출	25.8	39.5	30.7	3.9	100.0(1,826)
자녀 양육·교육	33.0	21.2	41.7	4.0	100.0(1,826)
주택매매 이사	4.8	43.5	38.8	12.9	100.0(1,826)
부모 용돈 지출	13.8	33.7	38.7	13.8	100.0(1,826)

〈표 III-2-25〉 의사결정 방법: 생활비 지출과 자녀 양육·교육

구분	생활비 지출				자녀 양육·교육				계(수)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 협의	모름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 협의	모름	
전체	25.8	39.5	30.7	3.9	33.0	21.2	41.7	4.0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44.6	18.8	33.7	3.0	50.5	6.9	38.6	4.0	100.0(202)
중국(한족 등)	32.1	38.8	26.3	2.7	32.1	19.2	46.0	2.7	100.0(224)
베트남	16.9	46.7	31.2	5.2	22.9	27.2	45.9	4.0	100.0(497)
필리핀	21.5	39.8	35.5	3.2	25.8	21.1	49.5	3.6	100.0(279)
일본	35.6	32.8	30.6	1.1	45.6	15.0	37.2	2.2	100.0(180)
몽골	32.2	33.3	27.8	6.7	42.2	16.7	33.3	7.8	100.0(90)
태국	20.6	46.4	29.9	3.1	44.3	14.4	39.2	2.1	100.0(97)
캄보디아	17.5	53.0	22.9	6.6	27.1	38.0	27.1	7.8	100.0(166)
우즈베키스탄	19.5	41.5	34.1	4.9	36.6	26.8	31.7	4.9	100.0(41)
기타/무응답	32.0	30.0	36.0	2.0	40.0	14.0	44.0	2.0	100.0(50)
지역									
대도시	27.9	37.3	30.1	4.7	34.8	22.7	37.3	5.2	100.0(445)
중소도시	29.0	39.5	28.8	2.7	35.7	18.1	43.3	2.9	100.0(476)
읍·면지역	23.2	40.7	31.9	4.2	30.7	22.2	43.1	4.0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4.0	51.4	30.1	4.4	23.4	27.1	44.7	4.8	100.0(564)
4년~8년 미만	23.9	40.5	30.8	4.8	30.2	22.9	42.4	4.5	100.0(733)
8년 이상	41.3	25.1	31.4	2.1	48.1	11.5	37.8	2.5	100.0(513)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은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46% 이상으로 높았으며, 중국(조선족)은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45%로 많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중국(조선족) 50.5%, 일본, 몽골,

태국 405 이상으로 본인 결정 비율이 높았으며, 캄보디아 38%,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7%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택 매매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중국(조선족)은 부부간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51.0%이고 본인 결정도 8.9%로 다른 출신국 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부분도 주택 매매 및 이사와 유사하게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은 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중국(조선족)은 부부간 협의 및 부인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2-25, III-2-26 참조).

〈표 III-2-26〉 의사결정 방법: 주택 매매·이사와 부모님 용돈

단위: %(명)

구분	주택매매·이사				부모님 용돈				계(수)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 협의	모름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 협의	모름	
전체	4.8	43.5	38.8	12.9	13.8	33.7	38.7	13.8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9	33.2	51.0	6.9	26.2	16.8	50.5	6.4	100.0(202)
중국(한족 등)	5.4	44.2	44.2	6.3	10.7	35.3	43.8	10.3	100.0(224)
베트남	2.6	46.1	35.8	15.5	11.7	38.6	34.0	15.7	100.0(497)
필리핀	5.0	38.4	40.1	16.5	11.8	30.1	44.8	13.3	100.0(279)
일본	6.7	45.6	41.1	6.7	17.8	31.7	35.6	15.0	100.0(180)
몽골	5.6	45.6	37.8	11.1	15.6	30.0	40.0	14.4	100.0(90)
태국	4.1	37.1	41.2	17.5	16.5	29.9	42.3	11.3	100.0(97)
캄보디아	3.0	54.8	19.3	22.9	9.0	47.0	22.3	21.7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	53.7	34.1	9.8	9.8	39.0	31.7	19.5	100.0(41)
기타/무응답	6.0	42.0	46.0	6.0	6.0	38.0	44.0	12.0	100.0(50)
지역									
대도시	4.3	50.3	35.3	10.1	13.0	33.3	38.7	15.1	100.0(445)
중소도시	6.7	39.5	44.7	9.0	13.7	34.2	41.4	10.7	100.0(476)
읍·면지역	4.0	42.3	37.5	16.2	14.3	33.6	37.3	14.8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0.7	50.5	33.0	15.8	4.8	45.4	33.7	16.1	100.0(564)
4년~ 8년 미만	4.2	42.6	39.3	13.9	14.1	32.2	38.9	14.9	100.0(733)
8년 이상	10.1	37.0	44.6	8.2	23.2	22.8	44.4	9.6	100.0(513)

지역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에 대해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결혼이민자 여성이 결정하는 것보다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약간 더 많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이주여성이 결정하는 비율은 낮고 부부간 협의로 결정하는 비율은 다소 높았다. 주택매매와 이사

문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나 읍·면보다 부인의 권한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뚜렷한 특징은 없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를 보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정의 관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이 8년이 지나면 생활비 지출이나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 용돈 문제도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비율이 남편이 알아서 한다는 비율보다 높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이 가장 낮은 주택 매매나 이사의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8년이 지났음에도 주로 본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10.1%에 불과하고 37.0%는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개인적 역량

가) 한국어 실력

한국어 실력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교육자료·안내장 등 인쇄물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한국어로 쓸 수 있다 등 3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3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말하기, 내용파악, 쓰기의 순서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고 아니다는 응답은 낮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말하기 13.7%, 내용 파악하기 17.0%, 쓰기 23.7%로 차이를 보인다. 5점 평균으로는 각각 3.39점, 3.29점, 3.14점이다(표 III-2-27 참조).

출신국별 차이를 5점 척도로 보면 중국 조선족이 모두 4점 이상이고 몽골, 일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은 모두 평균 이하로 점수가 낮다(표 III-2-28 참조).

〈표 III-2-27〉 한국어 실력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수)	5점 평균
말하기	3.6	10.1	42.2	30.8	12.6	0.7	100.0(1,826)	3.39
내용 파악하기	4.5	12.5	42.9	27.4	11.6	1.1	100.0(1,826)	3.29
쓰기	5.1	18.6	42.1	23.1	9.9	1.2	100.0(1,826)	3.14

<표 III-2-28> 한국어 실력: 5점 척도

구분	말하기	내용 파악	쓰기	단위: 점(명) (수)
전체	3.39	3.29	3.14	(1,812)
출신국				
중국(조선족)	4.20	4.15	4.11	(202)
중국(한족 등)	3.18	3.07	2.79	(224)
베트남	3.29	3.11	3.06	(497)
필리핀	3.11	3.14	2.86	(279)
일본	3.48	3.57	3.23	(180)
몽골	3.86	3.58	3.3	(90)
태국	3.29	3.18	3.13	(97)
캄보디아	3.13	2.99	3.03	(166)
우즈베키스탄	3.44	3.29	3.22	(41)
기타/무응답	3.54	3.26	2.92	(30)
F	28.0 ^{***}	28.4 ^{***}	31.3 ^{***}	
지역				
대도시	3.29	3.22	3.02	(443)
중소도시	3.46	3.35	3.24	(475)
읍·면지역	3.40	3.30	3.15	(894)
F	3.2 [*]	2.0	5.2 [*]	
거주기간				
4년 미만	3.01	2.87	2.81	(560)
4년~8년 미만	3.47	3.32	3.14	(730)
8년 이상	3.71	3.73	3.49	(510)
F	82.6 ^{***}	118.2 ^{***}	64.8 ^{***}	

*** p<.001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점수가 다소 높은데, 이는 거주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년 이상도 5점 만점에 모두 4점을 넘지 못한다.¹⁶⁾

다음 <표 III-2-29>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을 말하기, 내용 파악, 쓰기로 나누어 어머니 출신국과 거주기간 및 지역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출신국과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말하기, 내용 파악, 쓰기에서 출신국과 거주기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16) 분포는 <부표 III-2-3>, <부표 III-2-4>, <부표 III-2-5>에 수록하였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하기, 내용 파악은 지역과 거주기간, 출신국과 지역 및 거주기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9〉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실력 차이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모 출신국	말하기	90.40	9	10.04	13.55***
	내용 파악	73.58	9	8.18	10.58***
	쓰기	111.72	9	12.41	14.97***
지역	말하기	0.10	2	0.05	0.07
	내용 파악	0.32	2	0.16	0.21
	쓰기	3.09	2	1.55	1.86
모 거주기간	말하기	23.14	2	11.57	15.60***
	내용 파악	43.08	2	21.54	27.86***
	쓰기	31.39	2	15.69	18.92***
출신국×지역	말하기	20.07	18	1.12	1.50
	내용 파악	16.48	18	0.92	1.18
	쓰기	15.51	18	0.86	1.04
출신국×거주기간	말하기	25.21	18	1.40	1.89*
	내용 파악	27.00	18	1.50	1.94*
	쓰기	25.52	18	1.42	1.71*
지역×거주기간	말하기	7.69	4	1.92	2.59*
	내용 파악	8.05	4	2.01	2.60*
	쓰기	7.49	4	1.87	2.26
출신국×지역×거주기간	말하기	36.14	34	1.06	1.43*
	내용 파악	37.85	34	1.11	1.44*
	쓰기	33.37	34	0.98	1.18
오차	말하기	1269.31	1712	0.74	
	내용 파악	1323.45	1712	0.77	
	쓰기	1419.95	1712	0.83	
합계	말하기	22326.00	1800		
	내용 파악	21273.00	1800		
	쓰기	19564.00	1800		

* p<.05, *** p<.001

나) 컴퓨터 사용 능력

결혼이민자 여성의 컴퓨터 사용 능력은 인터넷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의 3가지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비율이 인터넷 검색 35.3%, 이 메일 35.5%, 문서작성 20.5%이고, 못 한다는 비율이 인터넷 검색 18.9%, 이 메일 29.1%, 문서작성 42.9%이다. 5점 평균으로 각각 3.21점, 3.08점, 2.63점이다(표 III-2-30 참조).

〈표 III-2-30〉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개요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전혀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무응답		
인터넷 검색	9.9	9.0	44.6	21.1	14.2	1.2	100.0(1,826)	3.21
이메일	14.1	15.0	33.7	19.5	16.0	1.7	100.0(1,826)	3.08
문서 작성	20.5	22.4	34.8	13.7	6.8	1.8	100.0(1,826)	2.63

〈표 III-2-31〉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5점 척도

구분	단위: %(명), 점			
	인터넷 검색	이메일	문서작성	(수)
전체	3.21	3.08	2.63	(1,812)
출신국				
중국(조선족)	3.34	3.21	2.91	(202)
중국(한족 등)	3.38	3.16	2.79	(224)
베트남	2.90	2.69	2.25	(497)
필리핀	3.64	3.70	2.97	(279)
일본	3.51	3.47	2.96	(180)
몽골	3.60	3.81	3.09	(90)
태국	3.18	3.02	2.68	(97)
캄보디아	2.39	1.99	1.87	(166)
우즈베키스탄	3.49	3.56	2.93	(41)
기타/무응답	3.41	3.42	2.86	(50)
F	19.6***	29.0***	14.6***	
지역				
대도시	3.26	3.13	2.61	(443)
중소도시	3.38	3.33	2.81	(475)
읍·면지역	3.10	2.93	2.55	(894)
F	12.1***	15.7***	8.1***	
거주기간				
4년 미만	3.07	2.86	2.41	(560)
4년~ 8년 미만	3.18	3.04	2.59	(730)
8년 이상	3.40	3.38	2.94	(510)
F	11.8***	24.2***	28.8***	

*** p<.001

〈표 III-2-31〉은 출신국, 거주지역과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를 5점 평균으로 제

시한 것이다.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보면 필리핀, 일본, 몽골은 비교적 높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5점 평균으로는 인터넷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 점수가 각각 2.39점, 1.99점, 1.87점으로 인터넷 검색에 비해 이 메일과 문서작성이 낮다. 인터넷 검색은 30.7%의 전혀 못함을 포함하여 47%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은 전혀 못함 44.6%를 포함하여 69.3%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문서작성은 70.5%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부표 III-2-6, 부표 III-2-7, 부표 III-2-8 참조).

베트남 출신은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5점 평균으로는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 점수가 각각 2.90점, 2.69점, 2.25점이다. 26.4%가 검색을 못하고, 41.5%가 이메일을 못하며 57%가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인터넷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 능력 모두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낮고, 또한 한국 거주기간도 인터넷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 능력 모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용 능력이 유의하게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 특성

가. 개요

<표 III-3-1>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상태가 또래 아동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발달영역 모두 또래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였다. 자녀의 발달상태가 또래보다 빠르다는 응답은 신체발달이 22.0%로 가장 많지만 다른 발달영역과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또래보다 늦다는 응답은 신체발달 19.9%, 언어발달 20.7%, 인지발달 14.1%, 사회성발달 11.1%로 언어, 신체, 인지, 사회성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은 모름·무응답이 5% 이상이였다.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점수화하여 산출한 결과 5점 평균에서 3.33점으로 대부분 또래와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발달영역 중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평균 3.48점, 3.42점으로 높고, 언어발달이 3.27점이며 신체발달은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III-3-1〉 어머니의 자녀 발달상태 인식 개요: 또래와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 무응답	계(수)	5점 평균
신체발달	2.5	16.4	57.7	17.3	4.7	1.6	100.0(1,826)	3.15
언어발달	2.0	18.7	54.5	15.7	5.1	3.9	100.0(1,826)	3.27
인지발달	2.2	11.9	60.5	15.6	4.0	5.9	100.0(1,826)	3.42
사회성발달	1.6	9.5	63.0	14.4	5.4	6.0	100.0(1,826)	3.48
계								3.33

나. 어머니 특성 차이

또래 아동에 비해 자녀의 발달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모의 출신국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III-3-2>에 제시하였다. 출신국별로는 4가지 발달 측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 차이는 언어발달에서 나타났다.

신체발달은 5점 척도로는 몽골이 3.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3.00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3점 미만은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로 이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 신체발달이 또래보다 늦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나 읍·면 거주자보다 또래보다 늦다는 정도가 높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는 없다.

언어발달은 모의 출신국에 따라 중국 조선족이 3.15점으로 가장 높고 몽골과 베트남이 3.0점 이상이며, 중국 한족, 캄보디아,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은 3점 미만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읍·면지역이 3.08점,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2.95점, 3.02점으로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또래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자녀의 인지발달 상태는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몽골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 한족과 조선족이 비교적 높으며 일본과 캄보디아가 3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중소도시가 평균 3.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언어발달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III-3-2〉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발달상태: 5점 척도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단위: %(명)
					(수)
전체	3.05	3.03	3.08	3.13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3.11	3.15	3.14	3.15	(202)
중국(한족 등)	3.18	2.98	3.19	3.07	(224)
베트남	3.04	3.05	3.07	3.15	(497)
필리핀	2.95	3.09	3.09	3.15	(279)
일본	2.95	2.94	2.98	3.00	(180)
몽골	3.24	3.14	3.20	3.33	(90)
태국	3.11	2.98	3.09	3.25	(97)
캄보디아	2.98	2.96	2.85	3.11	(166)
우즈베키스탄	3.12	2.77	3.08	3.10	(41)
기타/무응답	3.08	3.02	3.13	3.15	(49)
F	2.4*	1.8 [#]	2.9**	1.8 [#]	
지역					
대도시	3.01	2.95	3.05	3.09	(443)
중소도시	3.07	3.02	3.11	3.19	(475)
읍·면지역	3.07	3.08	3.08	3.12	(894)
F	0.1	3.9*	0.7	2.3	
거주기간					
4년 미만	3.06	2.93	3.03	3.11	(551)
4년~ 8년 미만	3.04	3.05	3.07	3.16	(728)
8년 이상	3.05	3.12	3.14	3.10	(505)
F	0.1	7.0**	3.0 [#]	1.3	

p<.1, * p<.05, ** p<.01

또래 아동에 비해 자녀의 사회성발달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모의 출신국별 차이는 몽골이 3.33점으로 가장 높고 일본이 3.0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이 중국 한족 3.07점으로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소도시 3.19점, 읍·면지역 3.12점, 대도시 3.09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는 거의 없다.¹⁷⁾

요약하면, 일본과 캄보디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고 보고 보는 비율이 높다. 일본은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17) 모 출신국 및 지역별 분포는 <부표 III-3-1>, <부표 III-3-2>, <부표 III-3-3>, <부표 III-3-4>에 수록하였음.

길고 캄보디아는 4년 미만으로 가장 짧는데, 이 두 나라 출신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하여 우려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높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인지 발달과 언어발달은 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지만, 신체와 사회성 발달은 차이가 없다.

4. 정책 시사점

다문화가족은 가족 규모는 크고 자녀수는 많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특성을 보면 가족 상담 사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선 부부 측면을 보면 부부 간의 나이 차이가 평균 12세로 세대가 다르다. 남편의 경우 재혼이 12.7%이며, 남편 중 14.4%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고, 9.0%가 매일 술을 마시며 20.4%는 주 2~4회 술을 마신다. 자녀도 남편과 부인의 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는 경우가 자녀의 4% 정도로 높다. 또한 기타 가족도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별 동거로는 시부모가 시아버지 16.5%, 시어머니 31.6%이고 남편의 형제자매가 7.1%이다. 친정 식구로는 아버지 3.2%, 어머니 1.2%, 형제자매 3.0%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반 영유아 가구와는 다른 가구 특성을 가짐에 따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족관계 문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이민자 대상의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결혼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이 비교적 낮다. 특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초등 이하 학력자가 각각 28.8%, 17.1%, 12.4%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강화와 구직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가정 경제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평균 가구원 수가 4.3명인데 반해, 평균 소득수준은 182만원이다. 직업이 없다는 남편도 4.2%고, 응답자의 4.5%는 생활비를 보조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 가정이 생활보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결혼이민자의 7.6%가 스스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임을 알고 있었다. 결혼이민자 부인들도 이러한 가정 경제 상태를 인식하고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5.3%가 취업교

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조사 시 어머니의 1/3 정도는 일을 하여 월 평균 74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국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3.4%이나 이 보다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교육비가 52.4%로 나타났다. 일할 생각이 없는 부인은 6.4%에 그쳤다. 약 30%가 취업교육을 받아 보았다고 하였는데, 교육을 지원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6.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직업 전문학교는 10.5%에 불과하였다. 내용도 다문화 강사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접 직업교육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 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므로 이보다는 직업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부인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부인의 가정에서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체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권한이 크다. 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생활비 지출 25.8%, 주택 매매나 이사 4.8%, 부모님 용돈 13.8%이다. 이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결정권이 33.0%이고, 부부가 협의하는 비율도 41.7%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책임지며 자녀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의 출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사용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말하기 13.7%, 내용 파악하기 17.0%, 쓰기 23.7%이다. 5점 평균으로는 각각 3.39점, 3.29점, 3.14점으로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중국 조선족이 모두 4점 이상이고, 몽골, 일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은 모두 평균 이하로 점수가 낮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사용능력도 향상된다. 그러나 거주기간 8년 이상도 5점 만점에서 모두 4점을 넘지 못한다.

여섯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5점 평균으로 인터넷 검색, 이 메일, 문서작성이 각각 3.21점, 3.08점, 2.63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인터넷 활용의 한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아동발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과 캄보디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한국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일본과 가장 짧은 캄보디아 출

신 부모들이 자신 자녀의 발달에 대하여 우려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높다는 점은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여덟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약 1% 정도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자녀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아홉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출신국별 차이를 둔 접근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학력을 보면,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4년제 이상이 56.7%, 39.0%로 학력이 높고,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초등 이하 학력자가 각각 28.8%, 17.1%, 12.4%로 낮다. 몽골 출신의 상당수는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어는 5점 평균으로 중국 조선족이 모두 4점 이상이고 몽골, 일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은 모두 평균 이하이다. 컴퓨터 사용 능력은 캄보디아 출신이 가장 낮으며, 베트남 출신 역시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보다는 조금 나으나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학력이 높은 몽골, 특정 종교에 기반하며 거주기간이 오래된 일본, 한국에 친인척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도 잘하는 조선족, 한국어나 컴퓨터 능력이 낮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내용과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IV. 자녀 양육 실태와 기대

제4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실태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았다. 제1절에서는 자녀 주 양육자와 지원자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제2절에서는 부모역할 수행 실태, 제3절에서는 양육 관련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제4절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 어머니 나라 언어 교육, 자녀 성장 후 경제적 지원과 같은 도구적 가치 등에 대한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1. 주 양육자와 양육 지원

가. 주 양육자

자녀가 집에 있는 동안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이 82.7%로 가장 많았다. 가족 중에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가 각각 13% 정도였고, 본인의 부모가 2.7%이어서 일부이지만 친정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응답은 2.1% 정도였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대부분 어머니 본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국 한족이 8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남편이 돌보는 경우는 몽골과 중국 조선족이 20.0%, 18.3%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어머니들은 남편보다 시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더 많았다. 본인의 부모라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이나 대도시에 비해 어머니 본인이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이 더 많았고, 읍·면지역은 남편보다 시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V-1-1〉 집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남편 부모	본인 부모	남편 형제 자매	본인 형제 자매	결혼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기타	없음	(수)
전체	82.7	13.8	13.5	2.7	0.8	0.9	0.5	0.1	1.3	2.1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1.2	18.3	9.4	6.4	1.5	3.0	-	0.5	2.0	4.0	(202)
중국(한족 등)	87.5	15.6	7.1	5.8	-	0.9	0.9	0.4	0.9	1.8	(224)
베트남	83.5	11.7	14.5	2.4	0.4	0.6	0.2	-	0.4	1.0	(497)
필리핀	79.9	12.5	17.2	1.1	1.8	0.4	0.7	-	1.4	3.2	(279)
일본	83.9	8.3	7.2	0.6	0.6	1.1	1.1	-	2.2	2.8	(180)
몽골	77.8	20.0	13.3	1.1	4.4	1.1	-	-	-	4.4	(90)
태국	81.4	16.5	17.5	3.1	-	1.0	-	-	2.1	2.1	(97)
캄보디아	82.5	11.4	22.3	1.2	-	-	1.8	-	1.2	0.6	(166)
우즈베키스탄	85.4	17.1	17.1	2.4	-	-	-	-	-	-	(41)
기타/무응답	82.0	24.0	12.0	2.0	-	2.0	-	-	2.0	2.0	(50)
지역											
대도시	85.6	14.2	10.6	3.1	0.2	0.4	0.4	0.2	1.6	2.2	(445)
중소도시	87.2	12.2	9.0	3.4	0.8	0.8	0.6	-	1.1	1.7	(476)
읍·면지역	79.0	14.5	17.3	2.2	1.1	1.2	0.6	0.1	1.2	2.3	(905)

나. 자녀 양육 지원자(기관)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시댁식구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이 33.8%, 없는 경우가 27.4%, 결혼이민자 친구가 20.7%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여성이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고, 중국(조선족)과 우즈베키스탄은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중국(한족)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42.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표 IV-1-2 참조).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줄어들며,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일 때는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40% 이상이었지만 8년 이상이 되면서 30% 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아이 기르는 데 도움 주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다문화 기관	기 타	없음	(수)
전체	40.0	15.9	20.7	12.3	33.8	3.8	27.4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23.8	25.7	9.9	17.8	27.2	4.0	35.1	(202)
중국(한족 등)	23.2	20.1	13.4	6.3	31.7	2.2	42.0	(224)
베트남	47.1	14.5	17.3	11.7	37.8	2.6	27.2	(497)
필리핀	47.7	15.8	21.9	11.1	36.2	2.9	19.7	(279)
일본	45.0	13.9	50.6	20.6	27.2	6.1	21.7	(180)
몽골	25.6	15.6	16.7	10.0	34.4	7.8	36.7	(90)
태국	46.4	15.5	17.5	11.3	27.8	1.0	23.7	(97)
캄보디아	51.2	5.4	27.1	7.8	41.6	7.8	15.7	(166)
우즈베키스탄	31.7	24.4	12.2	14.6	24.4	2.4	29.3	(41)
기타/무응답	32.0	10.0	16.0	18.0	34.0	4.0	22.0	(50)
지역								
대도시	35.5	14.8	21.8	8.5	31.9	2.9	31.7	(445)
중소도시	40.5	20.0	23.9	12.2	34.7	2.7	24.2	(476)
읍·면지역	42.0	14.4	18.5	14.1	34.4	4.8	27.0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48.6	17.4	19.5	9.0	37.8	3.0	22.8	(558)
4년~8년 미만	40.7	15.1	20.4	11.8	34.2	2.7	27.5	(730)
8년 이상	31.6	16.0	23.1	17.0	30.4	3.0	32.5	(507)

‘아이돌보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댁식구가 47.4%로 가장 많으며, 다문화관련 기관 사람이 11.8%와 친정식구는 10.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조선족)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29.9%, 27.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으며, 대신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다. 일본은 결혼이민자 친구가 도움을 준다는 경우가 21.3%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의 도움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한족)의 응답이 각각 20.7%, 16.9%로 높다(표 IV-1-3 참조).

거주기간별로 보면, 4년 미만일 때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62.3%로 절반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댁식구가 도움을 주는 비율은 줄어든다. 그러나 대부분 50%이상으로 여전히 비율은 높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결혼이민자 친구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조금 높으며, 시댁식구의 도움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높다(부표 IV-1-1 참조).

〈표 IV-1-3〉 아이를 기르는데 직접적인 도움 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다문화 관련 기관	기타	계(수)
전체	57.8	12.2	7.3	4.5	13.7	4.4	100.0(1,074)
출신국							
중국(조선족)	38.0	30.0	2.0	9.0	10.0	10.0	100.0(100)
중국(한족 등)	42.0	24.1	7.1	3.6	18.8	4.5	100.0(112)
베트남	70.0	8.5	3.2	2.8	11.3	4.2	100.0(283)
필리핀	63.9	7.8	6.7	2.8	14.4	4.4	100.0(180)
일본	50.8	8.7	22.2	5.6	10.3	2.4	100.0(126)
몽골	55.0	15.0	5.0	-	20.0	2.5	100.0(40)
태국	67.2	8.2	1.6	6.6	11.5	4.9	100.0(61)
캄보디아	61.7	5.0	8.3	8.3	15.8	0.8	100.0(120)
우즈베키스탄	38.1	23.8	4.8	4.8	28.6	-	100.0(21)
기타/무응답	45.2	9.7	16.1	-	16.1	12.9	100.0(31)
거주기간							
4년 미만	62.3	11.2	6.6	3.3	14.2	2.2	100.0(366)
4년~8년 미만	58.1	12.7	5.2	4.2	13.9	5.9	100.0(425)
8년 이상	51.3	13.0	11.2	6.5	12.6	5.1	100.0(277)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이 37.6%로 가장 많지만 시댁식구도 20% 이상 된다. 결혼이민자 친구 11.5% 정도이지만 친정식구와 한국인 친구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표 IV-1-4 참조).

출신국별로 보면,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의 도움은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이 낮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은 시댁식구의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다.

거주기간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댁식구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감소하고, 특히 4년 이상이 되면 시댁식구에게서 상담을 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정도가 크다. 또한 거주기간 8년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친구에게 상담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는 정도와 다문화 관련 기관에 상담 받는 경우의 감소 비율이 크다.

지역별로는 다문화관련 기관 도움이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다(부표 IV-1-1 참조).

〈표 IV-1-4〉 양육 관련 정보·상담 지원해 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 인 친구	다문화 관련 기관	기 타	없음	계(수)
전체	26.1	7.2	12.9	5.1	42.7	5.7	0.2	100.0(1,091)
출신국								
중국(조선족)	15.2	14.3	5.7	15.2	37.1	11.4	1.0	100.0(105)
중국(한족 등)	15.3	5.1	11.9	5.9	55.1	5.9	0.8	100.0(118)
베트남	31.8	5.5	9.0	3.8	45.7	4.2	-	100.0(289)
필리핀	32.0	9.1	9.7	2.3	42.3	4.6	-	100.0(175)
일본	18.8	4.7	42.2	4.7	23.4	6.3	-	100.0(128)
몽골	24.4	14.6	9.8	9.8	41.5	-	-	100.0(41)
태국	35.6	8.5	3.4	1.7	42.4	8.5	-	100.0(59)
캄보디아	33.3	1.7	6.7	2.5	49.2	6.7	-	100.0(120)
우즈베키스탄	7.7	19.2	11.5	7.7	53.8	-	-	100.0(26)
기타/무응답	20.0	6.7	23.3	6.7	36.7	6.7	-	100.0(30)
거주기간								
4년 미만	32.6	6.8	8.4	3.8	43.2	4.9	0.3	100.0(368)
4년~8년 미만	24.5	7.6	11.9	5.9	45.8	4.3	-	100.0(437)
8년 이상	20.8	7.2	20.1	5.7	36.9	9.0	0.4	100.0(279)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댁식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친정식구 12.7%, 결혼이민자 친구와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이 각각 11.8%, 1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27.7%로 시댁식구 다음으로 높았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은 시댁식구라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몽골 출신 여성의 경우는 믿고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V-1-5 참조).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시댁식구라는 응답이 8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이상인 반면, 8년 이상이 되면 30%로 낮아졌다. 반면 결혼이민자 친구라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표 IV-1-5〉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다문화 관련기관	기타	계(수)
전체	49.0	15.4	14.8	4.4	12.2	4.0	100.0(991)
출신국							
중국(조선족)	33.3	34.4	4.3	10.8	9.7	7.5	100.0(93)
중국(한족 등)	38.2	20.9	12.7	6.4	18.2	3.6	100.0(110)
베트남	59.8	13.0	10.3	1.1	12.6	3.1	100.0(261)
필리핀	50.6	11.3	15.6	5.0	12.5	5.0	100.0(160)
일본	34.4	14.8	41.4	2.3	3.9	3.1	100.0(128)
몽골	37.5	9.4	12.5	12.5	18.8	9.4	100.0(32)
태국	62.1	8.6	6.9	3.4	19.0	-	100.0(58)
캄보디아	67.0	8.7	7.8	4.9	8.7	2.9	100.0(103)
우즈베키스탄	30.0	20.0	25.0	-	25.0	-	100.0(20)
기타	34.6	23.1	11.5	7.7	11.5	11.5	100.0(26)
거주기간							
4년 미만	57.2	13.8	10.8	3.3	11.7	3.3	100.0(334)
4년~8년 미만	50.5	15.4	12.8	4.7	13.0	3.6	100.0(384)
8년 이상	37.5	17.6	22.5	5.2	11.6	5.6	100.0(267)

결혼이민자 여성이 출신국 결혼이민자 모임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 나간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고, 한 달에 한번이나 1주일에 1회가 각각 24.3%, 14.3%이다. 출신국별로는 중국(조선족)과 몽골은 나가지 않는 경우가 40-5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약간 높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비율이 감소하며, 참여 빈도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표 IV-1-6 참조).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조모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다. 이 외에도 모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임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18.4%, 11.9% 정도이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몽골, 태국은 모임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몽골은 모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지역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표 IV-1-7 참조). 거주기간별로는 1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표 IV-1-6〉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참여 빈도

단위: %(명)

구분	1주일 1회	2주 1회	한달 1회	2달 1회	3~4달 1회	일년 1~2회	안 나감	모름	계(수)
전체	14.3	6.9	24.3	3.9	4.9	9.7	34.8	1.1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3.0	3.0	23.8	5.0	4.5	8.9	50.5	1.5	100.0(202)
중국(한족 등)	5.4	4.0	28.6	4.0	4.9	14.3	38.8	-	100.0(224)
베트남	17.9	8.9	25.2	5.6	4.8	7.4	28.8	1.4	100.0(497)
필리핀	10.4	5.7	27.2	2.9	4.3	13.3	34.4	1.8	100.0(279)
일본	37.8	7.2	19.4	2.2	7.2	5.6	19.4	1.1	100.0(180)
몽골	7.8	6.7	20.0	2.2	4.4	13.3	43.3	2.2	100.0(90)
태국	12.4	13.4	14.4	5.2	7.2	13.4	33.0	1.0	100.0(97)
캄보디아	18.7	7.8	25.3	2.4	3.6	7.2	34.9	-	100.0(166)
우즈베키스탄	9.8	4.9	31.7	2.4	9.8	4.9	36.6	-	100.0(41)
기타/무응답	6.0	8.0	18.0	2.0	-	8.0	52.0	-	100.0(50)
지역									
대도시	15.1	8.5	19.6	3.1	4.7	7.4	40.9	0.7	100.0(445)
중소도시	16.0	5.5	25.8	3.2	5.3	9.7	33.6	1.1	100.0(476)
읍·면지역	13.0	6.9	25.9	4.8	4.9	10.8	32.5	1.3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2.9	7.8	20.7	3.2	4.8	8.9	41.0	0.7	100.0(564)
4년~8년 미만	13.5	7.1	25.4	4.5	4.5	10.0	33.8	1.2	100.0(733)
8년 이상	16.6	5.7	27.1	4.1	5.8	9.9	29.8	1.0	100.0(513)

〈표 IV-1-7〉 출신국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모임 없어서	정보 부족	남편 시부모 반대	친한 사람 없어서	기타	모름	(수)
전체	26.6	18.4	4.7	11.9	19.2	27.2	(636)
출신국							
중국(조선족)	14.7	25.5	3.9	13.7	25.5	25.5	(102)
중국(한족 등)	23.0	17.2	-	14.9	13.8	35.6	(87)
베트남	16.1	16.8	6.3	13.3	21.7	35.0	(143)
필리핀	19.8	17.7	8.3	11.5	18.8	28.1	(96)
일본	40.0	14.3	-	11.4	25.7	8.6	(35)
몽골	46.2	35.9	2.6	12.8	10.3	15.4	(39)
태국	46.9	9.4	3.1	9.4	18.8	15.6	(32)
캄보디아	36.2	13.8	10.3	5.2	15.5	29.3	(58)
우즈베키스탄	33.3	6.7	6.7	6.7	13.3	33.3	(15)
기타/무응답	65.5	13.8	-	10.3	17.2	10.3	(29)
지역							
대도시	21.4	19.2	4.9	13.2	18.7	34.1	(182)
중소도시	29.4	18.8	2.5	10.0	18.1	26.3	(160)
읍·면지역	28.2	17.7	5.8	12.2	20.1	23.5	(294)

2. 부모의 역할

가. 부모 역할 수행

1) 자녀 돌보기

결혼 이민자 여성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아이와 자주 놀아 주기와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해 주기,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기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62.3%, 67.4%, 62.8%로 높은 편이었다. 책을 읽어 주거나 공부를 봐주는 것은 49.9%로 다소 낮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5%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반면, 도서관, 서점, 공연 등 문화 공간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23.1%,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 43.1%로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참조).

〈표 IV-2-1〉 평소의 부모역할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놀이하기	0.8	5.0	31.3	33.1	29.2	0.6	100.0(1,826)	3.85
음식 해 주기	1.6	3.4	26.6	35.8	31.6	1.0	100.0(1,826)	3.93
문화 공간가기	16.9	26.2	30.8	15.7	7.4	3.0	100.0(1,826)	2.70
이야기하기	1.2	5.0	29.2	33.6	29.2	1.8	100.0(1,826)	3.86
책 읽어 주기 /공부 봐 주기	5.2	11.3	31.9	29.5	20.4	1.7	100.0(1,826)	3.49

5점 평균으로도 맛있는 음식 해 주기가 3.93점이고, 자주 놀아 주기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기는 3.85점, 3.86점이지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봐주는 것은 3.49점이고 도서관, 서점, 공연 등 문화 공간 가기는 2.70점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놀아 주기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 해 주기는 베트남, 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 서점, 공연 등에 가기는 몽골, 필리핀,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았다(표 IV-2-2 참조).

지역별 특징은 문화 공간 가기에서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낮으며, 책 읽어 주고 공부 봐 주기가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조

사되었다. 문화 공간 가에서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낮은 것은 문화공간에의 접근 기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2-2〉 평소의 부모역할: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수)
	놀이하기	음식 해주기	문화공간 가기	이야기 하기	책읽어주기 공부봐주기	
전체	3.85	3.93	2.70	3.86	3.49	(1,817)
출신국						
중국(조선족)	3.45	3.80	2.78	3.68	3.69	(199)
중국(한족 등)	3.88	4.02	2.78	3.77	3.35	(224)
베트남	4.08	4.10	2.53	3.98	3.44	(494)
필리핀	3.90	3.82	2.92	4.09	3.57	(278)
일본	3.50	3.58	2.78	3.71	3.49	(179)
몽골	3.63	3.82	3.01	4.09	3.61	(90)
태국	4.03	4.19	2.76	3.54	3.43	(97)
캄보디아	4.08	3.96	2.20	3.71	3.33	(165)
우즈베키스탄	3.59	3.90	2.90	3.78	3.44	(41)
기타/무응답	3.58	3.99	2.81	4.00	3.94	(50)
F	14.1***	6.8***	6.9***	7.0***	2.8***	
지역						
대도시	3.86	3.96	2.71	3.80	3.44	(443)
중소도시	3.85	3.95	2.88	3.89	3.62	(474)
읍·면지역	3.85	3.91	2.59	3.88	3.46	(900)
F	0.02	0.5	9.6***	1.2	4.1*	
거주기간						
4년 미만	4.16	4.01	2.50	3.98	3.41	(559)
4년~ 8년 미만	3.90	3.97	2.67	3.91	3.58	(731)
8년 이상	3.46	3.80	2.92	3.67	3.45	(512)
F	85.3***	7.9***	17.8***	15.8***	4.5*	

* p<.05, *** p<.001

거주기간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다른 변수와 달리 거주기간과 부모 역할 점수가 모두 정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 공간 가기는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책 읽어 주고 공부 봐주는 거주기간 4~8년 기간이 그 미만이나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가장 점수가 높으며, 맛있는 음식 해주기, 자주 놀아주기, 이야기 하기는 거주기간과 부모 역할 점수가 부적 관계를 보인다.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돌보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해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확장되

는 부모역할에 대하여 실제 이러한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IV-2-2 참조).

2) 문화생활

부모 역할의 하나로 서점, 놀이공원, 연극 영화, 체험행사 등을 자녀와 함께 가기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서점은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33.6%이었고 한 번이라도 간 경우 방문횟수는 2~5회 미만이 15.0%로 가장 많았다. 놀이공원은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22.9%로 서점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방문횟수는 1회가 21.8%로 가장 많았다. 영화, 연극 등 공연은 가지 않은 경우가 46.2%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한 번이라도 간 경우 방문횟수는 1회가 13.9%로 가장 많았다. 캠프나 현장학습과 같은 체험행사는 가지 않은 비율이 38.0%, 방문횟수는 2~5회 미만과 1회가 각각 16.3%, 16.2%로 비슷하게 나왔다. 한 번이라도 여가나 문화생활을 한 경우 가장 많이 한 것은 놀이공원으로 51.1%이었으며, 그 다음은 서점,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한 경우로 40.3%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출신국별로 보면, 일본, 중국(조선족), 우즈베키스탄이 서점, 도서관 등을 방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놀이공원은 중국(한족),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연극, 영화 등은 방문한 비율이 낮는데, 중국(조선족)과 일본, 필리핀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행사는 중국(조선족)과 일본, 중국(한족)이 참여 비율이 높다. 즉, 중국이나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생활이 많다(표 IV-2-4 참조).

〈표 IV-2-3〉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방문횟수 개요

단위: %(명)

구분	없음	1회	2회~ 5회 미만	5회~ 12회 미만	12회 이상	다수	모름	계(수)
서점 등	33.6	13.1	15.0	7.3	4.5	0.4	26.0	100.0(1,826)
놀이공원	22.9	21.8	20.3	6.8	1.9	0.3	26.0	100.0(1,826)
연극 등	46.2	13.9	11.2	2.2	0.5	0.1	26.0	100.0(1,826)
체험행사	38.0	16.2	16.3	3.0	0.4	0.1	26.0	100.0(1,826)
기타	66.4	3.3	2.5	1.2	0.4	0.2	26.0	100.0(1,826)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서점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놀이공원, 체험행사 방문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읍·면지역이 놀이공원이나 체험행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서점에 방문하는 비율과 공연, 참여행사에 방문하는 비율은 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녀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표 IV-2-4〉 6개월 동안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경험이 있다는 비율

구분						단위: %(명)
	서점	놀이공원	공연	체험행사	기타	(수)
전체	40.3	51.1	27.9	36.0	7.6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1.4	56.4	42.1	51.1	10.0	(202)
중국(한족 등)	46.0	60.3	30.7	46.0	7.2	(224)
베트남	28.0	47.7	18.1	24.2	6.0	(497)
필리핀	45.4	50.5	31.6	35.4	8.3	(279)
일본	62.8	44.5	39.5	47.7	5.6	(180)
몽골	37.7	44.4	26.6	45.5	8.8	(90)
태국	34.0	48.4	27.9	31.9	8.3	(97)
캄보디아	22.8	47.0	12.6	21.7	8.4	(166)
우즈베키스탄	51.3	68.3	36.6	41.4	7.3	(41)
기타/무응답	50.0	64.0	36.0	44.0	12.0	(50)
지역						
대도시	44.4	65.3	28.7	36.1	8.9	(445)
중소도시	47.4	53.4	31.4	38.1	8.0	(476)
읍·면지역	68.2	42.7	25.4	34.8	6.7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28.4	46.5	16.8	22.5	8.7	(564)
4년~8년 미만	38.6	56.2	27.3	36.8	7.1	(733)
8년 이상	55.8	49.3	40.4	49.7	7.2	(513)

출신국별로 문화생활을 함께한 횟수를 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5~12회 미만으로 방문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몽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은 2~5회 미만이라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표 IV-2-5 참조).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 활동이나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줄어들었으며, 8년 이상일 경우 1회, 2~4회 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이 8년 미만일 경우보다 높다.

〈표 IV-2-5〉 6개월 동안 온가족 문화활동·여행 함께한 횟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회	2회~ 4회	5회~ 11회	12회 이상	다수	모름	계(수)
전체	25.0	20.2	22.0	4.4	0.5	0.1	27.8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8.8	28.2	25.7	3.5	0.5	-	23.3	100.0(202)
중국(한족 등)	20.5	22.8	27.2	4.9	0.9	0.4	23.2	100.0(224)
베트남	29.6	15.7	17.5	4.4	0.2	-	32.6	100.0(497)
필리핀	26.2	21.5	23.7	3.6	0.7	-	24.4	100.0(279)
일본	22.2	26.1	28.9	4.4	-	-	18.3	100.0(180)
몽골	20.0	15.6	22.2	10.0	-	1.1	31.1	100.0(90)
태국	20.6	18.6	20.6	4.1	2.1	-	34.0	100.0(97)
캄보디아	31.3	18.1	10.8	1.8	-	-	38.0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4	9.8	29.3	4.9	2.4	-	29.3	100.0(41)
기타/무응답	24.0	20.0	28.0	8.0	-	-	20.0	100.0(50)
지역								
대도시	24.3	24.0	20.9	5.8	0.9	0.2	23.8	100.0(445)
중소도시	24.4	18.5	25.6	5.9	0.6	-	25.0	100.0(476)
읍·면지역	25.6	19.2	20.7	2.9	0.2	0.1	31.3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27.5	18.6	18.8	2.8	0.2	-	32.1	100.0(564)
4년~8년 미만	26.3	18.7	21.4	4.9	0.8	0.3	27.6	100.0(733)
8년 이상	21.1	24.6	26.5	4.3	0.4	-	23.2	100.0(513)

3) 자녀양육 시 대처 역량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역량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공부에 도움을 준다가 14.5%로 가장 높고 적응애로 도움이 5%를 넘으며 그 이외는 모두 5% 미만이다. 5점 평균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와 건강하게 기르기, 이플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봐주기 모두 4점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녀 공부 도와주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에 대해서는 5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IV-2-6 참조).

출신국별로는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5개 항목 모두에서 거주기간이 긴 일본 출신 어머니가 가장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외에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기와 자녀가 이플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올바른 성장 돕기 역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낮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움 주기는 중국 조선족, 필

리핀, 몽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다소 높다.

〈표 IV-2-6〉 자녀양육 역량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안전한 보호	0.4	1.2	13.6	39.4	45.1	0.3	100.0(1,826)	4.28
건강하게 양육	0.2	0.7	13.5	40.2	45.0	0.4	100.0(1,826)	4.30
아플 때 대처	0.2	2.1	18.0	39.3	39.5	0.9	100.0(1,826)	4.17
공부 도움	2.7	11.8	33.2	30.2	20.9	1.2	100.0(1,826)	3.55
올바른 성장	0.1	2.5	18.9	40.2	37.5	0.8	100.0(1,826)	4.13
적응에 도움	0.7	4.7	23.7	37.8	31.9	1.2	100.0(1,826)	3.97

〈표 IV-2-7〉 평소의 부모역할: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안전한 보호	건강하게 양육	아플 때 대처	공부 도움	올바른 성장	적응 도움	(수)
전체	4.28	4.30	4.17	3.55	4.13	3.97	(1821)
출신국							
중국(조선족)	4.35	4.32	4.31	3.83	4.21	4.04	(200)
중국(한족 등)	4.34	4.35	4.14	3.42	4.13	3.96	(224)
베트남	4.33	4.35	4.14	3.43	4.15	3.98	(497)
필리핀	4.27	4.33	4.32	3.79	4.27	4.11	(279)
일본	4.01	3.97	3.97	3.49	3.84	3.74	(179)
몽골	4.19	4.22	4.03	3.64	4.10	4.06	(89)
태국	4.40	4.52	4.27	3.46	4.19	3.80	(97)
캄보디아	4.26	4.30	4.02	3.37	4.05	3.87	(165)
우즈베키스탄	4.12	4.10	4.20	3.56	4.02	3.93	(41)
기타/무응답	4.46	4.36	4.39	3.88	4.30	4.16	(50)
F	3.9***	5.9***	4.5***	5.8***	4.5***	3.2**	
지역							
대도시	4.24	4.25	4.10	3.47	4.04	3.86	(443)
중소도시	4.31	4.31	4.25	3.68	4.19	4.00	(476)
읍·면지역	4.28	4.31	4.16	3.53	4.15	4.00	(902)
F	1.1	1.1	3.9*	5.0**	4.3*	4.0*	
거주기간							
4년 미만	4.36	4.37	4.12	3.46	4.20	4.01	(562)
4년~ 8년 미만	4.32	4.31	4.19	3.61	4.13	3.98	(733)
8년 이상	4.14	4.20	4.19	3.57	4.05	3.90	(511)
F	13.2***	6.7**	1.5	3.1*	4.8**	2.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아플 때 대처, 공부 도움, 올바른 성장 3가지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고, 적응 도움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거주기간별 차이는 4가지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자녀돌보기와 같이 모두 거주기간과 부모 역할 점수가 모두 정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공부 도움을 준다는 거주기간 4~8년 기간이 그 미만이나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가장 높다. 그러나 안전한 보호, 건강하게 기르기,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거주기간이 긴 어머니들이 점수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고 아플 때 대처는 차이가 없다.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2-7 참조).

나. 남편 양육 참여

남편이 평소에 자녀에게 밥을 먹이거나 목욕시키기 등 양육에 참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달에 1~2회 한다는 응답이 23.4%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1주일에 1~2회 한다는 응답이 22.9%,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17.4%나 되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학습지도 등 자녀교육에 남편이 참여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1달에 1~2회와 1주일에 1~2회가 가장 많은데 각각 24.5%, 20.9%이며, 반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인 25%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보다 참여빈도가 낮다. 자녀와 잘 놀아주는지에 대해서는 매일 놀아준다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1주일에 1~2회로 23.5%이다. 전혀 놀아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자녀를 돌보거나 공부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참여빈도가 높은 편이었다(표 IV-2-8 참조).

〈표 IV-2-8〉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개요

구분	단위: %(명)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모름	계(수)
자녀돌보기	17.4	23.4	22.9	16.8	17.1	2.4	100.0(1,826)
자녀교육	25.0	24.5	20.9	15.1	11.2	3.3	100.0(1,826)
놀아주기	6.4	16.0	23.5	19.3	32.6	2.2	100.0(1,826)

〈표 IV-2-9〉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돌보기

단위: %(명)

구분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모름	계(수)
전체	17.4	23.4	22.9	16.8	17.1	2.4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20.8	24.8	24.3	14.9	11.9	3.5	100.0(202)
중국(한족 등)	15.6	23.7	29.0	17.9	12.9	0.9	100.0(224)
베트남	15.7	24.9	20.7	16.1	20.7	1.8	100.0(497)
필리핀	15.4	23.3	20.1	16.8	20.8	3.6	100.0(279)
일본	20.0	23.9	26.1	12.8	15.0	2.2	100.0(180)
몽골	21.1	17.8	25.6	13.3	20.0	2.2	100.0(90)
태국	23.7	18.6	17.5	20.6	16.5	3.1	100.0(97)
캄보디아	13.9	24.7	23.5	21.7	13.3	3.0	100.0(166)
우즈베키스탄	24.4	14.6	19.5	24.4	17.1	-	100.0(41)
기타/무응답	18.0	22.0	20.0	18.0	16.0	2.0	100.0(50)

남편의 자녀돌보기 참여 정도를 출신국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남편 참여율이 낮다. 1달에 1~2회 참여하는 경우는 중국(조선족), 베트남,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매일 참여하는 경우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이 20% 수준으로 약간 높다(표 IV-2-9 참조).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 참여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국(조선족), 태국,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남편의 참여율이 낮았다. 매일 참여한다는 경우는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와 비슷하게 베트남, 필리핀, 몽골이 10% 이상으로 다른 출신국 부인의 남편에 비하여 높다(표 IV-2-10 참조).

남편이 자녀와 놀아 주는 정도는 매일 놀아주는 경우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이 30% 이상으로 다른 출신국에 비하여 높으며, 자녀와 매일 놀아 주기가 돌보거나 교육에 매일 참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높다(표 IV-2-11 참조).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매일 자녀와 놀아 주는 비율이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약간 높다(부표 IV-2-1 참조).

〈표 IV-2-10〉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교육

단위: %(명)

구분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모름	계(수)
전체	25.0	24.5	20.9	15.1	11.2	3.3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30.2	28.7	21.8	12.4	4.0	3.0	100.0(202)
중국(한족 등)	21.0	28.6	21.0	16.5	8.5	4.5	100.0(224)
베트남	21.1	22.1	21.3	16.7	15.5	3.2	100.0(497)
필리핀	22.9	20.4	17.6	17.9	16.5	4.7	100.0(279)
일본	31.7	28.9	20.6	10.6	7.8	0.6	100.0(180)
몽골	23.3	25.6	21.1	12.2	13.3	4.4	100.0(90)
태국	30.9	20.6	19.6	18.6	9.3	1.0	100.0(97)
캄보디아	29.5	23.5	24.1	9.6	8.4	4.8	100.0(166)
우즈베키스탄	29.3	24.4	19.5	22.0	4.9	-	100.0(41)
기타/무응답	20.0	28.0	26.0	16.0	8.0	2.0	100.0(50)

〈표 IV-2-11〉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와 놀아줌

단위: %(명)

구분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모름	계(수)
전체	6.4	16.0	23.5	19.3	32.6	2.2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4	23.8	26.2	18.8	22.8	3.0	100.0(202)
중국(한족 등)	3.1	12.1	26.3	19.6	37.5	1.3	100.0(224)
베트남	5.2	12.1	19.7	21.7	39.0	2.2	100.0(497)
필리핀	6.5	14.3	22.6	17.6	35.8	3.2	100.0(279)
일본	12.8	27.2	27.2	12.8	18.9	1.1	100.0(180)
몽골	13.3	17.8	17.8	16.7	32.2	2.2	100.0(90)
태국	6.2	13.4	26.8	17.5	35.1	1.0	100.0(97)
캄보디아	6.0	11.4	24.1	21.7	33.1	3.6	100.0(166)
우즈베키스탄	4.9	19.5	29.3	29.3	17.1	-	100.0(41)
기타/무응답	2.0	24.0	26.0	20.0	24.0	2.0	100.0(50)

다. 양육관련 의견 차이

1) 남편과의 의견 차이

자녀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 이상이며, 겪은 적이 없다는 42.7%로 약간 적다. 출신국별

로 보면,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남편과 갈등을 겪은 비율이 낮으며, 일본과 중국(조선족)이 갈등 경험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갈등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갈등을 겪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4년 이상이 될 때 갈등을 겪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표 IV-2-12〉 남편과 갈등 경험 비율과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단위: %(명)

구분	갈등경험 비율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계(수)
		남편	본인	모름	
전체	55.2	44.4	50.8	4.8	100.0(1,008)
출신국					
중국(조선족)	63.4	30.5	64.8	4.7	100.0(128)
중국(한족 등)	59.8	41.8	54.5	3.7	100.0(134)
베트남	50.3	53.6	41.6	4.8	100.0(250)
필리핀	47.7	44.4	49.6	6.0	100.0(133)
일본	67.2	45.5	48.8	5.8	100.0(121)
몽골	52.2	51.1	42.6	6.4	100.0(47)
태국	60.8	32.2	64.4	3.4	100.0(59)
캄보디아	49.4	47.6	47.6	4.9	100.0(82)
우즈베키스탄	61.0	36.0	60.0	4.0	100.0(25)
기타/무응답	59.0	48.3	51.7	-	100.0(29)
지역					
대도시	62.2	43.3	53.1	3.6	100.0(277)
중소도시	56.9	41.3	51.3	7.4	100.0(271)
읍·면지역	50.8	47.0	49.1	3.9	100.0(460)
거주기간					
4년 미만	48.8	49.1	46.9	4.0	100.0(275)
4년~ 8년 미만	58.3	43.8	51.5	4.7	100.0(427)
8년 이상	58.7	40.9	53.8	5.3	100.0(301)

남편과 자녀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을 시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로 여성 이민자 본인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50.8%로 나왔으며, 남편이라는 경우는 44.4%이다. 중국(조선족)과 태국,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이민자 여성 본인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으며, 베트남, 몽골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높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여성 본인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읍·면으로 갈수록 남편 의견을 따르는 비율이 높아졌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갈등 시 남편 의견을 따르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본인의 의견을 따르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즉,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댁식구들과 의견 차이

자녀양육 문제로 시댁식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0%로 약 1/3 정도이나 겪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0%로 더 많다.

〈표 IV-2-13〉 시댁식구와 갈등 경험 비율 및 갈등시 주로 따르는 의견

단위: %(명)

구분	갈등 경험 비율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계(수)
		남편	시부모	남편 형제자매	본인	모름	
전체	31.0	25.4	34.6	8.3	29.5	2.1	100.0(566)
출신국							
중국(조선족)	23.3	36.2	21.3	8.5	31.9	2.1	100.0(47)
중국(한족 등)	33.9	23.7	31.6	9.2	35.5	-	100.0(76)
베트남	32.6	24.7	41.4	9.9	22.2	1.9	100.0(162)
필리핀	31.5	20.5	33.0	10.2	33.0	3.4	100.0(88)
일본	35.6	32.8	29.7	7.8	28.1	1.6	100.0(64)
몽골	25.6	26.1	30.4	8.7	26.1	8.7	100.0(23)
태국	39.2	13.2	31.6	7.9	42.1	5.3	100.0(38)
캄보디아	27.7	30.4	45.7	2.2	21.7	-	100.0(46)
우즈베키스탄	24.4	20.0	50.0	-	30.0	-	100.0(10)
기타/무응답	23.5	25.0	16.7	-	58.3	-	100.0(12)
지역							
대도시	32.8	19.9	42.5	8.9	27.4	1.4	100.0(146)
중소도시	31.3	23.5	30.2	9.4	34.9	2.0	100.0(149)
읍·면지역	29.9	29.5	32.8	7.4	27.7	2.6	100.0(271)
거주기간							
4년 미만	30.7	25.4	42.2	6.4	24.9	1.2	100.0(173)
4년~ 8년 미만	31.9	25.6	34.2	10.7	27.4	2.1	100.0(234)
8년 이상	30.0	24.0	27.9	7.1	37.7	3.2	100.0(154)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낮으며, 태국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갈등을 겪은 비율이 약간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갈등을 겪은 비율의 차이가 없다.

자녀양육 문제로 시댁식구와 갈등을 겪을 시 주로 누구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부모의 의견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본인 29.5%, 남편 25.4% 순이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8.3%로 가장 낮다. 출신국별로 보면,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시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태국, 중국(한족), 필리핀은 본인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은 중국 조선족과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시부모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읍·면지역보다 높고,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약간 높다. 거주기간이 4년 미만일 때는 시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비율이 42.2%로 절반 가까이 되는 반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표 IV-2-13 참조).

3. 부모의 양육태도

가. 허용-거부 태도

결혼이민자 여성과 남편의 자녀 양육태도를 허용-거부의 일차원적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누기와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허용적 태도이며,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기와 참다가 화내고 큰소리를 내기는 거부적 태도로 각각 점수가 높으면 허용과 거부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먼저 어머니 조사 결과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누기는 4.24점,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4.14점,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는 2.80점으로 스스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다가 화내고 큰소리를 내는 경우는 3.38점으로 스스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긍정적 문항은 각각 53.1%, 41.7%이고 부정적 문항은 9.1%, 7.8%이다. 즉, 어머니 양육 태도는 거부보다는 허용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3-1〉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즐거움 나누기	1.4	2.7	20.1	20.5	53.2	2.1	100.0(1,826)	4.24
자녀입장 생각	0.3	2.5	22.3	30.9	41.7	2.2	100.0(1,826)	4.14
화내고 큰소리	4.9	13.7	27.5	42.8	9.1	1.9	100.0(1,826)	3.38
엄격/용서 안함	16.1	23.8	28.7	21.2	7.8	2.4	100.0(1,826)	2.80

〈표 IV-3-2〉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즐거움 나누기	자녀입장에서 생각	화내고 큰소리	엄격하고 용서 안함	(수)
전체	4.24	4.14	3.38	2.80	(1787)
출신국					
중국(조선족)	4.27	4.07	3.63	3.34	(198)
중국(한족 등)	4.19	4.28	3.41	2.92	(218)
베트남	4.19	4.15	3.51	2.67	(483)
필리핀	4.34	4.18	3.13	2.64	(272)
일본	4.09	3.82	3.25	3.16	(179)
몽골	4.55	4.08	3.21	2.49	(87)
태국	4.29	4.28	3.23	2.35	(95)
캄보디아	4.23	4.13	3.34	2.65	(164)
우즈베키스탄	4.00	4.35	3.48	2.70	(41)
기타	4.36	4.27	3.34	2.98	(50)
F	2.4*	4.3***	5.2***	11.0***	
지역					
대도시	4.23	4.15	3.44	2.80	(435)
중소도시	4.25	4.17	3.44	2.82	(470)
읍·면지역	4.24	4.12	3.32	2.80	(882)
F	0.67	0.59	3.05*	0.07	
거주기간					
4년 미만	4.34	4.23	3.19	2.58	(551)
4년~ 8년 미만	4.24	4.14	3.48	2.80	(719)
8년 이상	4.14	4.02	3.45	3.07	(503)
F	5.5**	7.6**	15.2***	23.1***	

* p<.05, ** p< .01, *** p<.001

결혼이민자 여성의 허용-거부 양육태도를 출신국별로 보면,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라는 점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두 평균 4점 이상이다.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점에 대

해서도 일본이 4점 미만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참다가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족,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점수가 높아서 이들 국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 편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과 일본 어머니들이 그렇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즐거움을 나누거나 자녀입장에서 생각하는 허용적인 태도는 줄어드는 반면, 화내고 큰소리를 내거나 엄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부적인 태도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이민자 여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를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이를 요약하면, 일본이 허용적 태도가 약하며 거부적 태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중국 조선족은 거부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읍·면지역보다 도시에서 화내고 큰소리를 내는 정도가 높고, 거주기간별로는 기간이 짧을수록 허용적인 태도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거부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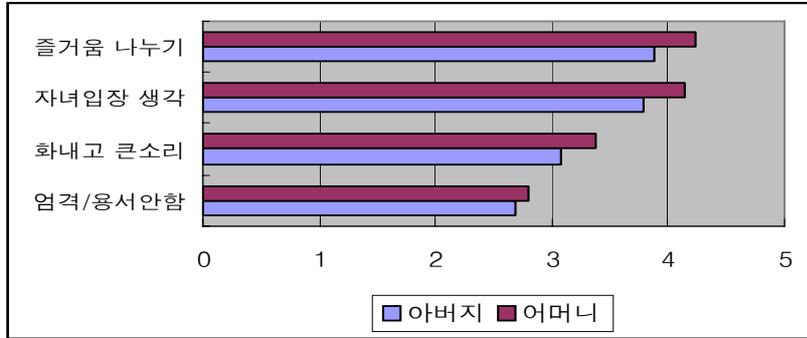
다음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이 평가한 남편의 양육태도는 5점 평균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태도와 약간씩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3〉 부인이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태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즐거움 나누기	2.9	6.7	25.1	22.6	36.3	6.4	100.0(1,826)	3.88
자녀입장 생각	1.9	8.1	28.1	24.6	30.1	7.3	100.0(1,826)	3.79
화내고 큰소리	10.8	19.1	25.2	29.6	8.7	6.7	100.0(1,826)	3.07
엄격/용서 안함	18.9	22.1	27.7	16.2	7.7	7.5	100.0(1,826)	2.69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과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점은 어머니 본인보다 다소 낮은 3점대로 평가하였고,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어머니 본인과 비슷한 2점대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참으려다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그림 IV-3-1] 5점 척도 비교

<표 IV-3-4> 부인이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태도: 5점 척도

구분	즐거움 나누기	자녀입장에 서 생각	화내고 큰소리	엄격하고 용서 안함	(수)
전체	3.88	3.79	3.07	2.69	(1710)
출신국					
중국(조선족)	3.90	3.74	2.99	2.99	(187)
중국(한족 등)	3.79	3.92	2.85	2.68	(202)
베트남	3.97	3.89	3.10	2.51	(468)
필리핀	3.87	3.81	3.13	2.73	(263)
일본	3.75	3.29	3.27	3.17	(174)
몽골	4.05	3.66	2.88	2.44	(84)
태국	3.86	3.86	3.06	2.46	(90)
캄보디아	3.92	3.92	3.01	2.56	(155)
우즈베키스탄	3.45	3.72	3.50	2.50	(38)
기타/무응답	3.90	3.79	3.07	2.90	(50)
F	1.7	5.8**	2.5*	6.8***	
지역					
대도시	3.84	3.73	3.12	2.67	(423)
중소도시	3.96	3.80	3.00	2.69	(447)
읍·면지역	3.86	3.81	3.08	2.71	(840)
F	1.5	0.8	1.1	0.2	
거주기간					
4년 미만	4.17	3.98	2.83	2.47	(522)
4년~ 8년 미만	3.81	3.79	3.14	2.64	(692)
8년 이상	3.66	3.58	3.22	3.03	(482)
F	30.3***	17.9***	16.5***	27.8***	

* p<.05, ** p< .01, *** p<.001

〈표 IV-3-5〉 모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모의 양육태도 차이

구분	제공함	자유도	평균 제공	F	
출신국	즐거움 나누기	13.77	9	1.53	1.11
	자녀입장 생각하기	22.62	9	2.51	2.03*
	화내고 큰 소리치기	48.67	9	5.41	3.49***
	엄격/ 용서 안함	58.98	9	6.55	2.97**
지역	즐거움 나누기	0.45	2	0.23	0.16
	자녀입장 생각하기	3.68	2	1.84	1.48
	화내고 큰 소리치기	2.57	2	1.28	0.83
	엄격/ 용서 안함	0.97	2	0.49	0.22
거주기간	즐거움 나누기	1.88	2	0.94	0.68
	자녀입장 생각하기	10.15	2	5.07	4.09*
	화내고 큰 소리치기	12.79	2	6.39	4.13*
	엄격/ 용서 안함	7.58	2	3.79	1.72
출신국×지역	즐거움 나누기	15.40	18	0.86	0.62
	자녀입장 생각하기	28.92	18	1.61	1.30
	화내고 큰 소리치기	24.68	18	1.37	0.88
	엄격/ 용서 안함	36.09	18	2.01	0.91
출신국×거주기간	즐거움 나누기	36.31	18	2.02	1.46
	자녀입장 생각하기	40.38	18	2.24	1.81*
	화내고 큰 소리치기	25.12	18	1.40	0.90
	엄격/ 용서 안함	53.01	18	2.95	1.33
지역×거주기간	즐거움 나누기	0.60	4	0.15	0.11
	자녀입장 생각하기	17.79	4	4.45	3.59**
	화내고 큰 소리치기	9.06	4	2.26	1.46
	엄격/ 용서 안함	20.13	4	5.03	2.28
출신국×지역×거주기간	즐거움 나누기	20.61	34	0.61	0.44
	자녀입장 생각하기	44.50	34	1.31	1.06
	화내고 큰 소리치기	34.85	34	1.03	0.66
	엄격/ 용서 안함	78.28	34	2.30	1.04
오차	즐거움 나누기	2405.29	1738	1.38	
	자녀입장 생각하기	2155.06	1738	1.24	
	화내고 큰 소리치기	2694.04	1738	1.55	
	엄격/ 용서 안함	3839.19	1738	2.21	
합계	즐거움 나누기	36943.00	1826		
	자녀입장 생각하기	35183.00	1826		
	화내고 큰 소리치기	25109.00	1826		
	엄격/ 용서 안함	20056.00	1826		

* p<.05, ** p<.01, *** p<.001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점은 몽골, 캄보디아, 중국 조선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참다가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태도에 대해서는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 등)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와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출신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허용적인 태도가 강하고 기간이 길수록 거부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3-4 참조).

<표 IV-3-5>는 어머니의 허용-거부 양육태도에 대해 어머니의 출신국과 거주기간, 지역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자녀 입장 생각하기, 화내고 큰 소리치기는 출신국과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격·용서 안함도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출신국과 거주기간, 지역과 거주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녀양육 가치

<표 IV-3-6>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양육 가치로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와 나의 인생이 육아보다 중요하다는 문항 등 하나를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나의 인생이 육아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36.5%이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태국과 필리핀이 각각 85.6%, 74.9%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육아보다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조선족), 몽골이 50% 이상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나의 인생이 육아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글자와 숫자 가르치기에 대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와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50.4%,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46.6%로 약간 낮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조선족)이 60% 이상으로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거주기간은 길수록 빨리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에 천천히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즉, 거주기간이 길어 질수록 자녀의 학습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6〉 자녀 양육 가치

단위: %(명)

구분	육아와 나의 인생 중요성			글자와 숫자 가르치기			계(수)
	나의 인생도 소중	이이를 위해 희생	모름	빨리	아이가 관심을 가진후	모름	
전체	36.5	61.0	2.5	50.4	46.6	3.0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5.4	40.6	4.0	35.1	60.9	4.0	100.0(202)
중국(한족 등)	44.2	52.7	3.1	55.4	42.4	2.2	100.0(224)
베트남	27.8	69.6	2.6	53.9	42.5	3.6	100.0(497)
필리핀	23.7	74.9	1.4	65.9	31.9	2.2	100.0(279)
일본	56.1	41.7	2.2	41.1	57.8	1.1	100.0(180)
몽골	53.3	45.6	1.1	38.9	57.8	3.3	100.0(90)
태국	10.3	85.6	4.1	39.2	53.6	7.2	100.0(97)
캄보디아	29.5	68.1	2.4	55.4	41.6	3.0	100.0(166)
우즈베키스탄	41.5	58.5	-	31.7	68.3	-	100.0(41)
기타/무응답	54.0	46.0	-	44.0	56.0	-	100.0(50)
지역							
대도시	35.7	62.7	1.6	49.7	49.0	1.3	100.0(445)
중소도시	38.9	59.2	1.9	52.5	45.2	2.3	100.0(476)
읍·면지역	35.7	61.1	3.2	49.7	46.2	4.1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4.2	62.9	2.8	55.5	40.8	3.7	100.0(564)
4년~8년 미만	34.2	63.6	2.2	51.4	45.8	2.7	100.0(733)
8년 이상	42.7	55.0	2.3	43.9	53.8	2.3	100.0(513)

다. 자녀양육 정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정서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3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양육을 할 때 혼란스러움과 자녀가 잘 성장할지 장래가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1%, 54.8%로 높고, 아니다는 응답은 21.9% 19.6%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다는 점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15.0%이고 45.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5점 평균으로는 양육 혼란과 장래 걱정은 3.27점, 3.53점이고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다는 2.52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느끼는 정서는 혼란스럽고 걱정되지만 감정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표 IV-3-7 참조).

〈표 IV-3-7〉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양육혼란	7.2	14.7	34.4	30.0	13.1	0.6	100.0(1,826)	3.27
짜증	20.2	25.7	38.4	11.6	3.4	0.7	100.0(1,826)	2.52
장래걱정	7.4	12.2	25.1	30.1	24.7	0.5	100.0(1,826)	3.53

〈표 IV-3-8〉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양육 혼란	짜증	장래 걱정	(수)
전체	3.27	2.52	3.53	(1,812)
출신국				
중국(조선족)	3.09	2.33	3.23	(198)
중국(한족 등)	3.04	2.47	3.19	(224)
베트남	3.74	2.57	3.81	(492)
필리핀	2.79	2.43	3.51	(278)
일본	3.16	2.84	3.14	(180)
몽골	3.07	2.29	3.07	(90)
태국	3.21	2.37	4.25	(97)
캄보디아	3.52	2.55	3.94	(163)
우즈베키스탄	3.22	2.73	3.15	(41)
기타/무응답	3.14	2.76	3.34	(50)
F	21.4***	4.3***	17.9***	
지역				
대도시	3.35	2.64	3.60	(442)
중소도시	3.19	2.50	3.37	(472)
읍·면지역	3.27	2.47	3.57	(898)
F	2.47	3.93*	5.22**	
거주기간				
4년 미만	3.27	2.38	3.60	(564)
4년~8년 미만	3.40	2.60	3.57	(733)
8년 이상	3.09	2.56	3.40	(513)
F	11.9***	7.4**	4.5*	

* p<.05, ** p< .01, *** p<.001

출신국별로 보면, 자녀양육에 대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어머니가 가장 큰 혼

란을 느끼며 필리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어머니가 다른 나라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과 우즈베키스탄 어머니는 다른 나라 출신보다 짜증을 낸다는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3가지 문항에서 모두 점수가 높았는데,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과 짜증이 난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기간이 4~8년 미만일 때 양육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다소 높았으며, 자녀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표 IV-3-8 참조).

라. 양육환경 만족도

현재 결혼이민자 여성 본인이 가정 내·외 자녀 양육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가정 내 자녀 양육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45.0%이고, 불만족은 16.0% 정도이다. 5점 평균으로는 3.38점으로 산출되었다. 가정 외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도 만족한다는 비율이 45%이며 5점 평균에 3.43점으로, 가정 내 환경과 비교하여 거의 같은 수준이다(표 IV-3-9 참조).

〈표 IV-3-9〉 가정 내·외 자녀 양육환경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모름		
가정 내	4.5	11.5	37.9	32.4	12.8	0.8	100.0(1,826)	3.38
가정 외	1.9	8.9	40.9	35.7	9.3	3.3	100.0(1,826)	3.43

출신국별로 보면, 가정 내외 양육환경 만족도 모두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자라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IV-3-10 참조).

지역 차이는 없으며,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 내외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자녀가 성장하여 요구되는 양육환경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IV-3-10〉 가정 내·외 자녀 양육환경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 점

구분	가정 내 양육환경			가정 외 양육환경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32.4	12.8	3.38	35.7	9.3	3.43
출신국						
중국(조선족)	39.1	5.9	3.31	35.6	6.4	3.37
중국(한족 등)	26.3	12.1	3.29	33.5	7.1	3.36
베트남	29.4	17.3	3.45	36.2	10.9	3.47
필리핀	36.2	11.8	3.42	34.8	10.0	3.46
일본	25.6	2.2	2.98	28.3	3.3	3.14
몽골	36.7	12.2	3.44	40.0	14.4	3.64
태국	34.0	17.5	3.51	38.1	12.4	3.54
캄보디아	37.3	18.7	3.58	36.7	12.7	3.48
우즈베키스탄	41.5	9.8	3.49	51.2	7.3	3.65
기타	32.0	18.0	3.42	42.0	6.0	3.48
			4.9 ^{***}			3.8 ^{***}
지역						
대도시	29.9	11.9	3.32	35.3	6.7	3.37
중소도시	36.6	10.3	3.35	39.1	8.4	3.47
읍·면지역	31.5	14.6	3.42	34.1	10.9	3.44
			1.60			1.8
거주기간						
4년 미만	37.2	17.1	3.55	38.8	11.5	3.50
4년~8년 미만	29.5	14.7	3.38	37.5	10.9	3.47
8년 이상	32.5	5.9	3.19	34.1	5.7	3.30
			17.0 ^{***}			8.6 ^{***}

*** p<.001

4. 자녀에 대한 기대

가. 교육

자녀에 대한 기대로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키고 싶은 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가 52.5%, 대학원 42.9%로 거의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대학교는 일본이 83.3%로 압도적으로 많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이 60% 이상이다. 중국 한족과 조선족, 베트남, 캄보디아는 대학교보다 대학원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대학교 응답이 많고 대도시는 대학원이 많았다.

〈표 IV-4-1〉 자녀에게 희망하는 교육 수준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0.1	0.9	52.5	42.9	3.6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	1.0	45.0	51.0	3.0	100.0(202)
중국(한족 등)	-	0.9	34.4	58.5	6.3	100.0(224)
베트남	-	0.2	46.1	49.7	4.0	100.0(497)
필리핀	0.4	0.7	65.6	31.5	1.8	100.0(279)
일본	-	2.8	83.3	8.9	5.0	100.0(180)
몽골	-	2.2	50.0	44.4	3.3	100.0(90)
태국	-	1.0	54.6	42.3	2.1	100.0(97)
캄보디아	-	0.6	46.4	50.6	2.4	100.0(166)
우즈베키스탄	-	-	61.0	36.6	2.4	100.0(41)
기타/무응답	-	2.0	48.0	36.0	4.0	100.0(50)
지역						
대도시	-	0.9	47.2	48.1	3.8	100.0(445)
중소도시	-	1.1	53.6	42.2	3.2	100.0(476)
읍·면지역	0.1	0.9	54.5	40.8	3.8	100.0(905)

나. 어머니 나라와 관계

자녀에 대한 출신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로서 자녀에게 본국 언어를 교육하고 싶어하는 지와 성장해서 어머니 나라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1) 본국어 교육

<표 IV-4-2>는 자녀가 어머니 모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배운다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배운다는 응답이 54.6%, 배우지 않는다는 응답 44.6%로 배운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어머니 모국어를 배우고 있는 경우 49.5%가 부모로

부터 배우고 있었고, 약 5% 정도는 다른 어학교사에게 배우고 있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배운다는 비율이 중국 한족과 일본이 73.8%, 71.7%로 높고 우즈베키스탄 66%로 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응답한 경우 중국 한족이 67.9%로 가장 많고, 일본, 우즈베키스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66%이다. 다른 어학교사로부터 배운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국 조선족이 8.4%로 가장 높다. 한편, 배우지 않는다는 응답이 캄보디아가 63.9%로 가장 많고 몽골, 베트남도 50% 이상으로 주로 국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언어의 국가가 많다.

〈표 IV-4-2〉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여부 및 교육자(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다른 어학교사	배우지 않음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49.5	5.1	44.6	2.7	1.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49.5	8.4	43.1	5.4	1.0	(202)
중국(한족 등)	67.9	5.8	29.0	1.8	0.4	(224)
베트남	41.9	5.2	50.7	3.2	1.8	(497)
필리핀	49.1	6.8	42.7	1.1	4.3	(279)
일본	66.1	5.6	28.9	2.8	2.2	(180)
몽골	30.0	2.2	61.1	4.4	2.2	(90)
태국	50.5	-	49.5	1.0	-	(97)
캄보디아	33.1	1.8	63.9	0.6	1.8	(166)
우즈베키스탄	65.9	-	34.1	2.4	-	(41)
기타	60.0	8.0	32.0	6.0	-	(50)
지역						
대도시	50.3	4.5	45.2	1.6	1.1	(445)
중소도시	54.8	5.3	39.3	2.7	1.3	(476)
읍·면지역	46.3	5.4	47.1	3.2	2.4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47.3	3.4	48.0	1.2	2.5	(564)
4년~8년 미만	50.8	4.2	43.7	2.6	1.2	(733)
8년 이상	50.1	8.2	42.3	4.5	1.8	(513)

지역별로는 배운다는 비율이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의 순으로, 즉, 읍·면지역이 배우지 않는다는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가장 낮다. 어머니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응답 역시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다. 다른 어학교사로부터 배우는 경우는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우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배운다면 부모에게서 배우는 비율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다(표 IV-4-2 참조).

<표 IV-4-3>은 현재 모국어를 안 가르친다는 경우, 앞으로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82.2%가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이 12.0%, 안 가르치겠다는 의견도 4.0% 정도 되었다.

〈표 IV-4-3〉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의향 및 본국 거주 희망

단위: %(명)

구분	자녀에게 모국어 교육 의향					자녀 본국 거주			
	배우게 할 생각	안 가르칠 것임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82.2	4.0	1.8	12.0	100.0(820)	18.4	35.3	46.3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94.3	2.3	2.3	1.1	100.0(87)	19.3	27.2	53.5	100.0(202)
중국(한족 등)	87.7	3.1	3.1	6.2	100.0(65)	24.6	17.4	58.0	100.0(224)
베트남	77.2	5.5	0.8	16.5	100.0(254)	13.9	48.9	37.2	100.0(497)
필리핀	81.1	5.7	1.6	11.5	100.0(122)	22.9	23.7	53.4	100.0(279)
일본	86.5	1.9	3.8	7.7	100.0(52)	12.2	34.4	53.3	100.0(180)
몽골	76.4	3.6	3.6	16.4	100.0(55)	28.9	25.6	45.6	100.0(90)
태국	85.4	-	-	14.6	100.0(48)	25.8	33.0	41.2	100.0(97)
캄보디아	82.1	4.7	2.8	10.4	100.0(106)	13.9	46.4	39.8	100.0(166)
우즈베키스탄	71.4	-	-	28.6	100.0(14)	9.8	58.5	31.7	100.0(41)
기타/무응답	94.1	-	-	5.6	100.0(17)	18.0	48.0	34.0	100.0(50)
$X^2(df)$	na					136.7(22) ^{***}			
지역									
대도시	84.6	2.0	1.5	11.9	100.0(201)	18.0	34.2	47.9	100.0(445)
중소도시	84.0	3.2	2.7	10.2	100.0(187)	18.7	31.9	49.4	100.0(476)
읍·면지역	80.3	5.3	1.6	12.7	100.0(432)	18.5	37.7	43.9	100.0(905)
$X^2(df)$	6.3(6)					5.6(4)			
거주기간									
4년 미만	84.6	2.9	1.1	11.4	100.0(272)	18.4	34.6	47.0	100.0(564)
4년~8년 미만	82.1	4.9	1.2	11.7	100.0(324)	19.4	36.8	43.8	100.0(733)
8년 이상	79.4	4.1	3.7	12.8	100.0(218)	17.0	34.5	48.5	100.0(513)
$X^2(df)$	7.5(6)					3.2(4)			

주: *** $p <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대부분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중국 조선족이 90% 이상 배우게 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7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모름, 무응답은 우즈베키스탄이 28.6%로 가장 많다.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많았다. 반면, 안 가르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읍·면지역이 대도시의 두 배 정도 되며,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지역 모두 10% 정도를 나타내었다. 한국 거주기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진다(표 IV-43 참조).

2) 자녀의 어머니 나라 거주

자녀 성장한 후 어머니 본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본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미만이었다.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3%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이 46.3%이었다.

출신국별로는 어머니 본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몽골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중국 한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우즈베키스탄은 10%도 못 미쳤고, 반대로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8.5%로 가장 많았다. 이외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베트남 48.9%, 캄보디아 46.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어머니 본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희망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중소도시가 49.4%로 가장 많았고 읍·면도시가 이보다 적은 43.9%이었다.

거주기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V-43 참조).

다. 도구적 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로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장한 후 부모를 부양하기를 바라는지와 자녀가 커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의 부모 부양 기대에 대해서는 6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33.1%으로 2/3정도는 자녀가 자신을 부양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부모를 부양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비율이 몽골 76.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도 70% 이상 되었다. 반면, 바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조선족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48.3%, 중국 한족 44.2%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부모 부양을 희망하는 비율이 66.8%로 가장 많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노후 봉양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4-4〉 자녀 성장한 후 도구적 역할 기대

단위: %(명)

구분	노후 봉양					경제적 도움					계(수)
	전혀 아님	아님	그리 함	매우 그리함	모름· 무응답	전혀 아님	아님	그리 함	매우 그리함	모름· 무응답	
전체	7.6	25.5	50.1	14.6	2.2	14.5	39.4	36.6	6.5	3.1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4.4	43.1	34.2	6.4	2.0	22.8	50.5	23.3	1.5	2.0	100.0(202)
중국(한족 등)	10.7	33.5	45.5	8.5	1.8	21.4	49.1	24.1	4.0	1.3	100.0(224)
베트남	4.8	20.7	51.1	21.7	1.6	8.5	37.8	41.6	8.5	3.6	100.0(497)
필리핀	7.9	14.7	57.3	17.9	2.2	15.4	32.3	38.4	9.3	4.7	100.0(279)
일본	8.3	40.0	44.4	4.4	2.8	23.9	51.1	20.0	2.2	2.8	100.0(180)
몽골	3.3	17.8	60.0	16.7	2.2	11.1	33.3	45.6	7.8	2.2	100.0(90)
태국	1.0	28.9	50.5	17.5	2.1	8.2	35.1	47.4	6.2	3.1	100.0(97)
캄보디아	7.8	14.5	59.0	15.7	3.0	8.4	22.9	56.6	9.0	3.0	100.0(166)
우즈베키스탄	4.9	17.1	56.1	14.6	7.3	12.2	41.5	36.6	4.9	4.9	100.0(41)
기타/무응답	10.0	24.0	52.0	8.0	2.0	10.0	36.0	44.0	8.0	2.0	100.0(50)
지역											
대도시	8.5	27.2	48.5	14.2	1.6	15.1	38.7	37.8	6.5	2.0	100.0(445)
중소도시	8.8	26.9	48.3	14.3	1.7	17.6	40.3	33.8	5.9	2.3	100.0(476)
읍·면지역	6.5	23.9	51.8	15.0	2.8	12.5	39.2	37.6	6.7	4.0	100.0(905)
$X^2(df)$			8.60(8)					12.74(8)			
거주기간											
4년 미만	6.6	20.2	50.2	19.7	3.4	12.6	33.3	41.3	9.0	3.7	100.0(564)
4년~8년 미만	8.0	26.2	51.3	13.5	1.0	13.1	40.8	37.7	6.3	2.2	100.0(733)
8년 이상	8.4	29.8	48.7	10.5	2.5	18.5	44.2	30.6	3.7	2.9	100.0(513)
$X^2(df)$			37.42(8) ^{***}					40.06(8) ^{***}			

*** p<.001

두 번째로 자녀가 커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지 질문한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가 53.9%, 기대한다는 43.1%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다수이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이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도구적 가치는 감소하고 정서적 가치가 증가하는 일반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다소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에 65.6%가 응답하였고, 태국, 몽골,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본 출신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국 한족과 조선족도 70% 이상 된다.

지역별로는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5% 정도 더 많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별 차이는 부모 부양을 바라는 지와 자녀가 커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원하는 지 모두 거주기간이 길수록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경우는 감소하였다.

5. 자녀양육 제 특성 간의 관련성

제5절에서는 모의 부모역할과 역량, 자녀양육 태도와 정서, 아버지 양육 참여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 관련 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어머니 변수로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자녀가치 기대, 자녀양육 시 정서, 부모역할, 자녀양육역량, 허용-거부적 양육태도, 부부관계 만족도 등을 설정하였고, 아버지 변수에는 학력, 허용-거부적 양육태도, 자녀양육 참여도를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자녀수, 월 평균 가구소득, 가정 내의 자녀양육환경 만족도 등을 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복수 문항은 응답 결과를 합산하였으며, 학력은 명목변수로 조사되었으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간주하였다. 즉, 학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5-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이외 각 출신국을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자녀양육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가정 내-외 양육환경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0.60($p<.001$),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과 부모역할 상관관계수가 0.56($p<.001$)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IV-5-1〉 중다회귀분석 사용 변수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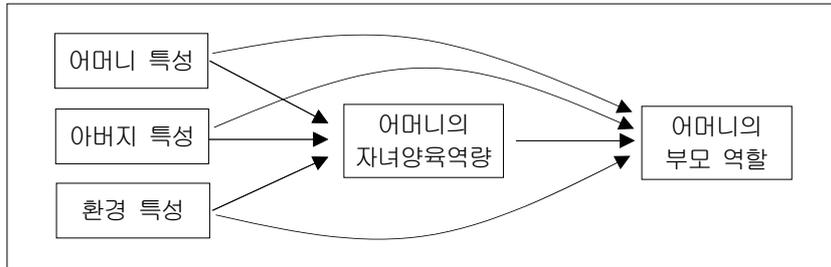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머니 특성				
학력	4.07	1.21	1.00	7.00
한국 거주기간	5.79	3.69	0	22.00
한국어 실력	9.82	2.65	3.00	15.00
자녀에 대한 기대	5.09	1.40	2.00	8.00
자녀양육 시 정서	9.32	2.57	3.00	15.00
부모역할	17.83	3.59	5.00	25.00
자녀양육역량	24.42	4.03	6.00	30.00
허용적 양육태도	8.58	2.00	2.00	18.00
거부적 양육태도	6.44	2.37	2.00	18.00
부부관계 만족도	10.41	2.75	3.00	15.00
아버지 특성				
학력	4.15	1.10	1.00	7.00
허용적 양육태도	8.37	3.11	2.00	18.00
거부적 양육태도	6.63	3.60	2.00	18.00
자녀양육 참여	9.09	3.31	3.00	15.00
환경 특성				
자녀 수	2.12	0.97	0	7.00
월 평균 가구소득	182.42	87.57	0	900.00
가정 내 양육환경	3.38	1.00	1.00	5.00
가정 외 양육환경	3.43	0.86	1.00	5.00

나. 분석 결과

1)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모형을 가정하였다. 즉, 어머니 특성인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자녀기대, 자녀양육 시 정서, 허용-거부적 양육태도와 아버지 특성인 학력, 양육 참여, 그리고 환경 특성인 자녀수, 월평균 소득, 가정 내·외 환경 만족도가 직접, 또는 부모 역량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5-1>과 같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부모 역할이 종속변수일 때는 부모 역량을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다음에는 부모 역할을 제외하고 부모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5-1]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제 변수 간의 관계 모형

먼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 변수, 아버지 변수, 환경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stepwise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과 허용적 양육태도, 부부관계 만족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중소도시 지역, 자녀 희망교육 정도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35%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이 27%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를 추가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30%로 증가하였고, 부부관계만족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중소도시 지역 등은 각각 1~2% 정도씩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34.6%로 증가하였다.

<표 IV-5-2>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 ²
(상수)	3.63***	1.14		
자녀양육역량	.37***	.04	.42	.274
허용적 양육태도	.38***	.09	.18	.033
부부관계 만족도	.18***	.05	.13	.022
거부적 양육태도	-.21***	.07	-.12	.013
지역-중소도시(중소도시=1)	.89***	.30	.11	.012
조정 R ²		.346		
F		43.08***		
(df)		(465)		

*** p<.001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부모 역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역량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부모 역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어머니 출신국,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자녀양육 시 정서,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거주 지역, 가정 내-외 환경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IV-5-3>과 같이 이들 변수들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을 20.1% 정도 설명해 주는데, 가정 내 환경은 7.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며 한국어 실력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6% 증가하여 14%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또한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양육 시 정서, 모의 출신국이 일본, 필리핀, 몽골, 한국 거주기간, 모 학력 등을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20.1%로 증가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가정 내 양육환경과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역이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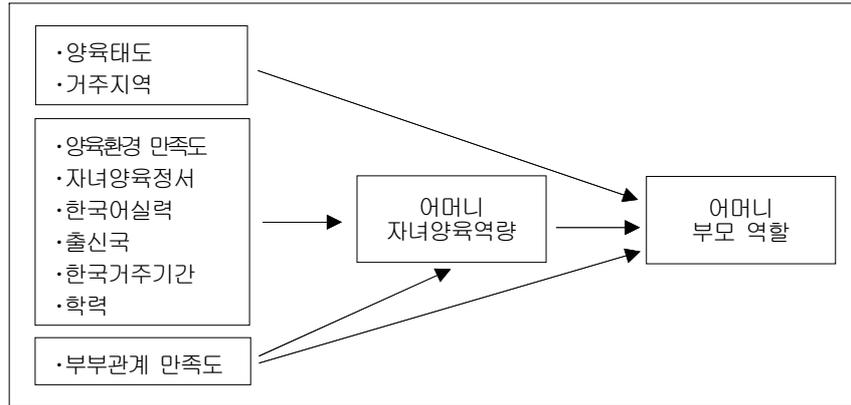
<표 IV-5-3>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 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2
(상수)	16.50***	0.79		
가정 내 양육환경	0.49***	0.12	0.12	.079
한국어실력	0.39***	0.04	0.26	.060
부부관계 만족도	0.21***	0.04	0.14	.021
자녀양육 시 정서	-0.17***	0.04	-0.11	.014
모 출신국-일본(일본=1)	-1.05**	0.33	-0.08	.011
모 출신국-필리핀(필리핀=1)	0.70*	0.28	0.06	.005
한국 거주기간	-0.11***	0.03	-0.10	.006
가정 외 양육환경 만족도	0.41**	0.13	0.09	.004
모-학력	0.26**	0.08	0.08	.004
모 출신국-몽골(몽골=1)	-0.91*	0.45	-0.05	.002
조정 R ²		.201		
F		23.53***		
(df)		(1,584)		

* p<.05, ** p<.01, *** p<.001

이 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허용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중소도시 지역은 직접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 내 환경, 한국어 실력, 자녀양육 시 정서, 모의 출신국, 한국 거주기간, 모 학력 등은

부모 역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며, 부부 관계 만족도는 직접 또는 부모역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모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그림 IV-5-2 참조).



[그림 IV-5-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제 변수 간의 관계 분석 결과

2) 양육 태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표 IV-5-4>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앞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부모역량과 부모역할을 모두 포함하였다. 부모역량, 부모역할은 양육 태도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의 설명력이 11.2%로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역량에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력이 5.9% 정도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부모역할, 모의 출신국이 일본일 경우와 자녀양육 시 정서를 투입하자 전체 설명력이 20.4%로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양육역량이나 부모역할,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와 정의 관계인 반면에 출신국이 일본일 경우와 자녀양육 시 정서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표 IV-5-4 참조).

〈표 IV-5-4〉 어머니 허용적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2
(상수)	4.39***	0.63		
모 자녀양육역량	0.08***	0.02	0.17	.112
부 허용적 양육태도	0.14***	0.03	0.21	.059
모 부모역할	0.09***	0.02	0.18	.025
모 출신국-일본(일본=1)	-0.47*	0.19	-0.10	.008
모 자녀양육 시 정서	-0.06*	0.03	-0.09	.008
조정 R ²		.204		
F		27.73***		
(df)		(521)		

* p<.05, ** p<.01, *** p<.001

다음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시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IV-5-5〉 어머니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 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2
(상수)	13.67	1.00		
자녀양육역량	-0.14***	0.03	-0.20	.091
모- 학력	-0.26*	0.11	-0.12	.051
모 거부적 양육태도	0.26***	0.06	0.19	.029
가정 내 양육환경 만족도	-0.40**	0.12	-0.15	.018
자녀기대	0.21*	0.08	0.11	.013
모 허용적 양육태도	-0.21**	0.07	-0.13	.013
모 출신국-베트남(베트남=1)	0.87**	0.30	0.14	.009
모 출신국캄보디아(캄보디아=1)	1.13*	0.46	0.11	.010
조정 R ²		.221		
F		16.92***		
(df)		(449)		

* p<.05, ** p<.01, *** p<.001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 학력, 거부적 양육태도, 가정 내 양육환경 만족도, 모의 출신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허용적 양육태도, 한국어 실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시 정서에 22.1% 정도 설명을 해 주는데, 자녀양육역량이 9.1%로 가장 설명력이 높으며, 모의 학력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 14.2%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을 투입하자 전체 설명력이 22.1%로 증가되었다(표 IV-5-5 참조).

즉, 자녀양육역량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태도일수록, 가정 내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베트남과 캄보디아 어머니일수록, 덜 허용적인 양육태도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3)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모의 출신국과 한국 거주기간과 한국어 실력, 아버지의 학력과 허용-거부적 양육태도, 자녀수,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등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6>과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으로 설명력이 6.4% 정도였다. 또한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 학력을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이 14.4%로 증가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기 보다는 허용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 ²
(상수)	7.50 ^{***}	.80		
모 한국거주기간	-.16 ^{***}	.03	-.20	0.064
허용적 양육태도	.36 ^{***}	.06	.27	0.039
거부적 양육태도	-.24 ^{***}	.06	-.20	0.035
학력	.26 [*]	.13	.09	0.007
조정 R ²		.144		
F		20.51 ^{***}		
(수)		(490)		

* p<.05, *** p<.001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모의 출신국, 지역, 모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남편의 학력과 양육참여,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IV-5-7>에서 보면, 남편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7% 정도였다. 이외에 모의 부부관

계 만족도는 남편의 양육참여, 월평균 소득, 모의 한국어 실력과 정의 관계이나 모의 출신국이 중국 한족인 경우와 한국 거주기간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IV-5-7〉 어머니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stepwise 최종모형

구분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ΔR ²
(상수)	6.03***	.34		
남편의 양육참여	.33***	.02	.40	.177
월평균 소득	.004***	.001	.12	.015
모 출신국-중국한족(한족=1)	-.73***	.19	-.09	.008
모 한국어 실력	.12***	.03	.11	.006
모 한국 거주기간	-.07***	.02	-.10	.008
조정 R ²			.212	
F			80.65***	
(df)			(1,484)	

*** p<.001

6. 정책 시사점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와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지만, 시부모가 양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 문제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시부모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에 대한 태도는 다소 허용적이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약간의 혼란스러움과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본인의 자녀양육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녀들을 돌보거나 놀아주는 것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녀를 직접 교육하거나 공부를 도와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잘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과 체험행사 등 문화생활을 함께 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이 높은 편이었다. 본인의 모국어를 자녀들이 배우고 있거나 앞으로 배우게 하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자녀들이 본인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출신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가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대한 교육 지원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댁식구가 37.4%, 친정식구 12.7%로 시댁식구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친정식구의 영향력이 다소 큰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시댁식구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댁식구들의 역량이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이를 기르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7.7%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자적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출신국 이민자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임 조직이나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었다. 결혼이민자의 34.8%가 자조모임에 안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조모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 모임에 대한 정보 부족 18.4%, 모임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11.9%이었다.

넷째, 결혼이민자 자조모임뿐 아니라 일반인 멘토도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댁식구, 친정식구, 다문화 관련 기관 사람으로 한정적이다.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도 한국인 친구는 10% 미만이었다. 이민자끼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한국인 가족끼리의 모임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이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연극이나 캠프와 같은 참여 행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부모역할로 도서관, 서점, 공연 등 문화공간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23.1%,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 43.1%로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서점은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33.6%, 놀이공원은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22.9%, 영화, 연극 등 공연은 가지 않은 경우가 46.2%, 캠프나 현장학습과 같은 체험행사는 가지 않은 비율이 38.0%이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내 문화생활 빈도는 낮은 편이고, 캠프나 체험행사 참여 빈도는 상당히 낮다.

여섯째, 결혼이민자 자녀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역량 대처 중 잘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공부에 도움을 준다가 1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먼저 자녀에 대한 기대로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교육시키고 싶은 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교가 52.5%, 대학원 42.9%로 거의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양육 시 혼란스러움과 자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란스러움과 자녀가 잘 성장할지 장래가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3.1%, 54.8%이고, 반면에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다는 점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15.0%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주민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이중 언어 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 교육인에 의한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자녀 중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54.6%인데, 단지 5% 정도가 다른 어학교사에게 배우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 모국어를 안 가르친다는 경우에도 82.2%가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였다.

아홉째, 거주기간별 접근이 필요하다.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여러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열째, 출신국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출신국에 상관없이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들의 자녀로만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만, 출신국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나 역량 차이를 보이므로 출신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종교를 바탕으로 입국한 사례가 많은 일본이나 결혼이민자 규모가 많은 중국은 동일한 결혼이민자 친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문화생활을 누리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하지

만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은 시댁식구의 도움 이외에는 다른 지원자원이 부족하였으며, 자녀들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율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출신국별 특징들을 좀 더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열한번째,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자녀양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나타낸다. 부모의 역할 수행은 부모 역량을 전제로 하고 부모역량은 학력, 거주기간이나 언어 이외에도 부부간의 관계, 양육환경 등 가족 내 전반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제5장은 자녀가 고정적으로 다니는 기관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초등학교, 사교육 기관으로 나누어 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된 1,248가정을 대상으로 기관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미이용 이유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 학비는 전액 지원된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아동이 있다는 가족이 318가족이나 되었다. 이에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아이가 아직 어려서 6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 11.9%, 아이 적응이 걱정되어서 10.7%, 추가 비용 부담 4.4% 순이었다. 아이가 따돌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안 보내는 경우는 2.8%로 극히 적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보내지 않는 경우는 일본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캄보디아였다.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인 경우는 태국이 22.2%로 가장 많았고,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중국 조선족이 15.0%로 다른 국가의 3배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아이 적응이 걱정되어서 안 보내는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이 60.0%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아이가 어려서 안 보낸다는 이유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았다. 특히, 읍·면지역은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가 14.3%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아이 적응이 걱정 되어서 안 보낸다는 경우는 대도시가 13.2%로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많았다.

〈표 V-1-1〉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전액 지원하 는 줄 몰라서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 적응이 걱정되 어서	아이가 따돌림 받을까 봐	기타	수
전체	11.9	4.4	67.0	10.7	2.8	8.8	(318)
출신국							
중국(조선족)	15.0	15.0	40.0	5.0	5.0	20.0	(20)
중국(한족 등)	9.5	4.8	64.3	19.0	-	4.8	(42)
베트남	13.7	4.9	67.6	11.8	5.9	5.9	(102)
필리핀	9.4	3.8	67.9	11.3	3.8	9.4	(53)
일본	-	-	90.9	9.1	-	18.2	(11)
몽골	-	-	69.2	7.7	-	23.1	(13)
태국	22.2	5.6	50.0	5.6	-	22.2	(18)
캄보디아	14.9	2.1	76.6	2.1	-	4.3	(47)
우즈베키스탄	-	-	60.0	60.0	-	-	(5)
기타	14.3	-	85.7	-	-	-	(7)
지역							
대도시	8.8	4.4	67.6	13.2	2.9	11.8	(68)
중소도시	9.8	6.1	72.0	8.5	3.7	7.3	(82)
읍·면지역	14.3	3.6	64.3	10.7	2.4	8.3	(168)

나. 이용 비용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내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8만 9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5만원 미만과 10~30만원이 각각 39.0%, 30.9%로 많았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태국인과 베트남이 10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몽골, 일본은 7만원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관에 내는 비용을 구간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5만원 미만은 일본과 캄보디아가 가장 많고, 5~10만원 미만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10만원~30만원 미만 우즈베키스탄이 40% 이상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5만원 미만은 읍·면지역이 훨씬 많고, 5~10만원은 대도시, 10~30만원 미만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30만원 이상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V-1-2〉 기관 이용 월 평균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천원)
전체	39.0	25.0	30.9	5.1	100.0(995)	89.4
출신국						
중국(조선족)	30.8	30.8	36.7	1.7	100.0(120)	90.3
중국(한족 등)	37.9	29.0	31.0	2.1	100.0(145)	81.3
베트남	25.5	23.9	32.9	7.6	100.0(301)	101.0
필리핀	45.5	22.8	26.0	5.7	100.0(123)	80.9
일본	50.6	18.5	27.2	3.7	100.0(81)	76.3
몽골	45.1	25.5	25.5	3.9	100.0(51)	75.2
태국	30.0	20.0	37.5	12.5	100.0(40)	124.1
캄보디아	47.9	25.0	21.9	5.2	100.0(96)	74.1
우즈베키스탄	31.8	27.3	40.9	-	100.0(22)	96.5
기타/무응답	25.0	25.0	43.8	6.2	100.0(16)	109.9
X ² (df)/F			na			2.2 [*]
지역						
대도시	29.5	31.0	34.5	5.0	100.0(261)	98.3
중소도시	34.6	22.4	37.8	5.2	100.0(286)	99.5
읍·면지역	47.3	23.2	24.3	5.1	100.0(448)	77.7
X ² (df)/F			32.3(6) ^{***}			6.9 ^{***}

주: * p<.05,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다. 특별활동

자녀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7개로 보통 1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안 하는 경우가 37.0%로 1/3정도 되었고, 1개 19.9%, 2개 17.2% 순으로 많았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41.5%이었고, 1개가 16.7%, 2개 16.6%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특별활동의 보편화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이 우즈베키스탄, 중국 조선족, 베트남이 1개 이상으로 많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1개 미만이지만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1.29개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1.24개, 1.06개보다 많지

만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읍·면지역과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많다.

〈표 V-1-3〉 이용 기관에서 하는 특별활동 수

단위: %(명), 개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모름 /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37.0	19.9	17.2	1.6	5.9	3.0	15.4	100.0(1,248)	1.17
출신국									
중국(조선족)	32.9	17.9	18.6	2.1	7.1	4.3	17.1	100.0(140)	1.36
중국(한족 등)	35.8	19.1	16.2	1.7	5.8	2.3	19.1	100.0(173)	1.13
베트남	34.1	21.4	20.9	0.8	5.3	3.7	13.8	100.0(378)	1.24
필리핀	39.1	17.2	17.8	-	9.5	3.0	13.6	100.0(169)	1.23
일본	42.6	20.2	12.8	2.1	6.4	3.2	12.8	100.0(94)	1.10
몽골	35.4	13.8	23.1	1.5	4.6	3.0	18.5	100.0(65)	1.23
태국	40.0	16.7	8.3	5.0	5.0	-	25.0	100.0(60)	0.91
캄보디아	45.3	29.9	10.3	4.3	0.9	-	9.4	100.0(117)	0.74
우즈베키스탄	26.1	8.7	21.7	-	17.4	-	26.1	100.0(23)	1.65
기타/무응답	44.8	17.2	17.2	0.0	3.4	10.3	13.8	100.0(29)	0.61
X ² (df)/F				na					4.0**
지역별									
대도시	37.1	16.9	16.2	1.7	6.0	4.0	17.9	100.0(302)	1.24
중소도시	33.1	21.6	19.1	2.1	4.6	4.8	14.6	100.0(329)	1.29
읍·면지역	39.1	20.4	16.7	1.3	6.6	1.3	14.6	100.0(617)	1.06
X ² (df)/F				na					2.8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자녀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영어가 40.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영어가 38.8%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로 다문화가족도 영어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영어는 우즈베키스탄이 5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41.4%이었다. 미술은 우즈베키스탄이 43.5%로 다른 국가의 두 배 이상 되었다. 반면,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45.3%, 일본 42.6%, 태국 40.0%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영어, 음악, 체육·발레는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많았고, 수학·과학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더 많았으며, 미술은 대도시가 중소도시, 읍·면지역보다 많았다.

〈표 V-1-4〉 이용 기관에서 하는 특별활동(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발레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수)
전체	40.0	4.1	17.0	20.4	17.5	17.2	8.7	37.1	6.3	(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41.4	2.9	23.6	25.0	16.4	25.0	11.4	33.6	5.0	(140)
중국(한족 등)	39.9	4.6	16.2	20.8	20.8	20.2	12.7	35.8	5.2	(173)
베트남	41.8	2.6	14.8	20.4	19.3	15.9	7.1	34.1	7.9	(378)
필리핀	39.6	7.1	21.9	20.7	23.7	11.2	4.7	39.1	5.9	(169)
일본	34.0	3.2	16.0	17.0	12.8	26.6	11.7	42.6	4.3	(94)
몽골	38.5	6.2	23.1	18.5	15.4	20.0	9.2	35.4	7.7	(65)
태국	36.7	3.3	11.7	11.7	10.0	20.0	8.3	40.0	13.3	(60)
캄보디아	38.5	4.3	5.1	16.2	10.3	4.3	3.4	45.3	4.3	(117)
우즈베키스탄	56.5	8.7	34.8	43.5	13.0	26.1	17.4	26.1	-	(23)
기타/무응답	34.5	3.4	24.1	27.6	13.8	17.2	17.2	44.8	3.4	(29)
지역										
대도시	42.1	4.6	15.6	25.5	19.5	22.2	7.0	37.4	5.6	(302)
중소도시	42.6	4.9	17.3	18.8	21.6	21.0	11.6	33.1	5.2	(329)
읍·면지역	37.6	3.4	17.5	18.8	14.4	12.8	7.9	39.1	7.3	(617)

라. 특별프로그램

<표 V-1-5>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없다는 응답이 65.5%이고, 있다는 경우도 한글교육이 19.6%로 가장 많고 방과 후 특별지도나 이중 언어교육은 5% 정도이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한글교육은 필리핀이 31.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가 각각 20% 정도이다. 이중 언어는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멘토는 필리핀이 많았다. 다음으로 방과 후 특별지도는 태국과 필리핀이 11.7%, 10.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일본 81.9%, 몽골 80.0%로 과반수 이상 되었다.

지역별로 대도시가 특별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한글교육은 읍·면지역, 이중 언어는 중소도시가 많았다. 멘토, 방과후 특별지도 등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5〉 이용 기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특별 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글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멘토	방과 후 특별지도	기타	(수)
전체	19.6	4.8	2.6	5.0	3.5	(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15.7	8.6	1.4	5.7	5.0	(140)
중국(한족 등)	15.6	5.2	1.7	4.0	2.9	(173)
베트남	22.8	3.2	2.9	2.4	3.2	(378)
필리핀	31.4	7.7	4.7	10.1	3.6	(169)
일본	4.3	4.3	3.2	6.4	3.2	(94)
몽골	7.7	-	-	3.1	3.1	(65)
태국	20.0	1.7	1.7	11.7	1.7	(60)
캄보디아	23.9	6.0	0.9	3.4	5.1	(117)
우즈베키스탄	13.0	4.3	8.7	4.3	8.7	(23)
기타/무응답	17.2	3.4	6.9	3.4	-	(29)
지역						
대도시	13.2	2.3	2.6	4.3	3.0	(302)
중소도시	18.2	7.3	3.3	4.6	3.0	(329)
읍·면지역	23.5	4.7	2.3	5.5	4.1	(617)

〈표 V-1-6〉 모 출신국·지역·거주기간에 따른 자녀의 특별활동 수의 차이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모 출신국	39.98	9	4.44	2.38*
지역	4.29	2	2.15	1.15
모 거주기간	7.65	2	3.82	2.05
출신국×지역	39.30	18	2.18	1.17
출신국×거주기간	49.47	17	2.91	1.56
지역×거주기간	5.68	4	1.42	0.76
출신국×지역×거주기간	90.10	33	2.73	1.46*
오차	1812.29	970	1.87	
합계	3535.00	1056		

* p<.05

자녀의 특별활동 수가 모의 출신국, 지역 거주기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의 출신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국과 지역, 거주기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6 참조).

마. 부모의 대응 애로

1) 부모의 애로

자녀의 기관 이용 시 어머니의 어려움을 알림장 해독, 가정통신문 해독, 준비물 준비, 원장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네 가지로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알림장 해독은 어렵다가 37.3%, 없다는 61.3%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59.1%, 있다는 39.1%로 20% 정도 차이가 났다. 기관의 준비물 준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71.7%로 26.2%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V-1-7 참조).

한편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교사나 원장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응답이 58.8%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4점 척도로는 평균 2.82점으로 준비물 준비나, 알림장 및 가정 통신문 해독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기관 이용 시 어머니의 어려움 개요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점)
알림장 해독	7.8	29.5	35.6	25.7	1.4	100.0(1,248)	2.20
가정통신문 해독	8.7	30.4	35.0	24.1	1.8	100.0(1,248)	2.24
준비물 준비	4.6	21.6	39.2	32.5	2.1	100.0(1,248)	1.98
의사소통어려움	28.8	30.0	33.6	6.3	1.4	100.0(1,248)	2.82

주: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의미함

각 조사 결과를 모의 출신국과 지역별 차이를 4점 척도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표 V-1-8>에서 보면 알림장 해독은 모의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국 조선족과 일본이 1.54점, 1.70점으로 가장 낮고, 태국 2.86점, 필

리핀 2.52점으로 가장 높았다. 즉, 모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긴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낮았다.

〈표 V-1-8〉 기관 이용 시 애로 정도: 4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알림장 해독	가정통신문 해독	준비물 애로	원장교사와 의사소통 애로	(수)
전체	2.20	2.24	1.98	2.82	(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1.54	1.52	1.49	3.47	(140)
중국(한족 등)	2.16	2.15	1.95	2.70	(173)
베트남	2.33	2.43	2.17	2.57	(378)
필리핀	2.52	2.51	2.05	2.85	(169)
일본	1.70	1.72	1.53	3.12	(94)
몽골	1.95	2.02	1.86	3.21	(65)
태국	2.86	2.93	2.41	2.52	(60)
캄보디아	2.34	2.42	2.12	2.58	(117)
우즈베키스탄	2.05	2.22	1.91	3.22	(23)
기타/무응답	2.28	2.28	2.03	3.10	(29)
F	215 ^{***}	24.3 ^{***}	13.3 ^{***}	17.5 ^{***}	
지역					
대도시	2.26	2.29	2.07	2.83	(302)
중소도시	2.13	2.19	1.87	2.85	(329)
읍·면지역	2.20	2.25	2.00	2.81	(617)
F	1.6	1.01	4.6 [*]	0.22	
거주기간					
4년 미만	2.47	2.55	2.23	2.54	(306)
4년~ 8년 미만	2.17	2.22	1.94	2.84	(665)
8년 이상	1.94	1.94	1.79	3.11	(262)
F	25.4 ^{***}	32.4 ^{***}	19.7 ^{***}	27.2 ^{***}	

*** p<.0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의미함.

두 번째 가정통신문 해독은 모의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국 조선족, 일본이 1.52점, 1.72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면 태국 2.93점, 필리핀 2.51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도시가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은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다.

셋째, 준비물 준비는 모의 출신국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일본이 평균 1.49점, 1.53점으로 가장 낮고, 태국이 2.41점으로 가장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은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조선족, 몽골 순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1/3 정도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1.87점, 대도시가 2.0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도시 중 30% 정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은 어머니들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사나 원장과의 의사소통은 출신국별로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가 2.52점, 2.57점, 2.58점으로 낮은 반면, 중국 조선조선족 3.47점, 우즈베키스탄 3.2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이나 대도시에 비해 많았다. 한편 한국 거주기간별로는 앞의 알림장 해독이나 준비물 준비와는 달리 거주기간이 길수록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낮았다. 어머니들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⁸⁾

2) 도움 받는 사람

<표 V-1-9>는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해독하거나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남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많았다. 시댁식구와 다문화 관련 기관이 10% 정도이고, 결혼이민자 이웃이나 한국인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알림장 해독 등 애로가 있을 경우 모의 출신국에 관계없이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태국, 필리핀, 중국 한족이 약 80% 정도 된다. 시댁식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몽골이 가장 많지만 일본, 캄보디아도 그 다음으로 많다. 다문화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몽골이 가장 많다. 특히, 일본은 남편, 시댁식구,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이웃, 다문화 관련 기관 등

18) 기관 이용에 따른 애로 사항에 대한 출신국, 지역, 거주기간별 교차 분석 표는 <부표 V-1-1>, <부표 V-1-2>, <부표 V-1-3>, <부표 V-1-4> 에 수록하였음.

다양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태국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80.1%로 가장 많았다. 시택 식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읍·면지역이 더 많으며, 다문화 관련 기관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더 많았다

〈표 V-1-9〉 알림장 해독 등 애로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남편	시택 식구	결혼이민자 이웃	한국인 이웃	다문화관련 기관	친정 친구	기타	없음	(수)
전체	75.8	11.1	6.9	4.7	10.7	1.6	1.6	2.9	(550)
출신국									
중국(조선족)	66.7	9.5	9.5	19.0	4.8	-	-	9.5	(21)
중국(한족 등)	79.4	4.8	9.5	4.8	12.7	1.6	-	3.2	(63)
베트남	74.1	11.9	5.2	4.1	11.9	2.6	1.6	2.6	(193)
필리핀	79.2	10.9	9.9	5.9	9.9	1.0	-	2.0	(101)
일본	76.5	17.6	17.6	11.8	11.8	5.9	-	-	(17)
몽골	76.2	23.8	-	-	28.6	-	-	4.8	(21)
태국	81.3	6.3	6.3	2.1	2.1	-	4.2	-	(48)
캄보디아	70.8	15.4	4.6	3.1	9.2	1.5	1.5	4.6	(65)
우즈베키스탄	50.0	10.0	10.0	-	20.0	-	20.0	10.0	(10)
기타/무응답	100.0	-	-	-	-	-	9.1	-	(11)
지역									
대도시	80.1	10.6	4.3	5.0	7.1	1.4	0.7	2.8	(141)
중소도시	72.7	9.4	10.8	5.8	12.2	1.4	2.9	6.5	(139)
읍·면지역	75.2	12.2	6.3	4.1	11.9	1.9	1.5	1.1	(270)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어머니 모국어로 된 알림장 또는 가정통신문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응답이 10% 정도이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는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5%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조선족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소도시와 읍·면 도시가 10% 정도 되었고, 대도시는 이보다 적은 7% 정도이었다(표 V-1-10 참조).

〈표 V-1-10〉 이용 기관에서 모국어 알림장·가정통신문 받아 본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받아본 적 없음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6.7	4.3	87.7	1.3	100.0(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7.1	3.6	87.1	2.1	100.0(140)
중국(한족 등)	7.5	1.2	91.3	-	100.0(173)
베트남	7.4	5.8	86.0	0.8	100.0(378)
필리핀	5.9	5.9	85.2	3.0	100.0(169)
일본	2.1	3.2	93.6	1.1	100.0(94)
몽골	1.5	-	95.4	3.1	100.0(65)
태국	5.0	-	93.3	1.7	100.0(60)
캄보디아	12.0	8.5	78.6	0.9	100.0(117)
우즈베키스탄	4.3	4.3	91.3	-	100.0(23)
기타/무응답	6.9	3.4	93.1	-	100.0(29)
지역					
대도시	4.6	2.3	92.4	0.7	100.0(302)
중소도시	7.0	5.2	86.3	1.5	100.0(329)
읍·면지역	7.6	4.9	86.1	1.5	100.0(617)

바. 이용 만족도

다음 <표 V-1-11>은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로 3.12점으로 84.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은 14%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중국 조선족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몽골과 베트남이 3.02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70%가 넘는데, 특히 중국 한족과 베트남, 몽골의 불만족 비율이 15% 이상 되었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비해 적었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대도시가 3.07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각각 3.14점이었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과반수 이상이고, 불만족 비율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1-12>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비용, 특별활동 수,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해독의 어려움, 준비물 준비의 어려움, 교사나 원장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과의 상관성을 나타내는데, 상관성

은 대체로 낮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상관성이 높는데, 그 방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표 V-1-11〉 이용 기관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점)
전체	1.8	12.2	56.5	27.5	2.1	100.0(1,248)	3.12
출신국							
중국(조선족)	-	10.0	46.4	41.4	2.1	100.0(140)	3.32
중국(한족 등)	0.6	17.3	53.8	26.6	1.7	100.0(173)	3.08
베트남	3.4	13.2	58.7	22.2	2.4	100.0(378)	3.02
필리핀	1.2	10.7	50.3	34.9	3.0	100.0(169)	3.23
일본	2.1	8.5	61.7	24.5	3.2	100.0(94)	3.12
몽골	3.1	13.8	60.0	21.5	1.5	100.0(65)	3.02
태국	-	6.7	68.3	23.3	1.7	100.0(60)	3.17
캄보디아	1.7	12.8	59.8	25.6	-	100.0(117)	3.09
우즈베키스탄	-	8.7	56.5	34.8	-	100.0(23)	3.26
기타/무응답	-	6.9	65.5	24.1	3.4	100.0(21)	3.18
X ² (df)/F			na				3.1**
지역							
대도시	0.7	16.2	56.6	24.5	1.7	100.0(302)	3.07
중소도시	2.1	8.8	59.9	26.4	1.8	100.0(329)	3.14
읍·면지역	2.1	12.0	54.6	29.5	1.0	100.0(617)	3.14
X ² (df)/F			na				1.0

주: ** p<.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표 V-1-12〉 기관 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비용	특별활동 수	알림장 해독	가정통신문 해독	준비물 준비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관 만족도
1. 비용	1						
2. 특별활동 수	.06	1					
3. 알림장 해독	-.04	.09**	1				
4. 가정통신문 해독	-.05	.07*	.89***	1			
5. 준비물 준비	-.04	.08*	.75***	.75***	1		
6. 의사소통의 어려움	.03	-.07*	-.52***	-.54***	-.48***	1	
7. 기관 만족도	-.02	.09**	.09**	.09**	.07*	-.14***	1

* p<.05, ** p<.01, *** p<.001

2. 초등학교 이용

제2절은 자녀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593명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가. 특별 프로그램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복수로 조사한 결과를 <표 V-2-1>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방과 후 특별지도가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15.9%, 독서지도 14.0% 순이었고, 멘토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기타는 10% 미만이었다. 반면 없다는 비율도 24.5%를 차지하였다.

<표 V-2-1>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특별 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독서 지도	방과 후 특별지도	멘토	기타	없음	(수)
전체	15.9	6.2	14.0	41.7	9.3	6.1	24.5	(593)
출신국								
중국(조선족)	13.8	4.6	9.2	35.6	9.2	4.6	36.8	(87)
중국(한족 등)	21.6	5.9	9.8	29.4	3.9	13.7	25.5	(51)
베트남	15.2	5.1	16.2	27.3	5.1	8.1	22.2	(99)
필리핀	20.8	8.0	19.2	52.0	12.0	3.2	13.6	(125)
일본	8.8	8.8	10.8	48.0	14.7	4.9	32.4	(102)
몽골	9.1	9.1	22.7	36.4	4.5	9.1	27.3	(22)
태국	11.8	2.0	11.8	58.8	5.9	3.9	19.6	(51)
캄보디아	33.3	11.1	-	11.1	5.6	-	11.1	(18)
우즈베키스탄	15.4	7.7	23.1	61.5	23.1	15.4	7.7	(13)
기타/무응답	20.0	-	20.0	44.0	8.0	8.0	36.0	(25)
지역								
대도시	17.4	6.6	13.2	48.8	17.4	9.1	21.5	(121)
중소도시	10.3	6.1	7.3	35.2	6.7	6.1	32.7	(165)
읍·면지역	18.2	6.2	17.9	42.3	7.5	4.9	21.2	(307)

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운영되어도 주로 숙제지도나 언어발달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방과 후 특별지도는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이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많았으며, 독서지도는 몽골,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없다는 비율은 중국 조선족과 일본이 30%가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방과 후 특별지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대도시와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많았다. 한국어 교육과 독서지도는 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이 더 많았다. 특별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이나 대도시보다 10% 정도 더 많았다.

나. 비용 부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교에 매월 내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8천원 정도이다. 5만원 미만이 62.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0만원~30만원 미만 19.8%, 5만원~10만원 미만 15.0%, 30만원 이상은 3.3%이었다.

〈표 V-2-2〉 초등학교에 매월 내는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천원)
전체	62.0	15.0	19.8	3.3	100.0(334)	58.2
출신국						
중국(조선족)	43.1	22.4	27.6	6.9	100.0(58)	83.7
중국(한족 등)	47.1	29.4	23.5	0.0	100.0(58)	65.9
베트남	62.7	9.8	21.6	5.9	100.0(58)	68.0
필리핀	71.2	10.6	18.2	0.0	100.0(58)	43.0
일본	74.6	15.5	9.9	0.0	100.0(58)	29.6
몽골	62.5	25.0	12.5	0.0	100.0(58)	34.8
태국	55.6	14.8	18.5	11.1	100.0(58)	90.5
캄보디아	57.1	0.0	42.9	0.0	100.0(58)	94.6
우즈베키스탄	66.7	11.1	22.2	0.0	100.0(58)	37.4
기타/무응답	58.3	0.0	33.3	8.3	100.0(58)	88.3
X ² (df)/F			na			3.2***
지역						
대도시	47.2	22.2	29.2	1.4	100.0(71)	67.0
중소도시	62.4	18.8	15.8	3.0	100.0(101)	58.4
읍·면지역	68.5	9.3	17.9	4.3	100.0(162)	53.9
X ² (df)/F			16.4(6)*			0.6

* p<.05,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모의 출신국별로 학교에 매월 내는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9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일본은 2만 9천원정도로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중소도시가 5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미만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60%대 이상인 반면, 대도시는 40% 대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5만원~10만원 미만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 의사소통 애로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애로로 가정통신문 해독과 준비물 준비로 알아보았다.

〈표 V-2-3〉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해독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점)
전체	7.3	29.7	32.4	21.6	9.1	100.0(593)	2.25
출신국							
중국(조선족)	3.4	11.5	29.9	47.1	8.0	100.0(87)	1.69
중국(한족 등)	3.9	23.5	29.4	25.5	17.6	100.0(51)	2.07
베트남	9.1	38.4	30.3	7.1	15.2	100.0(99)	2.58
필리핀	9.6	37.6	36.8	11.2	4.8	100.0(125)	2.48
일본	2.9	20.6	35.3	38.2	2.9	100.0(102)	1.88
몽골	4.5	22.7	36.4	27.3	9.1	100.0(22)	2.05
태국	9.8	49.0	31.4	3.9	5.9	100.0(51)	2.69
캄보디아	5.6	33.3	16.7	5.6	38.9	100.0(18)	2.64
우즈베키스탄	15.4	30.8	38.5	15.4	-	100.0(13)	2.46
기타/무응답	20.0	32.0	28.0	12.0	4.0	100.0(25)	2.65
$X^2(df)/F$			na				11.4**
지역							
대도시	6.6	33.9	32.2	17.4	9.9	100.0(121)	2.33
중소도시	9.1	27.3	30.9	23.6	9.1	100.0(165)	2.24
읍·면지역	6.5	29.3	33.2	22.1	8.8	100.0(307)	2.22
$X^2(df)/F$			na				0.6
거주기간							
4년 미만	14.5	36.2	15.9	5.8	27.5	100.0(69)	2.82
4년~ 8년 미만	8.4	29.0	32.8	9.2	20.6	100.0(131)	2.46
8년 이상	5.7	28.8	35.6	28.3	1.6	100.0(385)	2.12
$X^2(df)/F$			110.6(8)***				17.6***

주: ** p<.01, *** p<.001,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나타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 지에 대해 어려움이 없다는 54.0%, 어려움이 있다는 37.0%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체 5점 척도로는 2.25점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조선족이 1.69점으로 가장 낮았고,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2.69점, 2.64점, 2.58점 순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읍·면지역이 2.22점, 중소도시 2.24점, 대도시 2.33점 순이었다. 거주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이어도 학교 가정통신문 해독은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표 V-2-3 참조).

〈표 V-2-4〉 초등학교의 준비물 준비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점)
전체	4.6	20.4	37.6	24.8	12.6	100.0(593)	2.05
출신국							
중국(조선족)	2.3	12.6	29.9	44.8	10.3	100.0(87)	1.69
중국(한족 등)	2.0	21.6	25.5	27.5	23.5	100.0(51)	1.97
베트남	5.1	26.3	43.4	5.1	20.2	100.0(99)	2.39
필리핀	5.6	24.0	42.4	20.0	8.0	100.0(125)	2.17
일본	2.0	11.8	37.3	43.1	5.9	100.0(102)	1.71
몽골	-	27.3	40.9	27.3	4.5	100.0(22)	2.00
태국	9.8	27.5	39.2	15.7	7.8	100.0(51)	2.34
캄보디아	5.6	22.2	16.7	5.6	50.0	100.0(18)	2.56
우즈베키스탄	7.7	23.1	53.8	15.4	-	100.0(13)	2.23
기타/무응답	12.0	16.0	44.0	12.0	16.0	100.0(25)	2.33 ^{***}
X ² (df)/F			na				6.9 ^{***}
지역							
대도시	5.0	28.1	31.4	22.3	13.2	100.0(121)	2.18
중소도시	4.2	20.0	34.5	27.9	13.3	100.0(165)	2.01
읍·면지역	4.6	17.6	41.7	24.1	12.1	100.0(307)	2.03
X ² (df)/F			na				1.5
거주기간							
4년 미만	4.3	23.2	29.0	4.3	39.1	100.0(69)	2.45
4년~ 8년 미만	6.1	24.4	33.6	13.0	22.9	100.0(131)	2.31
8년 이상	3.9	19.0	41.3	31.9	3.9	100.0(385)	1.95
X ² (df)/F			107.7(8) ^{***}				12.8 ^{***}

주: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표 V-2-4>는 자녀의 학교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4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이 2.05점이었다. 학교 준비물 준비는 통신문 해독보다는 애로 정도가 약간 낮다.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62.4%인데 반해 있다는 응답은 25.0%로 없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 조선족이 1.69점으로 애로를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2.56점, 2.39점 순으로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태국과 베트남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10% 정도 많았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 학교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의 학교 준비물 준비가 수월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라. 초등학교 입학 준비

다음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4.5% 정도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해 10% 정도 참여 비율이 높았다(표 V-2-5 참조).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6.6%로 가장 많았다.

<표 V-2-5>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주관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있다'는 비율	주관 기관						(수)
		다문화가 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종교 기관	행정 기관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4.5	56.6	5.5	9.7	6.9	20.0	9.7	(157)
대도시	19.8	50.0	8.3	8.3	8.3	12.5	16.7	(25)
중소도시	18.2	53.3	6.7	6.7	6.7	23.3	10.0	(32)
읍·면지역	29.6	59.3	4.4	11.0	6.6	20.9	7.7	(100)

〈표 V-2-6〉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어/한글교육	기초교과목 지도	기본생활습관 형성	예체능 교육	컴퓨터 교육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수)
전체	66.3	31.4	27.5	8.8	10.1	0.5	2.4	3.9	(593)
대도시	67.8	33.9	19.8	12.4	11.6	-	3.3	1.2	(121)
중소도시	67.9	30.9	31.5	10.3	9.1	1.2	1.2	1.0	(165)
읍·면지역	64.8	30.6	28.3	6.5	10.1	0.3	2.6	1.7	(307)

다음 <표 V-2-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중 66.3%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 교육 8.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어교육 및 한글교육은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많았고, 기초교과목과 예체능, 컴퓨터 교육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았다.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중소도시가 많았다.

마. 전반적 만족도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전체 평균이 3.12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만족한다는 의견이 77.5%로 만족하지 않는다 10.1% 응답보다 많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도 12.5%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부모도 다수이다.

모의 출신국별로 5점 척도를 보면, 캄보디아가 3.50점으로 가장 높고, 일본이 2.87점, 몽골 3.00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본은 불만족 비율이 20.5%로 다른 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는데, 이는 일본 어머니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중국 한족, 베트남은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20~30% 대로 높았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대도시가 80% 이상인데 반해 불만족은 중소도시가 10.9%로 많았다.

〈표 V-2-7〉 초등학교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 응답	계(수)	평균 (점)
전체	2.0	8.1	54.8	22.6	12.5	100.0(593)	3.12
출신국							
중국(조선족)	1.1	10.3	50.6	27.6	10.3	100.0(87)	3.17
중국(한족 등)	-	7.8	45.1	19.6	27.5	100.0(51)	3.16
베트남	5.1	4.0	52.5	17.2	21.2	100.0(99)	3.04
필리핀	1.6	4.8	52.8	33.6	7.2	100.0(125)	3.28
일본	2.9	17.6	63.7	10.8	4.9	100.0(102)	2.87
몽골	4.5	9.1	54.5	18.2	13.6	100.0(22)	3.00
태국	-	3.9	66.7	23.5	5.9	100.0(51)	3.21
캄보디아	-	-	33.3	33.3	33.3	100.0(18)	3.50
우즈베키스탄	-	7.7	76.9	15.4	-	100.0(13)	3.08
기타/무응답	-	8.0	52.0	24.0	16.0	100.0(19)	3.19
X ² (df)/F			na				3.3**
지역							
대도시	1.7	8.3	65.3	14.9	9.9	100.0(121)	3.04
중소도시	3.0	7.9	52.1	21.8	15.2	100.0(165)	3.09
읍·면지역	1.6	8.1	52.1	26.1	12.1	100.0(307)	3.17
X ² (df)/F			na				1.7

주: ** p<.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3. 사교육 기관 이용

제3절은 자녀 중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사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가. 교육 프로그램

자녀가 사교육 기관에서 받고 있는 과목 수는 평균 1.41개로 조사되었다. 1과목과 2과목 모두 20%대를 나타내었지만, 3과목 이상도 10% 이상이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이었다.

사교육 과목수는 모의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1.73개, 1.49개로 1개 이상인데 반해 캄보디아는 1개 이하를 나타냈다.

사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경우는 캄보디아가 66.7%로 절반 이상이었다. 1 과목은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30% 정도로 많았고, 2과목은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많았으며, 3과목 이상은 조선족과 베트남이 많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중국 한족이 44.4%로 절반 가량 되었다.

〈표 V-3-1〉 사교육 기관에서 받는 과목 수

구분						단위: %(명), 개	
	없음	1과목	2과목	3과목이상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23.7	20.7	20.5	14.5	20.5	100.0(497)	1.41
출신국							
중국(조선족)	18.4	12.6	18.4	23.0	27.6	100.0(87)	1.73
중국(한족 등)	22.2	3.2	17.5	12.7	44.4	100.0(63)	1.49
베트남	25.6	30.8	14.1	19.2	10.3	100.0(78)	1.43
필리핀	24.7	21.2	23.5	14.1	16.5	100.0(85)	1.44
일본	20.5	28.8	28.8	5.5	16.4	100.0(73)	1.25
몽골	26.1	21.7	26.1	13.0	13.0	100.0(23)	1.45
태국	27.8	30.6	19.4	8.3	13.9	100.0(36)	1.16
캄보디아	66.7	20.0	13.3	-	-	100.0(15)	0.47
우즈베키스탄	35.7	21.4	28.6	14.3	-	100.0(14)	1.29
기타/무응답	4.3	21.7	17.4	21.7	34.8	100.0(23)	1.87
X ² (df)/F			na				1.9 [#]
지역							
대도시	19.2	11.1	26.3	16.2	27.3	100.0(99)	1.58
중소도시	26.1	26.1	15.3	15.9	16.6	100.0(157)	1.37
읍·면지역	24.1	21.2	21.6	12.9	20.3	100.0(241)	1.38
X ² (df)/F			na				0.4

주: # p<.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지역별로 사교육 과목 수 차이는 없었으나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다. 2과목과 3과목 이상은 대도시가 더 많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도 대도시가 많았다.

자녀가 사교육 기관에서 받고 있는 과목은 수학·과학, 영어, 음악, 체육이 20%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20% 미만으로 주요 교과목 위주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이었다.

모의 출신국별로 보면, 영어는 중국 조선족이 34.5%로 가장 많았고, 수학·과학은 몽골, 중국 조선족, 우즈베키스탄이 30% 이상으로 많았다. 예체능 과목 중 음악은 중국 조선족이, 체육은 일본, 미술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수학·과학, 영어보다 체육이 34.3%로 가장 높았고, 반면

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수학·과학이 각각 27.5%, 31.5%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도 대도시보다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더 높아 대도시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2〉 사교육 기관에서 받는 과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기타	(수)
전체	27.2	6.6	29.2	12.3	22.3	20.9	18.7	(497)
출신국								
중국(조선족)	34.5	6.9	36.8	14.9	31.0	18.4	18.4	(87)
중국(한족 등)	27.0	7.9	25.4	14.3	27.0	17.5	27.0	(63)
베트남	26.9	5.1	30.8	11.5	21.8	23.1	20.5	(78)
필리핀	28.2	9.4	29.4	15.3	20.0	21.2	14.1	(85)
일본	20.5	6.8	19.2	6.8	26.0	26.0	15.1	(73)
몽골	26.1	8.7	43.5	13.0	13.0	13.0	21.7	(23)
태국	22.2	2.8	33.3	11.1	13.9	16.7	16.7	(36)
캄보디아	20.0	13.3	13.3	-	-	-	-	(15)
우즈베키스탄	28.6	-	35.7	-	14.3	35.7	14.3	(14)
기타	30.4	-	21.7	21.7	17.4	27.6	27.6	(23)
지역								
대도시	28.3	7.1	26.3	11.1	19.2	34.3	20.2	(99)
중소도시	24.2	8.3	27.4	15.3	21.7	20.4	18.5	(157)
읍·면지역	28.6	5.4	31.5	10.8	24.1	15.8	18.3	(241)

나. 비용

자녀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12만 5천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10만원~30만원 미만이 43.9%로 가장 많았고, 5만원 미만은 25.1%, 5만원~10만원 미만은 19.1% 수준이었다. 30만원 이상은 11.9%이었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 조선족은 17만 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필리핀은 10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 10만원~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중국 조선족은 10만원~30만원이 57.5%, 중국 조선족은 30만원 이상이 30.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12만원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3-3〉 사교육 기관 월평균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천원)
전체	25.1	19.1	43.9	11.9	100.0(319)	125.8
출신국						
중국(조선족)	19.4	11.3	38.7	30.6	100.0(62)	178.0
중국(한족 등)	25.0	7.5	57.5	10.0	100.0(40)	139.9
베트남	19.1	29.8	38.3	12.8	100.0(47)	126.9
필리핀	33.3	25.9	40.7	-	100.0(54)	84.6
일본	27.8	24.1	38.9	9.3	100.0(54)	102.9
몽골	27.3	18.2	45.5	9.1	100.0(11)	129.7
태국	26.1	21.7	47.8	4.3	100.0(23)	120.7
캄보디아	33.3	-	66.7	-	100.0(3)	100.0
우즈베키스탄	30.0	20.0	40.0	10.0	100.0(10)	109.0
기타/무응답	20.0	6.7	66.7	6.7	100.0(15)	121.7
X ² (df)/F			na			3.2***
지역						
대도시	18.2	22.7	48.5	10.6	100.0(66)	125.2
중소도시	27.6	16.3	45.9	10.2	100.0(98)	126.9
읍·면지역	26.5	19.4	40.6	13.5	100.0(155)	125.4
X ² (df)/F			3.9(6)			0.1

주: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다. 만족도

<표 V-3-4>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만족도는 평균 3.0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 만족하지 않는다는 9%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모의 출신국별로는 몽골이 평균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3.18점, 중국 한족 3.14점 순이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과 일본이 70% 이상이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태국과 필리핀이 10% 이상이었다. 캄보디아가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많았다. 즉,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지만 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지도교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3-4〉 사교육 기관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1.6	7.4	52.5	15.7	22.7	100.0(497)	3.07
출신국							
중국(조선족)	3.4	4.6	58.6	16.1	17.2	100.0(87)	3.06
중국(한족 등)	-	4.8	60.3	15.9	19.0	100.0(63)	3.14
베트남	5.1	7.7	48.7	16.7	21.8	100.0(78)	2.98
필리핀	-	10.6	37.6	23.5	28.2	100.0(85)	3.18
일본	1.4	8.2	58.9	12.3	19.2	100.0(73)	3.02
몽골	-	-	47.8	17.4	34.8	100.0(23)	3.27
태국	-	13.9	50.0	11.1	25.0	100.0(36)	2.96
캄보디아	-	6.7	33.3	6.7	53.3	100.0(15)	3.00
우즈베키스탄	-	-	57.1	7.1	35.7	100.0(14)	3.11
기타/무응답	-	13.0	73.9	8.7	4.3	100.0(23)	3.00
X ² (df)/F			na				0.8
지역							
대도시	1.0	6.1	68.7	9.1	15.2	100.0(99)	3.01
중소도시	1.9	8.9	46.5	18.5	24.2	100.0(157)	3.08
읍·면지역	1.7	7.1	49.8	16.6	24.9	100.0(241)	3.08
X ² (df)/F			na				0.4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4. 정책 시사점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보육료·교육비를 전액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가 가장 많고, 아이 적응이 걱정 되어서, 추가 비용 부담, 아이가 따돌림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등의 이유들이 있지만, 보육료 및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줄 몰라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2%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9~10%보다 읍·면지역이 14.3%로 더 많았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추가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 대상이다.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로 4.4%가 추가 비용 부담을 지적하였다. 자녀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 수를 조사한 결과, 평

균 1.17로 보통 1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혀 안 하는 경우도 37.0%이었다.

셋째,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기관용 언어와 정서발달 등 특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고, 특별프로그램이 있어도 한글교육 약 20%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특별지도나 이중 언어, 멘토가 5% 이하이었다. 영유아의 언어능력의 부족은 정서적인 문제, 자신감 결여와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과 연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의 언어프로그램과 이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언어교육이나 학습지도 외에도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긍정적인 역할모델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방과 후 특별지도가 41.7%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교육, 독서지도, 멘토프로그램, 이중 언어교육 등이었다. 없다는 응답은 24.5% 정도이었다.

다섯째, 기관이나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자녀가 기관 이용 시 준비물 준비나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 해독이 어렵다는 비율은 26~37% 정도이고, 교사나 원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5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영유아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그 정도는 낮지만 가정통신문 해독과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25~30% 정도 되었다. 특히,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모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다. 다문화가족 부모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자녀나 교사와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센터가 통번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원하는 언어도 센터마다 다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관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관이나 학교를 지원 서비스를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을 해독하거나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75.8%로 가장 많았다. 시택식구와 다문화관련기관이 10% 정도이고, 결혼이민자 이웃이나 한국인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다문화 관련 기관의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이었고, 참여한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여덟째,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 전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66.3%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 교육 8.8%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상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독해, 쓰기, 작문능력 등의 학업성취가 낮고, 때때로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소극적이며, 폭력 또는 과잉행동과 같은 정서장애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능력 부족 또는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VI.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요구

제5장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이용 요구 측면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부모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부모지원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서비스 인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이용 요구 측면을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출신국과 지역별 교차분석으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지원 사업으로 임신·출산지원, 출산 도우미, 아이 돌봄 지원, 육아정보 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그램, 부모자녀 나들이, 방문 부모교육, 방문 한국어교육 등 12가지 사업에 대하여 인지, 이용 수혜 여부, 만족도 및 향후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사업 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12가지 부모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 두 가지 방문교육 사업이 62%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대부분의 사업 인지도는 30%대이며, 육아정보나눔터와 멘토 프로그램은 각각 24.3%, 19.8%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¹⁹⁾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센터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잘 모를 수 있음.

출신국별로는 전반적으로 일본 출신국 어머니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지원 사업 인지율이 높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방문 부모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으로, 최근에 결혼이민자가 증가한 캄보디아와 입국 역사가 긴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 조선족과 태국이 인지도가 50%대로 평균에 못 미친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항목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도시에서 각 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거주기간별로는 일부 부모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거주기간과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멘토 프로그램과 나들이 프로그램의 인지율이 차이를 보이며, 이외에 아이 돌봄 지원, 상담, 부모교육 사업도 거주기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VI-1-1〉 부모지원사업 인지율

단위: %(명)

구분	입신 출산 지원	출산 도우 미	아이 돌봄 지원	육아 정보 나눔 터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 그램	부모 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 교육	한국 어 방문 교육	기타	(수)
전체	37.3	33.1	33.6	24.3	36.4	33.7	36.5	19.8	40.5	63.1	62.8	5.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40.1	40.1	37.1	26.7	33.7	33.2	34.2	21.8	42.6	56.9	53.0	7.9	(202)
중국(한족 등)	37.1	33.9	32.6	24.6	35.7	29.5	31.3	17.9	37.5	64.3	62.5	4.5	(224)
베트남	33.6	31.8	29.8	20.7	32.2	34.2	34.2	13.7	36.2	60.8	63.6	6.4	(497)
필리핀	39.4	31.2	32.3	31.2	41.2	33.3	41.6	26.2	40.9	62.0	61.6	3.9	(279)
일본	45.6	32.2	47.8	26.7	47.8	44.4	43.9	30.6	61.1	72.2	70.6	6.7	(180)
몽골	35.6	34.4	35.6	22.2	35.6	30.0	24.4	22.2	34.4	65.6	62.2	3.3	(90)
태국	29.9	24.7	21.6	16.5	28.9	26.8	30.9	16.5	37.1	55.7	51.5	3.1	(97)
캄보디아	44.0	40.4	39.8	29.5	38.6	35.5	44.0	15.1	37.3	69.9	72.3	7.8	(166)
우즈베키스탄	24.4	24.4	24.4	12.2	39.0	31.7	46.3	26.8	36.6	68.3	58.5	12.2	(41)
기타/무응답	28.0	24.0	24.0	12.0	30.0	28.0	38.0	18.0	44.0	62.0	68.0	-	(50)
지역													
대도시	40.7	36.4	33.9	24.7	39.6	34.8	37.3	24.5	42.7	69.4	68.8	6.1	(445)
중소도시	38.4	31.9	31.5	25.4	37.2	31.7	34.2	21.0	41.8	64.9	63.2	8.4	(476)
읍·면지역	35.0	32.0	34.5	23.4	34.4	34.1	37.3	16.8	38.8	59.0	59.6	4.2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9.7	36.2	30.9	23.8	34.2	30.3	34.9	13.5	35.1	65.6	68.4	4.1	(564)
4년~8년 미만	38.1	32.6	34.0	25.5	35.9	34.7	36.4	19.4	39.7	62.6	64.3	6.3	(733)
8년 이상	34.1	31.2	36.8	23.2	40.0	36.5	39.0	27.3	48.1	62.0	55.2	6.8	(513)

2)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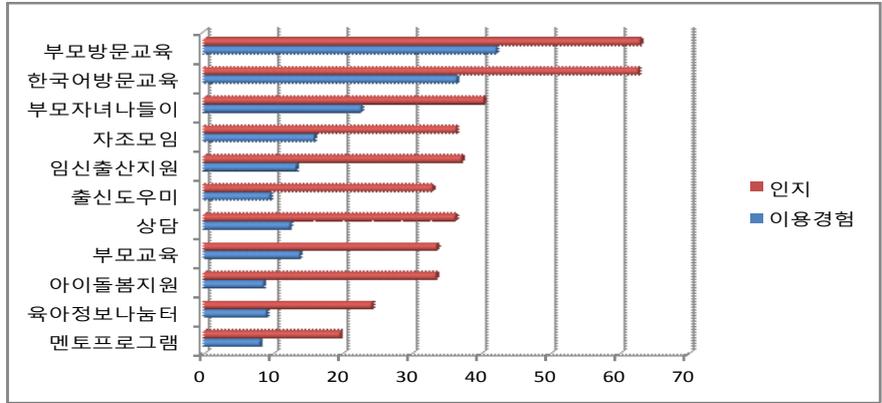
각 부모지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가 부모 방문교육으로 42.3%이며, 다음이 한국어 방문교육 36.6%, 부모-자녀 나들이 등 참여활동이 22.8%, 자조 모임, 임신·출산 지원, 상담이 10%대이고,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멘토프로그램 등이 8~9% 수준이다.

<표 VI-1-2> 부모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기타	(수)
전체	13.4	9.6	8.7	9.1	12.5	13.9	16.0	8.2	22.8	42.3	36.6	2.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9	9.4	8.4	5.4	9.9	10.4	12.9	8.9	25.7	29.7	17.8	2.5	(202)
중국(한족 등)	14.3	8.9	8.0	11.6	15.2	13.4	16.5	7.6	20.5	44.6	33.9	2.2	(224)
베트남	15.3	10.3	7.2	8.2	12.1	13.5	14.1	5.8	18.1	43.9	41.4	3.4	(497)
필리핀	16.5	11.1	12.2	14.3	15.1	16.5	19.0	11.8	25.4	41.9	39.4	1.8	(279)
일본	10.0	6.7	10.0	7.2	10.0	15.0	15.6	10.6	37.2	40.0	26.7	3.9	(180)
몽골	8.9	8.9	10.0	10.0	16.7	16.7	11.1	8.9	14.4	44.4	42.2	2.2	(90)
태국	7.2	6.2	5.2	5.2	9.3	12.4	15.5	8.2	22.7	41.2	33.0	1.0	(97)
캄보디아	15.7	13.3	9.6	10.8	13.3	13.3	24.1	4.2	18.7	47.6	51.8	3.0	(166)
우즈베키스탄	12.2	4.9	4.9	2.4	12.2	14.6	17.1	12.2	24.4	61.0	36.6	9.8	(41)
기타	16.0	10.0	6.0	6.0	6.0	14.0	14.0	10.0	30.0	42.0	44.0	-	(50)
지역													
대도시	12.8	9.2	6.1	8.1	12.4	13.5	14.4	9.9	22.5	47.4	38.9	2.2	(445)
중소도시	12.6	8.2	7.1	9.9	10.9	12.6	14.9	8.6	21.8	42.2	33.8	4.4	(476)
읍·면지역	14.0	10.6	10.7	9.3	13.4	14.7	17.5	7.1	23.5	39.8	37.0	2.2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8.1	12.6	9.6	11.3	13.1	12.2	14.9	4.8	15.8	46.1	47.7	1.2	(564)
4년~ 8년 미만	13.6	10.0	8.3	9.7	12.7	15.3	16.9	8.0	23.5	43.2	37.8	3.3	(733)
8년 이상	8.0	6.2	8.4	6.0	11.7	13.8	16.2	12.1	30.0	37.4	23.2	3.9	(513)

다음 <표 VI-1-3>는 각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다. 이 역시 가장 비율이 높은 서비스가 부모 방문교육으로 67.0%이며, 다음이 한국어 방문교육과 부모 나들이로 56~58% 수준이고,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그램, 부모교육이 40%대이다. 인지가 중 이용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아이 돌봄 지원으로 25.8%이다.



[그림 VI-1-1] 다운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지원 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표 VI-1-3> 부모지원사업 인지자 중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기타	(수)
전체	35.8	29.1	25.8	37.7	34.3	41.1	43.9	41.3	56.4	67.0	58.4	48.6	(681)
출신국													
중국(조선족)	22.2	23.5	22.7	20.4	29.4	31.3	37.7	40.9	60.5	52.2	33.6	31.3	(81)
중국(한족 등)	38.6	26.3	24.7	47.3	42.5	45.5	52.9	42.5	54.8	69.4	54.3	50.0	(83)
베트남	45.5	32.3	24.3	39.8	37.5	39.4	41.2	42.6	50.0	72.2	65.2	53.1	(167)
필리핀	41.8	35.6	37.8	46.0	36.5	49.5	45.7	45.2	62.3	67.6	64.0	45.5	(110)
일본	22.0	20.7	20.9	27.1	20.9	33.8	35.4	34.5	60.9	55.4	37.8	58.3	(82)
몽골	25.0	25.8	28.1	45.0	46.9	55.6	45.5	40.0	41.9	67.8	67.9	66.7	(32)
태국	24.1	25.0	23.8	31.3	32.1	46.2	50.0	50.0	61.1	74.1	64.0	33.3	(29)
캄보디아	35.6	32.8	24.2	36.7	34.4	37.3	54.8	28.0	50.0	68.1	71.7	38.5	(73)
우즈베키스탄	50.0	20.0	20.0	20.0	31.3	46.2	36.8	45.5	66.7	89.3	62.5	80.0	(10)
기타	57.1	47.1	21.0	50.0	20.0	50.0	36.8	55.6	68.2	63.2	64.7	-	(14)
지역													
대도시	31.5	25.3	17.9	32.7	31.3	38.7	38.6	40.4	52.6	68.3	56.5	37.0	(181)
중소도시	32.8	25.7	22.7	38.8	29.4	39.7	43.6	41.0	52.3	65.0	53.5	52.5	(183)
읍·면지역	40.1	33.1	31.1	39.6	38.9	43.0	46.7	42.1	60.7	67.4	62.2	52.6	(317)
거주기간													
4년 미만	45.5	34.8	31.0	47.8	38.3	40.4	42.6	35.5	44.9	70.3	69.7	30.4	(224)
4년~ 8년 미만	35.8	30.5	24.5	38.0	35.4	44.1	46.4	41.5	59.1	69.1	58.8	52.2	(279)
8년 이상	23.4	20.0	22.8	26.1	29.3	38.0	41.5	44.3	62.3	60.4	42.0	57.1	(175)

3) 미이용 사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표 VI-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몰라서가 54.5%이고, 28.2%는 시간이 없어서, 10.0%는 너무 멀어서, 7.2%는 교통편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일부가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의 반대와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고, 시간적 여유와 접근성의 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표 VI-1-4> 부모지원사업 인지자 중 서비스 미이용 사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잘 몰라서	도움이 안됨	시간 없음	프로그램	교통 불편	가족 반대	멀어서	기타	(수)
전체	54.5	1.7	28.2	1.3	7.0	2.1	10.0	10.4	(747)
출신국									
중국(조선족)	51.6	4.3	34.4	2.2	4.3	1.1	5.4	11.8	(93)
중국(한족 등)	58.4	1.1	25.8	3.4	11.2	1.1	13.5	11.2	(89)
베트남	54.5	1.4	30.0	0.9	10.0	1.8	10.9	5.0	(220)
필리핀	52.3	0.9	28.0	-	2.8	3.7	8.4	16.8	(107)
일본	54.4	2.9	35.3	-	8.8	1.5	8.8	16.2	(68)
몽골	46.2	-	28.2	5.1	-	5.1	12.8	12.8	(39)
태국	54.1	-	32.4	2.7	10.8	2.7	8.1	5.4	(37)
캄보디아	54.1	3.3	16.4	-	1.6	3.3	13.1	9.8	(61)
우즈베키스탄	72.7	-	9.1	-	9.1	-	9.1	9.1	(11)
기타/무응답	83.6	-	13.6	-	9.1	-	13.6	18.2	(22)
지역									
대도시	68.2	1.1	29.6	0.6	3.9	1.7	5.6	6.1	(179)
중소도시	55.1	2.7	25.9	1.1	4.3	3.2	6.5	13.0	(185)
읍·면지역	47.8	1.6	28.7	1.8	9.7	1.8	13.8	11.2	(383)
거주기간									
4년 미만	61.3	0.9	17.4	1.3	7.0	0.4	13.0	10.4	(230)
4년~8년 미만	54.0	1.3	29.9	1.3	7.7	3.4	9.4	9.7	(298)
8년 이상	46.7	3.3	38.2	1.4	6.1	1.9	8.0	11.8	(212)

출신국별로 차이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잘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중국 조선족, 일본, 태국 출신이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다. 지역 차이는 정보 부족 측면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높아서 농어촌보다 도시에

서 다문화가족이 정보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며, 읍·면지역에서는 멀거나 교통편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도시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잘 몰라서, 멀어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도움이 안 됨, 시간 없음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4) 이용 중단과 이유

조사 대상 다문화가족 어머니 중에서 17%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가 15~1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중단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차이는 크지 않다.

〈표 VI-1-5〉 부모지원사업 이용 중단 경험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비해당	계(수)
전체	16.9	62.9	20.2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6.8	55.4	27.7	100.0(202)
중국(한족 등)	20.1	61.6	18.3	100.0(224)
베트남	12.3	67.2	20.5	100.0(497)
필리핀	17.6	62.7	19.7	100.0(279)
일본	21.1	62.2	16.7	100.0(180)
몽골	22.2	61.1	16.7	100.0(90)
태국	14.4	60.8	24.7	100.0(97)
캄보디아	15.7	67.5	16.9	100.0(166)
우즈베키스탄	26.8	48.8	24.4	100.0(41)
기타/무응답	20.0	64.0	26.0	100.0(50)
지역				
대도시	18.0	62.2	19.8	100.0(445)
중소도시	15.8	63.4	20.8	100.0(476)
읍·면지역	16.9	63.0	20.1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7.4	81.8	0.9	100.0(466)
4년~8년 미만	21.7	77.9	0.3	100.0(594)
8년 이상	24.3	74.4	1.3	100.0(399)

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이유로는 일이 바빠서와 시간이 안 맞아서가 각각 24% 수준으로 유사하고 다음이 취업이 19.5%이고, 멀어서가 13.6%이고, 프로그램이 별로여서 3.2%, 담당자 불친절 4.2%, 시간이 자

주 바뀌어서 1.3%로 전체 중 8.7%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으로 유추된다. 소수 2.3%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출신국별로는 필리핀과 태국 출신이 떨어져 이용을 중단하였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태국과 중국 한족 결혼이민자는 담당자의 불친절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떨어져라는 응답이 71.9%로 도시의 3배 이상으로 비율이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가정의 이어나 교육시간이 안 맞아서 등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지원 사업을 이용하다가 중단한 비율이 높았다.

〈표 VI-1-6〉 부모지원사업 이용 중단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시설 환경	교육 시간	너무 떨어져	프로 그램	담당 자불 친절	교육 시간 추경	가정 의 이사	남편 또는 시부 모 반대	취업 으로	일이 바빠 서	기타	(수)
전체	1.4	24.7	14.4	3.4	4.5	1.4	4.8	2.4	19.9	25.0	24.0	(300)
출신국												
중국(조선족)	-	4.2	9.5	20.0	-	-	28.6	-	13.8	11.0	11.4	(34)
중국(한족등)	25.0	16.7	14.3	10.0	30.8	75.0	14.3	14.3	13.8	9.6	18.6	(44)
베트남	-	19.4	19.0	30.0	23.1	-	7.1	28.6	19.0	21.9	22.9	(58)
필리핀	-	19.4	26.2	10.0	23.1	-	14.3	14.3	22.4	16.4	12.9	(49)
일본	25.0	23.6	4.8	-	-	-	14.3	14.3	6.9	13.7	14.3	(37)
몽골	50.0	2.8	4.8	10.0	7.7	-	14.3	-	8.6	9.6	5.7	(20)
태국	-	4.2	9.5	-	15.4	25.0	-	-	3.4	4.1	2.9	(14)
캄보디아	-	5.6	9.5	20.0	-	-	7.1	14.3	8.6	13.7	5.7	(25)
우즈베키스탄	-	4.2	2.4	-	-	-	-	14.3	3.4	-	5.7	(11)
지역												
대도시	-	27.0	16.7	50.0	23.1	50.0	26.7	14.3	25.0	20.0	40.3	(78)
중소도시	40.0	27.0	11.9	20.0	38.5	50.0	26.7	28.6	25.0	21.3	22.2	(74)
읍·면지역	60.0	45.9	71.4	30.0	38.5	-	46.7	57.1	50.0	58.7	37.5	(149)
거주기간												
4년 미만	40.0	10.8	31.0	40.0	16.7	-	33.3	14.3	21.7	17.3	38.9	(79)
4년~8년 미만	20.0	44.6	40.5	40.0	41.7	50.0	26.7	57.1	50.0	44.0	41.7	(124)
8년 이상	40.0	44.6	28.6	20.0	41.7	50.0	40.0	28.6	28.3	38.7	19.4	(9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중단 이유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및 취업은 당사자의 개별적 이유라고 하겠으나 떨어져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의 개선요를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고, 소수이지만 가족의 반대도 정책적 노력을 요하는 이유라 하겠다.

5) 도움되는 정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지원사업 이용자의 이용 시 도움된다는 비율이 최소 3/4에서 최대 90%에 달한다. 최저는 아이 돌봄 지원이고, 최고는 한국어 방문교육으로 각각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50.3%, 71.4%이다. 5점 척도로 각각 4.12점, 4.59점이다. 한국어 방문교육 이외에 부모방문교육 만족도는 4.53점이고 매우 도움된다는 비율이 68.1%로 높다. 부모-자녀 나들이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59.4%이고 5점 척도로는 4.43점이다(표 VI-1-7 참조).

〈표 VI-1-7〉 부모지원사업이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임신·출산지원	0.4	2.7	20.4	22.1	54.4	100.0(226)	4.27
출산 도우미	1.9	3.1	17.9	20.4	56.8	100.0(162)	4.27
아이 돌봄 지원	4.8	2.0	19.7	23.1	50.3	100.0(147)	4.12
육아정보 나눔터	1.4	3.4	17.1	28.1	50.0	100.0(146)	4.22
상담	1.0	1.4	22.4	25.7	49.0	100.0(210)	4.21
부모교육	0.9	2.7	15.5	31.0	50.0	100.0(226)	4.27
가족자조모임	1.8	2.9	17.2	34.1	44.0	100.0(273)	4.15
멘토 프로그램	0.7	4.3	15.9	24.6	54.3	100.0(138)	4.28
부모자녀 나들이	1.3	0.8	11.1	27.3	59.4	100.0(377)	4.43
부모 방문교육	1.2	1.0	9.1	20.6	68.1	100.0(727)	4.53
한국어 방문교육	1.1	1.0	6.9	19.6	71.4	100.0(611)	4.59
기타	5.1	-	10.3	7.7	76.9	100.0(39)	4.51

부모 서비스 이용자의 도움된다는 비율의 출신국별 차이는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나들이이다. 부모교육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출신이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자녀 나들이는 몽골 출신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국 조선족이나 태국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 거주기간 차이는 거의 없다(표 VI-1-8참조).

이러한 부모 대상 서비스 중에서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되는 서비스를 3순위 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이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 각각 20% 이상이고, 다음이 부모-자녀 나들이 5.7%이며 그 외에는 3% 정도나 그 이하이다. 2순위와 3순위를 합한 종합 비율은 비율 자체는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표 VI-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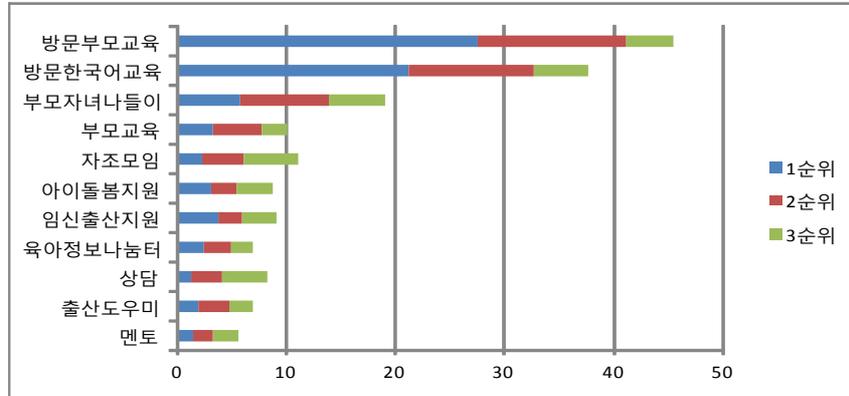
〈표 VI-1-8〉 부모지원사업이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움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기타
전체	4.27	4.27	4.12	4.22	4.21	4.27	4.15	4.28	4.43	4.53	4.59	4.51
출신국												
중국(조선족)	4.06	4.21	4.06	4.10	4.11	4.22	3.88	4.31	4.66	4.65	4.48	5.00
중국(한족등)	4.32	4.53	4.33	4.64	4.33	4.50	4.50	4.00	4.62	4.57	4.77	4.25
베트남	4.21	4.13	4.00	3.95	4.23	4.20	4.13	4.08	4.22	4.57	4.58	4.85
필리핀	4.18	4.10	4.12	4.11	4.21	4.41	4.12	4.41	4.21	4.50	4.51	3.75
일본	4.59	4.56	4.24	4.30	4.44	4.30	4.07	4.33	4.54	4.54	4.51	4.43
몽골	4.43	4.14	4.13	4.38	4.14	3.86	4.00	4.43	4.91	4.53	4.65	-
태국	4.57	5.00	4.20	4.80	4.00	4.55	4.36	4.29	4.65	4.71	4.62	5.00
캄보디아	4.25	4.15	3.77	4.27	4.00	3.68	4.03	4.17	4.15	4.21	4.58	4.00
우즈베키스탄	4.50	5.00	5.00	5.00	4.20	5.00	4.57	4.60	4.25	4.57	4.75	4.50
기타	4.27	4.27	4.12	4.22	4.23	4.27	4.15	4.38	4.43	4.53	4.59	4.51
F	0.6	1.1	0.4	1.2	0.4	2.2*	1.2	0.4	3.0*	1.8#	0.8	0.8
지역												
대도시	4.37	4.47	4.00	4.14	3.00	4.18	3.95	4.21	4.39	4.51	4.59	5.00
중소도시	4.32	4.29	4.03	4.27	4.04	4.38	4.20	4.38	4.49	4.56	4.53	4.67
읍·면지역	4.21	4.18	4.19	4.22	4.21	4.25	4.22	4.25	4.41	4.53	4.62	4.07
F	0.6	1.1	0.4	0.1	1.6	0.7	1.9	0.4	0.5	0.3	0.6	2.3
거주기간												
4년 미만	4.39	4.41	4.29	4.33	4.37	4.17	4.34	4.19	4.43	4.52	4.64	4.50
4년~8년 미만	4.19	4.25	3.98	4.25	4.07	4.33	4.06	4.38	4.47	4.54	4.59	4.27
8년 이상	4.15	4.00	4.10	3.96	4.21	4.24	4.10	4.22	4.38	4.54	4.48	4.72
F	1.5	1.9	1.1	1.4	2.0	0.7	2.2	0.6	0.5	0.1	1.7	0.8
(수)	(226)	(162)	(147)	(146)	(210)	(226)	(273)	(138)	(377)	(727)	(611)	(39)

p<.1, * p<.05

〈표 VI-1-9〉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지원사업: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움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들이	방문부모교육	방문한국어교육	기타	(수)
1순위	3.8	1.9	3.1	2.5	1.3	3.3	2.3	1.5	5.7	27.5	21.2	26.0	(1,826)
2순위	6.0	4.8	5.5	4.9	4.1	7.7	6.1	3.3	13.9	41.1	32.6	26.8	(1,826)
3순위	9.1	6.9	8.7	7.0	8.2	10.1	11.0	5.6	19.1	45.5	37.6	28.1	(1,826)



[그림 VI-1-2]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부모지원사업

<표 VI-1-10>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 부모지원사업: 1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방문부모교육	방문한국어교육	기타	(수)
전체	3.8	1.9	3.1	2.5	1.3	3.3	2.3	1.5	5.7	27.5	21.2	26.0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0	2.0	4.5	2.5	1.5	1.5	1.5	0.5	13.9	26.7	12.9	27.7	100.0(202)
중국한족등	2.2	2.2	4.0	1.3	-	3.1	2.7	0.9	3.1	32.6	21.4	26.3	100.0(224)
베트남	5.4	1.0	3.0	4.0	1.2	5.0	2.8	0.2	2.8	26.8	23.3	24.1	100.0(497)
필리핀	5.4	2.5	3.9	2.9	1.8	2.2	3.2	3.9	5.0	24.7	22.2	22.2	100.0(279)
일본	1.1	1.1	3.3	1.1	1.7	1.7	2.2	3.3	14.4	25.0	13.9	31.1	100.0(180)
몽골	1.1	2.2	1.1	3.3	2.2	3.3	1.1	1.1	3.3	24.4	17.8	38.9	100.0(90)
태국	2.1	3.1	1.0	1.0	3.1	4.1	1.0	2.1	6.2	19.6	24.7	31.9	100.0(97)
캄보디아	3.0	3.0	2.4	2.4	-	4.2	1.2	0.6	3.0	30.7	31.9	17.5	100.0(166)
우즈벡	-	-	-	-	-	2.4	-	4.9	-	34.1	29.3	29.2	100.0(41)
기타	4.1	2.0	2.0	0.0	2.0	2.0	4.1	0.0	2.0	46.9	10.2	26.5	100.0(49)
지역													
대도시	3.1	2.2	2.9	1.3	1.3	4.5	1.3	1.6	3.6	27.6	23.1	27.1	100.0(445)
중소도시	4.0	1.7	1.9	3.4	0.4	3.4	1.9	2.5	6.9	33.8	16.8	23.3	100.0(476)
읍·면지역	4.0	1.8	3.9	2.7	1.7	2.7	3.0	0.9	6.1	24.2	22.5	26.7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5.1	3.5	2.7	2.7	0.9	3.5	1.2	0.5	2.1	28.7	26.2	22.7	100.0(564)
4년~8년 미만	3.3	1.4	3.7	3.1	1.2	4.0	2.9	1.0	4.5	28.1	21.8	25.1	100.0(733)
8년 이상	2.9	0.8	2.9	1.4	1.8	1.8	2.7	3.1	11.0	26.1	15.2	29.8	100.0(513)

주: 기타에 없음 0.6% 포함

<표 VI-1-10>는 1순위 응답에 대하여 출신국과 지역별로 제시한 표이다.²⁰⁾ 방문 한국어교육은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움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방문 부모교육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외 중국 기타 민족에서 도움되었다는 비율이 높으며, 부모-자녀 나들이 등 참여 활동은 일본과 중국 조선족에서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부모-자녀 나들이 등 참여 활동과 방문 부모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방문 한국어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자녀 가족나들이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부모 방문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6) 추후 이용 희망

<표 VI-1-11>는 각 서비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부모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이다. 다음으로는 부모교육이 20% 수준이며 아이돌봄 지원,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멘토 프로그램 등이 10%대이다.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방문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일본 출신이 부모 나들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임신출산 지원, 출산 도우미,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자녀 나들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VI-1-12>는 부모지원사업별 이용 및 인지 여부별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업 인지가 미인지자에 비하여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이 낮다. 이용 경험 여부도 임신·출산 지원과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용 경험자가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30% 이상이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20) 1, 2 순위, 1, 2, 3 순위 합 의 출신국·지역별 비율은 <부표 VI-1-1>에 수록하였음.

〈표 VI-1-11〉 부모지원사업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수)
전체	8.0	8.3	18.4	17.4	14.7	20.4	18.8	14.6	34.1	35.3	31.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6.4	5.0	16.8	13.4	10.9	16.8	17.3	15.3	37.1	31.7	18.8	(202)
중국(한족등)	6.7	6.3	15.6	18.8	15.6	23.7	21.0	13.4	34.8	36.2	34.4	(224)
베트남	7.4	9.3	16.9	18.1	12.7	18.1	16.1	11.3	30.8	36.4	35.4	(497)
필리핀	8.6	8.2	24.0	17.9	19.7	20.8	23.3	19.7	31.9	29.4	28.0	(279)
일본	12.8	10.0	18.9	18.9	14.4	21.1	16.7	16.7	45.6	33.9	31.7	(180)
몽골	6.7	5.6	15.6	17.8	11.1	20.0	17.8	11.1	35.6	35.6	28.9	(90)
태국	4.1	7.2	15.5	9.3	13.4	13.4	19.6	11.3	26.8	28.9	25.8	(97)
캄보디아	8.4	9.6	21.1	19.9	19.3	28.9	21.7	14.5	32.5	45.2	42.2	(166)
우즈베키스탄	9.8	9.8	24.4	14.6	17.1	22.0	19.5	19.5	29.3	41.5	29.3	(41)
기타	12.0	18.0	18.0	20.0	12.0	24.0	16.0	22.0	44.0	48.0	44.0	(50)
지역												
대도시	9.4	10.3	22.2	20.7	17.3	23.8	21.6	17.5	39.3	40.7	35.1	(445)
중소도시	6.9	7.4	19.5	18.3	12.6	21.0	18.9	15.8	34.5	35.7	28.8	(476)
읍·면지역	7.8	7.8	15.9	15.2	14.6	18.5	17.5	12.5	31.4	32.5	31.8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2.8	12.2	23.2	24.8	17.2	23.0	22.5	14.7	31.7	41.8	41.0	(564)
4년~8년 미만	7.4	8.3	18.8	17.3	15.0	21.3	17.7	12.8	35.9	35.1	32.6	(733)
8년 이상	3.3	3.9	12.5	9.6	11.9	16.4	15.8	17.2	34.7	28.7	20.9	(513)

주: 기타 3.5%는 생략함

〈표 VI-1-12〉 부모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전체	8.0	8.3	18.4	17.4	14.7	20.4	18.8	14.6	34.1	35.3	31.8
이용	9.2	10.3	32.0	23.0	25.1	28.3	28.9	32.6	57.3	39.0	28.2
인자·미이용	10.2	10.3	23.9	22.5	18.5	27.2	34.7	25.8	49.5	44.9	45.5
미인지	5.6	6.5	13.0	15.9	12.5	18.6	17.7	10.8	25.0	33.3	30.5
X ² (df=2)	11.4 **	8.3 *	59.0 ***	87 *	249 ***	14.7 ***	214 ***	770 ***	1453 ***	14.5 ***	16.0 ***

* p<.05, ** p<.01, *** p<.001

주: 각 사업별 이용 및 미이용자 수는 차이가 있어서 생략함.

이러한 요구는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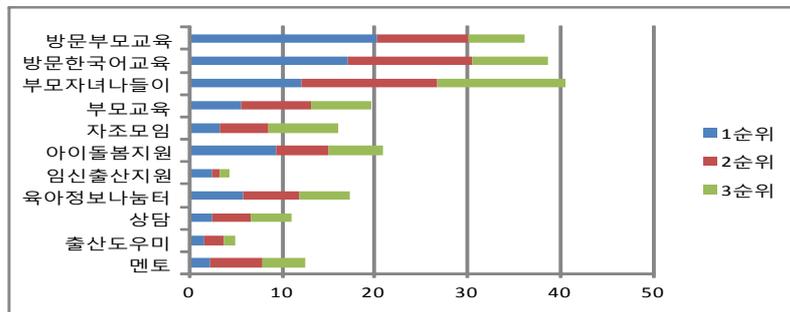
이는 3순위까지 조사하였는데, <표 VI-1-13>을 보면 가장 희망하는 1순위 서비스로는 한국어 방문교육으로 20.2%가 이를 선택하였고, 2위가 17.0%인 부모 방문교육이며, 3위가 부모-자녀 나들이로 12.0%이다. 다음으로 4위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9.4% 정도이다.

1, 2, 3순위를 모두 합하면 순위가 다소 달라져서 부모-자녀나들이 등 참여 활동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고 멘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한다(그림 VI-1-3 참조).²¹⁾

<표 VI-1-13>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3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우미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나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기타	계(수)
1순위	2.4	1.6	9.4	5.8	2.5	5.5	3.2	2.3	12.0	17.0	20.2	18.1	(1,826)
2순위	3.3	3.7	15.1	11.8	6.6	13.1	8.5	7.8	26.7	30.4	30.0	20.6	(1,826)
3순위	4.3	5.0	20.8	17.4	11.0	19.7	16.0	12.5	40.4	38.6	36.2	22.2	(1,826)



[그림 VI-1-3]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순위를 중심으로 출신국별로는 태국, 캄보디아, 출신이 방문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일본 출신이 부모 나들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부모 방문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자녀 나들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VI-1-14 참조).

21) 1, 2 순위와 1, 2, 3 순위 합인 출신국 및 지역별 분포는 <부표 VI-1-2>에 수록하였음.

〈표 VI-1-14〉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도우미	아이 돌봄 지원	육아 정보 나눔 터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자조 모임	멘토 프로그램	부모 자녀 나들이	부모 방문 교육	한국 어 방문 교육	기타	계 (수)
전체	2.4	1.6	9.4	5.8	2.5	5.5	3.2	2.3	12.0	17.0	20.2	18.1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5	1.5	11.9	6.4	2.5	4.0	4.0	1.5	19.8	15.3	12.9	18.8	100.0(202)
중국(한족등)	2.2	0.9	8.0	7.6	2.2	5.4	2.7	1.8	9.8	16.1	29.0	14.2	100.0(224)
베트남	2.6	1.8	9.9	7.2	1.8	6.8	2.2	2.0	8.5	20.1	19.5	17.5	100.0(497)
필리핀	3.9	1.4	10.8	3.2	4.7	3.9	5.7	3.2	10.4	16.8	18.6	17.2	100.0(279)
일본	3.9	0.6	7.2	3.9	1.7	2.8	2.2	3.9	22.8	14.4	13.9	22.8	100.0(180)
몽골	1.1	1.1	6.7	8.9	-	6.7	1.1	1.1	13.3	13.3	21.1	25.6	100.0(90)
태국	-	1.0	7.2	4.1	6.2	8.2	5.2	2.1	9.3	10.3	26.8	19.6	100.0(97)
캄보디아	1.8	3.0	9.6	6.0	1.8	4.8	3.0	0.6	10.2	18.7	24.1	16.3	100.0(166)
우즈베키스탄	-	-	14.6	-	2.4	7.3	2.4	4.9	17.1	14.6	17.1	19.5	100.0(41)
기타	-	8.0	6.0	2.0	2.0	10.0	4.0	6.0	2.0	22.0	22.0	16.0	100.0(39)
지역													
대도시	1.8	2.5	9.2	6.7	2.2	4.3	2.0	2.5	11.7	19.3	23.1	14.6	100.0(445)
중소도시	2.3	1.5	9.0	5.9	3.4	4.6	2.9	2.3	12.8	18.3	18.3	18.7	100.0(476)
읍·면지역	2.7	1.3	9.7	5.2	2.2	6.5	4.0	2.2	11.8	15.1	19.7	19.6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7	2.3	11.2	6.9	1.4	4.6	3.2	0.9	6.7	14.9	29.3	14.9	100.0(564)
4년~8년 미만	2.0	1.8	8.7	6.8	2.2	6.5	2.5	1.8	11.9	19.0	18.4	18.4	100.0(733)
8년 이상	1.2	0.8	8.4	3.1	4.3	4.7	4.3	4.7	18.5	16.6	13.1	20.5	100.0(513)

나. 기타 기관 부모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기관에서 경험한 다문화가족 부모지원 서비스로는 임신·출산 지원이 1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나들이 활동으로 15% 정도이다. 이외에 건강지도, 자녀생활학습 지도, 부모교육, 신생아 관리, 상담이 7~9% 수준이고, 아이돌보미가 4.5%로 상대적으로 낮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어머니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모지원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에서 임신·출산 지원 및 신생아 관리를 받아 보았다는 비율과 자녀생활 건강지도 수혜 비율이 도시에 비하여 약간 높고 그 이외는 차이가 거의 없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에서 임신·출산 지원 및 신생아 관리 수혜 비율과 자녀생활 건강지도 수혜 비율이 도시에 비하여 약간 높고 그 이외는 차이가 거의 없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교육이나 자녀생활 학습지도, 부모-자녀활동, 멘토 프로그램을 받아 보았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I-1-15 참조).

〈표 VI-1-15〉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수혜 비율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 관리	자녀생활 건강지도	부모교육	자녀생활 학습지도	상담	부모-자녀 활동	멘토 프로그램	아이 돌보미	기타	(수)
전체	18.2	7.6	9.0	8.4	8.5	7.3	15.0	6.5	4.5	3.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7.3	5.9	5.0	5.9	9.4	6.9	17.3	3.5	4.0	1.0	(202)
중국(기타)	19.2	7.6	7.6	8.5	8.0	4.9	16.1	8.9	3.6	5.4	(224)
베트남	16.1	7.6	8.7	7.4	6.8	6.6	11.3	4.0	4.8	4.2	(497)
필리핀	20.1	9.7	12.5	7.9	8.2	7.9	14.3	8.6	4.7	3.2	(279)
일본	16.7	7.8	12.8	16.7	16.1	15.6	25.6	13.3	6.7	2.8	(180)
몽골	23.3	6.7	8.9	3.3	6.7	2.2	11.1	7.8	6.7	5.6	(90)
태국	19.6	7.2	5.2	14.4	10.3	7.2	18.6	8.2	5.2	5.2	(97)
캄보디아	19.3	9.0	10.2	6.6	4.8	4.2	9.6	2.4	2.4	3.6	(166)
우즈베키스탄	19.5	4.9	9.8	7.3	7.3	12.2	17.1	7.3	-	9.8	(41)
기타	16.0	-	6.0	6.0	12.0	8.0	18.0	4.0	6.0	-	(50)
지역											
대도시	16.9	6.7	8.3	7.9	9.9	6.5	16.6	8.5	2.9	6.5	(445)
중소도 시	14.7	5.7	6.7	9.2	7.6	6.9	14.9	5.9	3.4	4.0	(476)
읍·면지역	20.7	9.0	10.6	8.3	8.4	7.8	14.1	5.9	6.0	2.3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9.0	9.4	7.6	6.4	3.9	5.3	7.4	3.4	3.5	3.0	(564)
4년~ 8년 미만	19.4	7.0	9.8	7.5	8.5	7.0	14.7	5.5	5.2	4.5	(733)
8년 이상	16.0	6.4	9.4	11.9	13.6	9.7	23.8	11.5	4.7	3.7	(513)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 관리, 자녀생활 건강지도는 행정기관이 많고, 부모-자녀 참여 활동은 사회복지관이 많다. 특히, 일본 출신 어머니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모지원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표 VI-1-16 참조).

〈표 VI-1-16〉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제공 기관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 관리	자녀 생활 건강 지도	부모 교육	자녀 생활 학습 지도	자녀 양육 및 문제 상담	부모-자녀 참여 활동	멘토 프로그램	아이 돌보미	기타
종교 기관	4.2	2.9	8.3	13.1	9.3	15.9	15.8	14.5	9.5	4.3
사회 복지관	10.2	13.8	13.6	15.6	14.3	14.5	22.7	17.7	20.2	20.3
행정 기관	45.0	30.4	32.5	13.8	23.6	16.7	19.2	16.1	16.7	21.7
기타	19.5	26.1	21.9	25.6	25.5	23.2	21.6	26.6	14.3	34.8
모름/무응답	21.0	26.8	23.7	31.9	27.3	29.7	20.6	25	39.3	18.8
계 (수)	100.0 (332)	100.0 (138)	100.0 (165)	100.0 (154)	100.0 (156)	100.0 (133)	100.0 (273)	100.0 (119)	100.0 (83)	100.0 (69)

〈표 VI-1-17〉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 제공 방법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 관리	자녀 생활 건강 지도	부모 교육	자녀 생활 학습 지도	자녀 양육 문제 상담	부모-자녀 참여 활동	멘토 프로그램	아이 돌보미	기타
가정방문	29.5	35.5	23.0	22.1	44.2	21.8	8.1	21.0	41.0	18.8
기관방문	45.5	42.0	52.7	52.6	28.8	48.1	57.5	50.4	16.9	72.5
둘 다	7.8	5.1	7.3	7.1	8.3	9.8	5.9	9.2	14.5	1.4
모름/무응답	17.2	17.4	17.0	18.2	18.6	20.3	28.6	19.3	27.7	7.2
계 (수)	100.0 (332)	100.0 (138)	100.0 (165)	100.0 (154)	100.0 (156)	100.0 (133)	100.0 (273)	100.0 (119)	100.0 (83)	100.0 (69)

〈표 VI-1-18〉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매우 도움	모름/무응답	계(수)	5점 평균
임신·출산 지원	1.5	3.0	16.6	23.5	46.7	8.7	100.0(332)	4.21
신생아 관리	1.4	0.7	18.1	23.2	42.8	13.8	100.0(138)	4.22
자녀 생활 및 건강 지도	1.2	1.8	19.4	23.6	43.6	10.3	100.0(165)	4.19
부모 교육	0.6	0.6	19.5	24.7	43.5	11.0	100.0(154)	4.23
자녀 생활 및 학습 지도	0.6	0.6	16.7	23.1	46.8	12.2	100.0(156)	4.31
자녀 상담	1.5	0.8	16.5	32.3	36.8	12.0	100.0(133)	4.16
부모-자녀 참여활동	1.5	1.1	12.8	26.4	51.3	7.0	100.0(273)	4.34
멘토 프로그램	2.5	2.5	24.4	26.9	34.5	9.2	100.0(119)	3.97
아이 돌보미	2.4	2.4	10.8	15.7	54.2	14.5	100.0(83)	4.37
기타	-	4.3	18.8	23.2	43.5	10.1	100.0(69)	4.18

기타 기관의 부모지원 사업은 대체로 기관 서비스와 방문 서비스가 병행되는 데 자녀생활 학습지도는 방문서비스가 많다(표 VI-1-17 참조).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은 높은 편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지원 서비스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서비스별로는 부모-자녀 참여 활동과 자녀생활 및 학습 지도가 가장 만족도가 높고, 멘토 프로그램이 5점 척도에서 4점 미만으로 가장 낮다(표 VI-1-18 참조).

<표 VI-1-19> 기타 기관 부모지원사업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신생아관리	자녀생활건강지도	부모교육	자녀생활학습지도	자녀상담	부모-자녀참여활동	멘토프로그램	아이돌보미	기타
전체	4.21	4.22	4.19	4.23	4.31	4.16	4.34	3.97	4.37	4.18
출신국										
중국(조선족)	4.10	4.33	3.75	4.27	4.35	4.00	4.65	3.86	4.00	5.00
중국(기타)	4.39	4.43	4.27	4.35	4.50	4.67	4.39	4.24	5.00	4.55
베트남	4.20	4.30	4.19	4.32	4.24	4.15	4.30	4.06	4.22	3.84
필리핀	4.08	3.74	4.09	3.53	4.05	3.76	4.03	3.70	3.73	4.22
일본	4.44	4.20	4.38	4.39	4.12	4.35	4.43	3.75	4.91	4.25
몽골	4.15	4.80	4.43	5.00	5.00	4.50	4.90	4.57	5.00	3.50
태국	4.39	4.67	4.00	4.17	4.13	4.50	4.06	4.00	5.00	4.00
캄보디아	4.27	4.27	4.40	4.33	4.71	4.17	4.36	4.50	2.67	5.00
우즈베키스탄	3.88	2.00	3.33	4.33	4.33	3.80	4.29	4.00	-	4.25
기타	4.00	-	4.33	4.00	4.80	4.25	4.00	3.50	4.33	-
F	0.7	2.3*	0.8	1.8#	1.3	1.2	1.9#	0.9	4.2***	1.5
지역										
대도시	4.16	4.29	4.26	4.27	4.21	4.30	4.42	3.89	4.00	4.19
중소도시	4.45	4.39	4.38	4.48	4.28	4.17	4.46	4.19	4.79	4.12
읍·면지역	4.14	4.13	4.10	4.07	4.38	4.10	4.22	3.91	4.33	4.21
F	2.6#	0.8	1.1	2.8#	0.5	0.5	2.0	0.8	2.1	0.1
거주기간										
4년 미만	4.20	4.26	4.18	4.33	4.35	4.19	4.29	3.94	4.05	4.14
4년~ 8년 미만	4.37	4.28	4.28	4.27	4.40	4.07	4.43	3.97	4.53	4.20
8년 이상	3.96	4.04	4.02	4.13	4.21	4.23	4.28	3.98	4.38	4.17
F	4.4*	0.7	0.9	0.6	0.8	0.4	0.9	0.01	1.3	0.01
(수)	(332)	(138)	(165)	(154)	(156)	(133)	(273)	(119)	(83)	(69)

p<.1, * p<.05, *** p<.001.

<표 VI-1-19>는 출신국가와 지역별로 각 사업 이용 경험자의 만족 정도를 나타낸다. 통계적으로 국가별 차이가 유의미한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국가별 만족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만족도가 2.0점부터 4.80점으로 편차가 크다. 특히, 부모교육 만족도, 부모자녀 참여 활동,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크다. 국가별로는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임신·출산 지원, 신생아 관리, 자녀생활 건강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필리핀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평균을 밑돈다. 지역별로는 임신·출산과 부모교육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4~8년인 다문화가정이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부모지원 사업은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없다.

2. 자녀발달 지원서비스

제2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인지, 이용, 이용자 만족도, 이용 요구를 기술하였다.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자녀 대상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방문교육, 자녀생활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무료 건강검진, 학습지도, 예체능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견학 및 체험 활동,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학습지의 12가지 사업에 대하여 인지, 이용 수혜 경험, 만족도 및 향후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사업 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대상의 12가지 사업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사업은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55.3%, 48.0%로 인지율이 높고, 다음이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인지율 39.9%이며, 이외에 이중언어교실, 무료 건강검진, 학습지도, 한국문화 이해 교육, 상담 및 치료, 무료 방문학습지가 20%대이며 멘토프로그램이 15% 수준이고 예체능교육이 8.7% 수준이다.

출신국별로는 전반적으로 일본 출신국 부인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지원사업 인지율이 높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자녀 방문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캄보디아와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 조선족과 태국이 인지도가 50%대로 평균에 못 미친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항목도 일부 있으나 자녀생활 방문교육은 읍·면이나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고, 한국어 방문교육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대체로 읍·면지역보다 도시에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표 VI-2-1〉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율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 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수)
전체	55.3	48.0	39.9	23.1	25.7	21.2	8.7	21.9	32.3	20.0	15.3	20.5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2.5	48.5	43.6	30.7	23.3	26.2	8.4	25.2	37.1	22.3	18.3	21.8	(202)
중국(한족등)	54.5	42.9	43.8	25.4	24.1	20.5	8.0	22.3	32.6	21.0	13.4	18.3	(224)
베트남	53.9	45.9	37.0	22.3	22.7	17.1	8.2	20.1	26.0	18.3	11.5	17.7	(497)
필리핀	52.3	48.4	36.6	16.8	33.7	24.0	10.8	27.2	34.1	18.6	19.4	21.5	(279)
일본	65.6	57.2	52.2	32.2	24.4	33.3	10.6	20.0	49.4	29.4	21.7	28.9	(180)
몽골	54.4	50.0	35.6	23.3	23.3	17.8	7.8	21.1	28.9	21.1	20.0	25.6	(90)
태국	59.8	41.2	33.0	19.6	26.8	22.7	10.3	22.7	30.9	18.6	16.5	20.6	(97)
캄보디아	57.8	52.4	39.2	18.7	24.1	15.1	6.6	19.3	31.9	15.1	8.4	17.5	(166)
우즈베키스탄	51.2	56.1	36.6	19.5	34.1	12.2	4.9	14.6	19.5	22.0	22.0	17.1	(41)
기타/무응답	50.0	44.0	38.0	14.0	38.0	16.0	6.0	16.0	24.0	12.0	12.0	22.0	(50)
지역													
대도시	57.8	45.6	42.7	27.6	26.7	20.9	9.0	23.4	33.9	23.4	18.7	17.5	(445)
중소도시	59.5	48.1	45.8	28.6	27.9	23.9	10.9	21.0	35.5	20.6	16.6	27.1	(476)
읍·면지역	51.9	49.2	35.5	17.9	24.0	19.9	7.3	21.7	29.8	18.0	12.9	18.5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56.6	43.6	34.4	18.4	24.8	16.5	7.3	22.0	25.0	17.0	10.5	15.4	(564)
4년~ 8년 미만	56.6	49.5	42.3	24.4	26.3	19.5	8.0	20.5	31.7	19.6	14.1	21.7	(733)
8년 이상	52.6	51.5	43.1	26.7	25.7	29.0	11.1	24.2	41.7	24.0	22.6	24.4	(513)

2) 이용과 미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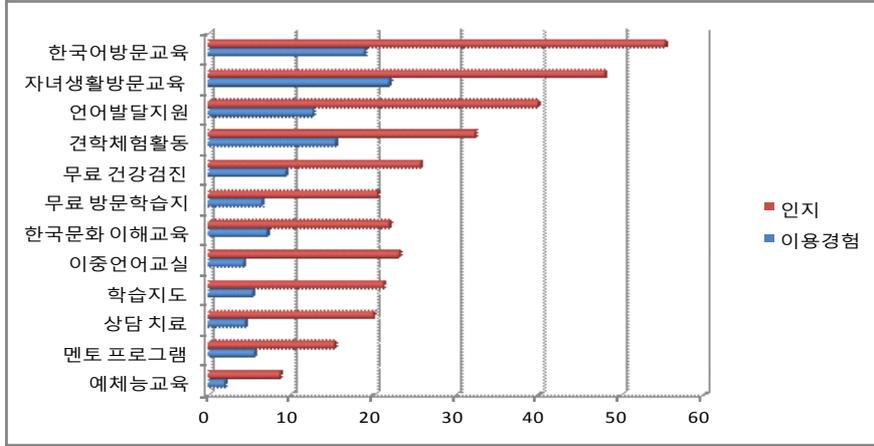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지원 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인지율이 높았던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18.9%, 21.9%로 높고, 다음이 견학 및 체험 활동과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각각 15.4%, 12.7%이고 이외는 무료 건강검진 9% 등으로 모두 10% 이하이다.

출신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필리핀, 몽골, 태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자녀 방문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 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수혜 비율이 높았고, 견학 및 체험 활동은 특히 일본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 무료 건강검진, 무료 방문학습지 등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높고, 방문 한국어교육이나 언어발달사업은 거주기간 4~8년 사이가 높다.

〈표 VI-2-2〉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 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기타 (수)
전체	18.9	21.9	12.7	4.3	9.4	5.4	2.0	7.1	15.4	4.5	5.6	6.5	0.6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4	20.8	12.4	6.4	3.5	5.4	2.0	7.9	20.3	5.4	8.9	6.4	- (202)
중국(한족 등)	20.1	19.2	17.0	6.7	7.6	4.5	1.8	7.6	17.9	4.5	5.8	6.3	1.3 (224)
베트남	17.1	19.9	10.3	3.4	8.7	4.6	2.0	7.0	9.9	4.2	3.2	5.0	0.6 (497)
필리핀	25.1	26.9	13.3	3.9	15.1	7.2	2.5	10.8	16.1	6.1	6.5	7.5	0.4 (279)
일본	18.3	25.0	16.7	7.8	9.4	10.6	4.4	5.6	28.9	5.0	10.0	11.7	1.1 (180)
몽골	23.3	20.0	17.8	3.3	11.1	3.3	1.1	8.9	16.7	5.6	4.4	8.9	- (90)
태국	28.9	20.6	9.3	-	14.4	4.1	2.1	5.2	18.6	5.2	7.2	7.2	1.0 (97)
캄보디아	18.1	21.1	8.4	2.4	7.2	2.4	0.6	3.0	7.8	1.8	2.4	2.4	- (166)
우즈베키스탄	17.1	31.7	12.2	4.9	4.9	2.4	-	2.4	4.9	2.4	9.8	-	- (41)
기타	20.0	20.0	12.0	-	16.0	8.0	-	4.0	12.0	-	2.0	10.0	2.0 (50)
지역													
대도시	18.2	20.2	11.7	4.0	7.6	2.9	0.7	6.5	15.7	3.4	6.5	2.9	0.7 (445)
중소도시	18.3	22.3	15.8	4.8	11.6	6.1	3.8	6.5	17.2	4.6	6.9	10.9	0.6 (476)
읍·면지역	19.7	22.5	11.5	4.2	9.1	6.3	1.8	7.6	14.3	5.0	4.5	5.9	0.6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9.0	12.9	8.5	2.3	7.1	2.8	0.9	8.2	8.3	3.4	2.7	3.7	- (564)
4년~ 8년 미만	20.3	24.0	15.1	4.4	11.3	5.0	2.3	5.9	13.8	4.6	4.4	6.8	0.8 (733)
8년 이상	17.0	29.0	13.6	6.6	9.0	8.8	2.9	7.8	25.7	5.7	10.9	8.6	1.0 (513)



[그림 VI-2-1]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

<표 VI-2-3>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자 중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방문한 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건강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 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전체	34.3	45.6	31.7	18.8	36.5	25.6	23.4	32.3	47.6	22.5	36.9	31.6
출신국												
중국(조선족)	16.0	42.9	28.4	21.0	14.9	20.8	23.5	31.4	54.7	24.4	48.6	29.5
중국(한족등)	36.9	44.8	38.8	26.3	31.5	21.7	22.2	34.0	54.8	21.3	43.3	34.1
베트남	31.7	43.4	27.7	15.3	38.1	27.1	24.4	35.0	38.0	23.1	28.1	28.4
필리핀	47.9	55.6	36.3	23.4	44.7	29.9	23.3	39.5	47.4	32.7	33.3	35.0
일본	28.0	43.7	31.9	24.1	38.6	31.7	42.1	27.8	58.4	17.0	46.2	40.4
몽골	42.9	40.0	50.0	14.3	47.6	18.8	14.3	42.1	57.7	26.3	22.2	34.8
태국	48.3	50.0	28.1	-	53.8	18.2	20.0	22.7	60.0	27.8	43.8	35.0
캄보디아	31.3	40.2	21.5	12.9	30.0	16.0	9.1	15.6	24.5	12.0	28.6	13.8
우즈베키스탄	33.3	56.5	33.3	25.0	14.3	20.0	-	16.7	25.0	11.1	44.4	-
기타/무응답	38.5	45.5	31.6	-	43.8	50.0	-	25.0	50.0	-	20.0	50.0
지역												
대도시	31.5	44.3	27.4	14.6	28.6	14.0	7.5	27.9	46.4	14.4	34.9	17.5
중소도시	30.7	46.3	34.4	16.9	41.4	25.4	34.6	31.0	48.5	22.4	41.8	27.1
읍·면지역	37.9	45.8	32.4	23.5	37.8	31.7	24.2	35.2	47.8	27.6	35.0	18.5
거주기간												
4년 미만	33.5	29.7	24.7	12.5	28.6	17.2	12.2	37.1	33.3	19.8	25.4	24.1
4년~ 8년 미만	35.9	48.5	35.8	17.9	43.0	25.9	28.8	28.7	43.5	23.6	31.1	31.4
8년 이상	32.2	56.4	31.7	24.8	34.8	30.2	26.3	32.3	61.7	23.6	48.3	35.2
(수)	(1,010)	(877)	(729)	(421)	(469)	(387)	(158)	(400)	(590)	(365)	(279)	(374)

<표 VI-2-3>는 각 자녀발달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서비스가 견학 및 체험 활동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으로 46~48% 수준이고, 멘토 및 한국어 방문 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무료 건강검진, 한국문화이해 비율이 30%대이며, 학습 지도, 예체능교육, 상담 및 치료, 무료 방문학습지가 20%대, 이중언어교실이 18%로 가장 낮다. 지역 차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읍·면과 중소도시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다. 거주기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I-2-4>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자의 미이용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교육 보육 기관 이용	학원 이용	데리고 갈 사람 없음	멀어서	자녀가 어려서	가족 반대	필요 못 느낌	프로그 램 부재	기타	(수)
전체	20.7	5.3	9.3	11.4	34.9	0.7	2.9	6.2	27.0	(1,095)
출신국										
중국(조선족)	20.5	8.0	9.8	10.7	25.0	-	4.5	15.2	29.5	(112)
중국(한족등)	20.6	5.3	7.6	9.9	40.5	0.8	4.6	7.6	22.1	(131)
베트남	25.2	2.5	9.3	8.1	40.5	1.2	2.2	4.4	21.8	(321)
필리핀	19.0	8.2	11.6	12.2	26.5	1.4	2.0	3.4	30.6	(147)
일본	22.2	6.1	11.1	23.2	9.1	-	7.1	7.1	40.4	(99)
몽골	20.3	6.8	8.5	5.1	39.0	-	5.1	3.4	28.8	(59)
태국	15.5	8.6	8.6	20.7	29.3	1.7	1.7	3.4	32.8	(58)
캄보디아	12.6	1.7	5.0	10.1	55.5	-	-	5.0	23.5	(119)
우즈베키스탄	19.0	4.8	14.3	4.8	33.3	-	-	9.5	28.6	(21)
기타	20.7	13.8	13.8	17.2	34.5	-	3.4	6.9	31.0	(28)
지역										
대도시	20.1	5.1	13.6	12.6	36.4	0.7	3.1	6.1	27.9	(294)
중소도시	21.5	6.2	8.5	9.2	34.6	0.8	3.8	8.8	24.2	(260)
읍·면지역	20.7	5.0	7.4	11.8	34.2	0.7	2.4	5.0	27.9	(541)
거주기간										
4년 미만	8.6	1.5	4.2	6.4	63.6	0.5	1.5	5.4	22.0	(409)
4년~8년 미만	29.8	3.1	11.2	12.4	25.2	1.0	2.4	5.2	27.4	(420)
8년 이상	25.3	14.8	14.4	18.3	5.8	0.8	6.2	8.6	34.2	(257)

자녀 대상 서비스별로 알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는 <표 VI-2-4>와 같이 34.9%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라는 비율이 다수이고, 이외는 다른 육아지원기관이나 학원 이용 때문이 26%로 상당수이며,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9.3%, 멀어서가 11.4%, 프로그램 부재나 필요를 못 느낀다는 비

율이 9.1%이다. 즉, 응답자의 11%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받는 자녀발달 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응답으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9% 정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신국별로 차이를 보면 조선족, 한족, 일본 출신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최근에 많이 입국한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들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지역 차이는 대도시에서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4년 미만이 자녀가 어려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VI-2-4 참조).

〈표 VI-2-5〉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중단 경험

구분	예	아니오	비해당	단위: % (명)
				계(수)
전체	6.4	54.9	38.7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6.9	55.0	38.1	100.0(202)
중국(한족등)	8.0	49.6	42.4	100.0(224)
베트남	3.8	55.9	40.2	100.0(497)
필리핀	6.5	57.3	36.2	100.0(279)
일본	12.2	58.9	28.9	100.0(180)
몽골	8.9	50.0	41.1	100.0(90)
태국	7.2	58.8	34.0	100.0(97)
캄보디아	3.0	54.8	42.2	100.0(166)
우즈베키스탄	7.3	41.5	51.2	100.0(41)
기타	4.0	56.0	40.0	100.0(39)
지역				
대도시	7.6	50.1	42.2	100.0(445)
중소도시	7.4	55.7	37.0	100.0(476)
읍·면지역	5.3	56.9	37.8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4	47.0	49.6	100.0(564)
4년~8년 미만	5.7	58.4	35.9	100.0(733)
8년 이상	10.3	59.8	29.8	100.0(513)

조사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서 6.4%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12.2%로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 차이는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이용하다가 중단하였다는 비율

이 높다.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이 이하보다 두 배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가 중단한 비율이 높다(표 VI-2-5 참조).

〈표 VI-2-6〉 지역별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중단 사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이용	시간	떨어서	아이가 싫어해서	프로그램	시간 변경	가정 이사	가족 반대	기타/무응답	(수)
전체	17.1	34.2	17.9	9.4	1.7	3.4	6.8	3.4	21.3	(117)
지역별										
대도시	14.7	32.4	8.8	14.7	5.9	-	8.8	-	32.3	(34)
중소도시	22.9	28.6	11.4	8.6	-	-	5.7	5.7	28.6	(35)
읍·면지역	14.6	39.6	29.2	6.3	-	8.3	6.3	4.2	8.4	(48)
거주기간										
4년 미만	5.3	31.6	26.3	10.5	5.3	-	15.8	-	31.6	(19)
4년~8년 미만	9.5	31.0	16.7	7.1	2.4	2.4	4.8	2.4	28.6	(42)
8년 이상	26.4	39.6	17.0	11.3	-	5.7	5.7	5.7	9.4	(53)

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이유로는 시간이 안 맞아서가 34.2%로 가장 많고, 학원 이용이 17.1%, 아이가 싫어해서 9.4%이며, 떨어서라는 응답이 17.9%이고, 그 이외는 잦은 시간 변경이 3.4%, 가족의 반대가 3.4%이다(표 VI-2-6 참조).

지역별 차이는 대도시 아이가 싫어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중소도시는 학원 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읍·면은 도시에 비하여 시간이 안 맞는다는 비율과 떨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4년 미만은 떨어서와 가정 이사가 가장 많고, 거주기간 8년 이상은 학원 이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3) 도움되는 정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 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5점 척도에서 최저가 예체능 교육과 상담 및 치료로 4.15점, 4.16점이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자녀생활 방문교육으로 4.61점이다. 자녀생활 방문교육 다음으로 도움된다는 정도가 높은 것은 한국어 방문교육, 견학 및 체험 활동이다(표 VI-2-7 참조).

<표 VI-2-7> 자녀발달지원사업이 자녀양육 도움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한국어 방문교육	-	0.9	10.6	18.1	70.3	100.0(320)	4.58
자녀생활방문교육	0.5	1.1	6.5	20.8	70.9	100.0(371)	4.61
언어발달 지원사업	0.5	1.4	13.0	23.1	62.0	100.0(216)	4.45
이중 언어 교실	1.5	16.9	16.9	64.6	-	100.0(65)	4.43
무료 건강검진	-	0.7	16.9	25.0	57.4	100.0(148)	4.39
학습지도	1.2	-	14.3	19.0	65.5	100.0(84)	4.48
예체능 교육	7.7	3.8	7.7	26.9	53.8	100.0(26)	4.15
한국 문화이해 교육	2.7	-	17.0	24.1	56.3	100.0(112)	4.31
견학 및 체험활동	1.2	0.8	10.6	20.9	66.5	100.0(254)	4.51
상담 및 치료	4.4	1.5	19.1	23.5	51.5	100.0(68)	4.16
멘토 프로그램	1.1	3.4	18.0	29.2	48.3	100.0(89)	4.20
무료 방문 학습지	0.9	-	14.2	25.5	59.4	100.0(106)	4.42
기타	-	-	-	16.7	83.3	100.0(6)	4.83

<표 VI-2-8>는 각각의 자녀 서비스 이용자의 도움된다는 비율을 출신국 및 지역별 차이를 나타낸다. 출신국별 차이는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문화 이해 교육과 부모-자녀 나들이 등 체험 참여 활동이다. 특히 부모-자녀 나들이 등 체험 참여 활동은 몽골, 태국 출신이 만족도가 높았고,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의 만족도는 낮았다. 특이한 점은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들의 방문 사업과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이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녀 대상 서비스 중에서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되는 서비스를 3순위 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응답이 자녀생활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 각각 15% 수준이고, 다음이 언어발달 지원사업 8.4%, 견학 및 체험 활동이 4% 정도이며, 이외는 3% 이하이다. 2순위와 3순위를 합산하여 비율을 산출하여도 비율 자체는 상승하지만 전반적인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표 VI-2-9, 그림 VI-2-2 참조).²²⁾

22) 1, 2 순위 및 1, 2, 3 순위 합 의 출신국·지역별 분포는 <부표 VI-2-1>에 수록함.

〈표 VI-2-8〉 자녀발달지원사업 자녀양육 도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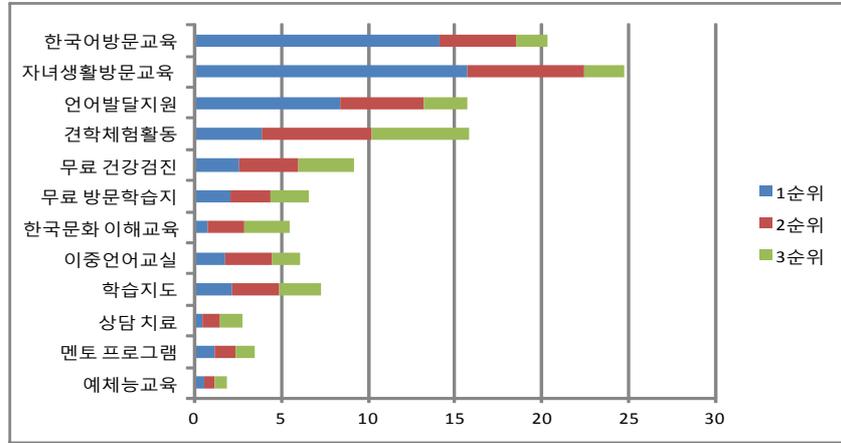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기타
전체	4.58	4.61	4.45	4.43	4.39	4.48	4.15	4.31	4.51	4.16	4.20	4.42	4.83
출신국													
중국(조선족)	4.47	4.66	4.59	5.00	4.20	4.60	4.67	4.29	4.64	4.38	4.69	4.67	4.67
중국(한족등)	4.63	4.44	4.59	4.67	4.38	4.67	5.00	4.80	4.81	4.38	3.82	4.64	-
베트남	4.54	4.69	4.32	4.25	4.37	4.40	3.67	4.24	4.34	4.06	4.08	4.17	5.00
필리핀	4.53	4.47	4.39	4.18	4.50	4.33	3.80	4.14	4.23	4.06	4.18	4.10	-
일본	4.45	4.59	4.55	4.18	4.29	4.53	3.80	4.50	4.65	4.50	4.00	4.56	5.00
몽골	4.81	4.29	4.21	5.00	4.00	5.00	5.00	5.00	4.75	3.60	4.00	4.63	-
태국	4.72	4.80	4.38	-	4.17	5.00	4.50	4.50	4.79	4.20	4.43	4.67	-
캄보디아	4.50	4.87	4.33	4.00	4.67	3.33	-	2.75	3.60	-	4.00	4.00	-
우즈베키스탄	4.86	4.69	4.60	4.00	5.00	4.00	-	5.00	4.00	5.00	4.75	-	-
기타/무응답	4.70	4.90	4.67	-	4.80	5.00	-	4.00	4.40	-	3.00	4.80	-
F	0.8	1.8	0.6	1.5	0.9	1.2	0.8	2.6*	3.7***	0.5	1.2	1.4	
지역													
대도시	4.55	4.65	4.41	4.46	4.38	4.78	5.00	4.57	4.55	4.42	4.17	4.64	5.00
중소도시	4.69	4.65	4.56	4.57	4.43	4.59	4.23	4.32	4.65	4.00	4.45	4.46	5.00
읍·면지역	4.54	4.57	4.39	4.32	4.38	4.38	4.00	4.21	4.39	4.15	4.03	4.34	4.00
F	1.4	0.8	0.9	0.5	0.6	1.2	0.3	1.2	2.6	0.5	1.7	0.7	
거주기간													
4년 미만	4.57	4.69	4.45	4.45	4.50	4.13	4.40	4.26	4.28	4.06	4.00	4.53	-
4년~8년미만	4.61	4.62	4.36	4.30	4.43	4.41	3.80	4.22	4.52	3.93	4.21	4.28	4.50
8년 이상	4.53	4.56	4.58	4.56	4.27	4.64	4.36	4.47	4.58	4.52	4.24	4.53	5.00
F	0.3	0.8	1.5	0.6	0.8	2.2	0.7	0.8	2.2	2.1	0.3	1.2	2.7
(수)	(320)	(371)	(216)	(65)	(148)	(84)	(26)	(112)	(254)	(68)	(89)	(106)	(6)

*** p<.001

〈표 VI-2-9〉 자녀발달지원사업이 자녀 성장·발달에 도움된다는 비율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계 (수)
1순위	14.1	15.7	8.4	1.8	2.6	2.2	0.6	0.8	3.9	0.5	1.2	2.1	(1,826)
1+2순위	18.5	22.4	13.2	4.5	6.0	4.9	1.2	2.9	10.2	1.5	2.4	4.4	(1,826)
1+2+3순위	20.3	24.7	15.7	6.1	9.2	7.3	1.9	5.5	15.8	2.8	3.5	6.6	(1,826)



[그림 VI-2-2] 자녀발달지원사업 중 자녀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

<표 VI-2-10> 가장 도움이 된 자녀발달지원사업: 1순위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 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계 (수)
전체	14.1	15.7	8.4	1.8	2.6	2.2	0.6	0.8	3.9	0.5	1.2	2.1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0.4	15.3	10.4	3.5	1.5	4.0	0.5	1.5	6.4	1.0	1.0	3.5	(202)
중국(한족등)	14.7	10.7	14.3	2.2	2.7	3.6	1.3	1.8	4.9	-	0.4	3.6	(224)
베트남	12.5	14.9	8.7	1.8	2.2	1.6	-	0.6	2.6	0.4	1.2	1.6	(497)
필리핀	18.6	20.8	4.3	1.1	3.6	2.9	0.7	1.4	2.9	-	1.8	1.4	(279)
일본	10.0	18.9	8.9	3.3	1.1	2.8	2.2	0.6	9.4	1.7	2.2	2.8	(180)
몽골	11.1	15.6	5.6	1.1	2.2	-	-	-	2.2	1.1	-	2.2	(90)
태국	22.7	13.4	5.2	1.0	4.1	2.1	1.0	-	2.1	1.0	-	2.1	(97)
캄보디아	12.0	13.9	7.8	-	3.6	-	-	-	1.8	-	0.6	0.6	(166)
우즈베키스탄	19.5	22.0	12.2	2.4	2.4	-	-	-	-	2.4	4.9	-	(41)
기타	24.0	14.0	4.0	-	4.0	4.0	-	-	6.0	-	-	2.0	(50)
지역													
대도시	11.5	13.3	9.7	0.9	2.5	2.0	0.4	0.9	4.7	0.4	1.8	1.6	(445)
중소도시	13.2	16.6	8.4	2.7	2.1	2.3	0.8	0.4	4.0	0.4	1.7	4.2	(476)
읍·면지역	15.9	16.5	7.8	1.8	2.9	2.3	0.6	1.0	3.5	0.7	0.6	1.2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2.1	8.9	5.9	1.2	3.2	0.5	0.5	0.9	0.9	-	0.2	0.7	(564)
4년~8년 미만	16.6	16.2	11.7	1.5	2.3	1.9	0.3	0.7	4.5	0.7	1.2	2.6	(733)
8년 이상	13.1	22.4	6.4	2.7	2.1	4.5	1.2	1.0	6.6	1.0	2.1	2.9	(513)

<표 VI-2-10>는 1순위 응답에 대하여 출신국과 지역별로 제시한 표이다. 중국 한족 등과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어 방문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자녀생활 지도는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이 지적한 비율이 높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언어발달 사업을, 일본 출신 어머니는 견학 및 체험 활동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평균보다 높게 도움이 된다는 서비스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4) 추후 이용 희망

<표 VI-2-11>은 각 자녀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VI-2-11〉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수)
전체	25.6	33.1	23.1	22.6	23.9	29.5	19.3	17.8	29.5	13.1	14.7	29.2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2.4	27.7	20.3	24.3	19.8	29.2	20.8	12.4	37.1	13.4	16.8	27.7	(202)
중국(한족등)	27.2	33.0	25.0	26.8	22.8	28.6	21.0	21.4	25.9	13.8	12.9	25.4	(224)
베트남	26.0	32.6	21.3	18.1	22.3	27.2	12.7	15.1	25.6	9.1	11.1	27.4	(497)
필리핀	21.9	32.6	24.0	24.7	24.4	32.3	23.7	17.9	28.3	15.4	18.3	26.5	(279)
일본	28.3	31.1	21.7	28.9	26.7	30.0	23.9	17.8	41.1	14.4	17.2	35.6	(180)
몽골	28.9	30.0	23.3	25.6	24.4	24.4	24.4	21.1	27.8	16.7	12.2	30.0	(90)
태국	27.8	33.0	15.5	15.5	19.6	25.8	16.5	15.5	25.8	11.3	13.4	24.7	(97)
캄보디아	39.2	45.2	33.1	24.7	30.1	38.6	21.7	25.9	31.9	17.5	15.1	38.6	(166)
우즈베키스탄	17.1	29.3	24.4	17.1	26.8	31.7	17.1	19.5	19.5	17.1	19.5	31.7	(41)
기타	32.0	38.0	24.0	12.0	34.0	24.0	20.0	20.0	28.0	12.0	24.0	36.0	(39)
지역													
대도시	28.3	37.1	26.7	27.6	28.5	35.7	26.5	22.5	35.3	17.5	21.6	32.4	(445)
중소도시	24.6	28.6	19.3	21.8	22.9	27.7	19.7	14.9	29.0	9.9	13.9	30.3	(476)
읍·면지역	24.9	33.5	23.3	20.4	22.2	27.3	15.5	17.0	26.9	12.7	11.8	27.1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32.8	35.1	28.5	23.4	29.4	27.8	19.7	21.3	25.4	13.1	13.1	29.3	(564)
4년~8년 미만	26.5	34.4	25.4	23.6	23.9	32.2	20.7	18.6	30.2	14.2	15.0	29.3	(733)
8년 이상	16.0	28.8	14.0	19.9	17.7	27.3	16.6	12.9	33.3	11.5	16.0	28.8	(513)

이를 보면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자녀생활 방문교육으로 33.1%이고, 다음이 학습 지도와 무료 방문학습지로 29% 수준이며, 한국어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무료 건강검진이 20%대의 추후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외 예체능교육, 한국문화 이해, 상담 및 치료, 멘토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용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이다.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이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 지역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VI-2-11 참조).

<표 VI-2-12>는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 여부별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사업이 사업 인지자, 인지하지만 사용 미경험자, 사용 경험자 순으로 향후 이용 희망 비율이 낮다.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40~59%가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표 VI-2-12>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및 인지여부별 이용 희망 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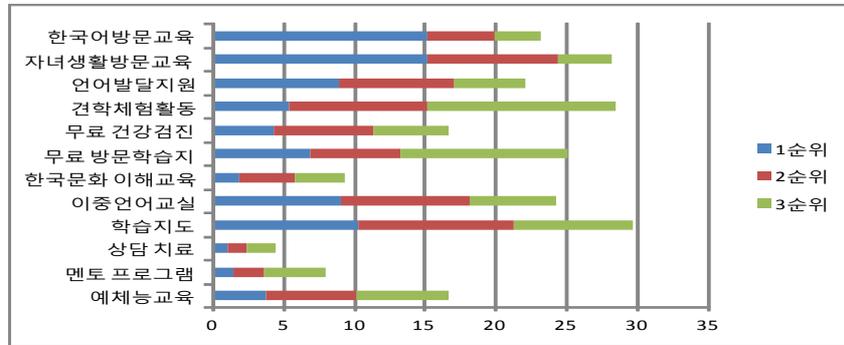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수)
전체	25.6	33.1	23.1	22.6	23.9	29.5	19.3	17.8	29.5	13.1	14.7	29.2	(1,826)
이용	41.4	48.9	33.5	38.4	40.8	45.1	26.3	28.2	48.9	17.6	19.3	47.1	
인지·미이용	31.1	40.4	31.4	35.9	28.4	35.4	25.1	27.8	39.9	13.9	17.8	33.3	
미인지	20.2	28.2	18.6	18.0	18.9	24.4	15.6	15.3	18.9	7.6	8.1	28.5	
X ² (df=2)	56.6***	43.2***	41.1***	68.1***	56.4***	50.3***	27.4***	31.8***	151.6***	32.1***	38.5***	8.7	

* p<.05, *** p<.001

<표 VI-2-13>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1, 2, 3순위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수)
1순위	15.2	15.2	8.9	9.0	4.3	10.2	3.8	1.9	5.4	1.0	1.4	6.9	(1,826)
1+2 순위	19.9	24.3	17.0	18.1	11.4	21.3	10.1	5.8	15.1	2.4	3.6	13.3	(1,826)
1+2+3 순위	23.2	28.1	22.0	24.2	16.6	29.6	16.6	9.3	28.4	4.4	7.9	25.1	(1,826)



[그림 VI-2-3]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희망

<표 VI-2-14> 자녀발달지원사업 중 희망하는 서비스: 1순위

단위: %(명)

구분	방문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실	자녀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체험 활동	상담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계(수)
전체	15.2	15.2	8.9	9.0	4.3	10.2	3.8	1.9	5.4	1.0	1.4	6.9	100.0(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8.9	14.9	8.4	11.9	2.5	9.4	5.4	-	9.9	2.0	2.5	8.4	100.0(202)
중국(한족등)	13.4	17.0	9.8	12.5	3.1	10.7	4.5	-	5.4	-	-	8.9	100.0(224)
베트남	16.7	16.9	9.9	6.2	4.0	10.5	3.0	2.6	3.0	0.6	0.6	7.2	100.0(497)
필리핀	14.3	15.1	7.9	6.5	6.5	14.0	2.2	2.9	3.6	2.2	2.2	4.7	100.0(279)
일본	11.7	10.6	7.8	16.1	3.3	6.7	6.7	2.2	13.9	0.6	3.9	5.6	100.0(180)
몽골	20.0	16.7	8.9	3.3	6.7	3.3	5.6	2.2	5.6	-	-	4.4	100.0(90)
태국	15.5	11.3	6.2	10.3	6.2	8.2	3.1	1.0	4.1	-	2.1	9.3	100.0(97)
캄보디아	21.1	16.9	9.0	7.2	3.6	12.7	1.8	3.6	1.8	1.2	0.6	6.0	100.0(166)
우즈베키스탄	12.2	17.1	17.1	9.8	7.3	14.6	-	-	4.9	2.4	2.4	4.9	100.0(41)
기타	24.0	6.0	6.0	10.0	4.0	6.0	6.0	-	6.0	2.0	2.0	12.0	100.0(50)
지역													
대도시	15.1	12.6	9.7	10.8	4.7	11.5	5.4	1.6	5.2	1.8	1.8	6.7	100.0(445)
중소도시	13.7	15.1	7.1	10.9	3.6	9.2	5.7	2.1	5.9	0.8	1.9	9.2	100.0(476)
읍·면지역	16.0	16.5	9.5	7.1	4.5	10.2	2.0	1.9	5.3	0.7	1.0	5.7	100.0(905)
거주기간													
4년 미만	17.9	12.9	13.5	7.1	5.1	7.3	2.7	2.5	2.1	0.5	0.5	5.5	100.0(564)
4년~8년 미만	17.1	16.5	7.9	9.4	3.1	11.5	3.7	1.6	5.3	1.0	1.1	7.9	100.0(733)
8년 이상	9.7	15.6	5.5	10.7	5.1	11.5	4.9	1.6	9.4	1.6	2.9	7.2	100.0(513)

이러한 요구는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그래도 반영되었다.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 서비스는 1위가 한국어 방문교육으로 20.2%가 이를 선택하였고, 2위가 17.0%인 자녀 방문교육이며, 3위가 부모자녀나들이로 12.0%이며 4위가 학습지도로 10%를 넘는다. 다음으로 5위는 아이 돌봄 지원으로 9.4% 정도이다. 2, 3순위 응답을 모두 합하면 전체 순위가 달라져서 학습지도가 29.6%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자녀 방문교육과 견학·체험 활동이 28% 수준으로 유사하고 다음이 두 번째가 무료 방문학습지도 25%이며 이중 언어교실, 한국어 방문교육, 이중 언어 발달교실로 22~24% 수준이다(표 VI-2-13, 그림 VI-2-3 참조).²³⁾

<표 VI-2-14>는 1순위 응답에 한하여 출신국 및 지역별 차이를 제시한 표이다. 출신국별로는 태국, 캄보디아 출신이 방문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일본 출신은 부모-자녀 나들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길어질수록 이중언어교실과 견학·체험 활동 요구가 높다.

2) 기타 기관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기타 기관에서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의 수혜 비율은 한국어 교육, 무료 건강검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 활동이 약 10% 내외이고, 자녀 학습지도와 무료 학습지 지원이 7% 수준이며, 이외에 이중언어교육, 예체능교육,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등은 5% 미만이다.

출신국별로는 일본 출신 어머니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모지원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사업별로 보면 중국(한족 등)과 필리핀이 한국어 교육,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학습지도와 학습지 지원 비율이 높고, 멘토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등은 일본 출신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이용경험 비율이 높다. 지역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인 어머니가 학습지도, 무료 학습지, 멘토프로그램, 견학·체험 활동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어교육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표 VI-2-15 참조).

23) 1, 2 순위 및 1, 2, 3 순위 합 의 출신국·지역별 분포는 <부표 VI-2-2>에 수록함.

자녀발달지원사업 제공 기관은 무응답 비율이 높는데,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중에서는 대체로 행정기관의 비중이 크다. 특히 예체능교육은 사회복지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표 VI-2-16 참조).

〈표 VI-2-15〉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 이용 경험률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학습지도	무료학습지	예체능 교육	자녀건강검진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견학 체험 활동	기타	(수)
전체	9.6	3.2	6.7	6.9	3.5	10.2	3.0	4.4	10.6	1.2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7.9	5.4	8.4	11.9	2.0	12.4	2.5	1.5	12.9	1.0	(202)
중국(기타 민족)	13.4	2.7	4.5	5.4	2.7	8.0	0.9	4.5	9.8	1.3	(224)
베트남	7.6	2.0	3.0	4.8	2.4	7.6	1.4	2.8	5.2	1.2	(497)
필리핀	14.7	3.6	9.0	8.2	5.0	14.0	5.4	6.5	11.1	1.4	(279)
일본	6.1	7.2	16.7	10.6	6.7	10.0	7.8	10.6	26.7	2.2	(180)
몽골	10.0	4.4	7.8	5.6	5.6	11.1	3.3	3.3	11.1	-	(90)
태국	10.3	2.1	8.2	9.3	2.1	12.4	2.1	6.2	13.4	1.0	(97)
캄보디아	6.6	0.6	-	2.4	1.2	10.2	3.0	1.8	4.8	0.6	(166)
우즈베키스탄	9.8	4.9	14.6	9.8	4.9	7.3	-	7.3	12.2	-	(41)
기타/무응답	10.0	-	10.0	4.0	8.0	12.0	4.0	4.0	8.0	-	(50)
지역											
대도시	9.9	2.0	7.2	6.1	2.0	11.0	2.9	5.2	9.7	1.1	(445)
중소도시	10.1	4.0	6.3	7.1	3.2	9.0	2.7	4.4	10.5	1.7	(476)
읍·면지역	9.2	3.4	6.7	7.2	4.3	10.4	3.2	4.1	11.0	0.9	(905)
거주기간											
4년 미만	7.3	1.1	1.6	1.1	2.0	8.7	2.1	2.1	3.0	0.4	(564)
4년~8년 미만	10.8	2.2	4.4	7.0	2.2	10.8	1.9	2.2	8.6	1.5	(733)
8년 이상	10.1	7.0	15.8	13.3	6.8	10.9	5.5	10.1	21.8	1.6	(513)

〈표 VI-2-16〉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 제공 기관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학습지도	무료학습지	예체능 교육	자녀건강검진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견학 체험 활동	기타
종교 기관	9.0	15.3	7.2	5.5	12.1	0.5	15.3	13.3	16.4	4.8
사회 복지관	15.3	6.8	17.6	11.0	21.2	6.4	16.9	13.3	20.3	14.3
행정 기관	14.1	8.5	18.4	33.9	15.2	44.1	16.9	13.3	19.3	28.6
기타	22.6	35.6	28.8	21.3	27.3	26.1	23.7	31.3	21.3	38.1
모름/무응답	39.0	33.9	28.0	28.3	24.2	22.9	27.1	28.9	22.7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	(59)	(123)	(126)	(63)	(186)	(55)	(81)	(193)	(21)

자녀발달 지원 사업 제공 장소에 대한 질문도 무응답 비율이 다소 높는데, 사업에 따라서 자녀 가정과 기관의 비중이 다르다(표 VI-2-17 참조).

〈표 VI-2-17〉 기타 기관 자녀발달 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학습 지도	무료 학습지	예체능 교육	자녀 건강 검진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견학 체험 활동	기타
가정 방문	36.0	16.9	42.3	55.6	9.5	3.2	7.3	21.0	5.2	19.0
기관 방문	34.9	57.6	40.7	16.7	65.1	69.4	60.0	40.7	63.2	47.6
둘 다	9.7	5.1	3.3	4.0	4.8	5.9	7.3	11.1	6.7	-
모름/무응답	19.4	20.3	13.8	23.8	20.6	21.5	25.5	27.2	24.9	33.3
계 (수)	100.0 (175)	100.0 (59)	100.0 (123)	100.0 (126)	100.0 (63)	100.0 (186)	100.0 (55)	100.0 (81)	100.0 (193)	100.0 (21)

〈표 VI-2-18〉 기타 기관 자녀발달 지원서비스의 도움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학습 지도	무료 학습지	예체능 교육	자녀 건강 검진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견학 체험 활동	기타
전혀 도움 안됨	-	-	1.6	-	-	-	-	-	-	-
별로 도움 안됨	1.7	-	1.6	3.2	-	2.7	-	1.2	0.5	-
보통	12.6	20.3	9.8	16.7	20.6	14.5	16.4	17.3	11.4	9.5
약간 도움됨	23.4	23.7	23.6	14.3	19.0	22.6	20.0	17.3	15.5	14.3
매우 도움됨	44.0	39.0	48.8	50.0	41.3	49.5	50.9	50.6	60.6	61.9
모름/무응답	18.3	16.9	14.6	15.9	19	10.8	12.7	13.6	11.9	14.3
계 (수)	100.0 (175)	100.0 (59)	100.0 (123)	100.0 (126)	100.0 (63)	100.0 (186)	100.0 (55)	100.0 (81)	100.0 (193)	100.0 (21)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 기관의 자녀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도움 되는 정도는 5점 척도로 4.22점에서 4.55점 사이에 분포한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이중언어교육이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견학·체험 활동이다(표 VI-2-18 참조).

출신국가별로는 이중 언어교육에서 몽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별로는 학습지도 만족도가 읍·면지역에서 비교적 높다. 거주기간별 차이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지만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표 VI-2-19 참조).

〈표 VI-2-19〉 기타 기관 자녀발달지원사업이 도움되는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학습 지도	무료 학습지	예체능 교육	자녀 건강 검진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견학 체험 활동	기타
전체	4.34	4.22	4.36	4.32	4.25	4.33	4.40	4.36	4.55	4.61
출신국										
중국(조선족)	4.58	4.25	4.53	4.47	5.00	4.36	4.25	4.50	4.71	5.00
중국(기타)	4.50	4.80	4.63	4.64	4.00	4.56	5.00	4.33	4.40	4.00
베트남	4.15	3.88	4.38	4.00	4.20	4.14	3.83	4.11	4.32	4.75
필리핀	4.36	4.50	4.21	4.25	3.83	4.44	4.46	4.35	4.38	5.00
일본	4.00	3.82	4.30	4.12	4.60	4.13	4.55	4.24	4.73	4.25
몽골	4.63	5.00	4.67	5.00	4.50	4.11	4.00	5.00	5.00	-
태국	4.00	3.50	3.75	4.67	3.00	4.40	5.00	4.40	4.30	-
캄보디아	4.57	-	-	5.00	4.00	4.38	4.80	5.00	4.86	5.00
우즈베키스탄	4.33	4.00	4.60	4.00	5.00	5.00	-	4.67	4.20	-
기타/무응답	4.40	-	4.75	5.00	4.25	4.50	3.50	4.00	4.50	-
F	0.9	2.1 [#]	0.9	1.2	1.3	0.6	1.4	0.6	1.7	1.2
지역										
대도시	4.49	4.00	4.33	4.41	4.00	4.39	4.54	4.52	4.54	4.40
중소도 시	4.27	4.19	4.04	4.07	4.33	4.13	4.36	4.30	4.60	4.86
읍·면지역	4.30	4.32	4.55	4.43	4.29	4.39	4.33	4.26	4.52	4.50
F	0.9	0.5	3.0 [#]	1.6	0.4	1.4	0.3	0.6	0.2	0.7
거주기간										
4년 미만	4.32	4.50	4.57	4.33	4.00	4.42	4.33	4.50	4.73	5.00
4년~8년 미만	4.43	4.15	4.48	4.37	4.27	4.29	4.31	4.00	4.45	4.78
8년 이상	4.18	4.23	4.29	4.28	4.33	4.33	4.50	4.41	4.58	4.29
F	1.1	0.3	0.6	0.1	0.5	0.3	0.3	1.2	1.1	1.4
(수)	(175)	(59)	(123)	(126)	(63)	(186)	(55)	(81)	(193)	(21)

p<.1

3. 정책 시사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기관 부모와 자녀지원 사업의 이용과 요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12가지 부모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 두 가지 방문교육 사업이 62%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대부분의 사업 인지도는 30%대이며, 육아정보니눔터와 멘토 프로그램은 각각 24.3%, 19.8%

이다. 자녀 대상 사업도 한국어 방문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이 각각 55.3%, 48.0%로 인지율이 높고, 다음이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인지율 39.9%이지만, 이외 이중언어교실, 무료 건강검진, 학습지도, 한국 문화이해 교육, 상담 및 치료, 무료 방문학습지가 20%대이며, 멘토 프로그램이 15% 수준이고 예체능교육이 8.7% 수준이다. 부모지원사업을 인지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부모 지원사업은 과반수가 넘는 54.5%가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소수이지만 2.3%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고, 가족의 반대가 3.4%이다.

둘째, 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부모지원 사업 인지자 중 미이용 이유는 10.0%는 너무 멀어서, 7.2%는 교통편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자녀발달 지원 사업도 멀어서가 11.4%이다. 어머니 중에서 17%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멀어서가 13.6%이었다. 자녀지원 서비스도 6.4%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유로 멀어서라는 응답이 17.9%이다. 특히 읍·면지역에서 접근성 문제를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셋째,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허용할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사업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용 경험자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인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활성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부모지원 사업 미이용자의 미이용 사유는 도움이 안 됨 1.3%, 프로그램이 별로 1.7%로 약 3% 정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반면에, 자녀발달지원 사업 인지자 중 미이용 이유는 프로그램 부재 6.2%, 필요를 못 느낀다는 비율이 2.9%이다. 즉, 9% 정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발달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어머니 중에서 17%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5.5% 정도는 시간 변경, 불친절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으로 유추된다. 자녀 대상 프로그램도 6.4%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데, 9.4%는 아이가 싫어해서, 3.4%는 잦은 시간 변경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방문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자들을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 되는 서비스를 부모 방문교

육, 한국어 방문교육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서비스도 자녀생활지도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일곱째, 부모-자녀 참여 활동 사업 확대 필요성을 나타냈다. 앞으로 계속하여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부모-자녀 나들이로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요구이며, 자녀발달지원 사업으로는 방문사업, 언어발달 다음으로 견학·체험 활동을 희망하였다.

여덟째, 학습 지원 요구를 나타냈다.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자녀 서비스 질문에 1순위 응답은 학습지도와 무료 방문학습지가 각각 10.2%, 6.9%로 3위와 6 위이지만 1, 2, 3 순위를 모두 합하면 학습지도와 방문학습지를 지정한 비율이 각각 29.6%, 25.1%이다.

아홉째, 출신국별 서비스 내용과 접근 방법의 차이를 두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캄보디아와 같이 입국 시기가 가장 최근인 국가 출신의 어머니들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일본과 같이 입국 시기가 오래된 국가 출신의 어머니들은 나들이나 체험 활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VII.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수혜와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은 공급자(기관)의 전문화, 개별화된 접근법에 의한 통합적이고 지속적 서비스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모색하였다. 제시된 정책 추진은 빠를수록 좋겠으나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VII-1-1〉 정책 제언 요약 및 추진 시기

구분	분류	소분류	추진 시기
다문화 가족 지원 인프라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지역협의체 구축		단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여건 강화	- 인력과 예산 확충 - 전문인력 배치	중기 중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 교통 서비스 - 방문서비스 강화 - 분원 설치	중기 중기 중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공공기관 활용 - 찾아가기, 알리미 서비스	단기
	방문서비스 강화	- 방문교육 다양화 - 지원기간 확대 - 교재와 매뉴얼 개발 - 출신국별 보조교재 개발 - 사후관리체계 마련	중기 중기 단기 중기 중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맞춤형 - 사전기획 및 교수법 개발 - 전문인력 보강	단기 단기 단기

구분	분류	소분류	추진 시기
자녀발달 지원 사업 강화	초등 준비 프로그램	- 센터, 학교 등	단중기
	자녀 학습지원	- 방문사업 - 학습지 지원	중기 중기
	문화, 정서 지원	- 부모-자녀 체험활동 지속 운영 - 자녀 활동 운영 지속	단기 단기
	이중언어교육	- 방문서비스로 전환	중기
	중도 입국자녀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에 포함	단기
	아동 이용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센터와 협력 강화 - 심리 및 정서 프로그램	단기
부모 지원 체계 강화	부모 역량 강화	- 부모교육서비스 자녀발달주기별 세분화 - 가족통합 정기 프로그램 운영 - 자녀 발달 정보 제공 - 초등입학 준비 의무이수 및 실습 도입 - 학교와 센터 추진 - 학교와 센터 부모 지지체계 구축	단기 단기 중기 단기 단기 중기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 한국어교육 지속 지원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에 포함	단기 중기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 남편, 시부모 교육 - 시부모 등 방문교육 추진 - 문제 가정 교육의무화	단기 중기 중기
	결혼이민자 지지체계 강화	- 육아정보나눔터 지원 확대 - 자조모임 확대 - 일반인 네트워크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	단기 단기 중기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 강화	- 전문상담인 확충 - 방문지도사, 통번역사 상담자 역할 수행 - 기존 전화상담 활용	단기 단기 중기
	결혼이민자 교육, 취업훈련 기회 확대	-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 IT 교육 실시 - 취업교육 독자 및 연계 확대	중기 단기 중기

1.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강화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지역협의체 구축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은 매우 많으나 점차 지역사회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효율적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협의체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을 모두 망라하는 협의체 구축으로, 필요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보건소, 복지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자원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는 통번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여건 강화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100개소, 2010년 171개소, 2011년 200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대상도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집중되었으나 자녀, 남편, 시부모 등으로 확대되고,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사회 적응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교육, 취업교육, 상담, 학습지원 등 서비스 내용이 다양화되고, 지원방식도 센터 교육에서 방문교육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나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모나 자녀의 배경이 각기 다르고,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나 요구,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가형과 나형의 인력이나 예산 규모가 다르고, 또한 위탁체나 지방 정부의 지원에 따라 사업 역량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이 사업비와 최소한의 인건비가 배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보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 사업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평균 약 1.8명 이하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1명 또는 2명이 센터의

행정, 교육, 상담,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상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들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충분히 상담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센터 종사자를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홍보, 교육, 상담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평균 3명까지 증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업무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1명 또는 2명의 인력이 센터의 행정, 교육, 상담,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센터 주요 사업인 상담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주장한 인력 증원을 통해 상담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모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0.0%는 너무 멀어서, 7.2%는 교통편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자녀발달지원사업도 미이용 사유 중 멀어서가 11.4%이다. 어머니 중에서 17% 정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멀어서가 13.6%이고, 자녀 서비스도 6.4%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로 멀어서가 17.9%이었다. 특히 읍·면에서 접근성 문제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 심층결과, 농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의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도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접근성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직접 지역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경우 교통 및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의 지역은 센터 사업보다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셋째, 농어촌이나 도농형 지역은 도시와는 다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지역권을 나누어 분원을 설치한다. 분원은 상시 개설되기 보다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때에만 임시적으로 개설되며 지역 마을회관을 분원으로 이용한다. 분원에서는 수요가 많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정기교육으로 운영한다. 농촌이나 도농형 지역은 경북 구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운영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경북 구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분원 3개소를 농촌지역에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매년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인지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12가지 부모 지원 사업 인지도는 사업별로 20~62% 수준이며, 자녀 대상 사업도 8.7~55.3%이다 부모지원사업을 인지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잘 몰라서이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방문지도사업 접수기간에 서비스 대상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이주 여성이 입국 초기에 접촉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여권과, 자치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국어로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지를 배포하고,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거나,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를 접근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비치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마. 방문서비스 강화

방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부모 방문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서비스도 1순위 응답이 자녀생활지도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또는 새로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도 30%대의 요구를 나타낸 서비스는 부모 방문교육, 한국어 방문교육이며, 자녀발달지원 사업으로도 방문사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1) 방문교육서비스 다양화

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부모 교육이나 배우자 교육, 정보화 교육 등 방문교육으로 전환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방문교육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 한다.

2)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 방문교육서비스 대부분 5개월 단위로 1회 제공되기 때문에 방문지도사가 이주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교육기간이 짧다. 교육의 연속성, 연계성 측면에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기간을 5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허용을 위한 지원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지원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받기를 희망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연속적 이용을 허용하되, 방문교육 종료 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객관적 평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3) 방문교육용 교재와 매뉴얼 개선

방문교육용 교재와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교육 교재는 1-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출신국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 체제로는 교육대상자의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의 교재수준을 5단계나 7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도 문법, 쓰기, 말하기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어 이해력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한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현재 학령기 1단계, 2단계 두 가지 매뉴얼만 제공한다. 연령별로 수준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므로 학년별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서비스 매뉴얼도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도사에 따라서 방문 가정에 맞추어 부모교재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표준화된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과 부모교재를 제공한다.

4) 출신국별 보조 교재 개발

방문교육서비스 교재 개발 시 출신국별 특징이나 대상자 수준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언어적인 제약이 있다. 부모교육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출신국 언어로 된 보충 자료가 필요하므로 출신국 언어별 보충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교육서비스 사후 관리체계 마련

본 연구 심층조사 결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끝마친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센터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문지도사가 개인적으로 방문 가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의존적이 되거나 방문지도사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후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교육 종료 후 월 1회씩 3개월간 이루어지는 가정방문 방식이 적합하다. 사후관리 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교육서비스 사후관리는 해당 다문화가족의 교육을 담당한 방문지도사가 이용하고, 사후관리 시 방문지도사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단, 다문화가족이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시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는 이중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주 여성이 현 방문지도사와 이전 방문지도사를 비교하거나 현 방문지도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부모지원사업 미이용자의 미이용 사유는 도움이 안 됨 1.3%, 프로그램이 별로 1.7%로 약 3% 정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반면에, 자녀발달지원사업 인지자 중 미이용자의 미이용 이유는 프로그램 부재 6.2%, 필요를 못 느낀다는 비율이 2.9%이다. 즉, 9% 정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이 필요하다.

첫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 수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즉, 도시, 농촌, 도농형 등 지역적 특성이나 센터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전 기획하거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한다. 특히,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강의식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학습, role-play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 적응을 위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이 실제 사용되는 상황이나 맥락이 제시되고, 현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사용되어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학습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제고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가.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66.3%가 한국어 또는 한글교육 지원, 기초 교과목 지도 31.5%, 기본생활습관 형성 27.5%, 컴퓨터 교육 10.1%, 예체능교육 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에게 양육됨에 따라 독해, 쓰기, 작문능력 등의 학업 성취가 낮고, 때때로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소극적이며, 폭력 또는 과잉행동과 같은 정서장애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능력 부족 또는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

으로 한글교육이나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생활습관 교육도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 대상의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을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나. 자녀 학습지원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역량 대처 중 잘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공부의 도움으로 14.5%이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대체로 학력이 낮아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한글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한국 문화나 관습, 역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들도 한글을 읽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는 대학교가 52.5%, 대학원 42.9%로 거의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가장 받고 싶은 자녀 서비스 질문에 대한 응답 1, 2, 3 순위를 모두 합하면 학습지도와 무료 방문 학습지를 지정한 비율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일반인 등의 자원봉사자도 좋으나 이보다는 방문교사를 통한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는 방문교사 사업과 연계한다.

다. 문화, 정서 지원

조사에서 부모역할로 도서관, 서점, 공연 등 문화공간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 43.1%로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함께 서점, 놀이공원, 영화, 연극 등 공연,

캠프나 현장학습과 같은 체험행사에도 안 갔다는 23~46%로 다문화가족 내 문화생활 빈도는 낮은 편이고, 캠프나 체험행사 참여빈도는 상당히 낮다.

다문화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연극이나 캠프와 같은 참여 행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 지원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및 상호교류를 돕고 정서지원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의 참여를 확대하여 일반 부모와의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둘째, 자녀를 위한 지속적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극반, 합창반 운영 등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문화와 정서 관련 부분을 지원한다.

라. 이중 언어교육

자녀 중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54.6%인데, 이중 약 5% 정도만이 다른 어학교사에게 배우고 있었다. 본 연구 심층면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가정 내에서 허용하는 분위기였으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여성은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모국어를 안 가르친다는 경우에도 82.2%가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언어교육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11년 100개 센터에서 130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어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상황에 따라 교육하는 언어도 다르고, 결혼이민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 수요에 맞춰 이중언어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를 확대하며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기준이나 양성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이중언어교육을 방문교육서비스로 전환하여 엄마와 자녀가 엄마 나라 말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마. 중도 입국자녀 지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별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약 1% 정도는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자녀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방문교육 한국어 서비스가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곧 학교에 들어가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자녀에게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도입국자녀도 자녀생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바. 아동 이용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의 언어프로그램과 이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65.5%이었고, 특별프로그램이 있어도 한글교육 약 20%로 가장 많고, 5% 정도가 특별지도나 이중 언어교육이며 멘토가 2.6%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시키고자 하지만 수혜율은 낮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학습 능력을 도울 수 있는 언어프로그램과 기관 적응이나 또래 갈등 등의 정서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자신감 결여와 친구관계 어려움 등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많다. 언어교육이나 학습지도 외에도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긍정적인 역할모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개별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부모 지원체계 강화

가. 부모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부인의 가정에서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대체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권한이 크다. 주로 부인이 한다는 비율이 생활비 지출 25.8%, 주택 매매나 이사 4.8%, 부모님 용돈 13.8%이다. 이에 비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는 이주여성 결정권이 남편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주로 33.0% 부부협의 비율도 41.7%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며 자녀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로서의 기본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더욱이 다문화 가족의 출산 수준이 높다. 따라서 주 양육자로서 결혼이민자 부인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부모교육서비스 발달주기별 세분화

다문화 가족이 많이 받고 있는 부모교육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단 3회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교육의 연속성과 연계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결정적 시기로 신체, 인지, 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적 변화를 이룬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3단계에서 임신·신생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 전기, 학령 후기 6단계로 세분화하여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가족통합교육 정기 프로그램 운영

가족통합교육은 아버지 교육,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연 30시간 필수 운영하고 있다. 회기별 강의형태로 진행되는 자녀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1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육의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3) 자녀발달 정보 제공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발달 검사가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어머니 보고용 아동발달검사 K-ASQ, K-CDI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검사가 한국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다국어로 지원한다.

조사 결과, 일본과 캄보디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 발달이 또래보다 늦는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일본은 한국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 캄보디아는 가장 짧는데, 이 두 나라 출신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발달에 대하여 우려하는 정도가 동일하게 높다는 점은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4)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 정도 이었다. 참여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학교 입학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입학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체험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교육서비스 매뉴얼로 사용되는 「생활지도 및 입학준비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등원 훈련, 취학 전 절차와 학교 배정, 학교생활 준비, 가상 학교체험, 학교와 가정의 연락망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용 방법, 학교 행사 참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대부분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동지나 워크북을 활용한 전달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보다는 이주여성이 방문지도사와 직접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처리하기, 자녀가 다니게 될 학교와 교무실에 가 보기, 학교에 전화 걸어보기 등 자녀지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식 학습으로 개선한다.

학교 입학 준비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가 시

작되기 전인 1~2월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으로 교사가 학교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기관 및 초등학교에서 부모 지지체계 구축

자녀가 기관 이용 시 준비물 준비나 알림장 및 가정 통신문 해독이 어렵다는 비율은 26~37% 정도이고, 약 50% 정도는 교사나 원장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모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족 부모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자녀나 교사와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기관이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언어도 센터마다 달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관이나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이나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와 일반 가정 1:1 결연을 맺어 주어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 해독이나 준비물 준비 등을 돕거나 학교 정보 제공, 사교육기관, 자녀 진로 상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멘토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결연관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나.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이주여성이 입국 후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고, 요구가 또한 가장 높은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 어머니들 스스로의 한국어 사용 인식은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중국 조선족이 모두 4점 이상이고, 몽골, 일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한족은 모두 평균 이하로 점수가 낮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음과 같이 이주여성 대상의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교육과 방문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센터교육과 방문교육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방문교육은 5~10개월까지 1회 지원 가능하며, 체류기간 5년 초과 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주여성의 요구는 꾸준히 높은 편이므로, 요구가 있을 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원칙을 변경한다.

2) 한국어교육 방문서비스 개선

한국어교육을 언어교육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방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서비스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부모교육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 내용은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국어교육이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연령 및 발달 요구에 따라 단계적,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서비스 교육과정 안에 한국어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댁식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시댁식구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댁식구들의 역량이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양육 서비스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대한 교육지원도 추가되어야 한다.

시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은 접근성을 높여 방문교육사업으로 운영한다. 이주여성에게 한국 문화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시부모가 며느리 나라의 문화, 전통 등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배우자 교육은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즉, 퇴근 후 저녁이나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교육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라. 결혼이민자 지지체계 강화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34.8%가 자조모임에 안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조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 부족이 18.4%이고, 모임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가 11.9%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댁식구, 친정식구, 다문화관련 기관 사람으로 한정적이다. 양육관련 정보나 상담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도 한국인 친구는 10% 미만이었다. 따라서 이민자끼리의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가정과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보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늘린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육아정보나눔터가 육아정보 교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며,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온라인, 오프라인 자조 모임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의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자조모임은 주로 출신국별로 조직되고 있지만, 자녀 연령이 비슷한 이주 여성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양육 시 어려움을 나누면서 자녀 성장과 함께 모임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온라인상으로도 확장되어 접촉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와 일반인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여성 대부분 사회적 네트워크가 한정적이므로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이 접촉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참여,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정보 제공원예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들도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가 확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여성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출신국 언어를 통한 자원봉사나 일일교사 등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일반 가정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 강화

다문화가족 특성을 보면 가족상담 사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부부간의 많은 나이 차이, 남편의 높은 재혼율과 장애·질병률, 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나 시부모 등과의 동거 등 일반 영유아 가구와는 다른 가구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문제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전문 상담인을 확충하며, 다문화가족상담사 교육시스템과 자격제도 등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으로 개인·가족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방문사업으로 가족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상근 전문상담사를 둔 센터는 10% 이하, 비상근 전문상담사를 둔 센터도 역시 10% 이하로 주로 상담서비스는 기본 종사자, 방문지도사, 언어지도사, 통번역사, 한국어 강사 등의 일반조력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상담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방문지도사와 통번역사의 상담 능력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접촉이 많은 방문지도사, 통번역사 등이 교육서비스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상담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상담 서비스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나 접근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지역 센터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남편의 폭력, 가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즉각적으로 도움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 긴급상담전화', '한국 여성 상담센터' 등 기존 상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다국어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한 다국어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바. 결혼이민자 교육, 취업훈련 기회 확대

첫째, 평생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학력이 낮아 한국 사회적응이 수월하지 않고,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숙제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야학교 형태의 교육지원이나 인터넷 기반의 원격교육을 이용한 평생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주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대상의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인터넷 활용의 한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거리상의 이유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주 여성들에게 컴퓨터나

인터넷은 정보 제공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방문교육사업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도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컴퓨터 보급 지원도 검토한다.

셋째, 취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다문화 가족의 가정경제 상태는 열악하다. 평균 가구원수가 4.3명인데, 평균 소득수준은 182만원이다. 직업이 없다는 남편도 4.2%이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취업교육이 있으며 받고 싶다고 한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거나 직업 전문교육 기관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4. 맺는말

본 보고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와 지역사회 중심 자녀 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관련 정책, 사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고, 전국 1,80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대, 양육 역량, 양육 태도 및 정서 등 자녀 양육관련 실태와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의 수혜와 효과를 파악하고, 수요자 특성별 자녀양육 지원 사업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안된 과제 추진은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역량이나 부모 역할은 가족 내 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생태학적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인프라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 전 과정에서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 대상이 취약한 상태일 때 더욱 더 잘 나타나므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사업 강화와 확대는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식·김용숙·김규수(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이 교사-유아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9(2). 67-92.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5-124.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민정·김경은(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선희(2003). 한국 아동의 인쇄물 개념 습득과 언어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0(6). 95-115.
- 김송권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영주(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1). 51-73.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정혜숙·이미화(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 분석 및 지원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여성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 김춘화(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 김혜진(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동기와 읽기이해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가족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나동석·박종인(2008).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과권리. 12(4). 525-546.
- 나정·박은실(2003).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7(4). 95-11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각년도). 다문화가족사업 결과보고서
- 마미정·윤서연(2010). 결혼이민자 가정 외국인 부모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한국가족복지학. 15(4). 5-22.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민정·이병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1). 129-151.
- 박인옥(2009). 강원도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 조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5. 467-507.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지방정부 시행계획.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011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2011년 특수보육시책
- 사회복지공공모금회(2011). 연간보고서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해정·구현아·이현주(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미래인력연구원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설동훈·이혜영·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선희·김영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적응유연성 관련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31-53.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오재연·송미선(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51-269.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26(2). 147-68.
- 윤동화(2009).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선미·이경화(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200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열(2007).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23-144.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21-42.
- 임진숙(2008).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
-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정책 방안연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정민영·정정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유아교육연구. 30(3). 141-168.
- 조영달(2006).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 다문화가족 학생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전혜정(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최나야·우현경(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14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부 록

1. 부표
2. 조사표 및 조사 지침

부록 1. 부표

〈부표 III-2-1〉 1회 평균 음주량: 남편

단위: %(명)

구분	소주 반병 이하	소주 1병	소주 2병 이상	기타	계(수)
전체	25.6	45.7	14.5	14.2	100.0(1,234)
출신국					
중국(조선족)	31.1	48.0	10.1	10.8	100.0(148)
중국(한족 등)	27.5	44.4	14.0	14.0	100.0(171)
베트남	23.8	44.9	16.4	14.9	100.0(323)
필리핀	19.7	46.4	16.9	16.9	100.0(183)
일본	27.1	50.8	8.5	13.6	100.0(118)
몽골	25.5	45.1	13.7	15.7	100.0(51)
태국	19.5	49.4	18.2	13.0	100.0(77)
캄보디아	25.7	44.0	17.4	12.8	100.0(109)
우즈베키스탄	33.3	40.7	7.4	18.5	100.0(27)
기타/무응답	48.1	25.9	14.8	11.1	100.0(27)
지역					
대도시	28.8	42.2	14.4	14.7	100.0(320)
중소도시	24.3	48.2	13.1	14.4	100.0(313)
읍·면지역	24.6	46.3	15.3	13.8	100.0(601)

〈부표 III-2-2〉 1회 평균 음주량: 결혼이민자

단위: %(명)

구분	소주 반병 이하	소주 1병	소주 2병 이상	기타	계(수)
전체	53.3	7.7	1.8	37.2	100.0(336)
출신국					
중국(조선족)	59.7	6.5	1.6	32.3	100.0(62)
중국(한족 등)	54.0	8.0	2.0	36.0	100.0(50)
베트남	51.8	8.9	3.6	35.7	100.0(56)
필리핀	52.7	9.1	-	38.2	100.0(55)
일본	57.1	9.5	-	33.3	100.0(21)
몽골	41.9	9.7	6.5	41.9	100.0(31)
태국	48.0	8.0	-	44.0	100.0(25)
캄보디아	55.6	5.6	-	38.9	100.0(18)
우즈베키스탄	50.0	-	-	50.0	100.0(8)
기타/무응답	60.0	-	-	40.0	100.0(10)
지역					
대도시	53.4	4.1	4.1	38.4	100.0(73)
중소도시	52.2	8.9	3.3	35.6	100.0(90)
읍·면지역	53.8	8.7	-	37.6	100.0(173)

〈부표 III-2-3〉 출신국별 한국어 실력: 말하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점)
전체	3.6	10.1	42.2	30.8	12.6	100.0(1,826)	3.39
출신국							
중국(조선족)	2.0	2.5	18.3	26.2	49.0	100.0(202)	4.20
중국(한족 등)	3.6	14.3	48.7	26.3	6.7	100.0(224)	3.18
베트남	2.4	11.7	46.5	32.2	6.4	100.0(497)	3.29
필리핀	10.0	6.1	50.9	25.8	5.4	100.0(279)	3.11
일본	2.2	10.6	38.3	34.4	14.4	100.0(180)	3.48
몽골	2.2	-	27.8	50.0	20.0	100.0(90)	3.86
태국	2.1	8.2	53.6	30.9	5.2	100.0(97)	3.29
캄보디아	2.4	20.5	44.6	27.1	5.4	100.0(166)	3.13
우즈베키스탄	-	14.6	36.6	39.0	9.8	100.0(41)	3.44
기타	2.0	10.0	34.0	38.0	14.0	100.0(30)	3.54
F							28.0***

*** p<.001

〈부표 III-2-4〉 출신국별 한국어 실력: 내용 파악하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점)
전체	4.5	12.5	42.9	27.4	11.6	100.0(1,826)	3.29
출신국							
중국(조선족)	1.5	2.0	20.8	29.7	44.1	100.0(202)	4.15
중국(한족 등)	7.1	16.1	45.1	23.7	6.7	100.0(224)	3.07
베트남	3.2	16.5	49.7	25.2	4.4	100.0(497)	3.11
필리핀	9.7	6.8	48.0	27.6	6.1	100.0(279)	3.14
일본	2.8	11.1	31.7	34.4	19.4	100.0(180)	3.57
몽골	4.4	4.4	36.7	37.8	16.7	100.0(90)	3.58
태국	2.1	14.4	50.5	29.9	3.1	100.0(97)	3.18
캄보디아	4.2	22.9	45.8	21.7	4.2	100.0(166)	2.99
우즈베키스탄	-	17.1	46.3	26.8	9.8	100.0(41)	3.29
기타/무응답	2.0	10.0	50.0	28.0	8.0	100.0(50)	3.26
F							28.4***

*** p<.001

〈부표 III-2-5〉 출신국별 한국어 실력: 쓰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아님	아님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러함	계(수)	5점 평균
전체	5.1	18.6	42.1	23.1	9.9	100.0(1,826)	3.14
출신국							
중국(조선족)	3.0	6.4	15.3	25.2	48.0	100.0(202)	4.11
중국(한족 등)	9.8	24.6	45.1	14.7	4.5	100.0(224)	2.79
베트남	2.8	20.7	47.5	23.9	4.0	100.0(497)	3.06
필리핀	11.5	17.2	46.6	19.0	3.6	100.0(279)	2.86
일본	4.4	18.9	37.8	26.1	12.2	100.0(180)	3.23
몽골	3.3	20.0	30.0	36.7	10.0	100.0(90)	3.30
태국	2.1	16.5	50.5	27.8	3.1	100.0(97)	3.13
캄보디아	2.4	21.7	49.4	21.1	4.2	100.0(166)	3.03
우즈베키스탄	-	14.6	53.7	26.8	4.9	100.0(41)	3.22
기타/무응답	6.0	22.0	46.0	26.0	-	100.0(50)	2.92
F							31.3***

*** p<.001

〈부표 III-2-6〉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인터넷 검색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무응 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9.9	9.0	44.6	21.1	14.2	1.2	100.0(1,826)	3.21
출신국								
중국(조선족)	8.4	6.9	43.1	23.8	16.8	1.0	100.0(202)	3.34
중국(한족 등)	5.8	8.5	43.8	23.7	17.0	1.3	100.0(224)	3.38
베트남	13.1	13.3	49.7	15.7	6.8	1.4	100.0(497)	2.90
필리핀	5.0	4.3	36.9	27.2	24.7	1.8	100.0(279)	3.64
일본	3.9	3.9	45.6	30.0	16.1	0.6	100.0(180)	3.51
몽골	-	8.9	38.9	34.4	16.7	1.1	100.0(90)	3.60
태국	9.3	10.3	50.5	13.4	16.5	0.0	100.0(97)	3.18
캄보디아	30.7	16.3	39.8	7.8	4.8	0.6	100.0(166)	2.39
우즈베키스탄	4.9	2.4	48.8	26.8	17.1	0.0	100.0(41)	3.49
기타/무응답	6.0	2.0	54.0	18.0	18.0	2.0	100.0(50)	3.41
F								25.3***
지역								
대도시	7.9	9.0	45.6	22.7	13.7	1.1	100.0(445)	3.26
중소도시	7.1	7.8	41.4	25.4	16.8	1.5	100.0(476)	3.38
읍·면지역	12.4	9.7	45.7	18.1	13.0	1.0	100.0(905)	3.10
F								12.1***
거주기간								
4년 미만	12.9	10.1	45.0	18.1	12.4	1.4	100.0(564)	3.07
4~8년 미만	10.5	10.2	43.0	21.3	13.9	1.1	100.0(733)	3.18
8년 이상	5.8	6.4	45.8	24.6	16.4	1.0	100.0(513)	3.40
F								11.840***

*** p<.001

〈부표 III-2-7〉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이메일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무응 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14.1	15.0	33.7	19.5	16.0	1.7	100.0(1,826)	3.08
출신국								
중국(조선족)	10.9	15.3	32.7	21.8	17.8	1.5	100.0(202)	3.21
중국(한족 등)	9.4	17.4	36.6	17.4	17.4	1.8	100.0(224)	3.16
베트남	19.5	21.9	34.2	13.9	8.5	2.0	100.0(497)	2.69
필리핀	4.7	5.7	33.3	24.7	29.4	2.2	100.0(279)	3.70
일본	3.9	7.2	42.8	28.3	16.7	1.1	100.0(180)	3.47
몽골	-	5.6	32.2	35.6	24.4	2.2	100.0(90)	3.81
태국	16.5	12.4	39.2	14.4	16.5	1.0	100.0(97)	3.02
캄보디아	44.6	24.7	19.9	6.6	3.6	0.6	100.0(166)	1.99
우즈베키스탄	9.8	4.9	26.8	36.6	22.0	0.0	100.0(41)	3.56
기타	6.0	12.0	34.0	24.0	20.0	4.0	100.0(50)	3.42
F								39.4 ^{***}
지역								
대도시	12.4	16.0	33.7	20.2	16.4	1.3	100.0(445)	3.13
중소도시	9.0	12.2	33.6	25.0	18.9	1.3	100.0(476)	3.33
읍·면지역	17.6	16.0	33.8	16.2	14.3	2.1	100.0(905)	2.93
F								15.7 ^{***}
거주기간								
4년 미만	19.1	17.6	32.4	16.3	12.9	1.6	100.0(564)	2.86
4년~ 8년 미만	15.3	17.3	30.6	18.8	16.5	1.5	100.0(733)	3.04
8년 이상	7.0	9.4	39.0	24.0	18.5	2.1	100.0(513)	3.38
F								24.3 ^{***}

*** p<.001

〈부표 III-2-8〉 본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문서작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무응 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20.5	22.4	34.8	13.7	6.8	1.8	100.0(1,826)	2.63
출신국								
중국(조선족)	13.9	21.3	34.7	16.8	11.9	1.5	100.0(202)	2.91
중국(한족 등)	15.2	23.7	37.1	12.9	10.3	0.9	100.0(224)	2.79
베트남	30.2	26.8	29.0	8.7	2.8	2.6	100.0(497)	2.25
필리핀	10.8	17.9	40.9	17.9	9.3	3.2	100.0(279)	2.97
일본	9.4	20.0	42.2	19.4	7.8	1.1	100.0(180)	2.96
몽골	3.3	20.0	48.9	17.8	8.9	1.1	100.0(90)	3.09
태국	21.6	18.6	36.1	17.5	6.2	0.0	100.0(97)	2.68
캄보디아	48.2	22.3	21.7	6.0	0.6	1.2	100.0(166)	1.87
우즈베키스탄	14.6	17.1	39.0	19.5	9.8	0.0	100.0(41)	2.93
기타/무응답	10.0	28.0	34.0	18.0	8.0	2.0	100.0(50)	2.86
F								24.1***
지역								
대도시	20.9	24.9	32.4	13.0	7.6	1.1	100.0(445)	2.61
중소도시	15.1	21.2	36.6	18.7	7.1	1.3	100.0(476)	2.81
읍·면지역	23.1	21.8	35.0	11.5	6.2	2.4	100.0(905)	2.55
F								8.1***
거주기간								
4년 미만	28.0	22.0	32.1	11.7	4.3	2.0	100.0(564)	2.41
4년~ 8년 미만	21.6	25.1	31.1	13.4	7.1	1.8	100.0(733)	2.59
8년 이상	11.1	19.1	42.1	16.8	9.2	1.8	100.0(513)	2.94
F								28.8***

*** p<.001

〈부표 III-3-1〉 아동의 발달상태: 신체발달

단위: %(명)

구분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 무응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2.5	16.4	57.7	17.3	4.7	1.6	100.0(1,826)	3.05
출신국								
중국(조선족)	0.5	17.8	56.4	19.3	5.0	1.0	100.0(202)	3.11
중국(한족 등)	1.8	13.8	54.0	23.7	5.8	0.9	100.0(224)	3.18
베트남	2.8	17.5	56.7	16.1	5.6	1.2	100.0(497)	3.04
필리핀	3.2	15.4	63.8	12.2	2.5	2.9	100.0(279)	2.95
일본	3.3	20.0	56.1	17.2	2.2	1.1	100.0(180)	2.95
몽골	1.1	15.6	48.9	23.3	8.9	2.2	100.0(90)	3.24
태국	4.1	7.2	60.8	19.6	3.1	5.2	100.0(97)	3.11
캄보디아	3.0	18.1	60.8	12.0	4.8	1.2	100.0(166)	2.98
우즈베키스탄	2.4	17.1	53.7	19.5	7.3	-	100.0(41)	3.12
기타/무응답	-	16.0	62.0	20.0	2.0	-	100.0(50)	3.08
X ² (df)/F			na					2.4*
지역								
대도시	3.1	17.3	58.9	15.1	4.7	0.9	100.0(445)	3.01
중소도시	1.9	17.0	57.6	17.0	5.3	1.3	100.0(476)	3.07
읍·면지역	2.4	15.6	57.1	18.5	4.3	2.1	100.0(905)	3.07
X ² (df)/F			8.1(10)					0.9

주: * p<.05,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III-3-2〉 아동의 발달상태: 언어발달

단위: %(명)

구분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 무응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2.0	18.7	54.5	15.7	5.1	3.9	100.0(1,826)	3.03
출신국								
중국(조선족)	1.0	13.4	57.9	21.3	4.5	2.0	100.0(202)	3.15
중국(한족 등)	3.1	23.2	50.0	17.0	5.4	1.3	100.0(224)	2.98
베트남	2.2	20.7	49.3	16.1	7.0	4.6	100.0(497)	3.05
필리핀	1.8	15.4	55.6	15.8	5.7	5.7	100.0(279)	3.09
일본	1.1	18.3	64.4	11.7	1.7	2.8	100.0(180)	2.94
몽골	2.2	15.6	54.4	17.8	7.8	2.2	100.0(90)	3.14
태국	2.1	19.6	52.6	17.5	2.1	6.2	100.0(97)	2.98
캄보디아	2.4	21.1	54.2	10.8	5.4	6.0	100.0(166)	2.96
우즈베키스탄	2.4	19.5	70.7	2.4	-	4.9	100.0(41)	2.77
기타/무응답	2.0	16.0	62.0	18.0	2.0	-	100.0(50)	3.02
X ² (df)/F			na					1.8 [#]
지역								
대도시	2.9	22.2	53.0	13.5	4.9	3.4	100.0(445)	2.95
중소도시	2.1	21.6	51.9	16.0	5.9	2.5	100.0(476)	3.02
읍·면지역	1.5	15.5	56.6	16.7	4.9	4.9	100.0(905)	3.08
X ² (df)/F			22.0*(10)					3.8*

주: # p< .1, * p< .05,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III-3-3〉 아동의 발달상태: 인지발달

단위: %(명)

구분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무 응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2.2	11.9	60.5	15.6	4.0		100.0(1,826)	3.08
출신국								
중국(조선족)	1.0	9.4	65.3	19.3	3.0	2.0	100.0(202)	3.14
중국(한족 등)	0.9	9.4	62.5	17.9	5.8	3.6	100.0(224)	3.19
베트남	2.2	14.7	54.9	16.5	4.4	7.2	100.0(497)	3.07
필리핀	3.2	10.0	59.1	15.1	5.0	7.5	100.0(279)	3.09
일본	0.6	13.3	71.7	10.6	1.1	2.8	100.0(180)	2.98
몽골	2.2	7.8	62.2	15.6	7.8	4.4	100.0(90)	3.20
태국	2.1	12.4	55.7	18.6	3.1	8.2	100.0(97)	3.09
캄보디아	5.4	15.1	59.6	7.8	2.4	9.6	100.0(166)	2.85
우즈베키스탄	2.4	9.8	63.4	17.1	2.4	4.9	100.0(41)	3.08
기타/무응답	2.0	8.0	62.0	20.0	2.0	6.0	100.0(50)	3.13
X ² (df)/F			na					2.9**
지역								
대도시	2.2	14.2	60.0	15.1	4.0	4.5	100.0(445)	3.05
중소도시	1.9	11.1	62.0	16.0	4.6	4.4	100.0(476)	3.11
읍·면지역	2.3	11.2	60.0	15.6	3.6	7.3	100.0(905)	3.08
X ² (df)/F			10.2(10)					0.7

주: ** p<.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III-3-4〉 아동의 발달상태- 사회성발달

단위: %(명)

구분	많이 늦음	늦음	비슷	빠름	많이 빠름	모름/무 응답	계(수)	5점 평균
전체	1.6	9.5	63.0	14.4	5.4		100.0(1,826)	3.13
출신국								
중국(조선족)	0.5	10.9	64.9	17.3	4.5	2.0	100.0(202)	3.15
중국(한족 등)	0.4	12.9	66.1	11.2	4.5	4.9	100.0(224)	3.07
베트남	2.2	9.3	60.6	14.3	6.4	7.2	100.0(497)	3.15
필리핀	1.8	6.5	63.8	15.1	4.3	8.6	100.0(279)	3.15
일본	1.1	11.1	73.3	11.1	1.1	2.2	100.0(180)	3.00
몽골	2.2	7.8	55.6	16.7	13.3	4.4	100.0(90)	3.33
태국	1.0	6.2	60.8	16.5	7.2	8.2	100.0(97)	3.25
캄보디아	1.8	12.0	57.2	14.5	5.4	9.0	100.0(166)	3.11
우즈베키스탄	7.3	4.9	61.0	19.5	4.9	2.4	100.0(41)	3.10
기타/무응답	2.0	8.0	64.0	14.0	6.0	6.0	100.0(50)	3.15
X ² (df)/F			na					1.8 [#]
지역								
대도시	1.8	12.6	60.7	14.8	4.9	5.2	100.0(445)	3.09
중소도시	1.3	8.8	63.2	15.8	6.9	4.0	100.0(476)	3.19
읍·면지역	1.8	8.4	64.1	13.5	4.8	7.5	100.0(905)	3.12
X ² (df)/F			18.3(10)					2.3

주: # p<.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IV-1-1〉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다문화 관련 기관	기타	없음	(수)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								
대도시	47.7	10.3	9.7	2.3	12.7	20.0	-	(300)
중소도시	42.2	14.4	7.5	2.8	10.3	25.0	0.3	(360)
읍·면지역	50.2	8.5	5.1	5.5	12.2	21.1	0.2	(650)
지역별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								
대도시	20.0	6.3	15.0	2.3	42.7	18.0	0.3	(300)
중소도시	20.6	10.3	11.7	5.3	35.8	22.8	0.3	(360)
읍·면지역	23.4	5.2	9.7	5.7	36.2	22.8	-	(650)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대도시	39.7	13.0	12.7	3.0	16.0	23.7	21.0	(300)
중소도시	31.1	16.7	13.6	4.7	8.3	31.1	27.2	(360)
읍·면지역	39.8	10.5	10.3	4.5	10.5	27.7	24.3	(650)

〈부표 IV-2-1〉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단위: %(명)

구분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모름	계(수)
전체	17.4	23.4	22.9	16.8	17.1	2.4	100.0(1,826)
자녀돌보기							
대도시	16.6	21.1	25.2	17.5	17.1	2.5	100.0(445)
중소도시	17.4	24.4	22.9	17.2	16.2	1.9	100.0(476)
읍·면지역	17.8	24.0	21.9	16.2	17.6	2.5	100.0(905)
자녀교육							
대도시	24.9	22.9	22.2	14.6	11.0	4.3	100.0(445)
중소도시	26.9	22.5	22.3	15.8	10.1	2.5	100.0(476)
읍·면지역	24.0	26.3	19.6	15.0	11.9	3.2	100.0(905)
자녀와 놀아줌							
대도시	6.3	15.7	23.6	20.0	31.5	2.9	100.0(445)
중소도시	6.7	14.7	24.6	21.2	31.3	1.5	100.0(476)
읍·면지역	6.3	16.8	22.9	17.9	33.8	2.3	100.0(905)

〈부표 V-1-1〉 이용 기관에서 보내는 알림장 해독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7.8	29.5	35.6	25.7	1.4	100.0(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2.1	8.6	30.0	58.6	0.7	100.0(140)
중국(한족 등)	8.1	23.7	42.8	24.3	1.2	100.0(173)
베트남	7.4	34.9	37.8	17.7	2.1	100.0(378)
필리핀	13.6	40.2	30.2	15.4	0.6	100.0(169)
일본	3.2	10.6	38.3	46.8	1.1	100.0(94)
몽골	4.6	21.5	35.4	35.4	3.1	100.0(65)
태국	18.3	51.7	25.0	3.3	1.7	100.0(60)
캄보디아	7.7	38.5	33.3	19.7	0.9	100.0(117)
우즈베키스탄	-	34.8	30.4	30.4	4.3	100.0(23)
기타/무응답	10.3	24.1	48.3	17.2	-	100.0(29)
X ² (df)/F			na			
지역						
대도시	7.6	34.1	32.8	23.5	2.0	100.0(302)
중소도시	7.0	28.3	34.7	29.2	0.9	100.0(329)
읍·면지역	8.3	27.9	37.4	25.0	1.5	100.0(617)
X ² (df)/F			na			
거주기간						
4년 미만	12.4	36.9	31.4	16.0	3.3	100.0(306)
4년~ 8년 미만	5.6	30.1	38.9	24.5	0.9	100.0(665)
8년 이상	6.5	20.6	32.4	39.7	0.8	100.0(262)
X ² (df)/F			71.4(8) ^{***}			

주: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V-1-2〉 이용 기관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 해독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8.7	30.4	35.0	24.1	1.8	100.0(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0.7	10.0	29.3	58.6	1.4	100.0(140)
중국(한족 등)	6.9	24.3	43.4	23.7	1.7	100.0(173)
베트남	10.6	36.5	35.2	15.3	2.4	100.0(378)
필리핀	13.6	39.1	29.6	16.0	1.8	100.0(169)
일본	3.2	9.6	42.6	43.6	1.1	100.0(94)
몽골	4.6	23.1	38.5	30.8	3.1	100.0(65)
태국	20.0	53.3	23.3	1.7	1.7	100.0(60)
캄보디아	9.4	41.0	30.8	17.9	0.9	100.0(117)
우즈베키스탄	4.3	34.8	39.1	21.7	-	100.0(23)
기타/무응답	10.3	24.1	48.3	10.3	-	100.0(21)
$X^2(df)/F$			na			
지역						
대도시	9.3	32.5	33.4	22.5	2.3	100.0(302)
중소도시	8.5	28.6	35.0	27.1	0.9	100.0(329)
읍·면지역	8.6	30.3	35.8	23.3	1.9	100.0(617)
$X^2(df)/F$			na			
거주기간						
4년 미만	14.4	38.9	29.1	14.4	3.3	100.0(306)
4년~ 8년 미만	7.1	30.4	38.0	23.2	1.4	100.0(665)
8년 이상	5.0	21.8	34.7	37.4	1.1	100.0(262)
$X^2(df)/F$			73.1(8) ^{***}			

주: *** $p <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V-1-3〉 이용 기관의 준비물 준비 애로

단위: %(명)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4.6	21.6	39.2	32.5	2.1	100.0(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0.7	10.0	26.4	61.4	1.4	100.0(140)
중국(한족 등)	2.9	20.2	43.9	31.2	1.7	100.0(173)
베트남	6.9	25.9	41.5	22.8	2.9	100.0(378)
필리핀	5.9	26.0	33.1	32.5	2.4	100.0(169)
일본	1.1	3.2	42.6	52.1	1.1	100.0(94)
몽골	3.1	13.8	46.2	33.8	3.1	100.0(65)
태국	13.3	30.0	38.3	16.7	1.7	100.0(60)
캄보디아	1.7	33.3	39.3	24.8	0.9	100.0(117)
우즈베키스탄	-	26.1	34.8	34.8	4.3	100.0(23)
기타/무응답	6.9	13.8	51.7	24.1	-	100.0(21)
X ² (df)/F			na			
지역						
대도시	6.3	24.2	37.4	29.8	2.3	100.0(302)
중소도시	2.4	21.0	36.5	38.9	1.2	100.0(329)
읍·면지역	4.9	20.7	41.5	30.5	2.4	100.0(617)
X ² (df)/F			na			
거주기간						
4년 미만	6.5	29.7	39.2	20.9	3.6	100.0(306)
4년~ 8년 미만	3.6	20.2	41.8	32.8	1.7	100.0(665)
8년 이상	3.8	16.8	33.6	45.0	0.8	100.0(262)
X ² (df)/F			52.1(8) ^{***}			

주: * p<.05, *** p<.001,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V-1-4〉 이용 기관의 교사·원장과 의사소통 애로

단위: %(명), 점

구분	많이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별로 안 어려움	전혀 안 어려움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28.8	30.0	33.6	6.3	1.4	100.0(1,248)
출신국						
중국(조선족)	63.6	21.4	11.4	2.9	0.7	100.0(140)
중국(한족 등)	22.5	31.2	39.3	6.4	0.6	100.0(173)
베트남	16.1	32.5	41.0	9.0	1.3	100.0(378)
필리핀	30.2	29.6	32.0	6.5	1.8	100.0(169)
일본	38.3	35.1	22.3	2.1	2.1	100.0(94)
몽골	49.2	21.5	23.1	3.1	3.1	100.0(65)
태국	16.7	26.7	43.3	10.0	3.3	100.0(60)
캄보디아	18.8	26.5	47.0	6.8	0.9	100.0(117)
우즈베키스탄	43.5	34.8	21.7	-	-	100.0(23)
기타/무응답	27.6	51.7	13.8	3.4	-	100.0(21)
$X^2(df)/F$			na			
지역						
대도시	27.8	30.1	36.1	4.3	1.7	100.0(302)
중소도시	29.2	31.3	31.3	6.4	1.8	100.0(329)
읍·면지역	29.0	29.2	33.5	7.3	1.0	100.0(617)
$X^2(df)/F$			na			
거주기간						
4년 미만	18.6	27.5	41.2	11.4	1.3	100.0(306)
4년~ 8년 미만	29.0	30.1	35.2	5.1	0.6	100.0(665)
8년 이상	38.9	33.2	21.0	3.8	3.1	100.0(262)
$X^2(df)/F$			65.4(8)***			

주: *** $p < .001$,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부표 VI-1-1〉 도움이 되는 부모지원사업: 1+2, 1+2+3 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도우 미	아이 돌봄 지원	정보 나눔 터	상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멘토 프로 그램	나들 이	부모 방문 교육	한국 어 방문 교육	기타	(수)
1+2 순위													
전체	6.0	4.8	5.5	4.9	4.1	7.7	6.1	3.3	13.9	41.1	32.6	26.8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5.9	7.4	6.9	4.5	2.5	6.9	4.0	3.0	26.2	37.6	20.8	28.7	(202)
중국(한족등)	4.9	4.0	5.4	4.0	2.7	7.6	7.6	1.8	11.6	45.5	32.6	28.6	(224)
베트남	7.4	3.8	5.4	7.4	5.4	9.1	6.8	1.4	8.9	40.4	36.0	24.9	(497)
필리핀	7.9	3.6	9.7	5.7	5.0	5.4	7.5	7.9	13.6	40.5	33.7	23.7	(279)
일본	2.8	2.8	4.4	1.7	3.3	10.0	5.6	5.6	25.6	32.2	22.2	31.7	(180)
대만	-	33.3	-	-	-	-	33.3	-	33.3	66.7	33.3	-	(3)
몽골	3.3	4.4	1.1	5.6	5.6	4.4	2.2	1.1	6.7	42.2	25.6	36.7	(90)
태국	2.1	5.2	2.1	1.0	6.2	9.3	3.1	4.1	13.4	38.1	36.1	30.9	(97)
캄보디아	9.0	7.8	4.8	4.2	1.8	8.4	7.8	1.2	9.6	47.6	47.0	19.3	(166)
우즈베키스탄	-	4.9	2.4	2.4	4.9	2.4	-	12.2	12.2	56.1	39.0	29.3	(41)
러시아	-	12.5	-	-	-	12.5	12.5	-	25.0	37.5	12.5	25.0	(8)
기타/무응답	7.7	7.7	2.6	2.6	2.6	5.1	2.6	-	7.7	46.2	33.3	30.8	(39)
지역													
대도시	4.9	4.3	3.4	3.4	4.3	7.4	4.5	4.9	12.8	39.6	34.2	27.9	(445)
중소도시	5.7	5.5	4.4	5.3	2.9	8.2	5.5	4.8	15.3	44.5	30.9	25.4	(476)
읍·면지역	6.7	4.6	7.2	5.4	4.6	7.5	7.2	1.8	13.6	40.0	32.7	27.1	(905)
1+2+3 순위													
전체	9.1	6.9	8.7	7.0	8.2	10.1	11.0	5.6	19.1	45.5	37.6	28.1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9.4	9.9	10.4	6.9	5.4	10.4	7.4	6.4	30.7	40.1	24.8	30.2	(202)
중국(한족등)	7.6	5.8	7.6	5.4	4.9	9.8	13.8	4.0	16.5	50.9	40.2	30.8	(224)
베트남	11.1	7.2	8.2	10.7	9.5	11.3	11.3	2.6	13.7	44.5	41.4	26.2	(497)
필리핀	11.5	5.0	14.7	7.5	11.1	9.0	13.3	11.5	20.8	46.6	39.4	25.1	(279)
일본	5.0	3.3	5.6	3.9	6.1	12.8	8.3	8.3	30.6	35.6	26.1	32.2	(180)
대만	-	33.3	-	-	-	33.3	33.3	33.3	33.3	66.7	66.7	-	(3)
몽골	4.4	6.7	2.2	6.7	7.8	6.7	2.2	4.4	12.2	45.6	27.8	37.8	(90)
태국	4.1	6.2	6.2	3.1	10.3	11.3	11.3	6.2	18.6	43.3	38.1	30.9	(97)
캄보디아	13.3	10.2	10.2	6.0	8.4	8.4	15.1	1.2	13.3	53.6	51.2	19.9	(166)
우즈베키스탄	2.4	4.9	2.4	2.4	9.8	4.9	7.3	17.1	19.5	58.5	43.9	31.7	(41)
러시아	-	12.5	-	-	12.5	12.5	12.5	-	25.0	50.0	25.0	25.0	(8)
기타/무응답	7.7	10.3	7.7	2.6	5.1	7.7	7.7	2.6	15.4	46.2	38.5	33.3	(39)
지역													
대도시	7.9	6.3	5.2	4.9	8.8	10.1	8.3	8.1	18.9	43.6	38.9	28.5	(445)
중소도시	9.5	7.6	5.9	7.1	8.0	10.5	10.3	7.1	19.7	47.9	35.7	26.9	(476)
읍·면지역	9.5	6.9	11.9	8.0	8.0	9.9	12.6	3.6	18.8	45.1	38.0	28.5	(905)

〈부표 VI-1-2〉 희망하는 부모지원사업: 1+2, 1+2+3 순위

단위: %(명)

구분	임신출산지원	출산도움	아이돌봄지원	육아정보나눔터	상담	부모교육	가족자조모임	멘토프로그램	부모자녀들이	부모방문교육	한국어방문교육	기타	(수)
1+2 순위													
전체	3.3	3.7	15.1	11.8	6.6	13.1	8.5	7.8	26.7	30.4	30.0	20.6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2.5	5.0	18.3	13.4	5.9	12.4	6.4	7.9	41.1	29.2	16.8	19.8	(202)
중국(한족등)	2.7	2.2	12.9	15.6	4.5	13.4	11.2	4.9	22.3	32.1	38.8	18.3	(224)
베트남	4.0	4.6	15.7	14.5	7.0	13.1	7.6	6.0	23.3	31.8	31.4	19.7	(497)
필리핀	4.7	3.2	15.1	8.6	10.0	11.1	13.6	11.8	24.4	30.1	26.9	17.9	(279)
일본	3.9	2.2	11.7	6.1	3.9	9.4	4.4	11.1	38.3	26.7	25.0	25.0	(180)
대만	-	-	33.3	-	-	-	33.3	-	-	33.3	33.3	33.3	(3)
몽골	1.1	2.2	12.2	11.1	3.3	14.4	6.7	4.4	27.8	24.4	28.9	32.2	(90)
태국	1.0	2.1	14.4	6.2	14.4	14.4	10.3	8.2	24.7	26.8	34.0	20.6	(97)
캄보디아	4.2	4.2	16.3	13.3	5.4	17.5	5.4	6.0	18.1	35.5	36.1	21.7	(166)
우즈벡	-	-	24.4	12.2	2.4	12.2	7.3	9.8	39.0	31.7	24.4	19.5	(41)
러시아	-	12.5	12.5	12.5	-	37.5	25.0	37.5	-	-	37.5	12.5	(8)
기타	2.6	10.3	10.3	5.1	2.6	17.9	5.1	10.3	17.9	35.9	43.6	17.9	(39)
지역													
대도시	3.8	4.9	14.6	12.8	5.6	10.1	7.2	7.9	27.9	36.0	32.8	17.3	(445)
중소도시	2.5	4.2	15.8	12.2	6.3	14.9	8.6	9.7	26.3	29.0	28.2	21.2	(476)
읍·면지역	3.5	2.8	14.9	11.0	7.2	13.6	9.1	6.9	26.4	28.5	29.5	21.9	(905)
1+2+3 순위													
전체	4.3	5.0	20.8	17.4	11.0	19.7	16.0	12.5	40.4	38.6	36.2	22.2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4.0	5.9	23.8	22.3	7.4	20.3	17.3	14.4	49.5	36.6	23.3	23.3	(202)
중국(한족등)	2.7	3.6	19.2	22.3	11.6	20.1	19.6	8.5	41.1	38.8	43.8	18.8	(224)
베트남	5.0	6.0	21.9	18.9	10.7	19.1	14.1	10.3	38.2	41.0	38.8	22.1	(497)
필리핀	5.4	5.0	24.0	13.3	15.1	19.7	19.7	17.9	37.6	37.3	33.0	19.7	(279)
일본	6.1	5.6	15.6	11.7	7.8	13.3	8.3	15.6	48.3	33.3	28.3	25.6	(180)
대만	-	-	33.3	-	-	-	66.7	-	33.3	33.3	33.3	33.3	(3)
몽골	1.1	4.4	14.4	18.9	4.4	18.9	14.4	10.0	38.9	28.9	36.7	34.4	(90)
태국	1.0	2.1	22.7	8.2	20.6	18.6	21.6	13.4	39.2	34.0	41.2	21.6	(97)
캄보디아	6.0	4.2	18.7	19.3	12.0	24.7	15.7	9.0	31.9	45.8	42.8	22.3	(166)
우즈벡	-	-	29.3	19.5	7.3	22.0	9.8	17.1	48.8	41.5	34.1	19.5	(41)
러시아	-	12.5	12.5	12.5	-	37.5	50.0	37.5	37.5	12.5	37.5	12.5	(8)
기타	2.6	10.3	12.8	10.3	7.7	28.2	7.7	12.8	35.9	53.8	46.2	17.9	(39)
지역													
대도시	4.7	6.1	22.0	19.3	9.9	18.7	13.3	13.0	43.1	44.3	37.3	18.9	(445)
중소도시	4.0	5.5	20.4	17.9	11.1	21.6	15.5	14.7	39.3	37.4	33.8	23.3	(476)
읍·면지역	4.2	4.3	20.4	16.1	11.4	19.1	17.6	11.2	39.7	36.4	36.9	23.3	(905)

〈부표 VI-2-1〉 도움이 되는 자녀발달지원사업:1+2, 1+2+3 순위

구분	단위: % (명)												
	한국어 방문교육	자녀 생활 방문교육	언어 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 교실	무료건강검진	학습지도	예체능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견학 및 체험활동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지	(수)
1+2 순위													
전체	18.5	22.4	13.2	4.5	6.0	4.9	1.2	2.9	10.2	1.5	2.4	4.4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3.9	21.8	13.4	7.9	2.5	9.9	1.5	5.4	14.9	2.5	5.4	5.0	(202)
중국(한족등)	18.8	19.6	18.3	7.6	5.4	5.8	2.2	3.6	12.9	1.8	0.9	5.8	(224)
베트남	15.9	19.3	13.7	4.6	5.6	3.8	0.8	2.0	7.6	1.6	1.4	4.6	(497)
필리핀	25.4	29.4	11.8	2.9	10.8	6.1	1.1	5.7	6.1	0.4	2.5	3.9	(279)
일본	16.1	23.9	13.9	6.1	4.4	6.1	3.3	1.1	18.9	1.7	3.3	5.6	(180)
대만	66.7	33.3	33.3	-	-	-	-	-	-	-	-	-	(3)
몽골	13.3	18.9	13.3	2.2	2.2	1.1	-	1.1	8.9	3.3	1.1	3.3	(90)
태국	27.8	21.6	8.2	2.1	8.2	4.1	1.0	3.1	8.2	3.1	4.1	4.1	(97)
캄보디아	15.7	22.3	9.0	1.8	6.0	1.2	-	0.6	7.2	-	1.2	2.4	(166)
우즈베크	26.8	29.3	19.5	2.4	4.9	2.4	-	2.4	7.3	2.4	7.3	-	(41)
러시아	12.5	25.0	-	-	-	-	-	-	25.0	-	-	12.5	(8)
기타	25.6	25.6	7.7	-	10.3	5.1	-	-	12.8	-	-	2.6	(39)
지역													
대도시	15.3	17.5	10.8	4.3	4.9	3.4	1.1	2.2	12.6	2.5	2.7	2.7	(445)
중소도시	17.6	23.9	13.4	5.5	6.5	4.4	2.1	2.3	10.9	1.5	3.8	6.9	(476)
읍·면지역	20.6	24.0	14.3	4.2	6.2	6.0	0.8	3.5	8.6	1.1	1.4	3.9	(905)
1+2+3 순위													
전체	20.3	24.7	15.7	6.1	9.2	7.3	1.9	5.5	15.8	2.8	3.5	6.6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3.9	25.2	14.9	10.9	4.0	13.9	2.5	7.4	25.7	4.0	5.4	6.9	(202)
중국(한족등)	23.7	22.3	22.8	8.9	8.0	10.7	2.2	7.1	17.9	1.8	3.6	7.1	(224)
베트남	17.5	20.9	14.3	6.4	9.9	5.6	1.4	5.4	11.9	3.0	2.0	6.8	(497)
필리핀	27.2	32.3	15.4	4.7	16.1	7.5	2.9	9.3	11.8	2.5	4.3	7.2	(279)
일본	18.9	27.2	15.6	7.2	6.7	8.3	3.3	1.7	25.6	2.8	5.0	7.8	(180)
대만	66.7	33.3	33.3	-	-	-	-	-	33.3	-	-	-	(3)
몽골	14.4	22.2	15.6	3.3	4.4	2.2	-	2.2	13.3	3.3	1.1	6.7	(90)
태국	28.9	21.6	10.3	3.1	11.3	8.2	1.0	3.1	19.6	3.1	7.2	6.2	(97)
캄보디아	16.3	22.9	15.7	1.8	7.2	1.8	0.6	2.4	9.6	3.0	1.2	3.6	(166)
우즈베크	29.3	34.1	19.5	4.9	4.9	4.9	2.4	9.8	9.8	4.9	7.3	-	(41)
러시아	12.5	37.5	-	-	-	-	-	-	25.0	-	-	25.0	(8)
기타	25.6	25.6	10.3	-	17.9	5.1	-	2.6	12.8	-	2.6	5.1	(39)
지역													
대도시	16.9	19.1	12.1	4.9	7.2	4.9	1.1	3.8	17.1	3.4	4.9	3.6	(445)
중소도시	20.4	26.1	16.8	7.1	8.8	7.6	2.9	5.9	18.1	3.2	4.8	9.9	(476)
읍·면지역	22.0	26.7	16.8	6.1	10.4	8.3	1.7	6.2	14.0	2.4	2.1	6.3	(905)

〈부표 VI-2-2〉 희망하는 자녀발달지원사업: 1+2, 1+2+3 순위

단위: % (명)

구분	한국어 방문 교육	자녀 생활방문 교육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이중 언어 교실	무료 건강 검진	학습 지도	예체 능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견학 및 체험 활동	상담 및 치료	멘토 프로그램	무료 방문 학습 지	(수)
1+2 순위													
전체	19.9	24.3	17.0	18.1	11.4	21.3	10.1	5.8	15.1	2.4	3.6	13.3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2.9	20.8	15.3	21.8	6.9	22.3	14.9	4.5	21.8	2.5	7.9	12.9	(202)
중국(한족등)	20.1	23.2	17.4	27.2	8.5	24.1	9.4	3.1	14.7	1.3	0.9	15.6	(224)
베트남	23.5	25.8	17.9	14.3	11.7	21.5	8.5	7.4	11.5	2.0	1.4	13.9	(497)
필리핀	16.8	25.8	17.9	13.3	16.5	24.0	8.2	7.2	10.0	2.9	6.1	10.8	(279)
일본	13.9	17.2	12.8	24.4	13.3	17.2	17.2	4.4	30.0	2.2	6.1	12.8	(180)
대만	-	33.3	-	66.7	33.3	-	-	-	-	-	-	-	(3)
몽골	21.1	27.8	16.7	14.4	8.9	13.3	12.2	4.4	11.1	5.6	-	10.0	(90)
태국	18.6	20.6	12.4	17.5	10.3	21.6	9.3	4.1	10.3	2.1	5.2	16.5	(97)
캄보디아	27.1	31.9	21.7	17.5	9.0	21.7	4.8	7.2	11.4	1.8	2.4	12.0	(166)
우즈베크	19.5	22.0	24.4	14.6	19.5	22.0	4.9	9.8	22.0	2.4	2.4	17.1	(41)
러시아	12.5	-	12.5	-	-	25.0	37.5	12.5	37.5	-	12.5	25.0	(8)
기타	33.3	25.6	10.3	15.4	12.8	12.8	10.3	-	20.5	5.1	2.6	12.8	(39)
지역													
대도시	20.4	22.0	16.4	21.1	12.6	21.6	13.5	5.2	16.4	3.1	4.3	13.0	(445)
중소도시	18.3	22.5	14.9	18.5	10.3	21.8	12.8	6.7	17.2	2.3	4.6	16.0	(476)
읍·면지역	20.6	26.3	18.3	16.4	11.4	20.9	7.0	5.6	13.3	2.0	2.7	11.9	(905)
1+2+3 순위													
전체	23.2	28.1	22.0	24.2	16.6	29.6	16.6	9.3	28.4	4.4	7.9	25.1	(1,826)
출신국													
중국(조선족)	14.4	25.2	17.8	28.7	12.4	29.7	21.3	7.9	38.1	5.9	13.4	26.2	(202)
중국(한족등)	21.9	27.2	23.7	32.6	13.4	34.4	21.4	7.1	27.7	2.2	4.9	24.1	(224)
베트남	26.6	29.0	23.9	21.1	16.1	30.2	13.9	10.5	24.3	3.6	5.4	26.6	(497)
필리핀	20.4	30.1	23.7	18.3	21.1	31.2	14.3	10.0	22.2	5.7	10.8	22.9	(279)
일본	18.9	20.0	15.0	30.6	21.1	24.4	22.2	6.7	48.3	2.2	11.7	25.0	(180)
대만	33.3	33.3	-	66.7	33.3	-	-	-	33.3	-	-	-	(3)
몽골	25.6	30.0	21.1	20.0	14.4	21.1	18.9	8.9	22.2	6.7	3.3	18.9	(90)
태국	20.6	23.7	18.6	19.6	14.4	28.9	14.4	6.2	23.7	6.2	9.3	27.8	(97)
캄보디아	31.3	39.2	27.1	24.1	14.5	30.7	10.2	11.4	22.3	5.4	5.4	24.7	(166)
우즈베크	24.4	24.4	29.3	24.4	26.8	34.1	9.8	17.1	36.6	4.9	7.3	26.8	(41)
러시아	12.5	-	12.5	37.5	-	37.5	37.5	25.0	50.0	-	12.5	37.5	(8)
기타	38.5	28.2	12.8	17.9	20.5	17.9	20.5	7.7	23.1	5.1	7.7	28.2	(39)
지역													
대도시	22.9	25.4	20.4	28.1	18.0	29.4	20.4	10.1	30.1	5.2	10.3	25.6	(445)
중소도시	21.6	25.8	19.7	24.6	15.1	30.3	20.0	10.3	31.7	4.6	9.7	26.9	(476)
읍·면지역	24.1	30.6	23.9	22.0	16.7	29.3	12.9	8.3	25.7	3.9	5.7	23.9	(905)

부록 2. 조사표와 조사 지침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조사

시·도	동·읍·면	센터번호	일련번호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인과 국제 결혼하여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기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및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관련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조혜주 연구원(Tel: 398-7715)

응답자	주소 : 시·도 구·시·군 동·읍·면
조사자	소속: _____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름:
	직위: _____ 연락처: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답을 쓰거나 번호를 골라 √ 표시해 주세요.

1. 가구와 가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를 적어 주십시오. 가족 수 ()명
2. 귀하는 현재 남편과 자녀 이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 ② 남편의 어머니(시어머니) ③ 남편의 형제자매
 ④ 본인의 아버지 ⑤ 본인의 어머니 ⑥ 본인의 형제자매
 ⑦ 기타() ⑧ 없음

3. 귀하의 자녀 수를 아동 구분별로 각각 적어 주십시오.(※ 대상이 없는 경우는 '0'을 적으십시오.)

① 영아 (2008. 8. 1~2011. 7. 30)	② 유아 (2008. 8. 1 이전 출생)	③ 초등학생	④ 전체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4. 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기타 민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일본 ⑥ 대만 ⑦ 몽골 ⑧ 태국
 ⑨ 캄보디아 ⑩ 우즈베키스탄 ⑪ 러시아 ⑫ 기타()

5. 귀하의 부모나 조부모 중 한국인이 있습니까? ① 예 (누구:) ② 아니오

6.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7. 귀하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교 ⑦ 대학원

8. 귀하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9. 귀하가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처음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결혼 ② 취업 ③ 친척 방문 ④ 사업 또는 업무 ⑤ 유학 ⑥ 관광 ⑦ 기타()

10.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어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쇄물(교육자료, 안내장, 전단지 등)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한국어로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취득하였다면 언제입니까?

① 예 → 11-1. 국적을 취득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② 아니오 → 11-2.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영주권(F-5) ② 한국인의 배우자(F-2)
 ③ 취업 관련 비자 ④ 기타()

12.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초혼 ② 재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비혼인·동거 ⑥ 사별 ⑦ 기타()
13. 귀하는 현재 남편과 언제 결혼하셨습니다까? _____년 _____월
14. 귀하의 남편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15. 귀하의 남편은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다녔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2-3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교 ⑦ 대학원 ⑧ 잘 모름
16. 귀하의 남편은 현재 어떤 일을 합니까? _____(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17. 남편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초혼 ② 재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비혼인·동거 ⑥ 사별 ⑦ 기타()
18.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귀댁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월 평균 ()만원
19. 귀하는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까?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 ② 아님 ③ 잘 모름
20. 귀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까?
 ① 받음(누구:_____) ② 안 받음 ③ 잘 모름
21. 귀하의 남편과 본인은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남편	① 거의 매일	② 주 2-4회	③ 월 2-4회	④ 월 1회 이하	⑤ 안 마심
본인	① 거의 매일	② 주 2-4회	③ 월 2-4회	④ 월 1회 이하	⑤ 안 마심

21-1. (문항 21 ①~④로 응답한 경우) 술을 마신다면, 한번 마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마십니까?

남편	① 소주 반병 이하	② 소주 1병	③ 소주 2병 이상	④ 기타()
본인	① 소주 반병 이하	② 소주 1병	③ 소주 2병 이상	④ 기타()

22. 귀댁의 자녀를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생년월일, 성별 등을 적어 주십시오.

1)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2) 생년월일(출생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3) 성별 ① 남 ② 여				
4) 아동의 현재 건강상태 ① 건강 ② 질병 있음 ③ 장애 있음 ④ 장애·질병 있음				
5) 출생 배경 ① 현재 남편과 본인 사이에서 출생 ② 현재 남편과 다른 부인 사이에서 출생 ③ 본국에서 이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 ④ 기타(무엇: _____)				
5-1) (③번 응답한 경우) 한국 입국 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II. 부모님의 자녀양육 환경과 자녀에 대한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받아 보는 기관을 있는 대로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어린이집/유치원 ③ 학교 ④ 동사무소 ⑤ 복지관
 ⑥ 육아관련 사이트 ⑦ 종교단체(교회/성당) ⑧ 기타() ⑨ 없음

2.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 아이를 기르는 데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있는 대로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시댁 식구 ② 친정식구 ③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④ 한국인 이웃/친구 ⑤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직원 ⑥ 기타()
 ⑦ 없음

※ (문항 2에서 ①~⑥번에 응답한 경우) 아래 <보기>를 보고 문항 2-1, 2-2, 2-3에 응답하십시오.

2-1 '아이 돌보기'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2. 양육 관련 정보나 상담을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2-3.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보 기>

① 시댁 식구 ② 친정식구 ③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④ 한국인 이웃/친구 ⑤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직원 ⑥ 기타()

3. 평소에 하시는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와 놀이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아이를 도서관, 서점, 공연 등에 자주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공부를 봐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자녀양육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아플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봐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힘들어 할 때(적응, 또래관계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의 남편과 귀하의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과 남편 각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본인					남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자녀와 격이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끼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무엇을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엄격하게 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자녀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7-1로 ② 아니오

7-1.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로 누구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까? ① 남편 ② 본인

8. 귀하는 자녀양육 문제로 시댁식구(시부모, 남편의 형제자매 등)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8-1로 ② 아니오

8-1.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로 누구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까? ① 남편 ② 시부모 ③ 남편의 형제자매 ④ 본인
--

9. 귀하는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정 내 양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가정 외 양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0.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와 방문한 곳을 모두 √ 표시하고, 몇 번 방문하였는지 빈 곳에 적어 주십시오.

- ① 서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회 □ ② 놀이공원, 동물원 등 회
□ ③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회 □ ④ 체험행사(예: 캠프, 문화활동) 회
□ ⑤ 기타() 회

11. 지난 6개월 동안 부모-자녀가 문화 활동(연극, 영화, 뮤지컬 등)이나 여행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함께하였는지 적어 주십시오.

회

12.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안 함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매일
1) 남편은 평소 자녀돌보기(밥 먹이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평소 자녀교육(책 읽어주기, 숙제, 일기, 학습지도, 등하교 지도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평소 자녀와 얼마나 놀아 줍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 양육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두 보기(①, ②) 중 귀하의 생각과 더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보 기
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2) 글자와 숫자 가르치기	<input type="checkbox"/> ① 글자나 숫자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 글자나 숫자는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

III.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시원은 아동 연령별 수 배분 기준에 따라 대상 이동을 한 명만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세요.)

응답 대상 아동은 2쪽 문 22-1)의 ()번 아동으로 연령은 만 ()세

1. 현재 이 아이가 일주일에 몇 번 고정적으로 다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있는 대로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종교기관(교회, 성당, 선교원 등)
 ④ 학원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사회복지관
 ⑦ 초등학교 ⑧ 지역아동센터 ⑨ 기타(예: 문화센터, 공부방 등)
 ⑩ 없음

2. 이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남편 ③ 남편의 부모 ④ 본인의 부모
 ⑤ 남편 형제자매 ⑥ 본인 형제자매 ⑦ 결혼이민자 친구/이웃 ⑧ 한국 친구/이웃
 ⑨ 기타() ⑩ 없음

3.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의 발달상태가 또래 아동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또래보다 많이늦음	또래보다 늦음	또래와 비슷	또래보다 빠름	또래보다 많이빠름
1) 신체발달(키,몸무게,소근육,대근육 등)	①	②	③	④	⑤
2) 언어발달(말하기,읽기,쓰기,의사소통 등)	①	②	③	④	⑤
3) 인지발달(수세기, 셈하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발달(또래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시키고 싶으십니까?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⑧ 비해당

5. 이 아이는 현재 귀하의 본국어(모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다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 있는 대로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부모 ② 다른 어학 교사
 ③ 배우지 않음 -> 문항 5-1로 ④ 기타()

↓

5-1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임 ② 앞으로 안 가르칠 것임
 ③ 잘 모름 ④ 기타()

6. 귀하는 이 아이가 성장하여 귀하나 본국에 있는 귀하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늙으면 자녀가 나를 부양하고 돌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크면 나의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귀하는 자녀가 커서 귀하의 출신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희망함 ② 희망하지 않음 ③ 잘 모름

※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문항 18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8.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몇 시쯤 집에 돌아오십니까?
(오전 / 오후) _____ 시 _____ 분 정도

9.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기타 기관)에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가 매월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 _____ 천원

10.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용을 따로 내고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특별활동 개수를 빈 곳에 적고, 하고 있는 것을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총 _____ 개
- ① 영어 ② 영어 이외의 외국어 ③ 수·과학 ④ 미술
- ⑤ 음악 ⑥ 체육·발레 ⑦ 기타() ⑧ 없음

11.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계신대로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한글 교육 ② 이중언어 교육 ③ 멘토(친구, 형제맺기 등)
- ④ 방과 후 특별지도 ⑤ 기타(무엇:_____) ⑥ 없음

12.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내는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알림장 해독	① 많이 어려움	② 조금 어려움	③ 별로 안 어려움	④ 전혀 안 어려움
가정통신문 해독	① 많이 어려움	② 조금 어려움	③ 별로 안 어려움	④ 전혀 안 어려움
준비물 준비	① 많이 어려움	② 조금 어려움	③ 별로 안 어려움	④ 전혀 안 어려움

12-1. (12문항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 ① 남편 ② 시댁식구 ③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 ④ 한국인 이웃/친구 ⑤ 다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직원 ⑥ 친정식구
- ⑦ 기타() ⑧ 없음

13.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어머니 모국어(본국어)로 된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현재 받고 있음 ② 과거에 받아 본 적이 있음 ③ 받아 본 적 없음

23.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어느 정도 만족 ④ 매우 만족
24.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현재 자녀가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25. 이 아이가 현재 사교육 기관(학원, 문화센터 등)에서 받고 있는 총 과목 개수를 빈 곳에 적고, 해당 과목을 모두 찾아 √ 표시해 주십시오.
 총 _____ 개
- ① 영어 ② 영어 이외의 외국어 ③ 수·과학 ④ 미술
 ⑤ 음악 ⑥ 체육 ⑦ 기타() ⑧ 없음
26. 이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교육 기관(학원, 문화센터 등)에 부모가 매월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 _____ 천원
27.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교육 기관(학원, 문화센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어느 정도 만족 ④ 매우 만족

IV. 기타 사항입니다.

1. 귀하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편과 나는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나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부 중 주로 누가 합니까? 또는 누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생활비 지출	① 주로 본인	② 주로 남편	③ 부부 협의	④ 잘 모르겠음
2) 자녀 양육 및 교육	① 주로 본인	② 주로 남편	③ 부부 협의	④ 잘 모르겠음
3) 주택 매매 및 이사	① 주로 본인	② 주로 남편	③ 부부 협의	④ 잘 모르겠음
4) 부모 용돈 지출	① 주로 본인	② 주로 남편	③ 부부 협의	④ 잘 모르겠음

3. 귀하의 남편과 본인은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있다면 등급을 적어 주십시오.

남편	<input type="checkbox"/> ① 질병()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등급:)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
본인	<input type="checkbox"/> ① 질병()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등급:)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

V.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 대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1.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2. 수혜 여부	3. 새로 또는 계속 받고 싶은 서비스	4. (받은 경우)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①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출산도우미			①	②	③	④	⑤
	③ 아이 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④ 육아정보나눔터			①	②	③	④	⑤
	⑤ 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부모교육(예비부모, 학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⑦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자녀양육 관련)			①	②	③	④	⑤
	⑧ 멘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⑨ 부모-자녀 놀이, 견학,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⑩ 방문교육사업(부모교육서비스 또는 아동양육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⑪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⑫ 기타()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받아 본 서비스 중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5. 앞으로 귀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보기에서 3가지만 골라 받고 싶은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보기에 없다면 적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몰라서
- ②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⑤ 교통편이 없어서
- ⑥ 남편 또는 시부모 반대
- ⑦ 너무 멀어서
- ⑧ 기타()

7. 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받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7-1 중간에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모두 √ 표시해 주세요.

② 아니오

③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① 시설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③ 너무 멀어서	<input type="checkbox"/> ④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⑤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input type="checkbox"/> ⑥ 교육 시간이 자주 바뀌어서
<input type="checkbox"/> ⑦ 가정의 이사로	<input type="checkbox"/> ⑧ 남편 또는 시부모 반대
<input type="checkbox"/> ⑨ 취업으로	<input type="checkbox"/> ⑩ 일이 바빠서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8. 귀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양육 관련 부모 지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VI. 자녀 대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자녀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를 읽고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1.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2. 수혜 여부	3. 새로 또는 계속 받고 싶은 서비스	4. (받은 경우) 자녀의 성장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①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② 방문교육사업(자녀생활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③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④ 언어영재교실(이중언어교실)			①	②	③	④	⑤
	⑤ 무료 자녀건강검진			①	②	③	④	⑤
	⑥ 학습지도			①	②	③	④	⑤
	⑦ 예체능교육			①	②	③	④	⑤
	⑧ 한국 문화이해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견학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⑩ 상담 및 치료			①	②	③	④	⑤
	⑪ 멘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⑫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③	④	⑤
	⑬ 기타()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받아 본 서비스 중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6. 자녀가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를 보기(① ~ ⑬) 중에서 3가지만 골라 받고 싶은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7.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늦게 돌아와서
- ② 학원 이용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③ 아이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멀어서
- ⑤ 아이가 어려서
- ⑥ 남편 또는 시부모 반대
- ⑦ 별 필요를 못 느껴서
- ⑧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⑨ 기타()
- ⑩ 잘 모르겠음

8.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7-1 중간에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 표시해 주세요.
 - ② 아니오
 - ③ 비해당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학원이용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 <input type="checkbox"/> ②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
| <input type="checkbox"/>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멀어서 | <input type="checkbox"/> ④ 아이가 싫어해서 |
| <input type="checkbox"/> ⑤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input type="checkbox"/> ⑥ 교육시간이 자주 바뀜 |
| <input type="checkbox"/> ⑦ 가정의 이사로 | <input type="checkbox"/> ⑧ 남편 또는 시부모 반대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9. 귀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대상 지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Ⅶ. 귀하 또는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받아 본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방법 】

- ① 아래 보기 중에서 받아 본 서비스를 모두 찾아 '수혜 여부' 칸에 √ 표시 하세요.
- ② √ 표시한 서비스에 한해 제공기관, 서비스 유형(가정방문서비스, 기관 방문), 이용 횟수, 도움되는 정도에 대하여 내용을 적거나 ○ 표시 하세요.

1. 귀하가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의 다른 기관(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받아 본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내용	수혜 여부	제공 기관 ①종교기관(교회,성당 등) ②사회복지관 ③행정기관(구청,군청 등) ④기타()	서비스 유형			이용 횟수	자녀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① 가정 방문	② 기관 방문	③ 둘다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1) 임신·출산 지원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2) 신생아 관리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생활 및 건강지도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4) 부모교육(예비부모,학부모교육 등)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생활 및 학습지도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양육 및 자녀문제 상담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7) 부모-자녀 놀이, 견학, 체험활동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8) 멘토 프로그램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돌보미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2. 이 자녀가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기관(종교기관,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등)에서 받아 본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내용	수혜 여부	제공 기관 ①종교기관(교회,성당 등) ②사회복지관 ③행정기관(구청,군청 등) ④기타()	서비스 유형			이용 횟수	자녀성장·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① 가정 방문	② 기관 방문	③ 둘다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로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1)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2) 이중언어교육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3) 학습지도(일기,숙제,수학 등)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4) 무료 학습지(한글,수학 등)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5) 예체능교육(음악,미술,체육 등)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건강검진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7) 상담 및 치료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8) 멘토 프로그램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	②	③	회	①	②	③	④	⑤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조사」 조사표 작성 지침

- 조사 대상 :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2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
- 조사 대상 : 전국 2,000명
- 조사 기간 : 2011. 8. 1(월) ~ 8. 20(토) 전국 동시 실시
(조사표 수거: 2011. 8. 22(월) ~ 8. 30(화)까지)
- 조사 방법 : 전국 200개 센터 소속 방문지도사 및 방문교육 담당자를 통한 면접조사 원칙(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따갈로그어 등 8개국어로 번역된 조사표와 한국어 조사표 제공)
- 조사원 교육 : 2011. 7. 6(수)~7. 7(목) 전국 11개 거점센터 방문교육 담당자 대상 실시
- 조사 지침
 - 1) 조사표 배포 기준 : 센터에 할당된 조사표는 국가, 자녀 연령, 센터 이용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 국가별 기준(부수) : 베트남(3), 중국(3), 필리핀(2), 캄보디아(2), 일본(1), 태국(1), 몽골(1), 기타
 - 자녀 연령 : 영유아(만5세 미만)와 초등학생은 8:2 정도로 조사
 - 센터 이용 :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7:3 정도로 조사

2) 조사원 역할

구 분	담당 역할
① 방문교육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지도사별로 국가, 연령 등 조사대상자 특성 고려하여 조사표 할당 책임 ▪ 조사표 배포 및 수거 총괄(조사표 수거 시 조사표 검수) ▪ 조사원(방문교육 지도사) 관리 ▪ 조사참여 사례비(상품권) 관리 및 정산
② 방문교육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 이용자/비이용자 대상 조사 실시

3) 조사표 구성 및 문항별 응답 대상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응답자 구분
I. 가구와 가구원에 관한 질문	1~22	조사 대상 전원
II. 부모님의 자녀양육 환경과 자녀에 대한 기대	1~13	조사 대상 전원
III. 자녀에 대한 질문		
- 자녀에 대한 일반적 사항	1~7	조사 대상 전원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 관련 질문	8~16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자녀 어머니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 관련 질문	17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어머니
- 초등학교 관련 질문	18~24	초등학생 어머니
- 학원이나 문화센터 관련	25~27	학원, 문화센터 이용 자녀 어머니
IV. 기타 사항	1~9	조사 대상 전원
V.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 대상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서비스	1~9	조사 대상 전원
VI. 자녀 대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1~9	조사 대상 전원
VII. 부모와 자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타 기 관 서비스 이용	1~2	조사 대상 전원
※ 조사 후 조사원 기록 사항		조사원 직접 기입

연구보고 2011-13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 7, 10,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79-0 93330